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ULY 1988. NO. 232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 建築士 發行日次：1988. 7.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特)級 認可 郵便番號：13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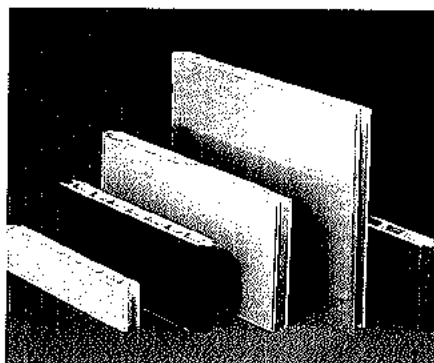


1988.7



●동일신약GMP 공장 ●설계·감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프르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 킨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제14회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 作品公募

The 14th Architects' Design Show

本協會에서 年例行事로 開催하는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을 다음과 같이 開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88서울올림픽이 開催되고 또한 本協會에서 아시아지역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면서 本展示會를 병행 개최하게 됨에따라 아시아지역 13개국 建築士와 기타 세계각국의 參觀國 建築士들에게 作品이 公開됨을 감안, 작품 접수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수준높은 作品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제출 마감일 8월 30일을 엄수하여 「작품집」이 전시회 개최와 동시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품요령

1985년부터 1988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 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 패널에 게재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 패널수량 : 1작품당 3개 이내
-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 (명함판) 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
패널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패널접수 : 9월15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 상(1) : 건설부장관상
- 최우수상(2) : 협회장상
- 우 수 상(2) : 협회장상
- 장 려 상(6) : 협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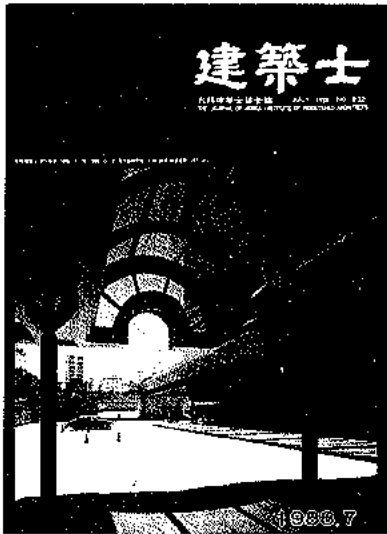
■ 기타 유의사항

-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 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 후원

- 건설부

 大韓建築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표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진: 정정웅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興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拱碩, 卞鎔, 金晶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57-071

電話: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ックス: KIRAA 33550

登錄番號: 第4-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洸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建築士

차례

1988년 7월호(통권 232호)

會員作品(호텔 및 레저시설)

- 7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주) 공간건축건축사사무소
- 10 호텔 리베라 宋基德
- 12 스위스 그랜드 호텔 宋信憲
- 14 수안보 파크호텔 曹龜鉉
- 16 태백 관광호텔 金敎培 + 金鎬慶
- 18 제주 와싱톤 호텔 柳春秀
- 20 경주 보문 골프 클럽하우스 金圭吾
- 22 알프스호텔 및 스키장 金圭吾

이달의 詩

- 6 木川日誌 유재영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 學術토론회

연구

- 28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⑤ / 헬무트, 루돌프 안 成仁洙
- 42窓計劃과 在室者의 心理 李龍雲
- 46構造電算의 事務化 技法에 關하여 咸性權

일하며 생각하며

- 45 도시의 색채환경을 위하여 劉永鳳

설계경기 / 신한은행지점신축예정건물 기본형 지명 현상공모

- 50 설계경기 개요
- 52 회림건축(案)
- 56 김중업건축(案)
- 60 정일엔지니어링(案)
- 64 間·三 건축(案)
- 68 藝 건축(案)
- 72 서인건축(案)
- 76 원도시건축(案)
- 80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 / 政治와 行政의 差異는? 崔昌奎

82 宋寬植先生을 追慕하며

84 協會消息

88 建築行政 中樞室

92 法令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32 호
구입년월일	1988. 7. 3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본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소통 1603-55 / 581-5715-8

사대문분소 / 사대문구인하동 169-16 / 333-1873
반악분소 / 반악구신림동 1422-17 / 888-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13 /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가 81 /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길내동 317-4 /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95-0787
성동분소 / 성동구미곡동 252-16 /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성동 101-7 / 923-6213
종로분소 / 종로구명륜동 201-1 /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노화동 250-4 /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 50-12 / 423-9158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 11-2 / 252-6507
홍남분소 / 홍남구인하동 1가 129-22 /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 1623-1 /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응암동 103-12 / 356-7172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 147-79 / 539-6751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 241-6 /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강릉동 617-6 / 976-1836
알천분소 / 알천구신정동 1027-9 / 646-7172
송평분소 / 송평구양우동 516-41 / 491-0025
성북분소 / 성북구암신5가 410 /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 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피트네)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 1-8 /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223)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동 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외곽로 3가 124-5 /
(0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1)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산동동 5512 / (0342) 2-5445
여주분소 / 여주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충남분소 / 충주시신성동 21 /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 38호 106호 /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동 216-8 /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7 / 682-2875
김천도지부 / 김천도순천시죽전동 3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 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강내동 6 /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8 / (0392) 2-5081
산천분소 / 삼척시삼척동 55-43 / (0397) 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 1리 959-35 / (03732)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6-168 /
(0431) 2-275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동동 8-8 /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보은읍남산리 139-4 / (0433) 248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 487-1 /
(042) 22-4088

취안분소 / 취안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호암리 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문리 710-2 / (045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시소동 635-5 (대북빌딩 508)
(0652) 3-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 1가 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화정동 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 783-23 (추진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 1번지 / (0631) 43-3348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 51-11 / (0661) 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 441번지 / (0652) 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가 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파동 96-70 / (0562) 74-9713
강주분소 / 경주시노포동 100-1 / (0561) 3-7743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문동 29-5 / (0571) 2-6635-6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 280-1 /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점촌분소 / 점천시점촌동 261-2 / (0581) 2-2706
창주분소 / 창주시남성동 11-3 /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13 /
(0551) 2-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 / 충주시서호동 177-101 / (0537) 2-2504,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 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동 67-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가장읍내동 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도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 425-1 / (0642) 62-3920, 3322

CONTENTS

July 1988 Vol. 232

WORKS (Hotel & Leisure Facilities)

Ramada Renaissance Hotel Seoul	Space Group of Korea	7
Riviera Hotel	Song, Kee-Duk	10
The Swiss Grand Hotel	Song, Sin-Heon	12
Suanbo Park Hotel	Cho, Koo-Hyun	14
Taeback Tourist Hotel	Kim, Yeon-Bae & Kim, Ho-Kyung	16
Cheju Washington Hotel	Ryu, Choon-Soo	18
Golf Club House Bomoon	Kim, Kyu-O	20
Alps Hotel & Ski House	Kim, Kyu-O	22

POEM

Mokchön Diary	You, Jea-Young	6
---------------	----------------	---

SPECIAL ISSUE / Introduction of the ACA-3 Conference		24
--	--	----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S

Helmut Jahn	Seung, In-Soo	28
-------------	---------------	----

REPORT

Window Planning and Psychology Phenomenon	Lee, Yong-Woon	42
Program Technique of Structural Design	Ham, Song-Kwon	46

ESSAY

For Urban Color Surrounding	You, Young-Bong	45
-----------------------------	-----------------	----

COMPETITION / Shin han Bank

Hilim Architects & Engineers Plan		52
C. U Kim-Associates International		56
Jungil Engineering Architects Engineeri & Planner Plan		60
Group-3 Architects & Associates Plan		64
Art Group Plan		68
Scoinn Design Group Plan		72
Archiban Architects Group Plan		76

COLUM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hoi, Chang-Kyu	80
--	-----------------	----

THINKING OF THE LATE SONG, KWAN-SIK

		82
--	--	----

KIRA NEWS

		84
--	--	----

ARCHITECTURE RELAY STATION

		88
--	--	----

LAWS AND ORDINANCES

		92
--	--	----

本 日 誌

- 봉대감은 유관순, 흰 옷 입은 신채호, 홀육한 이등병이 생시처럼
살아 있어 가만히 귀를 뉘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님의 수틀 속에 숨어 피는 백일홍
백일홍 이름만큼 잊고 산 고향 목천
지금도 고모 택호가 목천택이라든가
누우면 가만가만 떠오르는 그것들
패랭이꽃, 풍금소리, 지는 낮달, 낡은 무덤,
그렇지 저녁 나절을 동여매던 뜰복을음!
십리허에 잠시인듯 금강도 부려놓고
언제나 한 발짝쯤 물러서 앉아 있는
목천은 흰옷을 입고 백제처럼 살고 있다.

유 재 영

◆ 著者略歴

유재영

충남 천원에서 태어남

1973년 박목월·이동주 수필상으로 문단에 바움.

1983년 시집『한 방울의 화』(평민사) 권 4 인집

『대 산림의 열매』(문학과 시정사)를 펴냄.

같은 해에 『중앙 지도 문학대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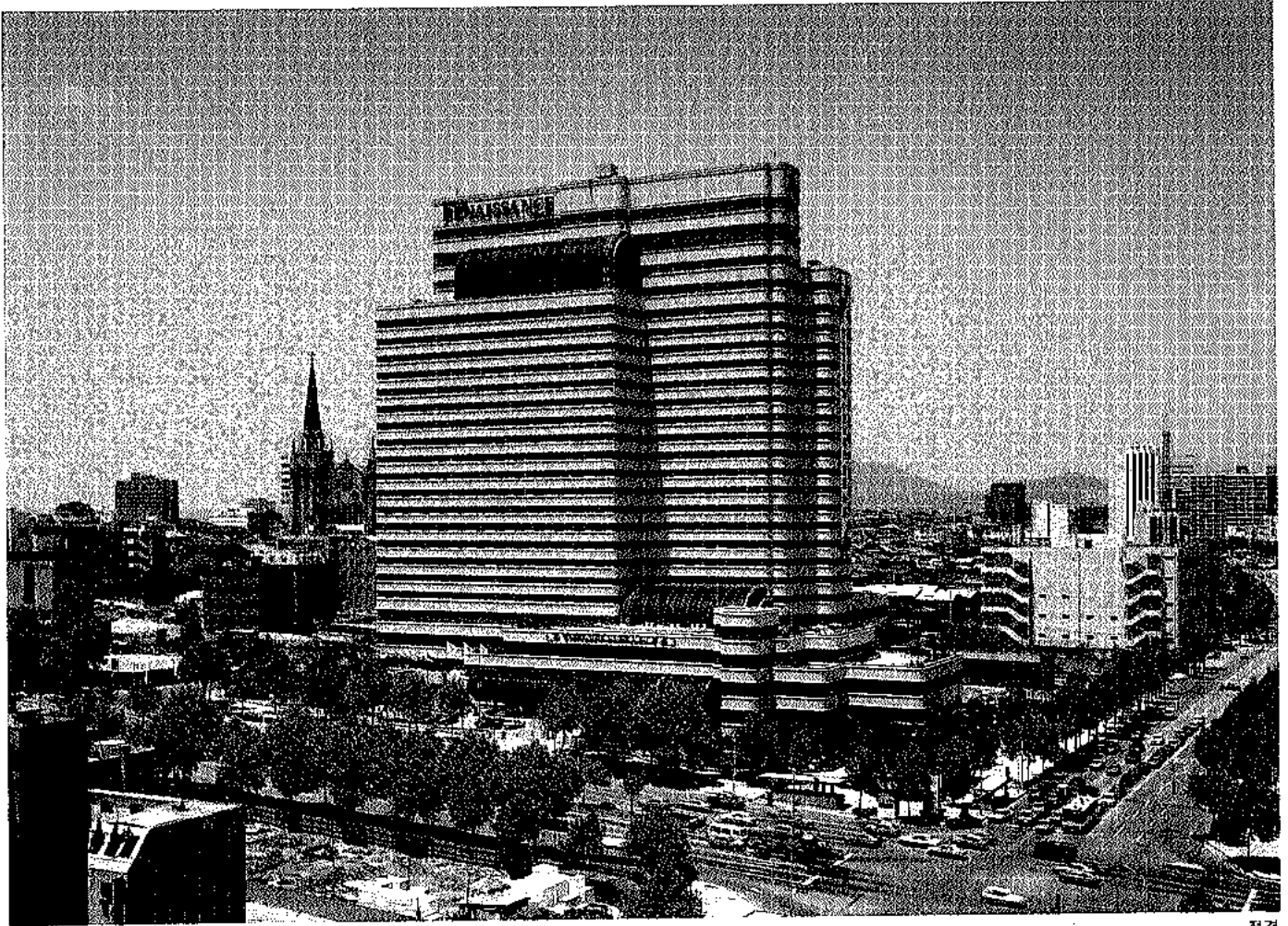
『중앙일보』로 부터 만음.

現 學 術 大 臣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Ramada Renaissance Hotel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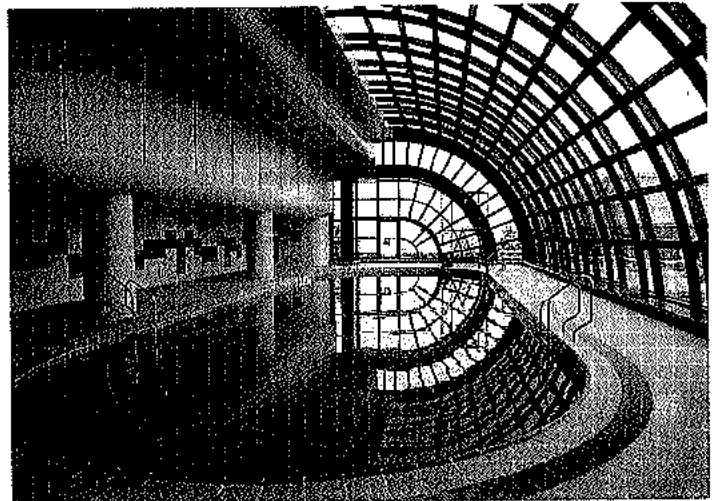
(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Space Group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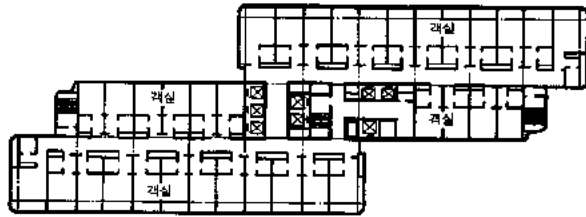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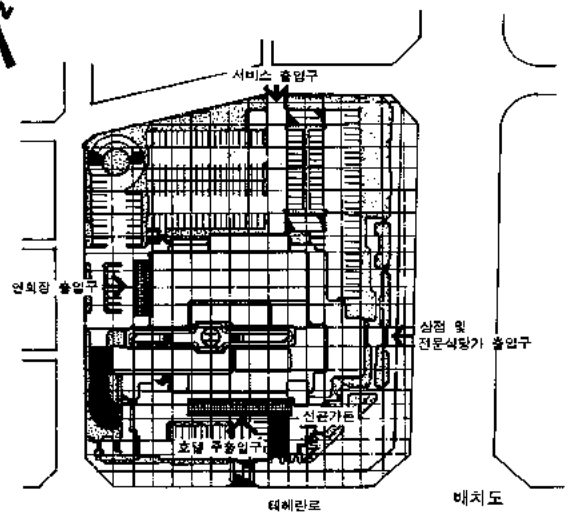
식당



실내수영장



기준층 평면도



테헤란로

배치도

설계담당 / 鄭鍾榮 (공간종합건축 이사)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대지면적 / 18,035.28m²

건축면적 / 5,731.03m²

연면적 / 72,022.19m²

건폐율 / 31.78%

용적률 / 27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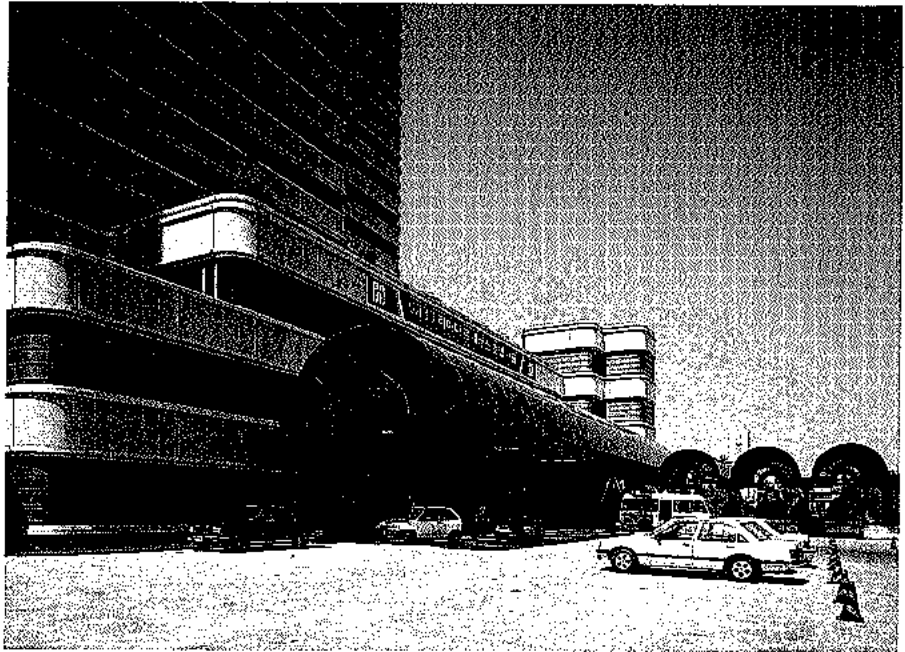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지상 24층, 옥탑 2층

구조 / 철골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 / P.C와 자기질타일, 알루미늄판넬,

복층유리

인테리어설계 / 서울건축+Graham Solano Ltd.



주출입구 및 저층부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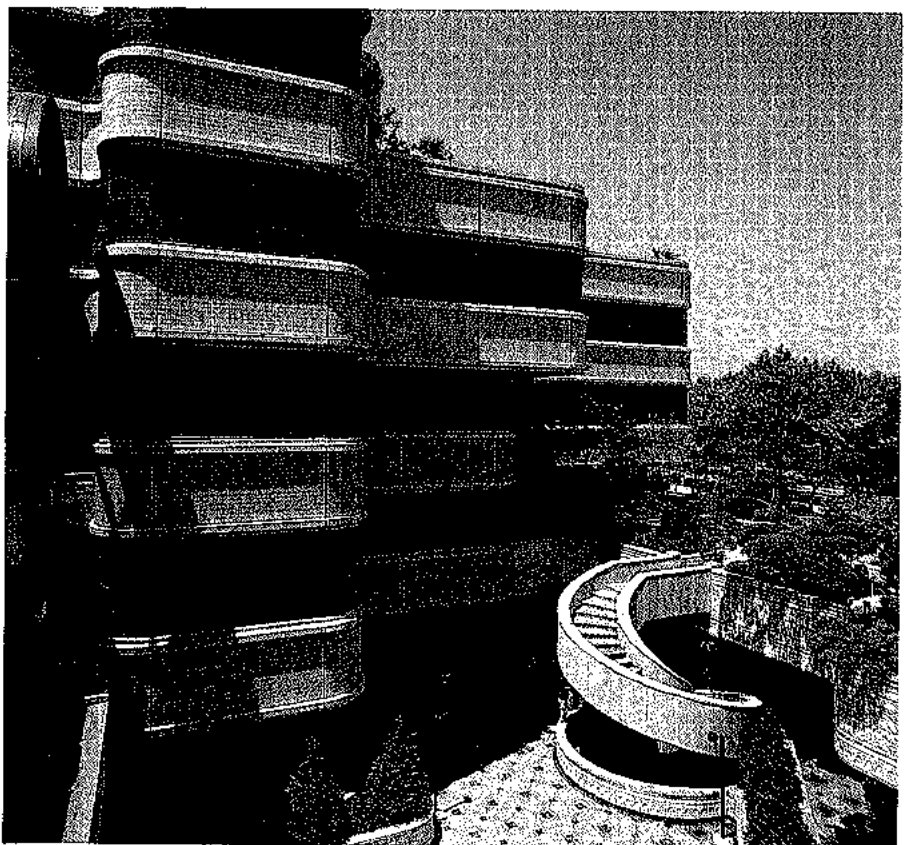
호텔건축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건축에 임할 수 있다고 하여 흔히들 「건축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한국 건축계의 실정으로 「호텔건축」의 현 단계는, 500 객실 이상의 특급 호텔의 경우 합리적인 경영과의 함수관계에 입각하여 건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자본의 인식하에 순수한 국내 설계의 자격 접근이 차일피일 마루어 오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본 호텔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국내의 설계상한선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정표로서 한변쯤은 거론될 필요성을 갖는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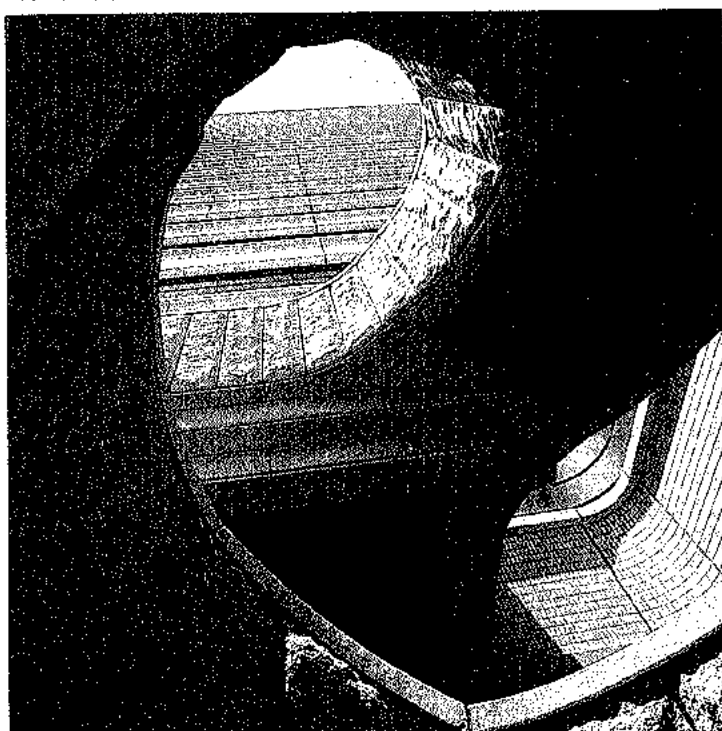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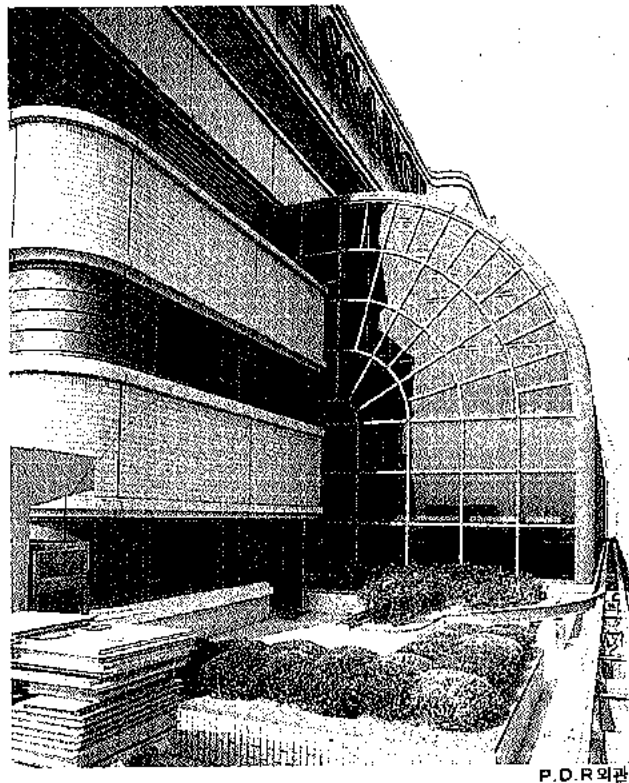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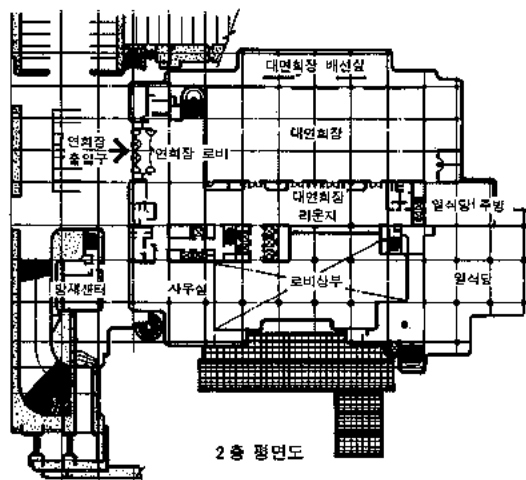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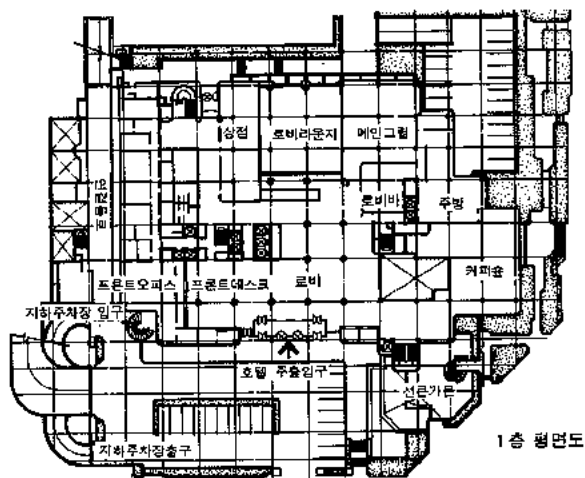
또한 한사람의 건축가가 지녔던 초기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 그것이 건축가의 역량 탓이 아닌 生死와 연관되어 -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프로젝트였다.

와장재에서, 더러는 일부 외부조경으로부터湧겨오는 안티 (anti) 空間의 요소들은 건축의 기생적 변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으며 논리로서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을 건축주 측면에서 지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개념의 이질적 접근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테리어 및 일부 조경등의 설계 및 시공이 본 설계와는 무관하게 외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건물 내외부공간의 디자인 어휘가 대립되는 시기에 눈을 뜨게 되면 또 한번 「건축의 매뉴」은 건축가의 본성을 깨우는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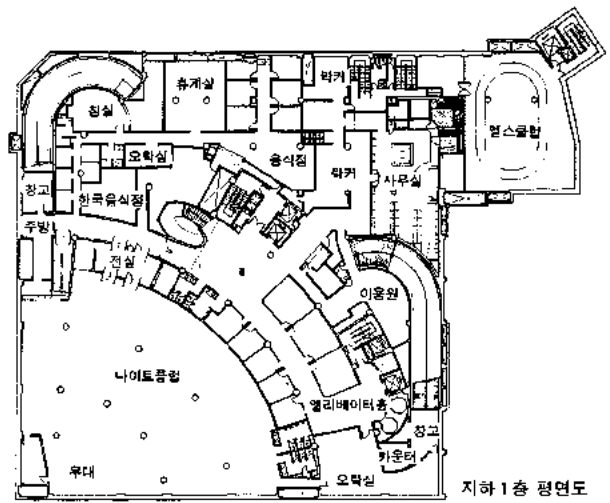
신관기둥



리베라 관광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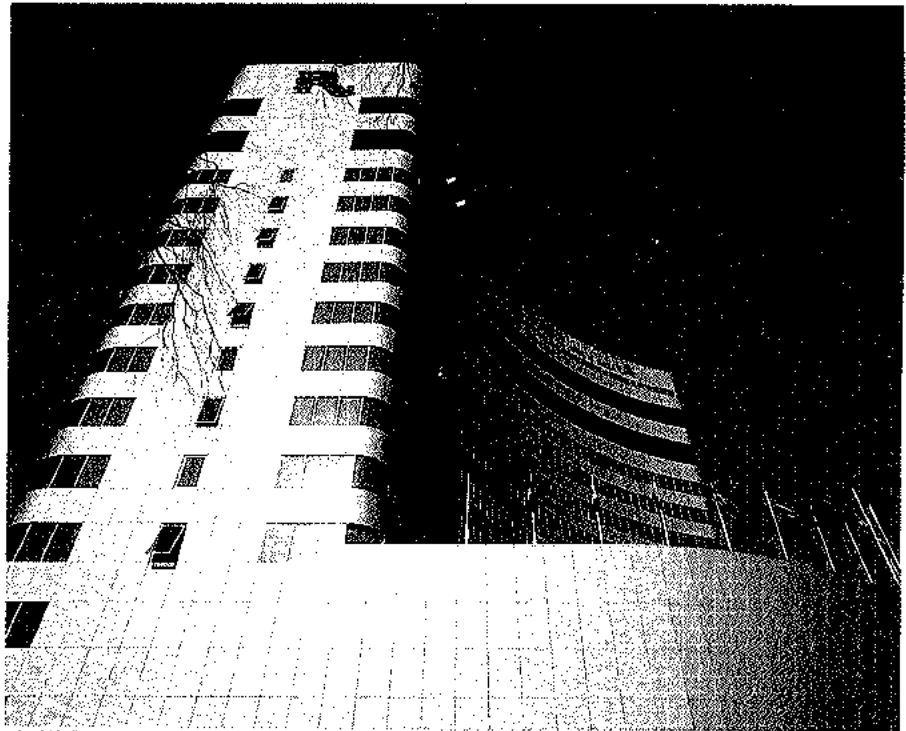
Riviera Hotel

宋基德 / (주)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ee-Duk



지하 1층 평면도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지면적 / 5,320.3m²
건축면적 / 1,522.32m²
연면적 / 30,010.97m²
건폐율 / 28.61%
용적률 / 240.37%
규모 / 지하 5층, 지상 15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168대 (법정 : 162대)
외부미감 / 외벽 - 금속판 (알루미늄 및 범랑) + 단열판
창호 - 컬러 알루미늄 + 스테인레스
유리 - 착색강화유리 + 복층유리 (열선반사)
인테리어설계 / 서일인테리어 (연회장)
우원인테리어 (사우나)
단청사인테리어 (로비 · 식당)
탐인테리어 (기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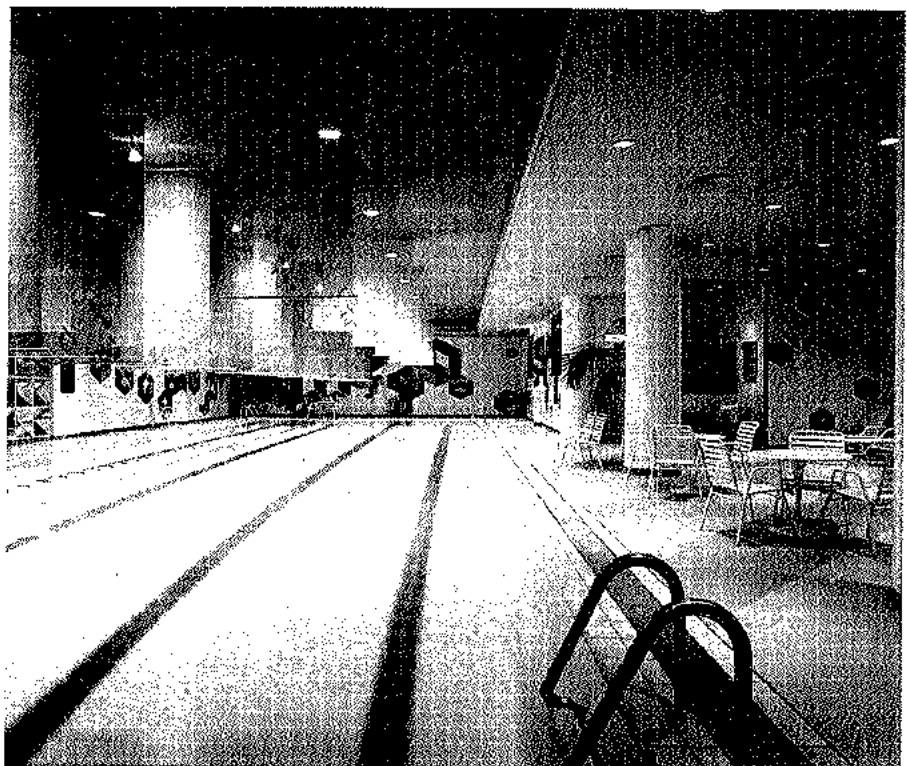
축면상세

설계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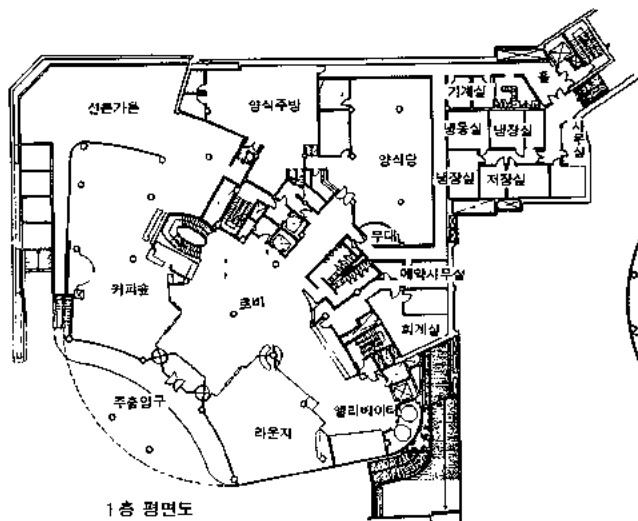
호텔의 일반적인 박스형태에서 벗어나 부채살 형태의 곡선을 모티브로 택한 이 호텔은 강북에서 영동교를 넘어 로터리에 이르면서 좌측 전면에 플로즈 업 된다. 건물의 이러한 곡선의관은 채광효과와 동향의 조망효과를 살리기 위한 입면계획이었으나, 새로운 호텔로서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한층 도움을 주었다.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와의 레벨차가 9m나 되는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한강의 경관을 객실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계획한 이 호텔은 1.5km 거리에 서울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어 호텔의 입지여건으로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호텔 객실과 연회장, 출입구를 1층과 3층에 각각 분리시켰으며, 직원 및 물품서비스 출입구는 북쪽 후방에 따로 두어 명쾌한 동선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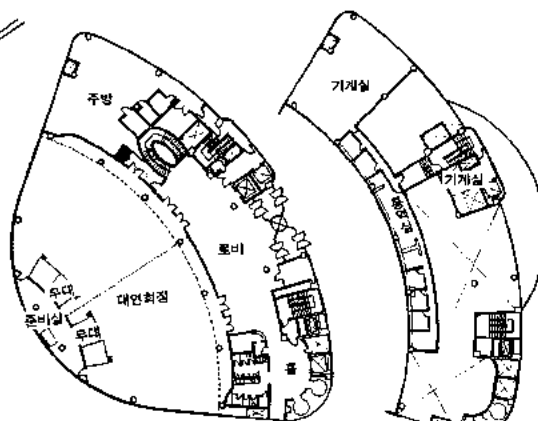
그리고 구조 Grid Pattern 이 원점을 중심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실의 벽 및 기구배치를 이에 맞추었다. 이러한 방사선 형태의 구조로 인해 지하 주차장의 계획이 가장 힘들었으나 이점은 오히려 방사선 형태를 이용하는 주차배치를 함으로써 멋지게 해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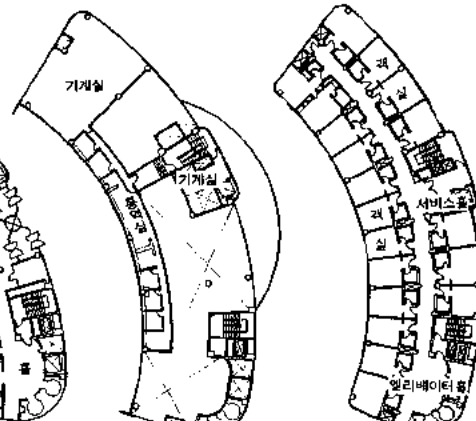
실내수영장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중층 평면도



기존층 평면도



전경



제단실에서 본 로비 및 조형물



중층로비



로비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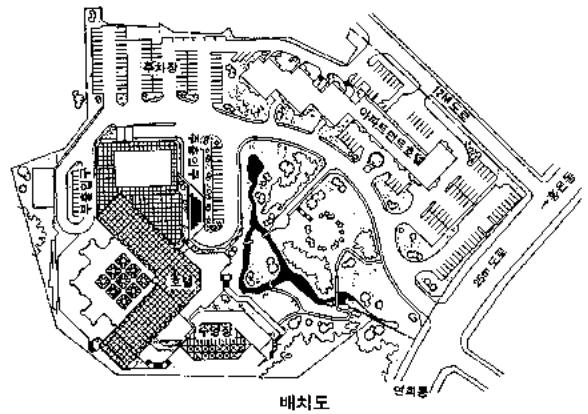


1층 양식당

스위스 그랜드 호텔

The Swiss Grand Hotel

宋信憲 /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Sin-Heon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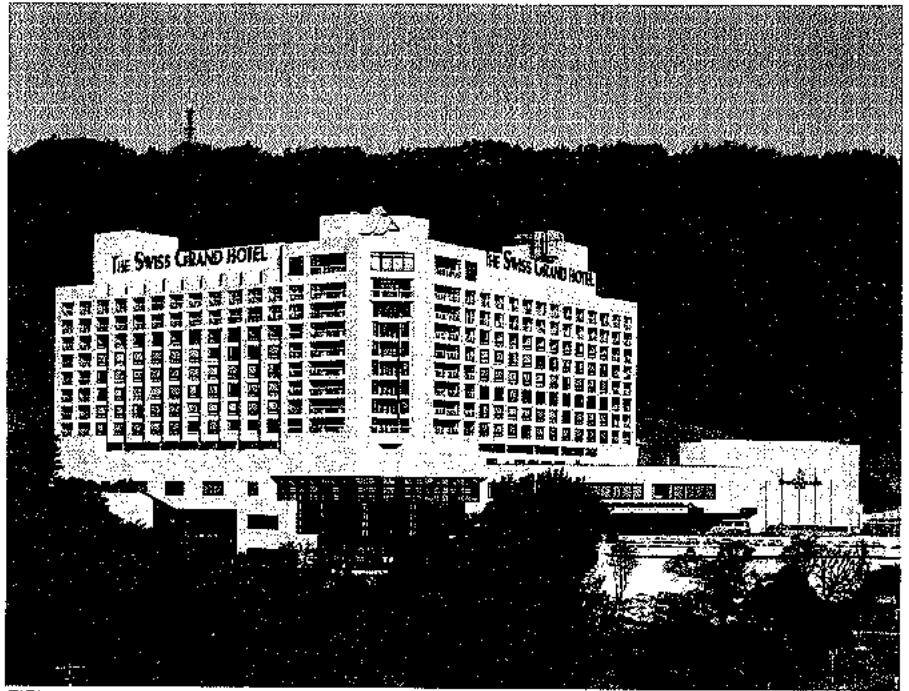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1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제 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37,731m²
건축면적 / 11,233m²
연면적 / 52,060.6m²
건폐율 / 29.8%
용적률 / 86.8%
층수 /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2층
구조 / 고층부(4~12층) : FLAT PLATE SLAB+
COLUMN 구조
저층부(지하 3층 - 3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아트리움 및 수영장 : 철골조
최고높이 / 48.8m
설계자문 / W. B. T. L. (미국)
조경설계 / 시인조경
인테리어설계 / 서울건축 + Graham Solano Ltd.

설계소요

기존 계획을 보존하기 위해 호텔의 전면 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진입로 우측에 여유대지를 확보하여 장래 아파트먼트 호텔의 증축계획에 대비하였다.

객실부는 주출입구와 객실 수직동선의 관제를 고려하여 건물의 정면으로 배치하고 고층부와 후면 계곡사이의 공간을 대형의 천장을 가진 3개층 높이의 아트리움으로 처리하여 후면의 자연경관이 실내에 유입되도록 고려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접근을 실내외의 폭포 및 조경이 뒷받침하여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지하층, 1층, 2층의 공용 부대시설들은 이 호텔의 주공간인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아트리움이 호텔의 전 공용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로비, 복도등의 CIRCULATION 공간도 의도적으로 여유있게 확보하여 호텔의 다양한 수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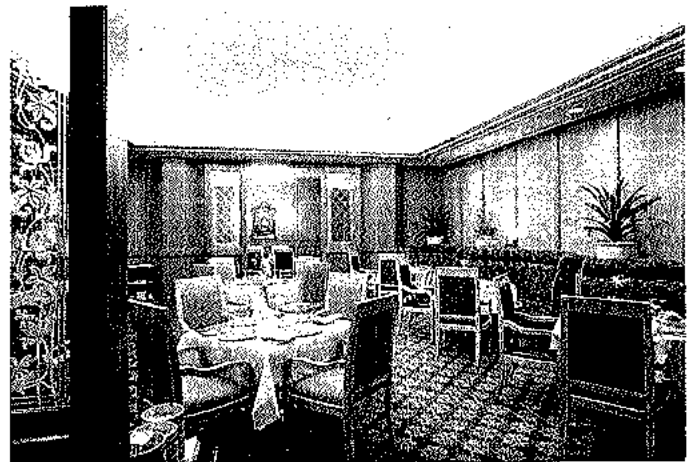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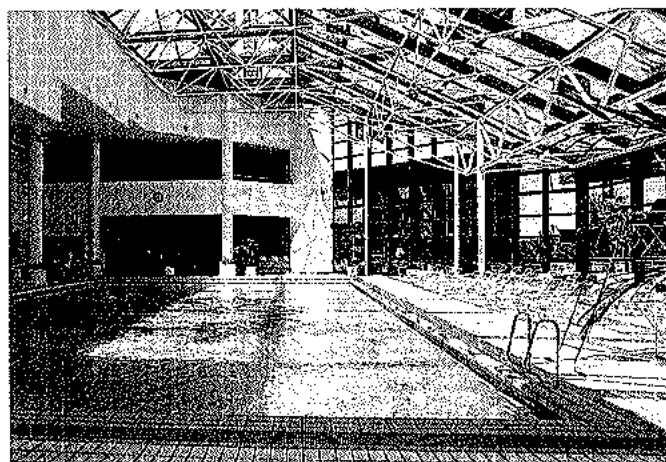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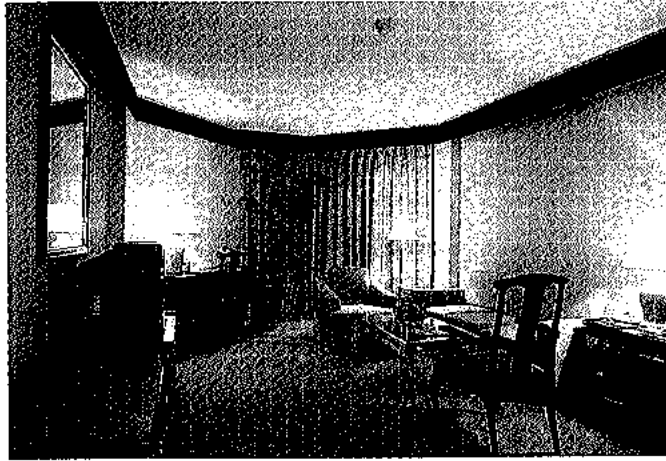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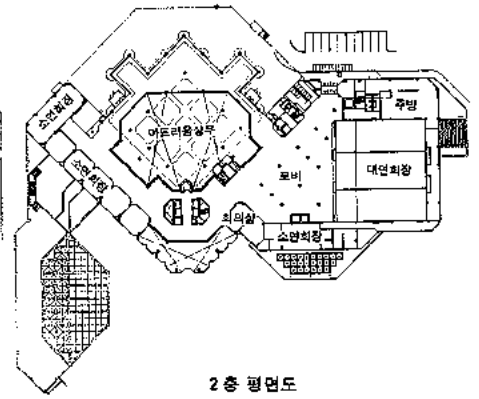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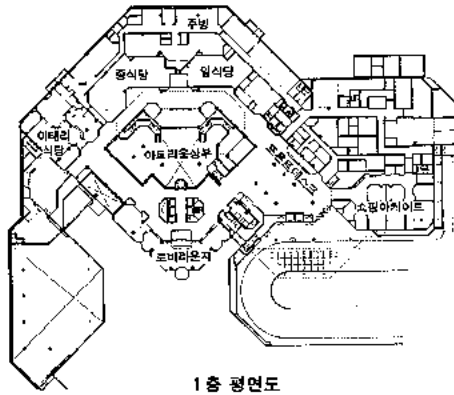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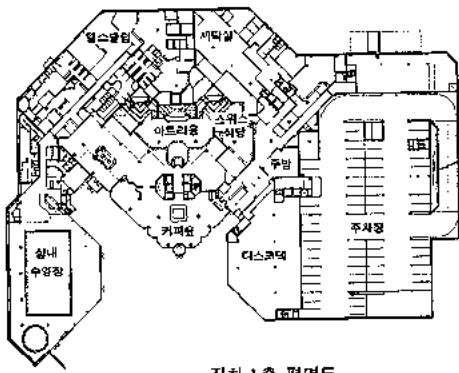
또한 고층부 8개층(4층 - 11층)에는 객실만을 배치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혼잡을 방지하여 객실에서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외관에 있어서는 예복시수지 스페이의 외장이 가지가 쉬운 단순함을 본 호텔에서는 조각적 입면처리로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입면으로서 객실에서는 객실간의 시선차폐 효과 및 복층의 채석장과 남측의 인접 주거지역으로의 조망을 외관에 있어서는 예복시수지 스페이의 외장이 가지가 쉬운 단순함을 본 호텔에서는 조각적 입면처리로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입면으로서 객실에서는 객실간의 시선차폐 효과 및 복층의 채석장과 남측의 인접 주거지역으로의 조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전경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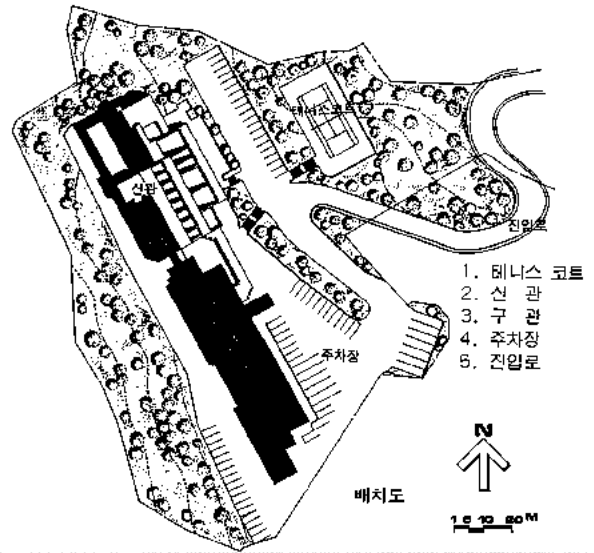


수안보 파크 호텔

Suanbo Park Hotel

曹龜鉉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Koo-Hyun



◆
대지위치 / 충북 증원군 상모면 온천리
대지면적 / 23,341㎡
건축면적 / 3,370.815㎡
연면적 / 9,129.845㎡

지하층 / 2,99.65㎡
지상1층 / 3,247.015㎡
지상2층 / 2,099.55㎡
지상3층 / 1,483.625㎡

건폐율 / 14.44%
용적율 / 29.26%
주차대수 / 63대
최고높이 / 15.10m
지역 / 자연녹지지역
주요구조부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재 / 적벽돌치장쌓기
인테리어설계 / 신세대건축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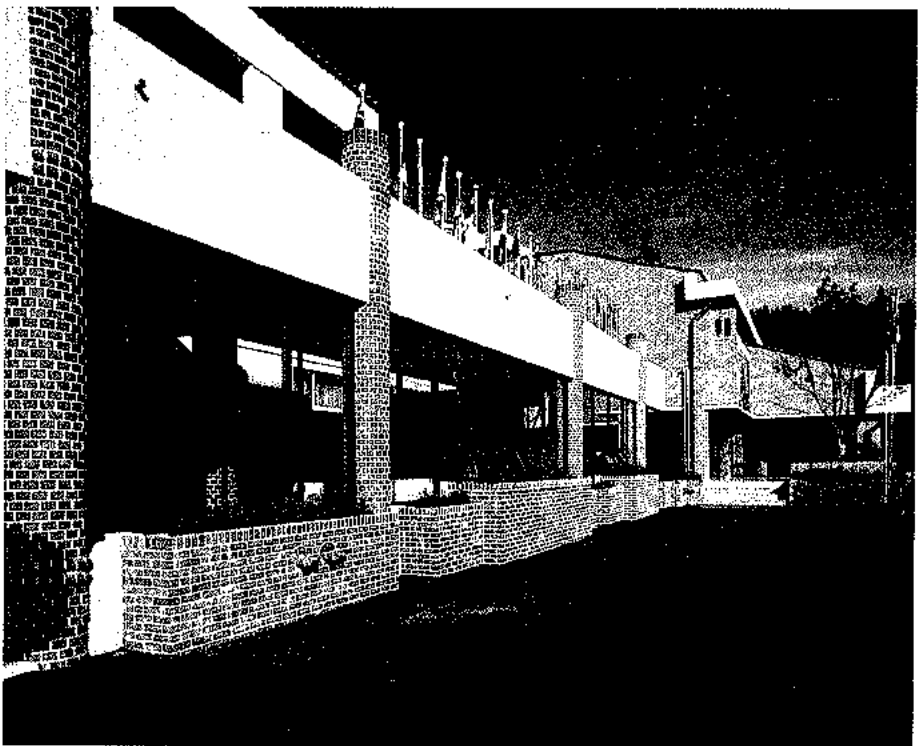
우리의 고건축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그 힘(地勢)에 순응하고 합인코자 하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것의 현명함은 이번 Project에서 건축은 그곳의 흙과 물을 자양분으로 성장하여 온 하나의 유기체로 건축되어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개념상의 일관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대지의 여건으로 보아 개념적 어휘는 명승지와 대자연의 배경으로 에워싸여진 Site 주변의 정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도시생활의 사회적 제한을 피해온 사람들에게 휴식의 조용함과 안락함을 위해 지형의 절충적 Sky-Line을 따른다는 의도에서 우뚝 솟아오른 기하학적 Mass가 아닌 흙의 산물인 벽돌로 관습화된 주거형태를 위한 테라스식 하우스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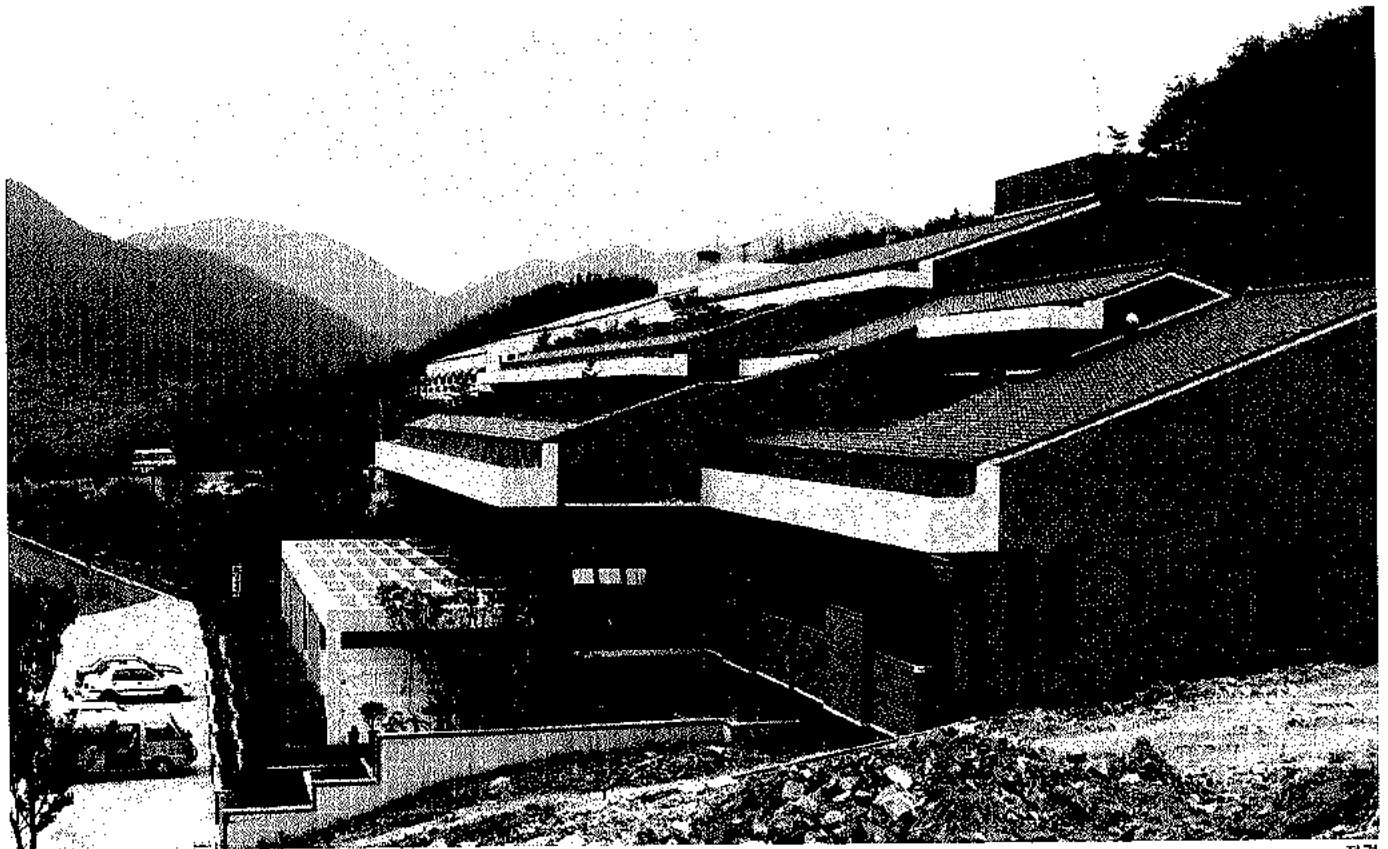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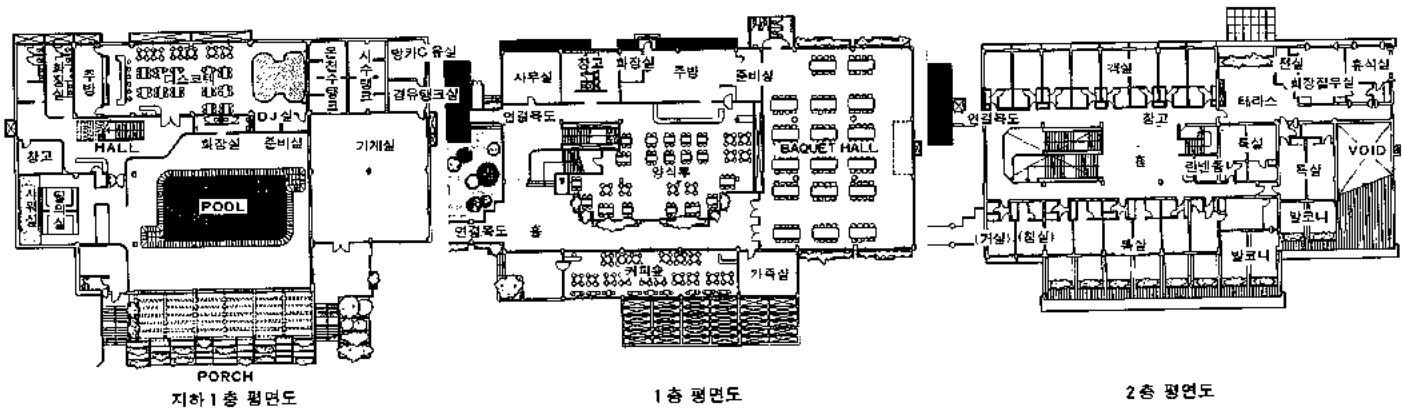
또한 자연경관의 시각적 Medium-Line형성을 위하여 전면부에 계단식 Flower-Box처리, Privacy가 확보된 사적인 외부 휴식 공간으로서의 테라스제공, 중층이라는 특수한 생활을 기존건물과의 단순한 연결대신 두 동선으로 에워싸여진 중정을 돌로써 주변경관과의 합일이라는 개념적 어휘를 차경(借景)이라는 건축적 어휘로 해결코자 하였다. 아울러 지하층과 1층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2층과 3층은 객실을 두는 관습적인 수직공간 분할을 취하고 있으나 디스코텍과 수영장의 판능적, 육감적 분위기를 위해 곡선벽체, 빈책이는 타일마감으로 처리하였고 1층의 Hall, 음식점, 대회의장은 투숙객에게 자부심을 주고자 약간 호화스런 귀족적 인테리어 처리로서 그 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표현에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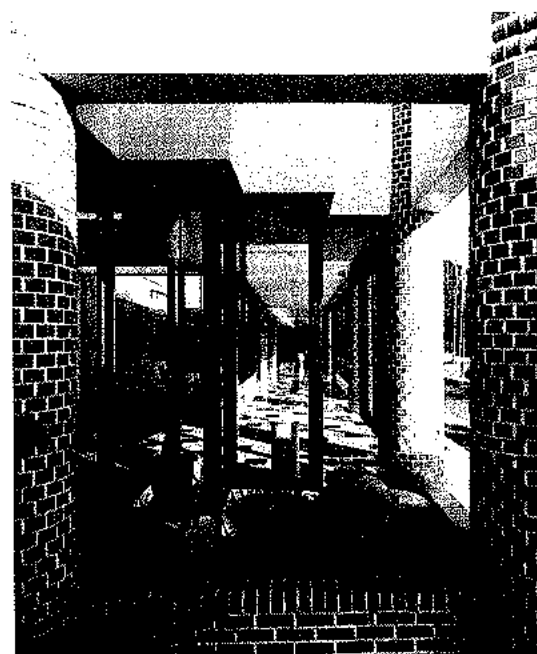
주 진입로에서 본 전경



외부상세



전경



주출입구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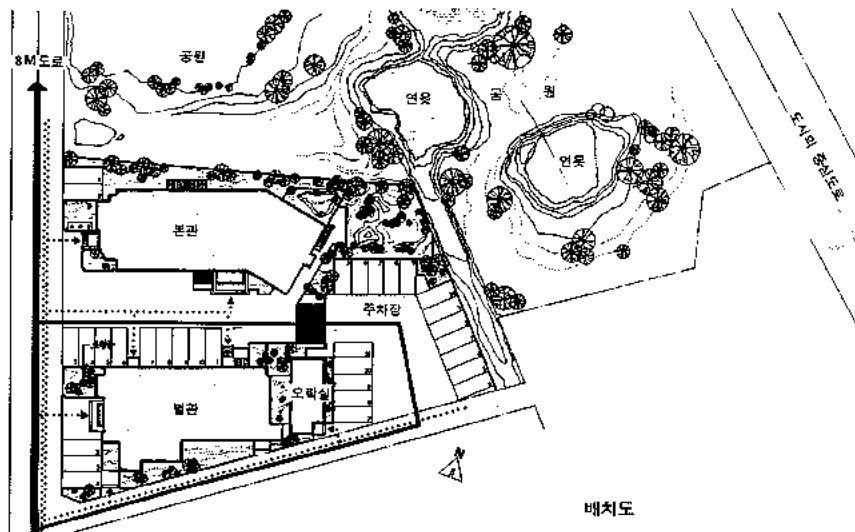


계단실

태백관광호텔

Taeback Tourist Hotel

金軟培 + 金鎬慶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나라
Designed by Kim, Yeon-bae & Kim, Ho-Kyeong



배치도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6

대지면적 / 2,377m²

건축면적 / 889.56m²

연면적 / 4,678m²

본관 : 2,998.1m²

별관 : 1,607.06m²

오락실 : 72.84m²

건폐율 / 37.82%

용적률 / 144.51%

규모 / 본관 6층, 별관 3층, 오락실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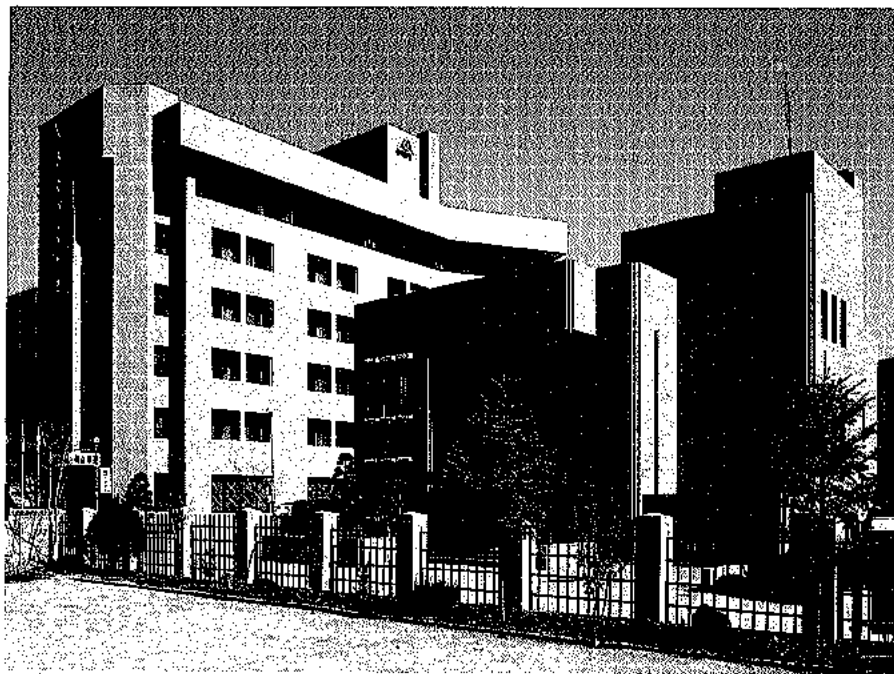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감 / 외장타일, THK 16페아그라스

용도 / 객실 60실, 사우나, 양식당, 한식당,

커피숍, 연회장, 나이트클럽, 오락실

인테리어설계 / 가람나라건축



전경

설계소요

자연적 여건에 의하여 협소하고 길게 뻗은 도시의 좁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도시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것일까는 어느 작가든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이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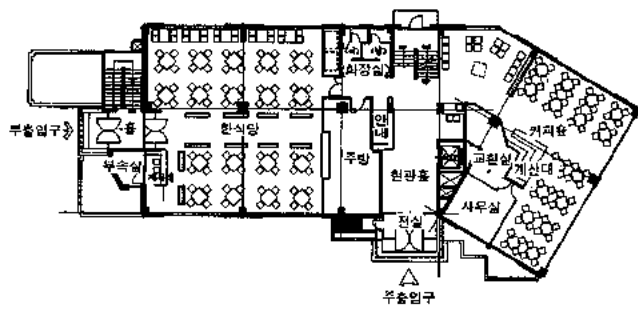
그것은 대지주변에 있는 도시의 유일한 녹지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해치지 않아야겠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제시해 주었다. 부득이 공원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역설적으로 동선의 처리를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끝내 유감스럽기만 하다.

또한 광산이 에워싸고 있는 특수한 도시이기에 형태와 재료를 무엇으로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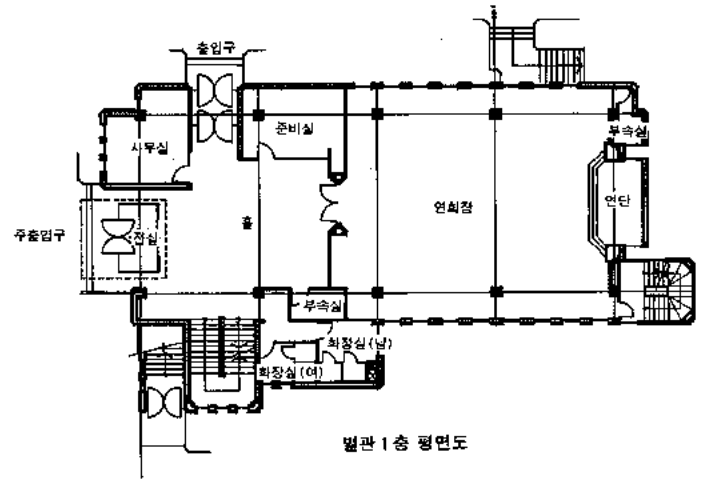
우선 대지는 약간 협소하지만 급속도로 높아지는 본 건물(본 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임)의 Mass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층부의 적절한 배치로 완화시켜 보았으며 좁고 길게 뻗은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형태가 주는 이미지는 약간은 토인 느낌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구부의 크기를 강조하였으며,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처음에는 붉은벽돌 사용을 생각해 보았으나 도시의 퇴색된 분위기에 속중함을 한층 더해주는 느낌때문에 화려하지 않으면서 약간 경쾌한 느낌을 주는 재료로 밝은 색상의 타일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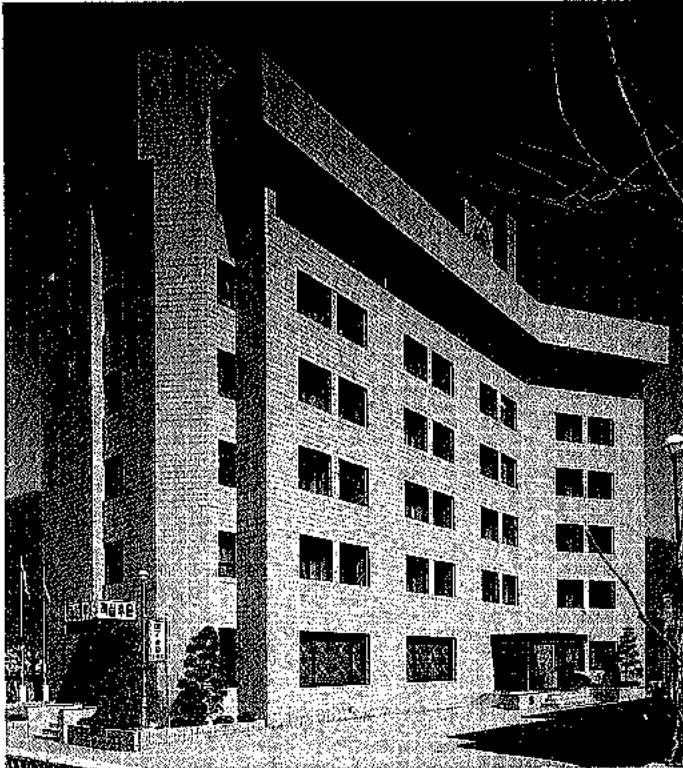
로비프론트



본관 1층 평면도



별관 1층 평면도



본관 (숙박동) 전경



별관 전경



객실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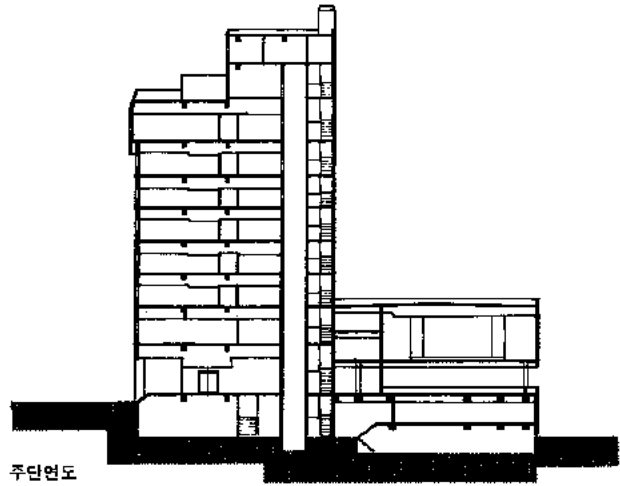
한식당

제주 와싱턴 호텔

Cheju Washington Hotel

柳春秀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異空)

Designed by Ryu, Choon-Soo



주단면도

◆ 기존설계 / 한종언 (금성건축)
설계범위 / 중층 및 내장설계
대지위치 / 제주시 연동 (신제주)
대지면적 / 3,960m²
연면적 / 13,860m²
건축면적 / 2,640m²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객실수 / 180 및 Royal Suite
주요재료 /

- 외부마감 : 기존타일와 텍스코트 및 Mirror Stawless 줄눈
- 로비마감 : 바닥 (가평석), 벽 (트래버틴, 브론즈) 천정 (암스트롱 텍스 브론즈온경)

인테리어설계 / 이공건축 인테리어사업부

설계소묘

이 호텔은 78년, 건축사 한종언 (금성건축) 회원에서 설계한 「서해호텔」이었던 것으로서 외욕적인 새 주인에 의해 대연회장과 수영장, 그리고 40여 객실을 증설하는 명실상부한 특급호텔로 추진되었으나 4, 5개월의 실시설계 기간이 끝날 무렵 건축주의 사업계획 방향의 변경으로 10여개의 객실만 증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와 객실 일부의 간마이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의 재배치로 내부의 벽체와 마감은 물론 가전 설비와 외관까지 변경하였다. 본 호텔의 설계의미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설계와 감리의 출발에 있다. 시공상의 실수나 공정의 차질, 그리고 연회장과 객실 증설에 대한 건축주와의 견해 차이에 의한 최근의 변경설계와 기존의 구조적 제한에 의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는 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의 질과 기능, 재료와 색채 사용 등 일체의 잘못된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건축주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으로 위임받으며 건축과 내장은 물론 조경과 가구, 심지어는 CIP까지 거의 맡겨진 경우는 어느 건축가에게나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와싱턴니아」 가로수를 보고 스스로 호텔의 이름까지 자아서, 결국 일본 「후지다관광」의 「와싱턴호텔」과 채인이 되게 했으니, 한 건물에 대한 건축가의 설계적 영향력을 최대도 했음을 자부하는 바이다. 대우빌딩의 한가람 아케이드나 서울과 부산의 여러 지하철 내장설계의 경험이 물론 바탕이 되었으나, 내 자신의 설계에 의한 호텔의 인테리어가 이른바 인테리어 설계의 전문가에 의한 것과 어떻게 비교·평가될런지 실로 궁금하고 두려운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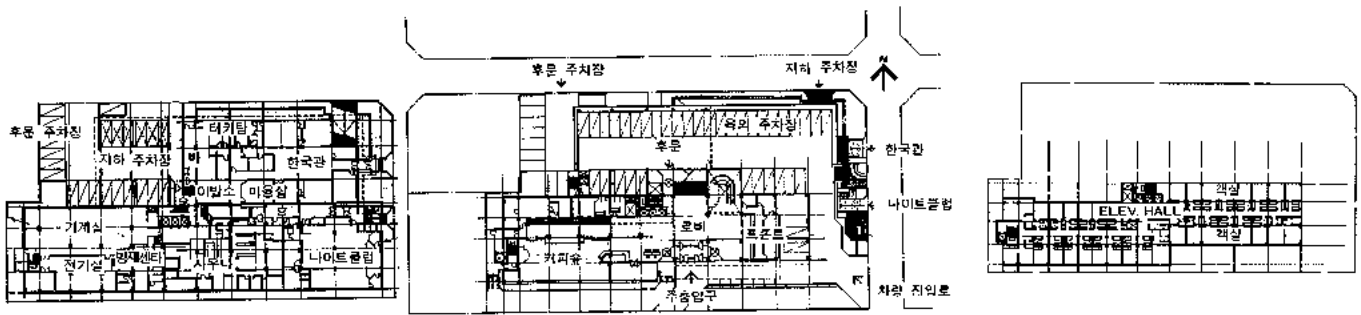
호텔 내장설계의 경험이 없는 본인에게 사업상의 모험을 전고 진폭적으로 설계·감리를 위임한 건축주와 관계자에게 실로 감사드리며, 기존의 호텔을 훌륭히 설계하신 한종언씨에게 미리 양해 구하지 못했음을 지상을 통해 사과드리는 바이다.



외부조경



지하 1층 통로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 및 배치도

기준층 배치도



전경



로비 (분수대)



주출입구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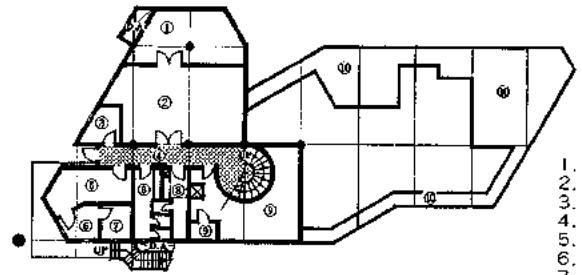
식당

보문 골프클럽 하우스

Golf Club House Bomun

金圭吾 / (주) 유종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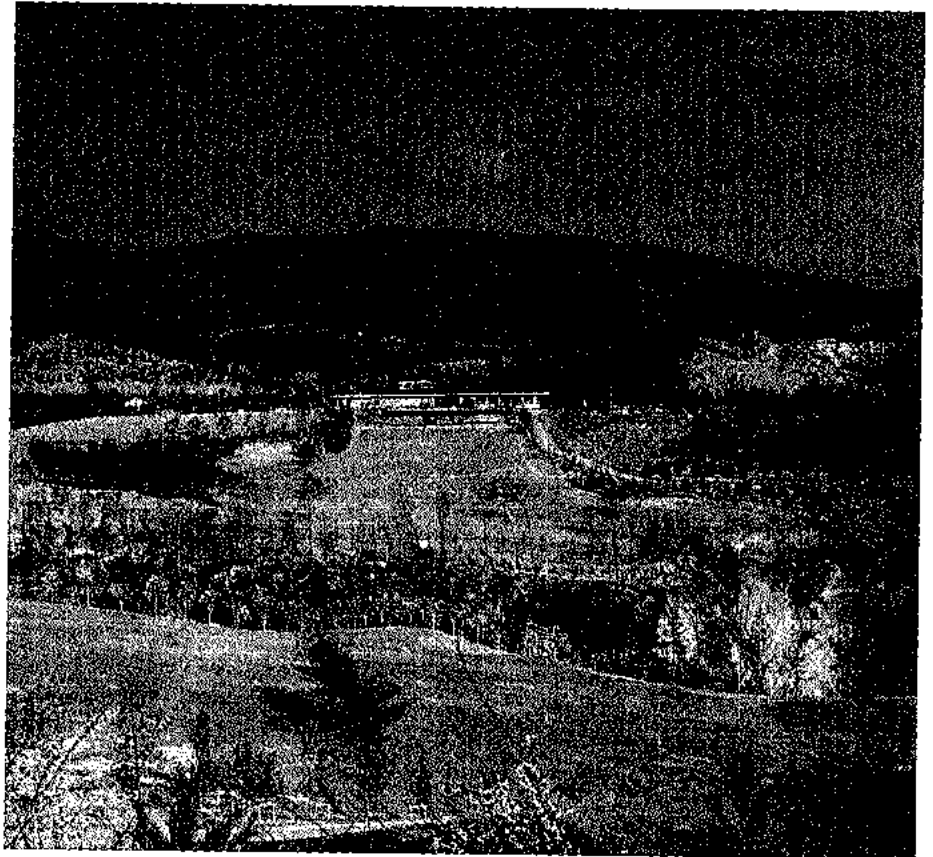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Kyo-o



1. 전기실
2. 기계실
3. 수조실
4. 복도
5. 라커실
6. 강의실
7. 샤워실
8. 화장실
9. 창고
10. 피트

지하층 및 피트 평면도

◆
대지위치 / 경주시 보문단지내
건축면적 / 732m²
연면적 / 979m²
외부미감 / 외벽-본다일
지붕-적삼목널잇기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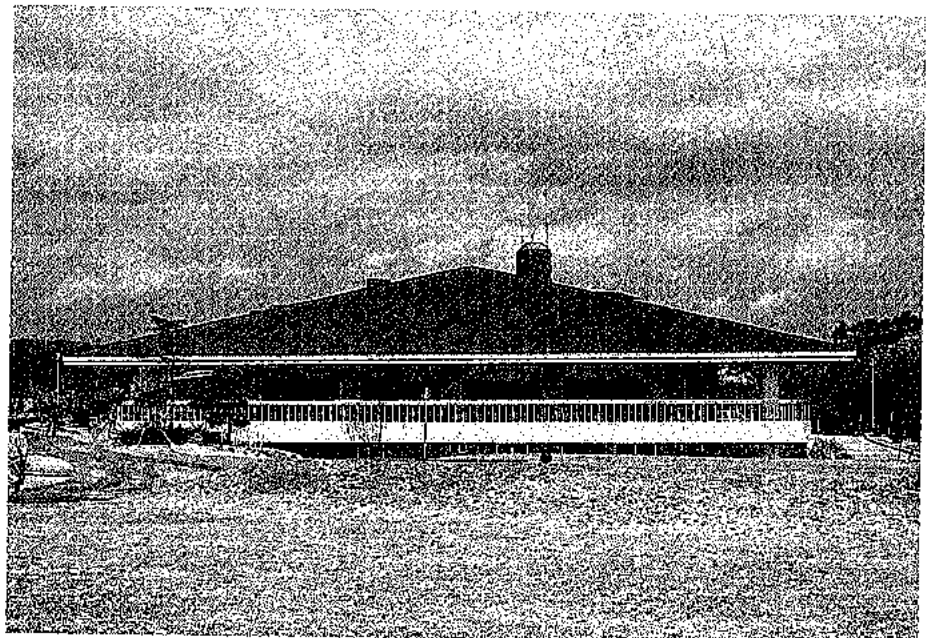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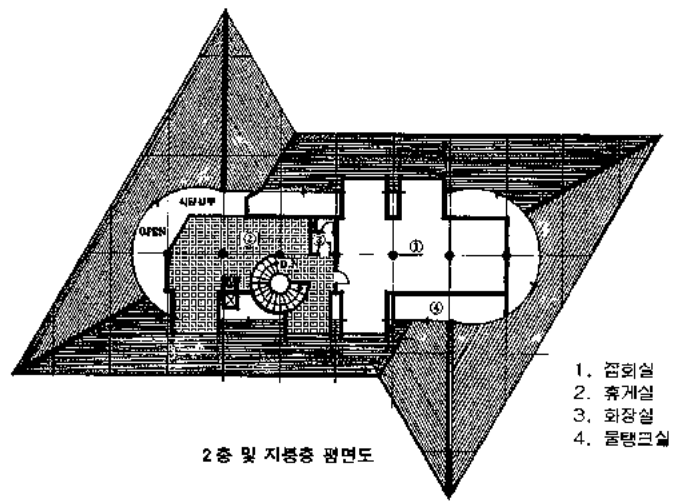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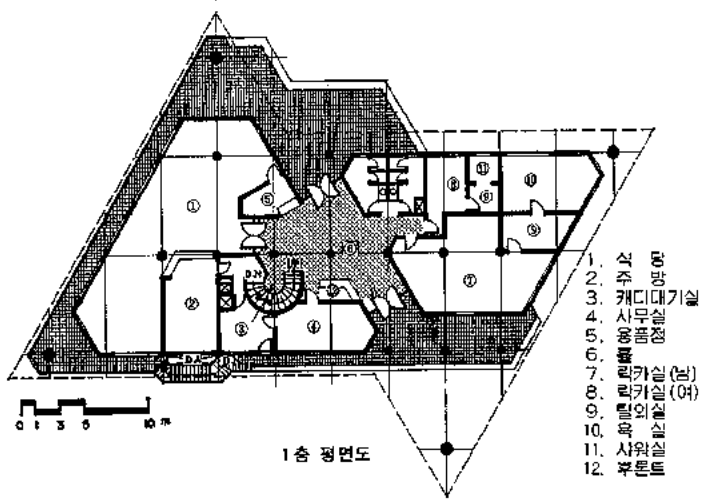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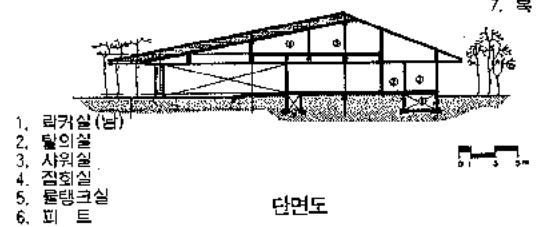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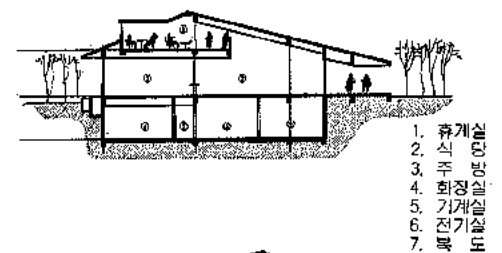
배면



▲ 전경



▲ 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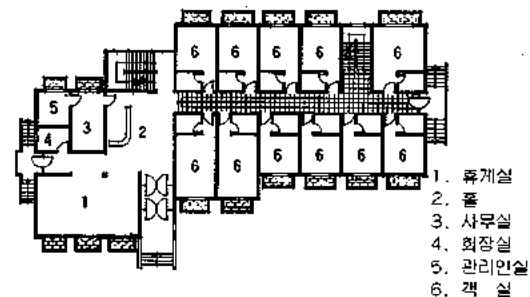


알프스호텔 및 스키하우스

Alps Hotel & Ski House

金圭 吾 / (주) 유중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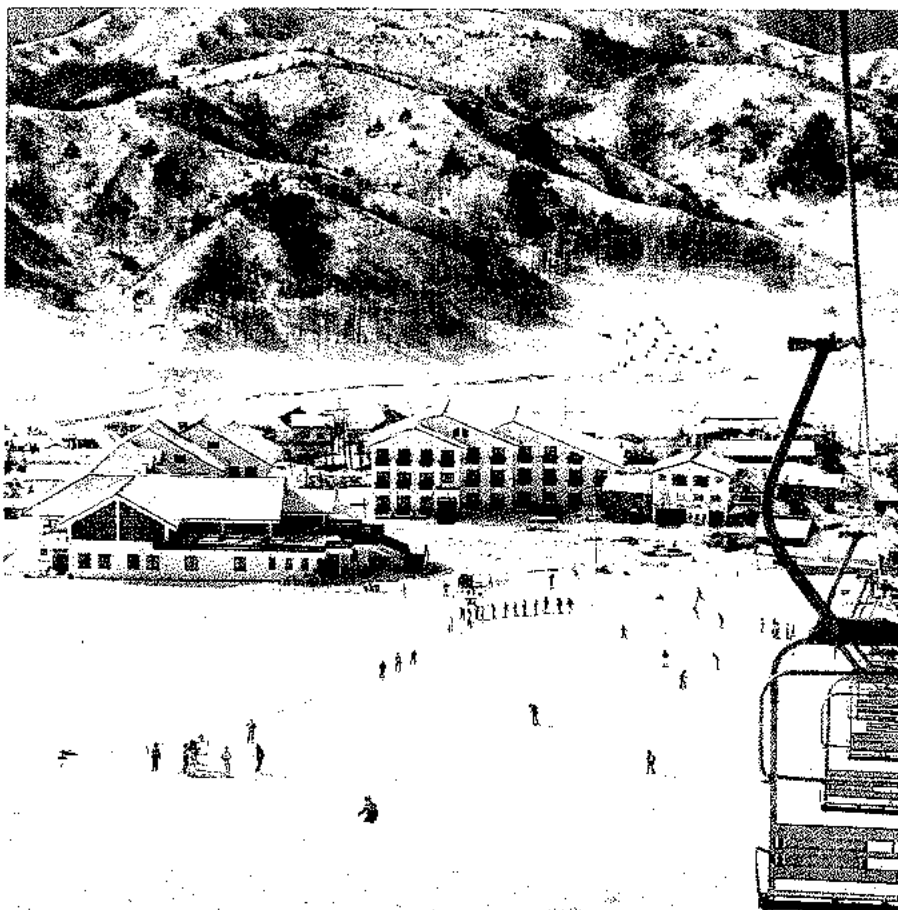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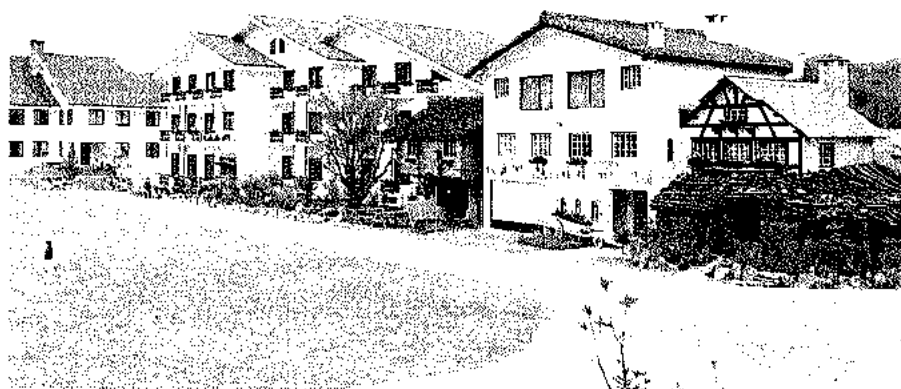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Kyu-O



호텔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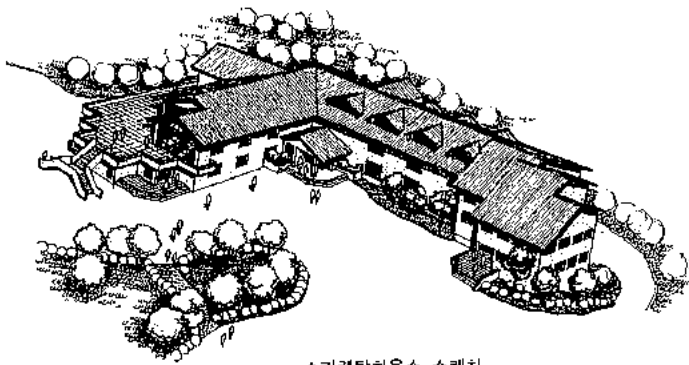
◆
□ 호텔
면적 / 1,838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 수성페인트
내부마감 / 본타일, 발포벽지

□ 스키하우스
면적 / 3,500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 수성페인트
내부마감 / 미장, 본타일
용도 / 스키렌탈, 식당,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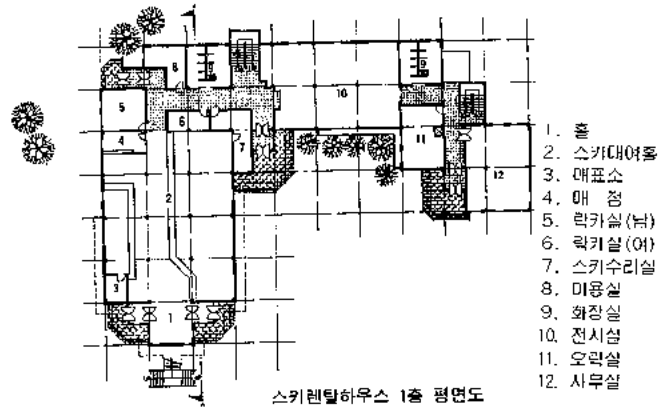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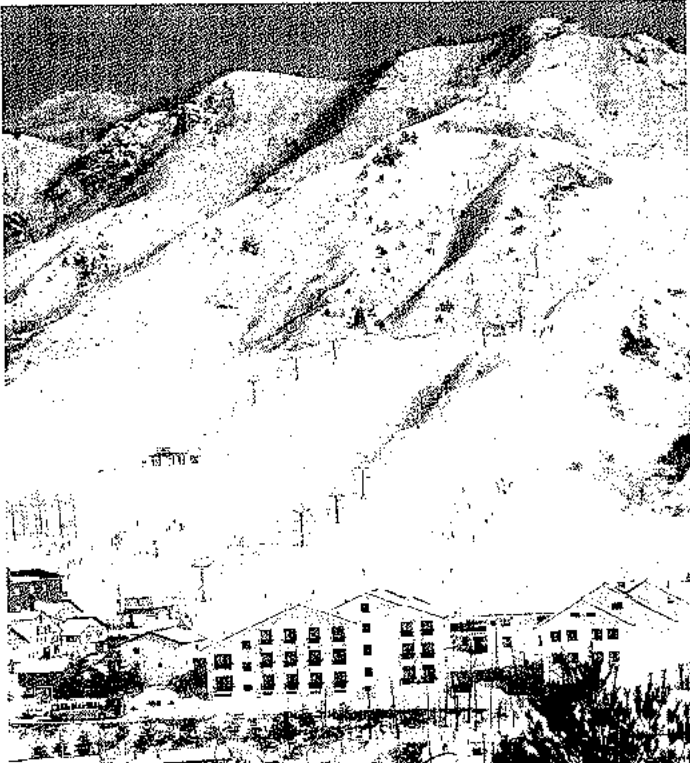
알프스 스키장은 1972년 설립 이래 웅분한 자연조건과 변화있는 슬로프조건에 거의 수공예적으로 꾸민 알프스타입의 고유형태의 독특한 목조 산장과 별장은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켜 왔다. 1984년 급증하는 스키객을 위해 본격적인 스키장 확장에 착수하여 최선의 장비와 부대시설을 갖추었고 스키하우스와 호텔등을 신축하였다. 신축건물의 배치는 기존산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며 건물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이 시골풍의 작고 아담한 마을이 연상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건물의 덩어리를 적절히 분할하고 외부벽을 안주인인 화가 이정순씨의 장식 벽화를 기다리며 하얀 여백으로 남겨 놓았다. 스키하우스와 호텔내부는 렌탈, 식당, 전시, 휴게, 오락, 집회등을 위한 실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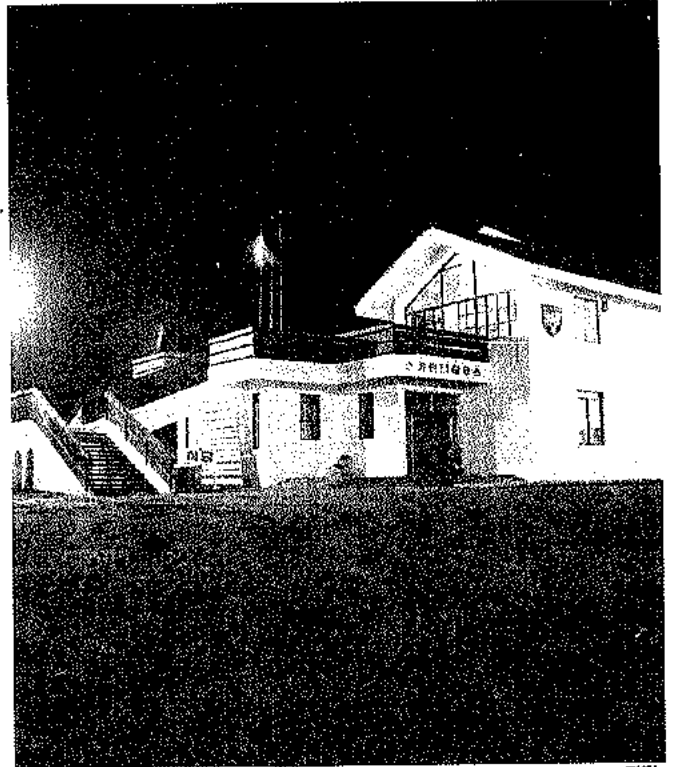
스키렌탈하우스 스케치



스키렌탈하우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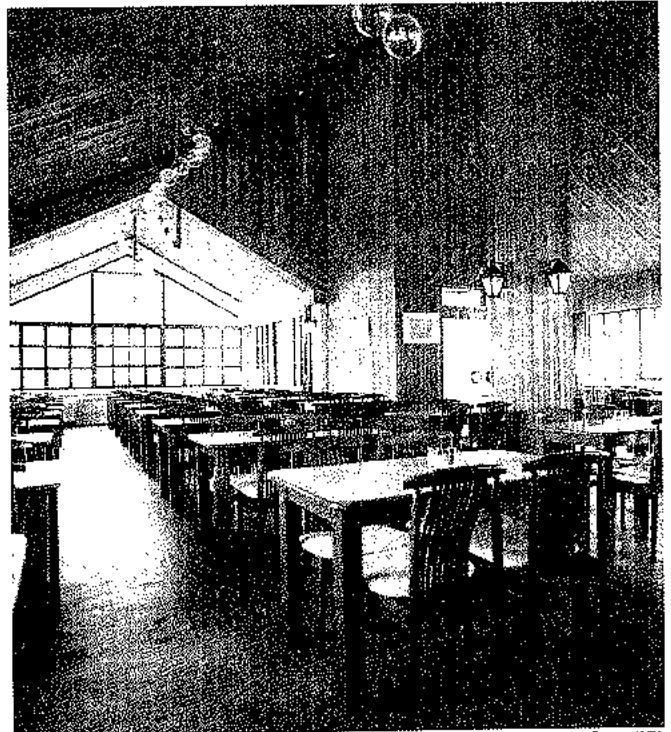
스키장을 배경으로 한 전경



전경



스키렌탈하우스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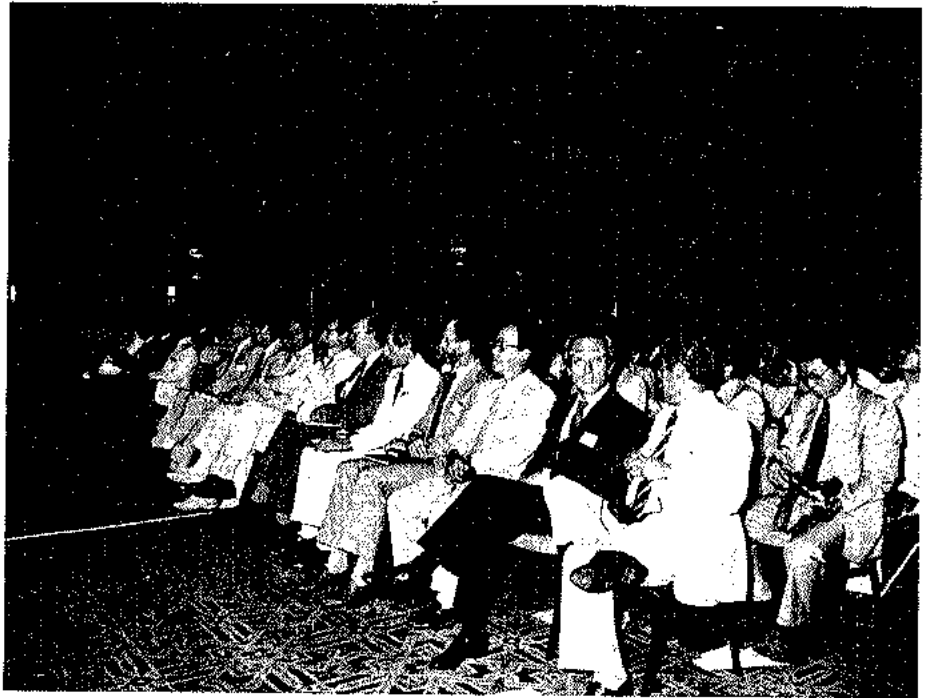


스키렌탈하우스 전경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제 2 차 아카시아대회 토론회 광경 (필리핀)

1. 머릿말

돌아오는 11월 7일에서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이들간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이사회에 이어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학술토론회가 있으며 연합행사로서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대회와 건축작품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리게 되어있다.

이들 행사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학술토론회로서 금번대회의 주제는 '아시아 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요는 이미 건축사지 1988년 4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이번호에서부터 2~3회에 걸쳐 기조연사 및 6명의 발표자들의 간단한 소개와 발표할 내용의 초록을 번역하여 접수된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학술토론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토론주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 학술 토론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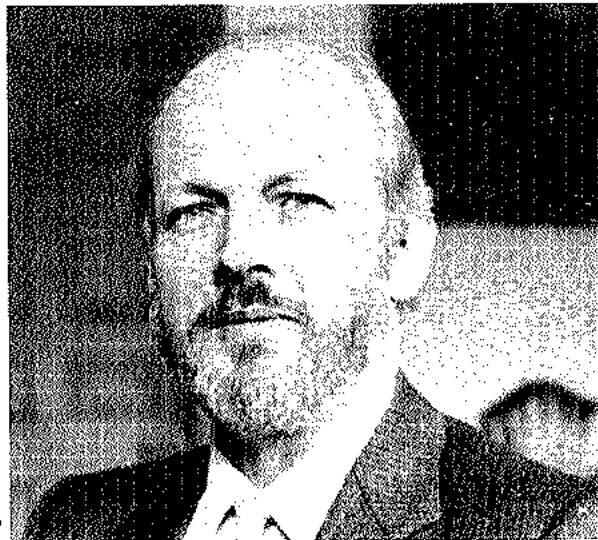
학술토론회는 4개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제4 토론회를 제외하고 매 토론회당 2편의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1편의 주제발표당 주어진 시간은 40분이며 발표자는 발표에 이어 토론회 의장의 주제아래 2인의 토론자와 20분간 토론을 벌이고 다시 15분간 청중들과 토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3개의 토론회에 6명의 주제발표 연사가 참가하게 되며 마지막 제4토론회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대회 수석보고자(Rapporteur General)의 사회로 6명의 발표자, 기조연사, 12명의 토론연사 및 3명의 토론회의장 등이 모두 참석하여 청중들과 더불어 앞서 3회기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진다. 약 25분에 걸친 기조연설은 8일 저녁의 개회식에서 있을 예정이며 학술토론회 일정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 발표문 요약

토론회 1. 첫번째 발표

주제발표연사 : 배리 윌슨 (C.B. Wilson)

발표제목 : 건축사와 공동사회 : 전통적인 과정과 근대건축



C. B. Wilson

발표연사소개 :

1960년 Liverpool 대학에서 이론물리학 박사학위 취득후 응용수학과 환경물리학을 강의했다. 1967년 Edinburgh 대학으로 옮겨 이듬해인 1968년 건축학과와 건축과학(Architectural Science) 교수에 취임했다. 이후 1971년에 Harvard 대학 고등환경설계 Loeb 연구원으로 있었고 Calgary (1975) 대학 및 Khartoum (1976) 대학의 초빙교수로 활약했으며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터키의 Karadeniz 대학에서 유네스코 콘설턴트로 임명되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Edinburgh 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장을 지냈고 현재는 동대학 부학장의 임무를 맡고있다. 그의 원래연구분야는 환경 및 기후를 고려한 설계이며 1974년 이후 '건물과 환경'이라는 국제적인 학술전문잡지의 편집을 맡고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그의 연구 관심분야는 현대의 건축이론과 전통사회의 건축과 예술이다. 그의 최근 논문으로는 '세계의 중심과 건축의 해석' (EAR 11, 1984), '미시우주의 건조' (Shadow3, 1986), '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본 건축, 기술 및 수사학' (TECH88, 1988) 등이 있으며 15여개국의 나라로부터 약 35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으며 이들 논문의 대부분이 전통건축과 취약형태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 초록 :

전통은 역사적 시간의 변화를 억압하는 시간개념이 배제된 수직축에 집중되는 반면 근대성(Modernity)은 그 수직적요소의 선형적인 실재를 부정하고 또 가치는 무엇보다도 진보, 발전한다는 것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통과 근대성은 상호 대치된다. 개인의 창조적 자유가 전통의

유지에 종속되는 전통사회의 총체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는 건축에 있어 상당한 자율을 향유하고 자기표현이 축복받으며 보상받고 이론과 활동이 번창하는 근대문화의 편린화된 속성과 예리하게 대조를 이룬다. 이들 차이가 상호 대치되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혹은 단순한 강조의 변이에 불과한 것인지는 '전통'과 '근대성'을 정의하는 관심의 근원에 달려있다. 전통사회에 근대적인 사고를 흡수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근대적인 것으로 변모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서유럽은 중세 기독교사회의 붕괴이후 문예부흥기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인 문명의 특성을 잃기 시작했다. 과학적 사고, 세속적 인문주의, 개인주의와 진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점 등 근대성의 많은 면이 문예부흥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해졌고 시대를 풍미했던 구속없는 예술적 자유에 의해 정당화 되었던 20세기 초의 미래주의와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반 전통적이고 반 역사적이며 탈 지역화한 진정한 근대건축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것은 500년 동안 지속되어온 변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 변화의 결실은(건축가라는 전문적 직업집단의 출현과 이들을 배출시키는 교육구조를 포함해서)전 세계적인 소비에 융화도록 준비된 셈이었다. 작금의 타락한 근대주의의 실용위주 건축에 대한 탈환각 현상과 이에 대한 통상적이 아닌 복잡한 반응들은(이들중 대부분이 역사에서 갈취함에 의존하는)최근까지도 전적으로 전통적이라 할 수 있었던 사회에서까지도 전통적인 건축요소와 이미지를 근대건축에 크게 다르지 않은 건축에 혼합하는 경향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역사로부터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과 지역적인 전통을 재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둘다 장소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건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활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적합한 틀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시각적인 대상물로서의 건축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이

적절히 지탱하고 대응해야 할 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들을 도외시 하는데 있다. 이 시점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상물로서의 건축으로 부터 과정으로의 건축으로, 특히 건축가와 사회 그리고 생활공동체의 관계로 논의를 전환하는 것은 전통과 근대성 간의 전통적인 계속성을 발견하는 것과 개인과 생활공동체가 그들의

최대의 가능성에 도달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건축의 대상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넓혀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건축가'나 '집'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한 전통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통적인 참 의미의 깊이를 되돌려 주는 실천과 감지의 재생에서 실마리를 찾게될 것이다.

상을 수상했다.

1980년부터 유럽과 중국의 여러 도시에 초빙강사 또는 객원교수로 있었으며 1987년에는 MIT 객원교수로 있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건축학회와 취락계획위원장을 맡고있다.

발표문 초록 :

일본에서의 생활공동체 시설물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혹은 도시에서 촌락으로 영향을 주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소위 근대화의 산물로서 생각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건축가들과 관료들은 역사적, 전통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성립되어 온 부락이나 근린지역안의 현존하는 공공생활공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공공생활공간들은 우리들이 그 공간의 지역적인 내용과 지역특유의 사용방법 그리고 그 장소의 지역적인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주자들의 환경의 뿌리였었다. 사실상 근대화의 초기단계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와 일본의 가족제도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가로막는 봉건적인 암적존재로 비판받았다. 부분적으로밖에 진실일 수 없는 이런 관념에 따라 공업화와 행정의 집중화를 거느린 건축에서의 표준화와 객관적 기능주의가 생활공동체 (Community) 건축설계에 채택되었다. 주민들과 무관한 생활공동체 건축과 획일적인 규격화된 균질의 환경이 번창해서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지역적 특성들과 더불어 사람들의 특징적 삶의 모습까지 휩쓸어 버렸다.

1965년 오시마 섬의 환경계획에서 고 요시자가 교수와 공동작업자들(나중에 Zoo 라는 팀을 구성했다)은 이러한 조류에 반대하여 '발견을 통한 방법'이라고 부른 새로운 계획방법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이 방법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건축이나 취락설계를 제안하는 대신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시에 생활환경 및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또 장소에 대한 그들의 태도 등을 세밀히 관찰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우리의

토론회 3.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쓰토무 시게무라 (Tsutomu Shigemura)

발표제목 : 장소, 환경의 뿌리, 건축



발표연사 소개 :

1946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 와세다 대학교 건축과를 마치고 1974년 동대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78년까지 고 요시자가 교수에게 사사 받았으며 1978년부터 고오베 대학에서 건축과 환경계획을 가르치고 있다. 1970년 동경에 아플리에 Zo 플 세워서

활동해오다 1979년에는 고오베에 팀 Zoo 와 아플리에 돌판을 개설하여 실무활동을 해오고 있다. 1972년부터 1978년 사이에 실시된 북부오끼나와의 건축과 환경디자인에 대해 일본 도시계획학회에서 이시가와 상을 받았고 문부성으로부터 예술상을 받았다. 1987년 와끼마찌시 도서관 설계로 요시다 이소야

계획안을 환경의 계획방향과 목표로서 단계별로 제시했다. 우리는 현존하는 환경과 거주자의 생활양식이 환경설계의 배아(Germs)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환경의 유형은 이 배아로부터 자율적으로 움트고 주체적으로 성장한 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안은 새로운 건축적 유행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신 서로 맞추어 조합하여야 하는 많은 수의 작은 장소들을 제안하고 혹은 그들을 적절히 변화시켰다. 이 의욕적인 생태학적 접근의 계획안은 시장이 교체됨으로서 불행하도 완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팀 Zoo (건축가, 계획가 및 연관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는 18년 동안 많은 지역과 지방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왔다. 우리는 공공회관을 설계할 때 맨 먼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 종류의 공간에 왜 모이며 누가,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대지에 공간적 연속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관찰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공동체 건축은 언제나 우리의 그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며 혹은 생활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지방민들의 노력과의 합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결과되는 모양과 공간은 통상의 해결과 다르게 나타난다. 오키나와의 나고 시민회관 계획에서는 지붕사까래를 가진 큰 연속적인 테라스가 모임관장을 둘러싼다. 이 생각은 종교적 축제에 사용되는 마을의 정자를 관찰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시코쿠의 와끼마찌 도서관 계획에서는 몇개의 오래된 창고건물들이 선충부분과 연결되어 도서관, 미술관, 집회실, 축제광장, 사무실, 성소등의 복합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활동 센터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모두가 그 지방의 장인들에 의해 시공 마감되었다.

〈학술 토론회 일정표〉

날 자	토 론 회 기	발 표 자	제 목	토 론 연 사	토 론 회 의 장
11월8 일 (화) 저녁	기 조 연 설	한 태 동 (한국)			
11월9 일 (수)	토론회 1 건축사와 공동사회	C. B. Wilson (영국)	Architect and Community : Traditional Processes and Modern Products	Rusi Khambatta (인도)	Felipe M. Mendoga (필리핀)
		Lye Kum Chew (홍콩)		Robi Sularto (인도네시아)	
				Lochi Gunaratna (스리랑카)	
				Zhang Kaiji (중국)	
	토론회 2 건축사의 사회적 임무	Charles Correa (인도)	The Public, The Private, and The Sacred	Joshua Jih Pan (대만)	김 성 국 (한국)
		N. J. Habraken (미국)		Ejaz Ahed (파키스탄)	
				Froilan Hong (필리핀)	
				Romi Khosla (인도)	
11월 10일 (목)	토론회 3 미래의 건축사의 역할	강 홍 번 (한국)		Esa Mohamed (말레이시아)	Sumet Jumsai (태국)
		Tsutomu Shigemura (일본)		Kamil Khan (파키스탄)	
				Tao Ho (홍콩)	
				장 성 준 (한국)	
	토론회 4 종합토론		모든 발표자, 토론연사, 및 보고자들		수석 보고자 Tay Kheng Soon (싱가포르)

새로움을 위한, 현재를 위한 끝없는 시도
— 신통합, 새로운 변증법

헬무트, 루돌프 얀

Overseas Contemporary/ Helmut Jahn

成仁洙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 헬무트, 루돌프 얀의 근영

현실주의자 헬무트 얀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독일과 미국에서의 상반된 건축공부와 타고난 재능과 노력, 신데렐라같이 15년만에 스타가 된 모습과 이를 용납하는 미국사회, 문제 해결을 초월하여 그는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일까?

1. 대표작

예리한 감성과 감정을 담은 풍부한 형태언어, 풍부한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강력한 통일성, 디테일의 정확함과 이의 기술적 처리, 진정 얀이 '생명력의 시대의 建築家'로 평가 받을 만한 건물들을 순식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다.

만약 20세기 말에 필리포 볼르넬레스키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건축이 지닌 생명력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건축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 볼르넬레스키가 그의 시대(1337년~1446년)에 건축가로서, 자유로운 예술(Ars Liberalis)로서 건축의 상태를, 건축작업에서의 재능을 요구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학의 이어나 대기업의 중역들이 "평범한 것은 세우고 싶지 않으나, 그렇다고 모험은 하기 싫다"라는 경우에, 가장 안심하고 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건축가는 이오 밍 페이(I.M.Pei)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¹⁾

얀의 경우는 페이의 경우와는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지금 많은 대중에게 건축은 많은 흥미를 유발한다. 건물과 그 건물의 설계자들은 사회의 주목을 받고, 더욱 중요하게 계획단계에서도조차 어떤 계획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것은 잡지나 기사에서 나타나고,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벌어지는 건축전시회의 횡수와 그 작품내용으로 알 수 있다. 20세기초에서 지금까지의 기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건축이 다른 예술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문학과 회화와 조각이 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지금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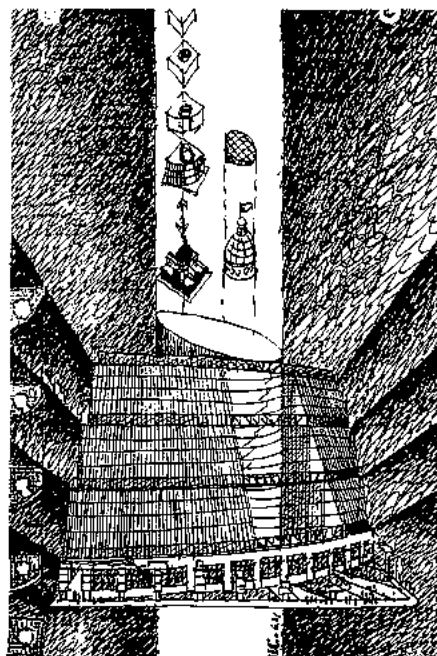
21세기를 맞이 하려는 이시기에 건축과, 건축가들은 영광을 찾기위해 설득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²⁾

다양한 평이 그에게 붙어 있다. 다면체를 깎아내는 솜씨를 칭찬하기도 하고, 깃대와

나선형의 신-구성주의자라 불리기도 한다. 작품에 따라 균형잡힌 아르데코의 건축가로 불린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 그를 대부분 낭만적 하이테크의 건축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계획면에서 기능과 기술을 통합하고, 내용면에서 감정과 표현을 나타낸 작품들이 많다.³⁾

비록 독일에서 태어 났으나, 얀은 또다른 독일인인 미이스 반 델로에의 전통을 이어 받아 미국 건축의 진정한 정수를 표현하고 있다.

얀은 하나의 작품마다 수많은 스케치를 그려내고 있다. 8×10cm 크기의 종이에 감색의 색조로 스케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간편해 보이는 이 스케치 안에 그는 그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스케치는 큰 스케일의 도시 이미지나 형태로 부터 입면의, 단면의 특성과 세부디테일과 평면의 처리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것이다. 헬무트 얀의 작품의 투시도를 보면, 우리는 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흔히 고층건물이나 사무소를 그리다 보면 무표정해 지는 것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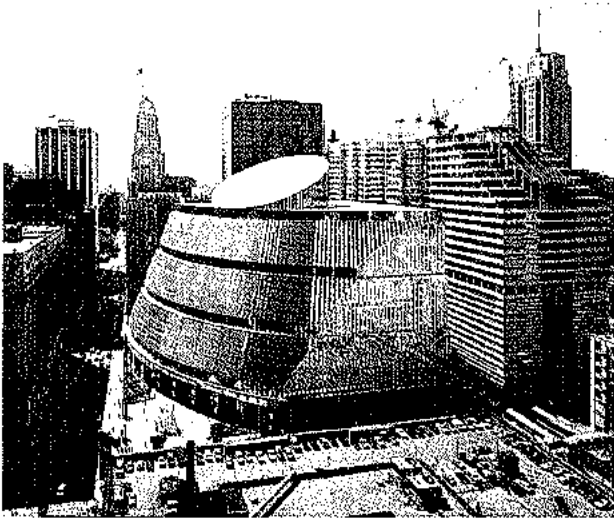


2. 일리노이주센터 계획안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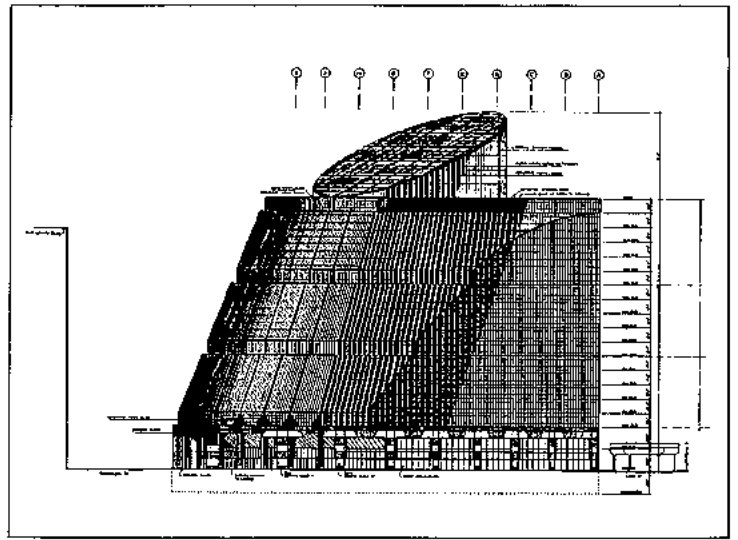
◆

成仁洙

52년 仁川生으로 75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송민구 건축, 의진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울산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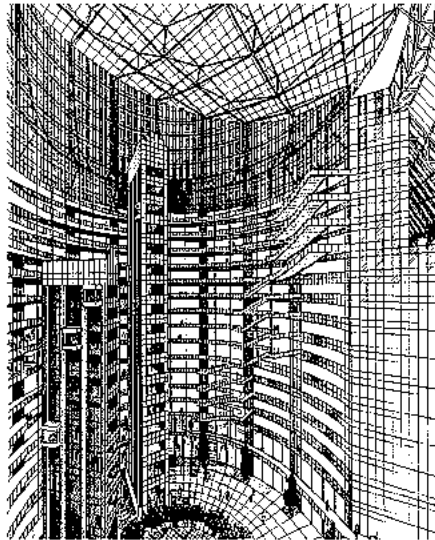


1. 일리노이주센터와 그 주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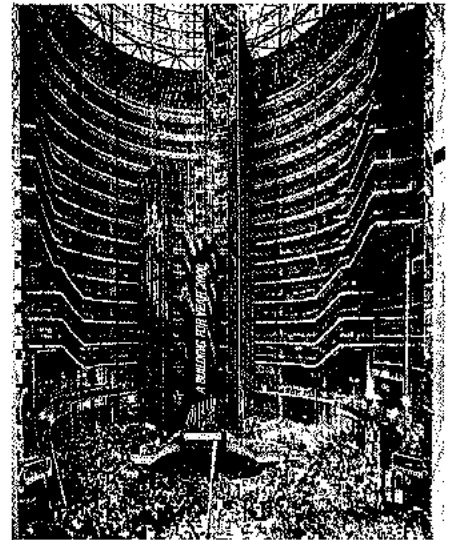


3.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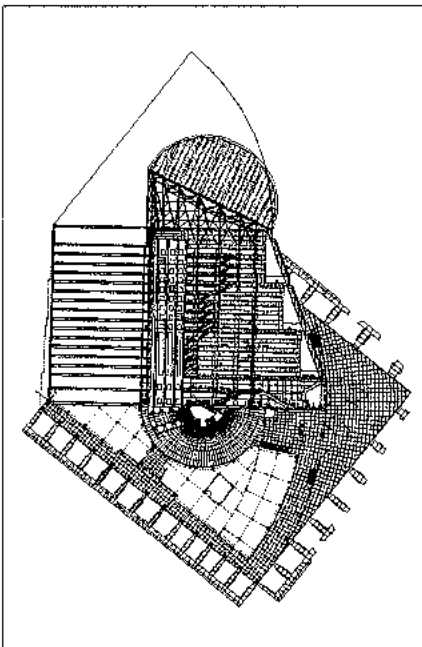
안은 고층건물을 계획하면서도 건물에 표정과 감정을 담으려 한다. 미국의 대도시가 죽어간단든지 또는 미쳤다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 가는 이때, 안은 그의 실험정신을 받아주는 도시에서 건물에 인간의 감성을 담으려 한다. 간략한 스케치를 통해 그는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센터만 해도 상자형의 건물이 가득 들어선 거리에 몇번의 손질로서 모든 사람의 눈을 끄는 덩어리를 만들어 냈다. 끝을 잘라낸 유리 원추형의 건물, 그것도 속을 원통형으로 비어버린 형태. 17층의 규모의 건물에 직경 48m에 달하는 로턴다를 두고 출입구를 제외한 3방향에 사무실을 배치한 형태. 로턴다를 향해 노출 에레베이터가 측면으로 돌아 있다. 고층건물에 관한 일상적인 생각을 단숨에 잘라버린 건물. 북쪽 루프(시카고 중심 상업지역 명칭)지역에 있는 일리노이주 청사는 시카고가 건축에서의 주도권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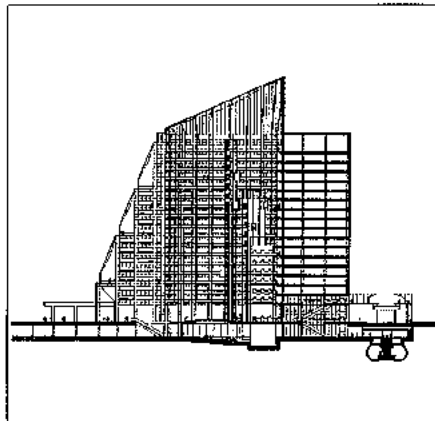
6. 실내 로턴다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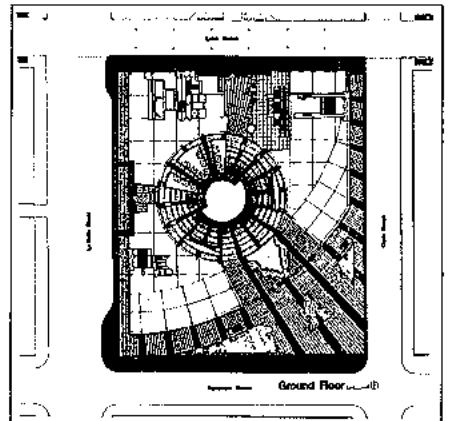
10. 개막식날의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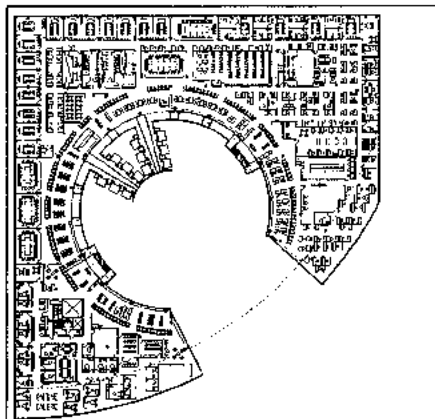
4. 특유의 복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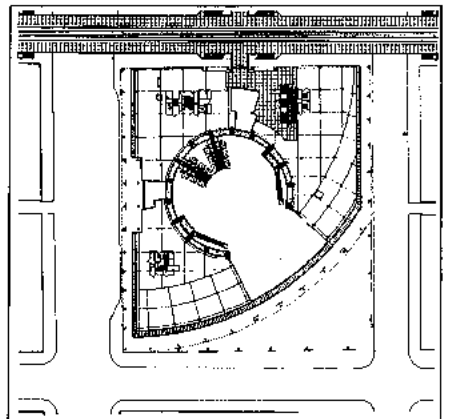
5.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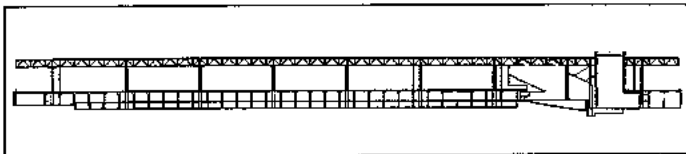
9.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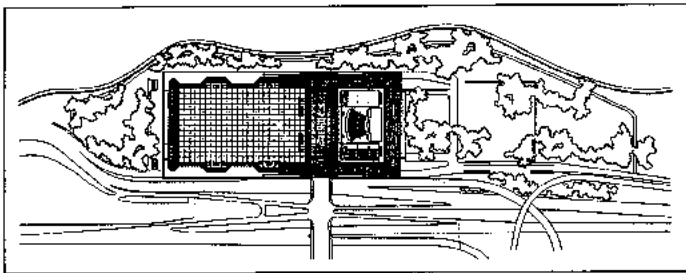
7.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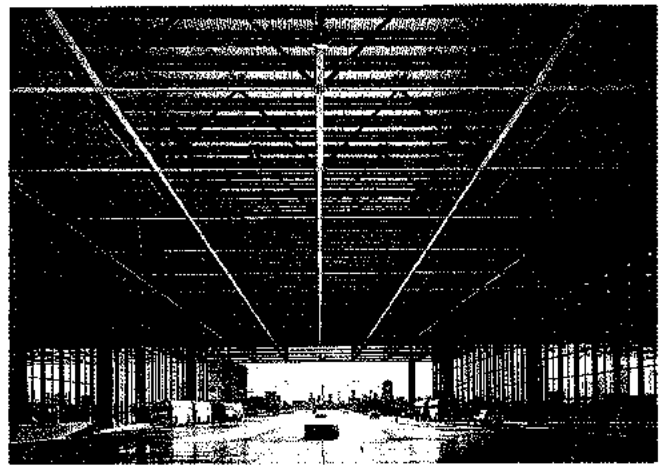
8. 2층 평면도



13. 단면도



12. 맥코의 플레이스 배치도



14. 내부

정확한 물리적 요구를 벗어나 이설계는 이분법의 대립적요소를 강력하게 융해시킨 것이다.

적당한 크기로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정부의 개방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념성을 지니고 있다.

안의 해결의 주요 목표인 "거대한 실내"가 건축에서의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고, 일리노이주 센터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주 청사에서는 공용공간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일리노이주 센터는 20세기 혹은 21 세기의 수정궁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사진 1~10)

2. 활동과 작품¹⁾

헬무트 안은 1940년 1월 4일 서독 뉘른베르크 근처 진돌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강력한 교육적 감각을 지닌 선생이었으며, 헬무트 안은 즐겨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도 일찍 건축에 대해 눈을 뜬 아들에 대해 못 마땅해 했다. 또 아들이 좀더 안전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파묵한 아버지는 헬무트 안이 선택한 길을 포기하게 하진 않았다.

초기에 안은 기교, 기술과 설계에 관한 의문들에 매료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안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건물들이 주는 섬뜩함이 퍼져 나갈때, 안은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적 태도로서 다른 종류의 형태를 꿈꾸고 그러한 취향을 갖게 되었다.

1959년 8월에 로마, 프로렌스, 안코네 등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1961년 21세의 나이로 뮌헨공과대학에서 4년간 건축을 공부하였다. 그곳의 교육은 구체적이었다. 건축철학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다만 현장에서의, 즉 작업현장의 경험을 통한 실제적인 교육뿐이었다. 이미 숙련된 안의 그림과 스케치들은 안이 건축가의 집안의 학생으로 짐작케 했다. 스스로 자신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알지 못한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미덕을 지니고 있었다. 시간이 날때는 수채화를 그리거나, 가끔 운동을 했으나 그런 날은 드물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했으며, 특히

근대건축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그는 즉시 미이스 반 델 로에에 심취했다. 지금도 안이 지닌 성격인 협동작업의 취향과 감각이 대학시절에 배양되었다.

실무건축가에게 수련받은 공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안은 뉘른베르크의 중요한 건축가의 한사람인

슈레히텐다우(Schlechtendau)의 사무실에서 자주 일을 했다.

학생 신분으로서 오래된 도시에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설계하기도 했다.

* 1964년 서독, 스타른 베르거-지, 카페 계획안.

학생시절 계획안.

* 1965년 학위를 받았을때, 슈레히텐다우가 사무실을 도와줄것을 제의 했으나, 헬무트 안은 경험을 넓히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으로서 건축세계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다.

* 1966년까지 뮌헨에서 P.C. 폰 자이트라인과 함께 일했다. 그해, 그는 미국에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는 고층건축물의 유명한 이론가들인 마이론 골드스미스와 파즈를 칸의 지도하에 I. I. T.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의 수업은 문헌과 달랐으며, 건축에 대한 교육분위기는 다분히 비평적이며, 이론적이었다. 논문을 준비하며 진 섬머즈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제 1기, 정착기(1967~1977) ; 미이스로부터의 탈출, 데뷔작 맥 코의 플레이스로부터 제록스센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 1967년 섬머즈가 미이스의 후계자로 평가 받고있는 C.P. 머피 사무실에 일하러 올것을 때 협조자가 되었다.

* 일리노이즈주, 시카고, 맥코의 플레이스(1968~71년). 세계 최대의 전시 집회장이며, 28000㎡의 두 전시장과 4319의 극장, 각기 345석의 경사진 객석이 있는 세개의 강당. 1200석의 다용도 회관이 있다. 식당과 소규모 식당 및 회의실 16개실은 모두 2000명을 수용하며, 임대사무실이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미국에서의 첫 작품이며, 진 섬머즈의 지도아래 미이스의 작품에서의 영향을 받고있다. (사진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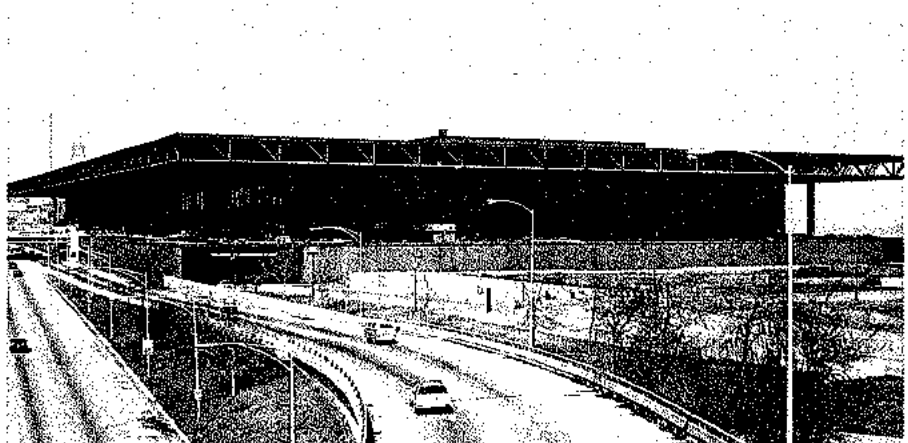
미국의 거대한 사무실 조직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채워졌고, 작업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창조성과의 조화를 이루어 냈다.

* 1970년 데브라 람피와 결혼하며 부인은 그의 작품에서 실내 디자인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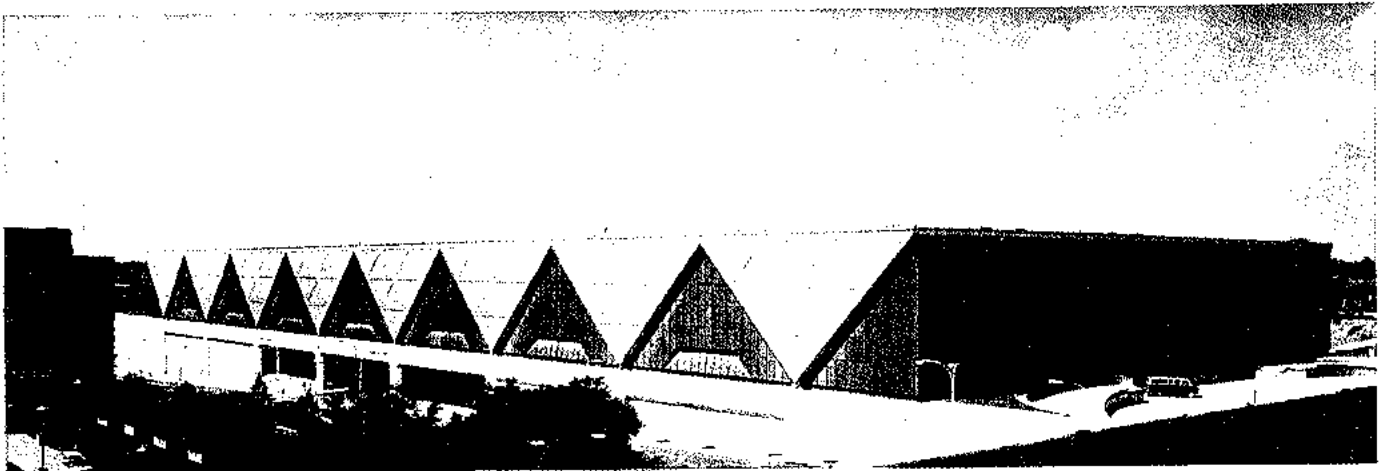
* 1972년(1974~76년)로 바틀 전시관, 미조리주 캔사스시.

18000㎡의 크기의 대형공간, 전시장의 회의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제공된다. 단열성능이 있는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사진 15).

* 1973년 이해는 이정표가 된 해로서, 그는 설계사무소의 부사장과 설계연구실장이



11. 맥코의 플레이스 전경



15. 로버트 전시관 전경

되었다. 미국과 외국에서 존경과 주목을 받게되는 많은 계획안과 건물을 설계하였다.

* 버니니아주, 리치몬드 존 마샬 법원(1974~76년)

1층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평면이며, 1층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잘려진 부분이 일반통행을 위해, 입구로서 쓰인다. 2,3층은 사각형으로서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덮고있다. (사진16)

* 미조리주 캔사스시, 캠퍼 기념 체육관. (1973년~74년)

16000명~18000명을 위한 실내 스타디움. 하키., 농구, 권투, 음악 행사나 쇼, 집회 등을 위한 체육관. 이 건물로 얻은 AIA 상을 받았고, 이 건물이 끝났을때 안의 나이는 34세였다. 기둥에 의해 실내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강력한 설계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 공사비를 요구했었고 실제로 6월 착공과 다음해 11월에 완료했다. (2개월 파업)(사진17)

* 1974년 일리노이주 메이우드, 4지구 순회재판소. (1974~76년)
시카고 서부지역에 위치. 135×42m의 크기로 10개의 법정이 있다.

* 로즈먼드 옥타곤 계획안. 18000석의 실내 스타디움 계획안. 82m 스팬의 트러스를 사용하여 건물이 가능했다. (사진18)

* 콜로라도주 덴버시. 오라리아 교육자료센터. (1974~76년) 덴버시의 콜로라도 대학의 교육자료센터이며 도서관과 시청각, TV, 사진, 그래픽, 스튜디오, 실험실, 강의실 등의 시설이 있는 자료센터. 년중 300일이 폐청한 날씨여서 외부 열기를 조절하기 위해 남쪽과 동쪽에 태양광선 조절장치를 함.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임(사진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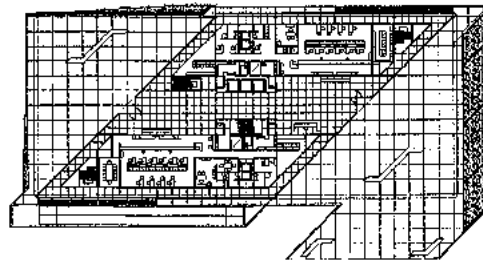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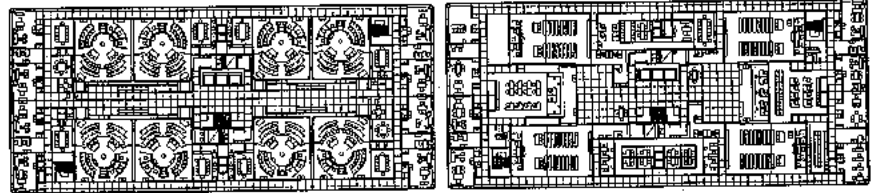
* 인디애나주, 미시간시, 미시간 공립도서관. (1975~77)자연광으로 가득찬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사각형의 건물에 톱날 지붕이 45도 각도 대각선으로 구성된 도서관(사진20).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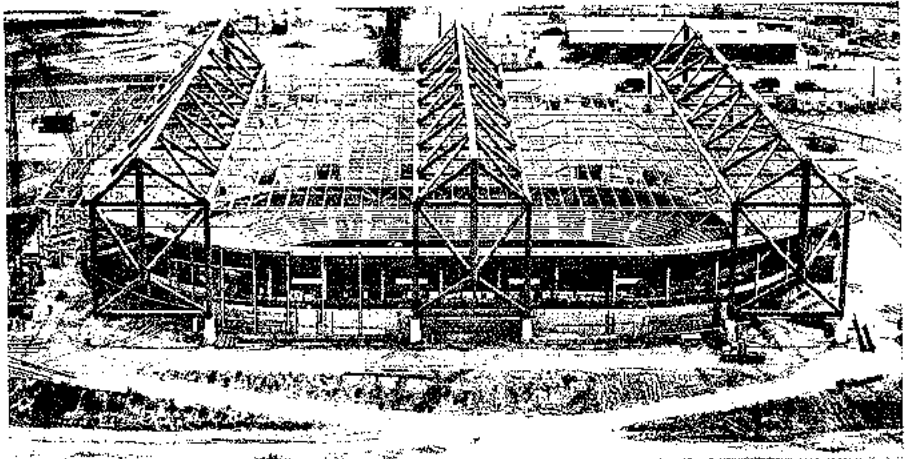
* A.I.A. 의 회원이 되었다.

* 일리노이주, 스포링필드 주청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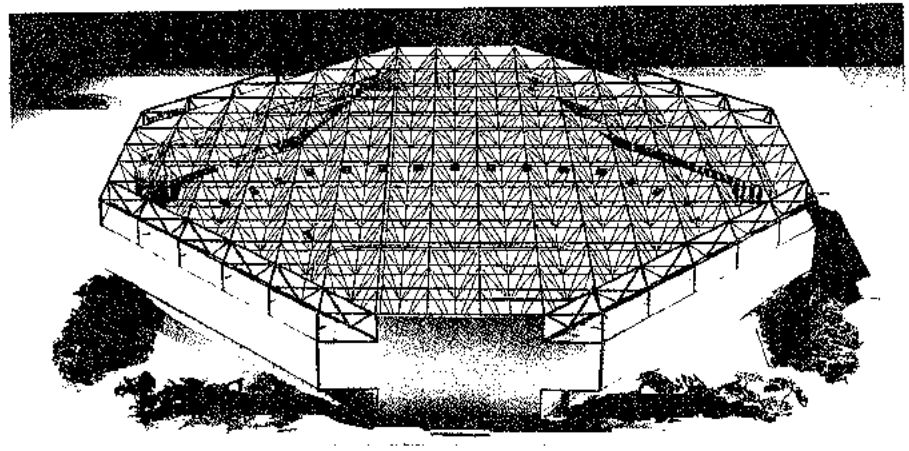
* 아부다비 국제회의용 소도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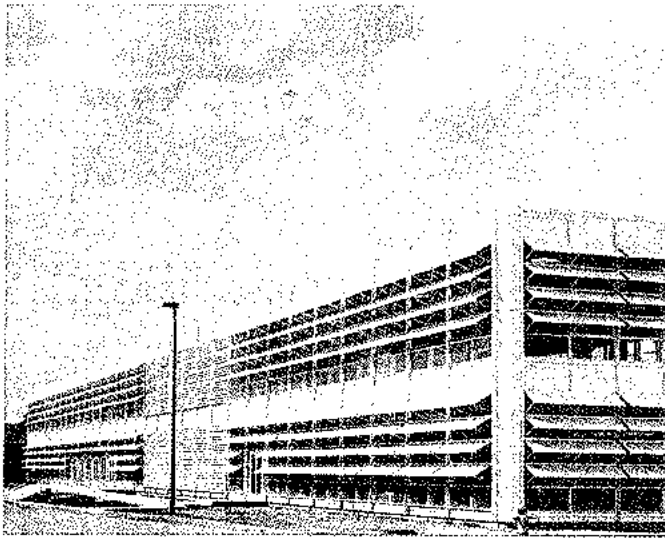
16. 존 마샬 법원 각종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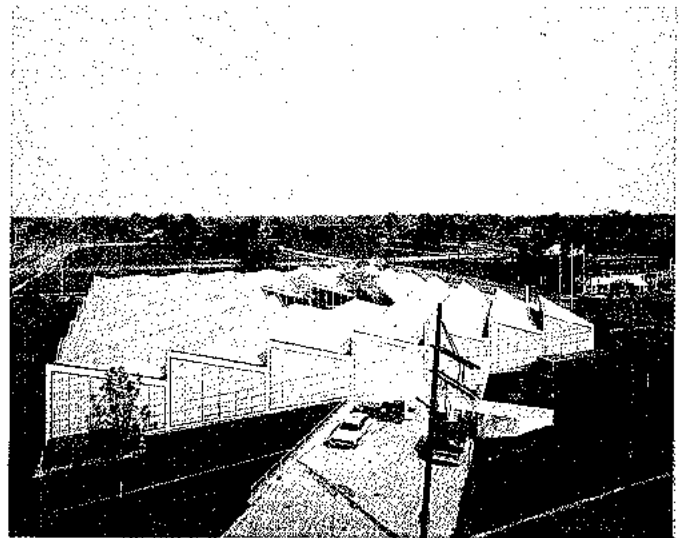
17. 공사중일 때의 캠퍼기념체육관



18. 모델로 본 로즈먼드 옥타곤 계획안 전경



19. 오리아 교육자료센터 전경



20. 미시간 공립 도서관전경

현상설계 당선작.

전자동화된 실내 운송 체계가 있으며, 건물옆에 태양고도에 따라 움직이는 2500m 길이의 해가리개가 있고 지붕은 유리로 되고 지하에는 온실이 있다. (사진21, 22)

1976년

* 인디애나, 노틀담, 세인트 메리 대학 체육관.

체육관 겸 다용도 시설(사진23)

* 미네소타주, 세인트 포울, 미네소타 주 센터 계획안.

주청사 앞 경사진 광장 지하에 3개층의 건물을 지하정원과 함께 계획.

650실 규모의 호텔과 전시실, 회의용 로비, 회의실 지원시설 등이 있음.

* 일리노이주, 버논 힐즈, 러스트옴 회사 국제본부. (1977~78년)

반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상부에 사무실이 2개층이 있는 수평선이 강조된 9×12m 스펀의 사무실. (사진24)

* (1978~80년) 인디애나, 동시카고시, 드라 가르자 직업훈련원. 노란색 판넬에 파란색의 기계설비가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사진25)

제 2기 (1977~) 독자적 세계 정립기.

최초의 성공작 제록스센터로부터 역사적 양식에 관심을 두게 된다.

* 1977년에 시카고에 온지 12년만에 헬무트 안은 '인명록' 40권에 실렸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 제2경찰국 청사. 유리 블록과 단열이 된 철판으로 구성됨. (1978~82년)

* 일리노이주, 스키키, 그레이저 회사 본부. (1977~79년)

25년 된 낡은 건물의 확장 및 증축, 커튼월의 새로운 입면 추가.

* 인디애나주, 라 포르테, 라 루미르 체육관. (1977~78년)

자립할 수 있는 30m 스펀의 곡면 절판 구조. 체육관은 지면 보다 낮아 높이가 확보된다.

*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스프링필드 주차용 건물(1978~79년) 지상 6층의

750대 주차 용량의 건물. 노출 콘크리트와 빨간 계단과 파란 주차장의 파이프 난간이 대조를 이룬. 19×12.5m의 스펀.

* 일리노이주, 시카고, 제록스 센터(1977~80년)

최대한의 용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입면 구석부분의 곡면 부분이 특징임. 옥탑부와 1층 진입부의 독자적인 곡면이 시선을 끈다. 6×6m의 모듈. 반사유리와 자연 발색 알루미늄으로 외부 구성(사진26)

*(1978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상업회의소 시카고 지부 증축(1979~82년)

아르데코 형식의 기존건물과 탑에 잇대어 같은 아르데코 형식으로 지어진 커튼월의 건물. 하부 12층은 기존 건물의 공간과 레벨을 그대로 확장하였고, 상부 12층은 중앙부에 아트리움을 두었다. (사진27~28)

* 이란, 테헤란, 팔레비 국립도서관 계획안. 국제현상설계. 각기 다른 4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군 사이의 중앙부 아케이드 위에 반투명의 화이버 그라스와 테프론(Teflon: 강력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구성된 덮개가 설치되어 지역에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 루프지역 재개발 계획안. 1978년부터 이지역의 마스터플랜에 참여했고, 그뒤로 여러곳을 계획했다.

북부 루프지역 F블럭 1982년 : 초기 도시 재개발 연구.

북부 루프지역 D블럭 1982년 :

북부 루프지역 16블럭 1984년 : (사진 29)

북부 루프지역 37블럭 1984년 :

1978년부터 계획 시작. 두개의

타워가 있는 쇼핑센터 계획안. (사진30)

* 일리노이주, 시카고, 비자 신용카드 사무실 계획안.

* 인디애나주, 사우스 벤드, 피스트 소스 센터 (First source Center) 은행, 객실 300의 호텔, 식당이 있는 공용의 아트리움, 주차 520대의 건물이 있는 복합건물. (사진31~32)

*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컨벤션 센터.

* 일리노이주, 어바나, 일리노이 대학, 농과학 기술관(1981~83년)

* 일리노이주, 다운너스 그러브, 커먼웰스 에디슨 회사지부. (1979~80년)

* 일리노이주, 아르곤, 아르곤 국립연구소. (1978~79년) 에너지성 시카고지부 부속건물. 원형평면은 외기에 노출된 외벽의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즉, 원형은 내부용적을 최대화 하면서 외피를 최소화 하므로. (사진33~34)

* 일리노이주, 시카고, 링컨 공원 재개발구역. 라라비 연립주택. 142세대용으로 다양한 레벨을 이용한 지붕정원등이 있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 웨필드 도시 재개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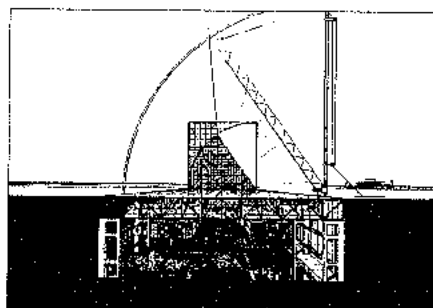
24세대 4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1층에는 상점이 있고 주택은 빅토리아 양식으로 되어있다.

*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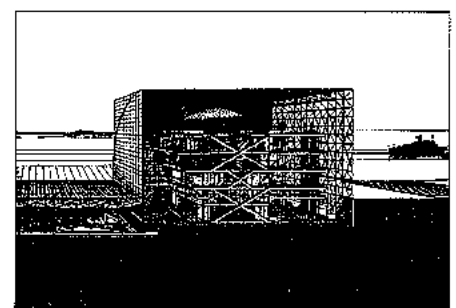
위스컨신주, 밀워키, 플라자 이스트. (1980~84년)

14층의 임대 사무실. (사진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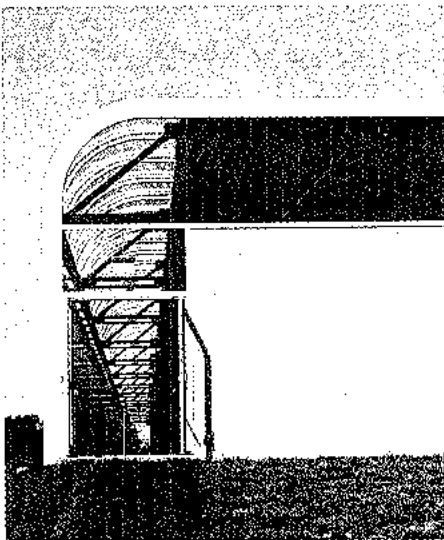
* 시카고 트리뷴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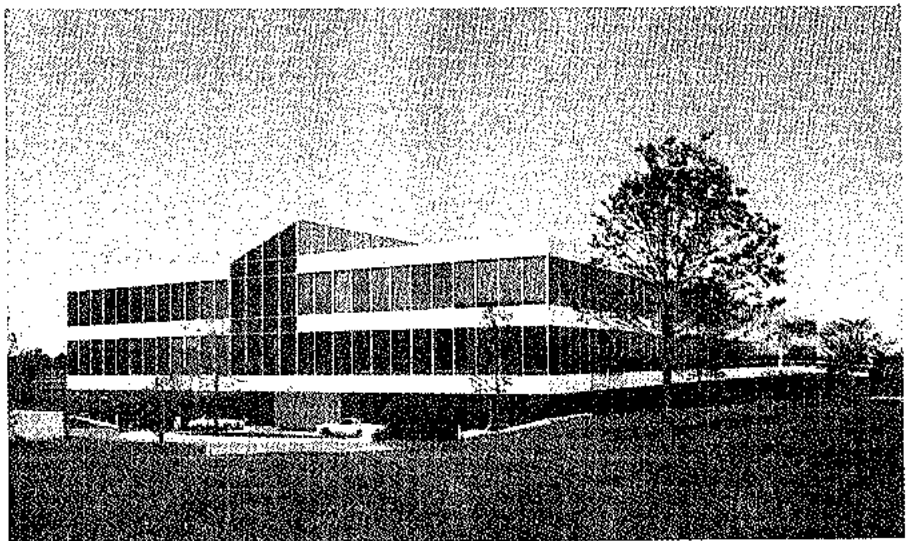
21. 국제회의도시 단면투시도



22. 국제회의도시 단면투시도



23. 세인트 메리대학 체육관 도서관부분



24. 러스토옴 국제본부

1922년의 시카고 신문사 사옥 현상 설계가 있었는데 “시카고 세븐”의 벤 위즈가 기획한 전시회—명칭 “새로운 현상설계”—를 위해 계획한 작품. 과거를 기념하며 미래의 사무소 건축의 유형을 탐구해본 내용. (사진36)

*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 거리, 700블럭 계획안.

상점과 호텔의 복합건물 계획안.

* 일리노이주, 글렌 엘린(1980—83년)

* 일리노이주, 시카고, 윈 싸우스 위커

사무용건물, (1980—82년)

40층의 상업, 업무시설. 3개층의 아트리움이 전층에 7개소가 있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 헤어

공항. (1982—1990년 예정) 연간 2000만

여행자를 위한 기존공항시설을 연간

4300만을 위한 증축계획안. 공용주차장을

외곽에두고 여행자를 소형 철도로 터미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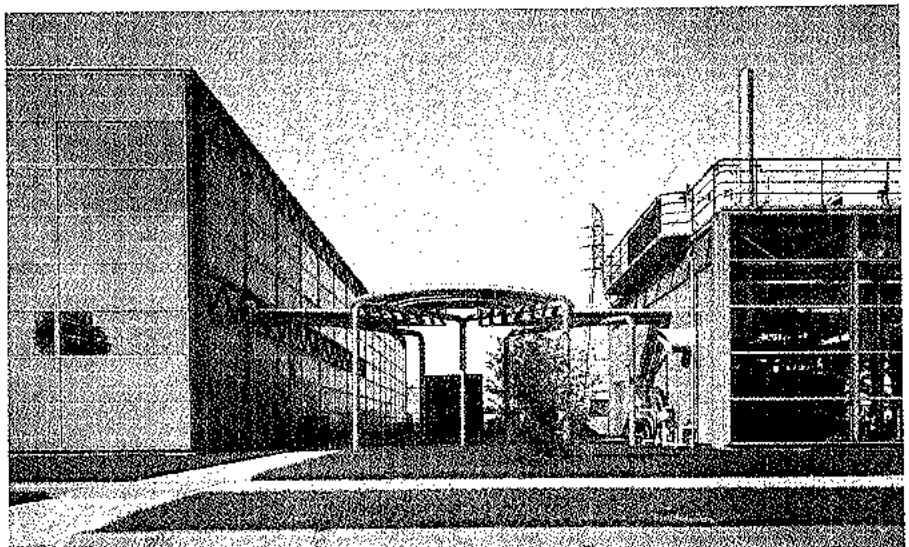
도착하도록 계획이 되었음. 국내선 증설과 국제선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계획.

* 일리노이주, 몰린, 디어 컴퓨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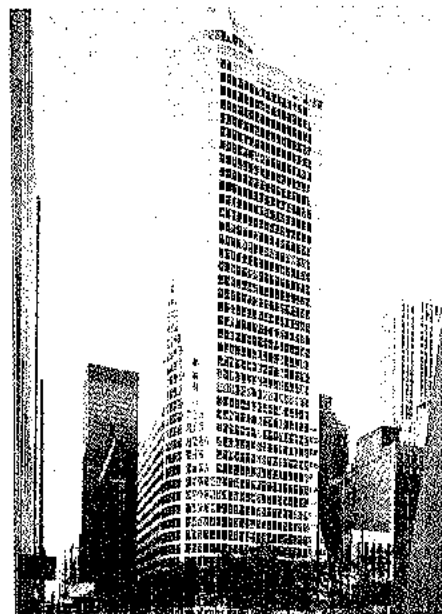
계획안

* 호텔 계획안, 루터란 본부 계획안,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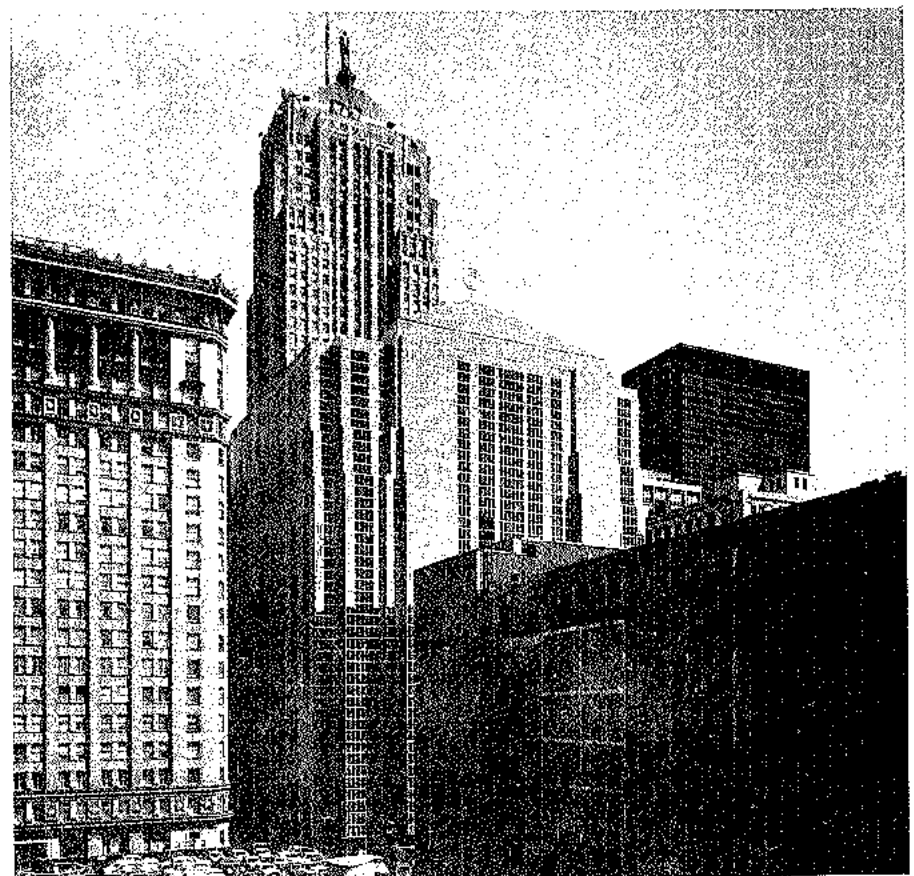
모인 컨벤션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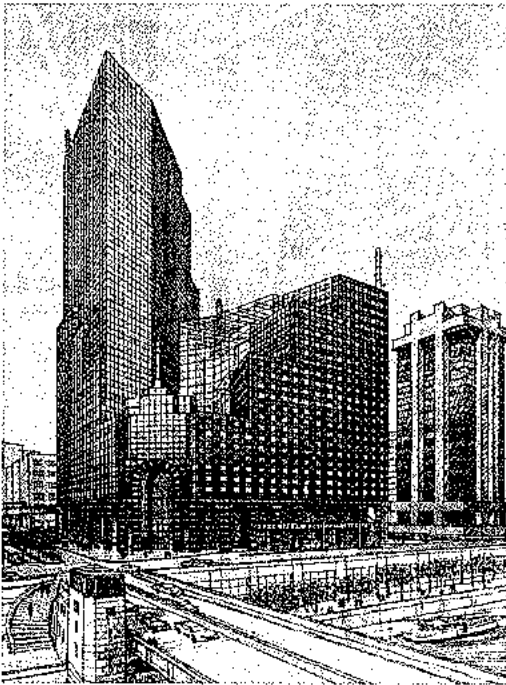
25. 드 라 가르자 직업훈련원



26. 제록스센터 전경



27. 삼성회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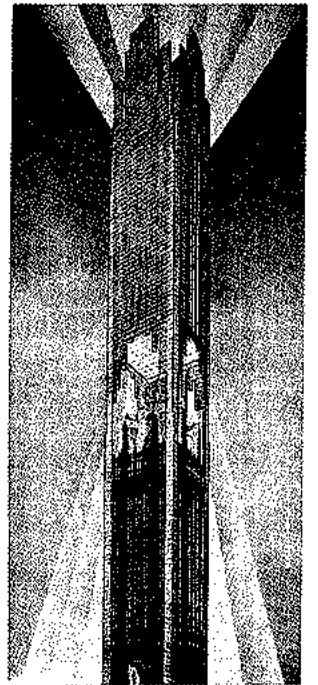
29. 북부 루프지역 16블럭 전체외관

- * 일리노이주, 오크부룩, 우체국
- *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북부 철도역. (1982-87년)
- 저층부는 철도역이고 상부는 사무실이다. '상업회의소 시카고 지부'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며, 1930년대 양식의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38)
- *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카고 주 청사. (1980-85년) (사진39)
- * 1980년 제 27회 P/A 잡지 건축상 심사위원에 위촉됨.
- * 현대기술인 인명부에 올름.
- *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클라크/먼로 계획안. 제록스 빌딩 옆 대지에 세우는 사무용 건물.
- * 시카고시. 북부신용은행 계획안. 시카고 금융지역 중심에 위치 함.
- * 이스트 몰린시. 디어 하베스트 공장 계획안.
- * 시카고시 그레이 하운드 버스 터미널.
- * 위스컨신주, 이글 리버. 단독주택. (1981-82년)
- 3인 가족의 별장으로 장차 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임. 주택작품의 숫자가 적은 것에 비해 독특한 구성. 호수를 향한 경사지에 세워진 나무구조의 3층 건물. 90cm 그리드에 맞춘 계획. 진입은 작고 긴 다리를 이용하여 3층으로 진입함. (사진40)
- * 시카고시. 오하이오 페어 뱅크 사무소 타임 라이프 건물과 마주선 대지에 세워진 사무용 건물.
- * 시카고시. 타운하우스, '시카고 세븐'이 주최한 전시회 "타운하우스,"를 위한 작품. 7개의 커다란 아치속에 4개층의 바닥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7개의 원칙을 적용한 전시용 계획(사진41)
- 1981년 머피/얀 사무소의 이사가 됨.
- * 볼락기 시카고 대학 서클 캠퍼스 교수.
- * 가을 학기 하버드 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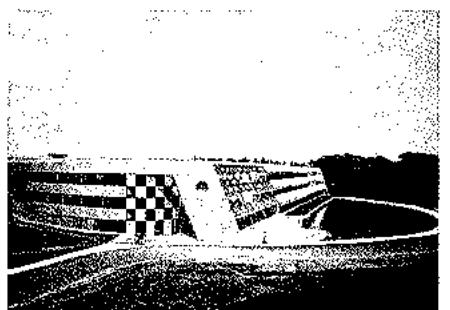
30. 쇼핑센터 전경

- * 시카고시. 전시시설과 사무용 복합건물 계획.
- * 시카고시. 워커/클라스 사무소 계획.
- * 미시간 오크. 다용도 건물 계획안.
- * 콜롬비아, 보고타. 상업시설이 있는 버스터미널 계획. 상업시설, 터미널, 철도, 공원이 인접해 있다.
- * 뉴욕주, 뉴욕시. 파크에브뉴 타워. (1981-86년)
- 맨해튼 지역에 위치. 35층의 사무실로 철과 유리 벽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대의 양식을 따름. 건물 최상부에 피라미드형태를, 전체적으로 오벨리스크를 닮은 건물. (사진42)
- * 시카고 산타 페 건물. 1903년 다니엘 번햄이 지은, 시카고파의 건물의 보수.
- * 남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11각 거리' 건물.
- 남 아프리카의 부를 가능케한 주요 생산품인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유리로 만든 작품. (사진43)
- * 콜로라도, 아스펜. 개인주택. 빅토리아 양식에 영향받은 주택.
- 팔라디오의 이상에 따라 표현을 한 주택. 1982년
- * 머피/얀 사무소의 사장이 됨.
- * 일리노이주, 시카고. 병원증축 계획안.
- * 일리노이주, 오크 부룩. 사무소
- * 시카고 강변 물 계획.
- * 일리노이주, 시카고. 큐폴라. 머피/얀 건축사무소 작품전시실.
- *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칼훈 클럽. 호텔, 콘도, 스포츠 시설등 다용도시설.
- * 필라델피아. 도심지 사무실 건물.
- * 머피/얀 설계사무소.
- * 일리노이주, 삼버그. 쿠오렘/우드필드, 3개의 동차 날개 같은 사무소. 3단계공사로 계획됨.
- 켄터키주, 루이스 빌. 휴머나 빌딩. 나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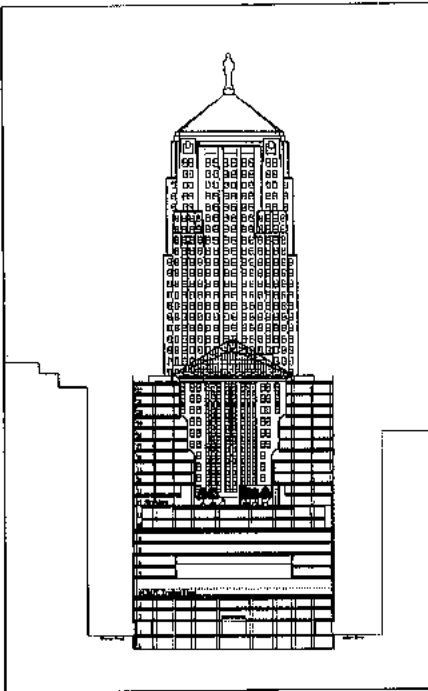


36. 튜리본 타워 계획안 두시도

- 모양의 8각형 고층 사무소 (사진44-45)
- * 매세쉴세츠, 칸톤. 코텍스기업본부.
- * 텍사스, 휴스턴. 남서 은행 건물. (사진46)
- *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701 4가 거리 빌딩. 8각형 사무소.
- * 남아프리카, 더번. 362 서부 거리빌딩. 8각형 나선형의 사무소 (사진47)
- * 일리노이주, 에반스턴. 산드 모라한 사무소 건물.
- * 시카고 1992 만국박람회 계획안. 피터 아이젠만과 로날드 크로츠크와 협동작업.
- 도시의 여러 불력을 가로지르는 입체구조물. 1983년 예일 대학 객원 교수.
- * 뉴욕, 뉴욕. 425 렉싱턴 거리. 고밀도 고층 상업 건물군. 1922년의 아돌프 로스의 시카고 트리뷴사 사옥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작품. (사진 48~49)
- * 뉴욕주, 뉴욕시. 60월 스트리트. 오벨리스크나 기둥의 형태를 고층 오피스에 적용한 현상설계 출품작.
- * 텍사스, 달라스. 달라스예술센터및 지역계획.
- * 달라스. 달라스 사무소 계획.
-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월라이어/미드베일 사무소 계획. (사진50~51)
- * 뉴욕시. 시티 센터 타워. (1985-87년) (사진 52~53)
- *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2동의 에너지 센터, 10층의 사무소 계획.
- 같은 모양의 두개의 건물을, 한쪽을 45도로



33. 아르곤연구소 전경



28. 상업회와소 단면과 뒤의 기본건물 일면

들어 배치함. (사진54)

* 미시사파주, 잭슨시, 유니퍼스트 센터.

호텔과 임대사무소. (사진55)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U자형태의 건물.

1984년

* 서독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회의장. (1986-88년)

1900년에 세워진 도시 중심부를 향해 있는 도시설계의 특징은

-광장을 향해 건물 저층부로 감싸서 공간의 형성.

-축제광장과 연결된 건물사이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

-도시에 남아있는 강력한 축에 맞춰 매스의 입체적인 요철의 변화.

-다양한 기능을 흡수하는 입구처리로서, 고유한 형태를 강조. (사진 56~57)

* 뉴욕시, 40층의 아파트

계획. (1985-87년) 입면은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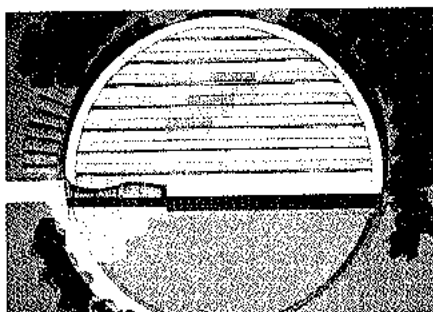
* 뉴욕시, 극장과 사무소 계획.

브로드웨이를 면하여 있다. (사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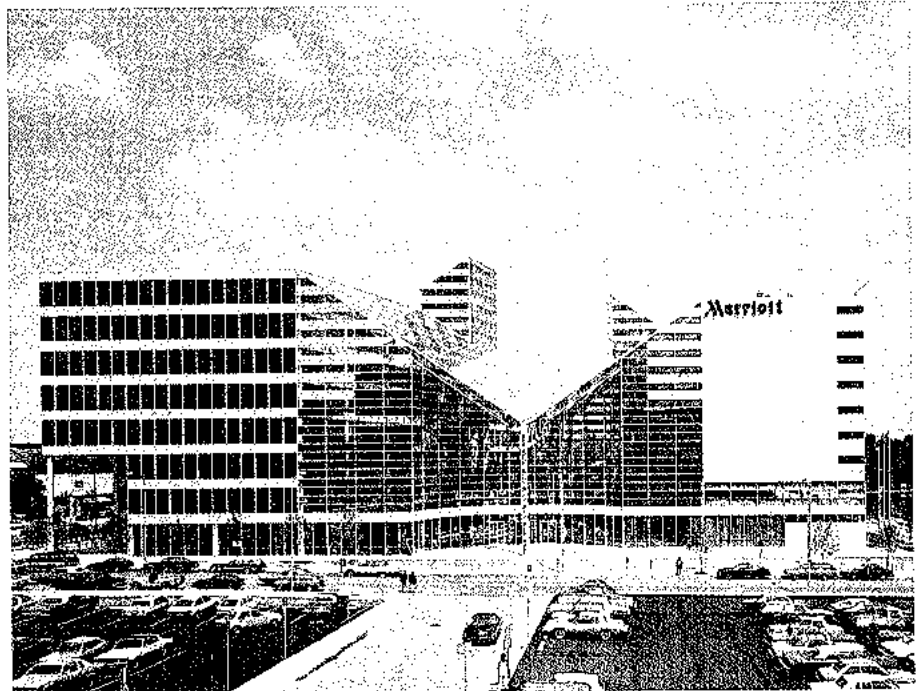
*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원 해네펜 센터.

* 뉴욕주, 뉴욕시. 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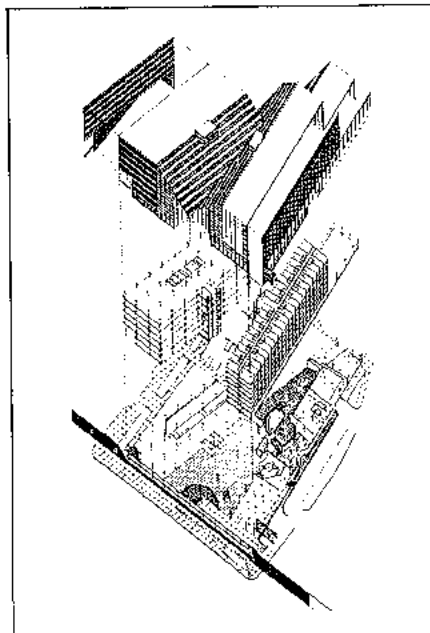
시티. (1984-1992년 완성 정. 150층의 세계 최고의 건물을 포함하는 이계획에 대해서는 뉴욕 갑부이며 '부동산 업계의 제왕'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은 "트럼프"라는 책에 건물 기획과정의 잘 기술되어 있다. 뉴욕시 해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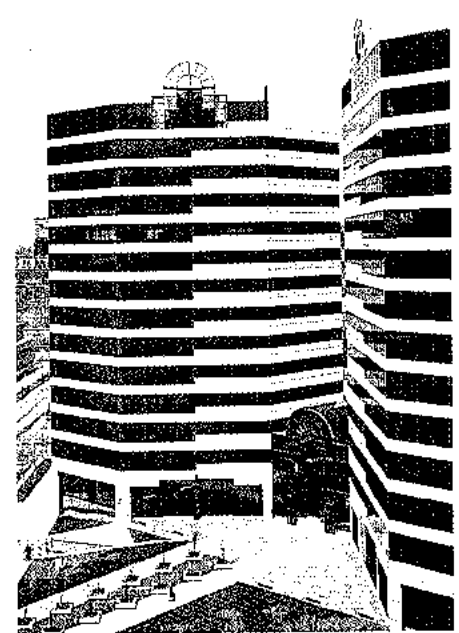
34. 모델로 본 베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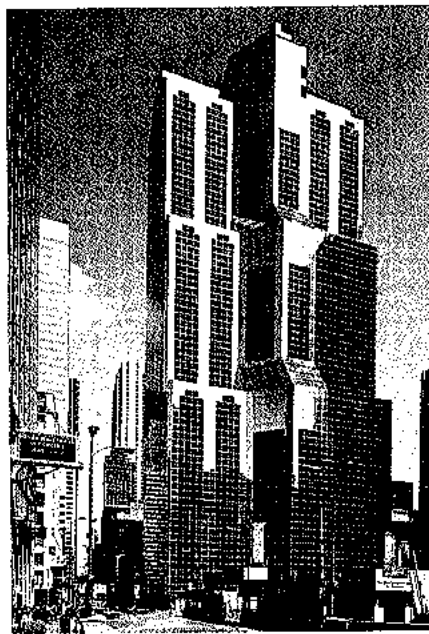
31. 퍼스트 쏘오스 센터. 왼쪽은 은행이고, 오른쪽은 호텔이며 중앙부가 식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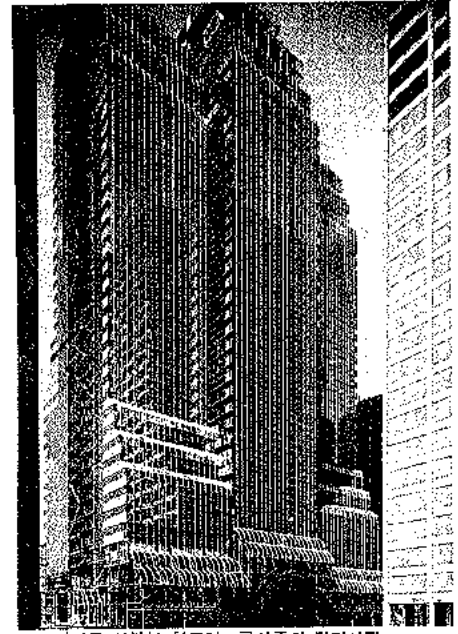
32. 퍼스트 쏘오스센터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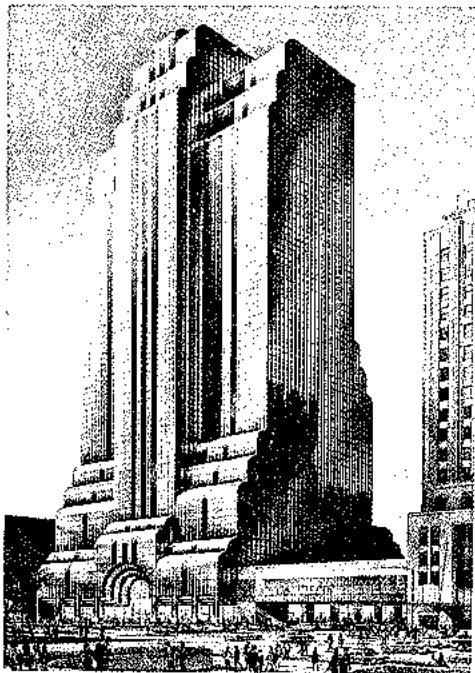
35. 플리자 이스트 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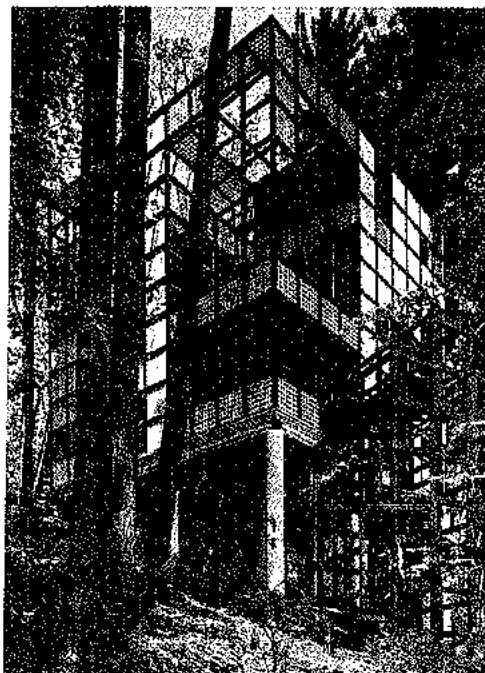
37. 원 싸우스 워커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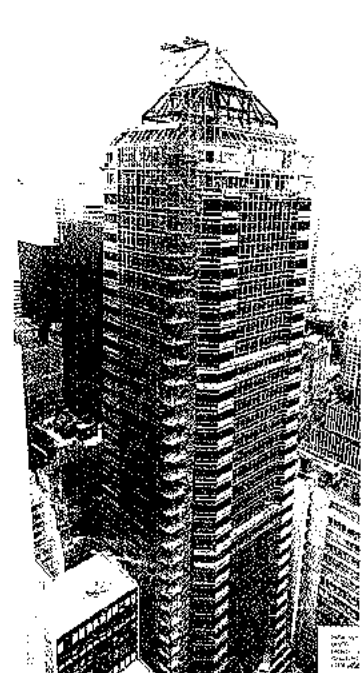
38. 시카고 서북부 철도역, 공사중의 정면사진.



39. 시카고 주청사 루시도



40. 위스컨신 주택



42. 공시중의 파크 에브뉴 타워

최대의 공지, 강으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하고, 고속도로와의 연계, 대단위 공원, 다양한 용도의 수용—주거용, 임대사무소, 판매시설, 서비스 시설, 주차시설등을 계획함. 1985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와 과감한 설계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사진 59)

3. 그의 생각

a. 건축에서의 안의 철학

안은 실무적인 건축가인데, 이것은 실제로 건물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작업에서 이루고자 한 내용을 기록한 이날을 살펴보면 우리는 안이 무엇을 위해 설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혁명으로서가 아니라, 근대정신의 연속으로서, 모더니스트의 원칙을 계속하여 적용한 것이며 분별없던 시대에 대한 반동이다.

건축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 기술적 방법에 의하며, 그렇게 하는 요소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다.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건축체계와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과정으로는 건축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추구는 근대건축에서의 교시—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던—장식을 벗어나는 일”(헉스터볼 주장)에 대한 반동으로서 형태와 그 형태로 이루어진

의미와 상징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보여준다. 6) 건물이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이 되건, (근대건축의 정신에 따라 장식등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것이 되든) 표현적인 구조가 되거나, 또는 아르데코 양식이 된다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것이다. 즉 과거를 고려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방법이 안의 방법인 것이다. 즉, 과거의 교훈을 소화하고, 현재의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는 것이다.

산업과 건축에 대해서도 그는 확고한 입장에 서있다. 건축에서 기술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기술이란 재료들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술은 노동력이 종화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형태와 미학체계가 석조기술에서부터 발전해

왔다. (아취/키스톤/기둥/주두아키테이브) 19세기까지 노동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통을 볼 수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점점 더 상징성을 부각하려는 기술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근대건축의 전통이다.

전통을 통해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은 기술의 제한을 뛰어넘으려 할 때 가능하다.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로서, 건축을 이루려고 할 때 건축은 유용한 것이다. 건축은 과거나 미래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기술을 다루면서 현재를 이야기 할 뿐이다. 7)

건축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늘어 갈때마다, 계속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에너지 보호의 문제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발생한 요소라 하더라도 의미있는 것이라면 모두 받아들여 형태를 위한 단서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을 초월한 건축적 이미지를 담는다.

b. “포스트 모더니즘” 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안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 건축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지닌다. 안데 글리보타가 쓴 책 ‘해무트 안’에서 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15년간 8)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학사상의 논란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실패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으로서 시작되었다.

기능주의, 프로그램에 의한 결정론, 기술적 표현 등으로 나타난 원칙을 따르는 건축은 대지, 장소,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건물을 만들었다.

도시생활과 주거지 문제의 보편적 해결에 대한 이상적 신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기술과 산업화는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되지 못했다. 더우기 건축가는 건축을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인 면으로 해결해 왔으므로, 당연히 건축의 구성요소로 부터 알 수 있는 의미의 중요한 측면으로 건축의 형태를 창조해 온 전통적 건축의 역할을 포기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근대건축은 죽었다고 선언하려는 문화적 경향을 경계했다.

풍피두센타, 영국의 신도시 개발같은 영웅적 시도는 기술과 근대건축의 계획이념을 찬양하려는 노력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는 이말을 주창한 찰스 젤크스에 의해 발명되었다. 포스트 모던에 의해 건축양식이 결합되어 새로운 양식이 되지는 못하였다. 대신 이 말은 현재

건축에서 벌어지는 여러 태도를 묶어 하나의 시기로 보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사적 양식, 맥락주의, 상징주의와 장식과 기초적으로 관련되어 여러 종류의 단편적인 노력들이 확실한 특징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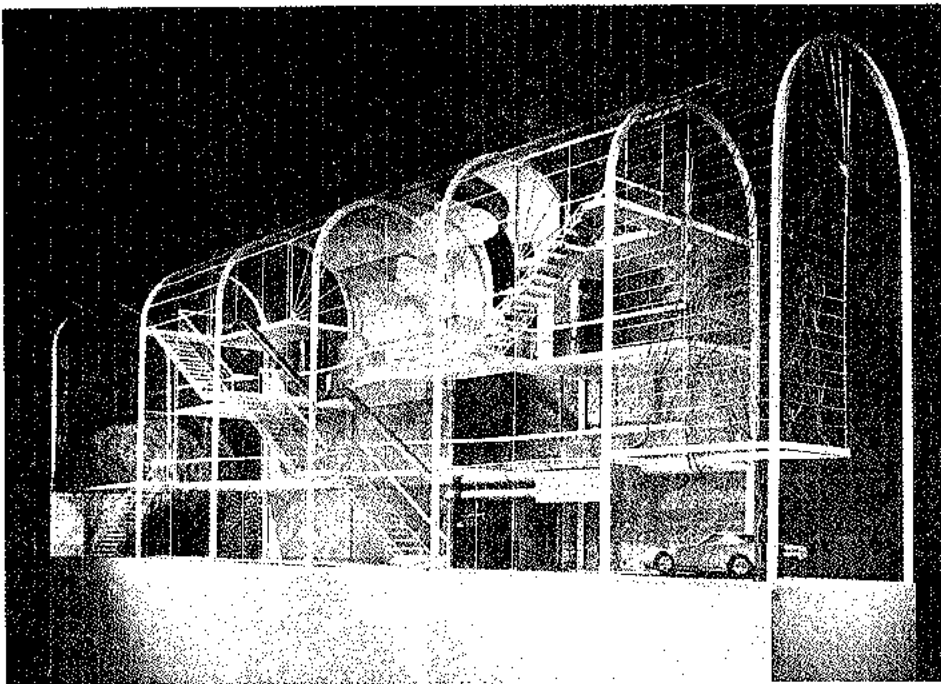
노력들은 건축형태를 탄생시키려는 앞선 양식의 재검사로서 공헌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건물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건물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바꾸게 했고, 건축과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일으켜 상호 교류를 확장시키고

도시예술로서 건축의 의미를 확인시켰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즘의 주류를 벗어난 모든 노력을 감싸주는 말이 되었다.

이말은 점차 애매해져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시각을 바꾸어, 자본주의 체계의

고착화와 배제주의로 대표되는 연금술적 이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의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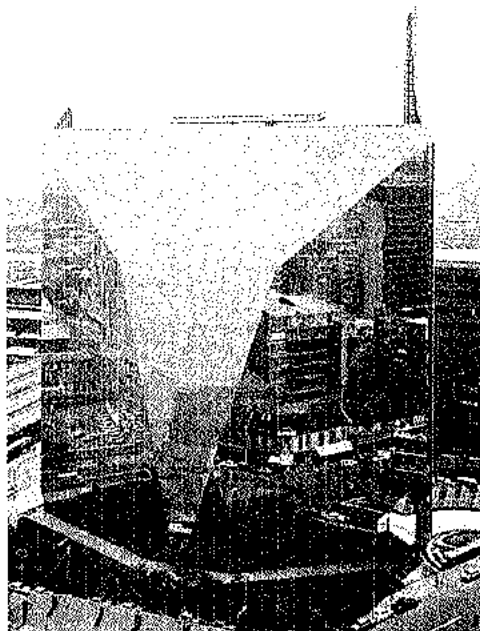


41. 시카고시 타운하우스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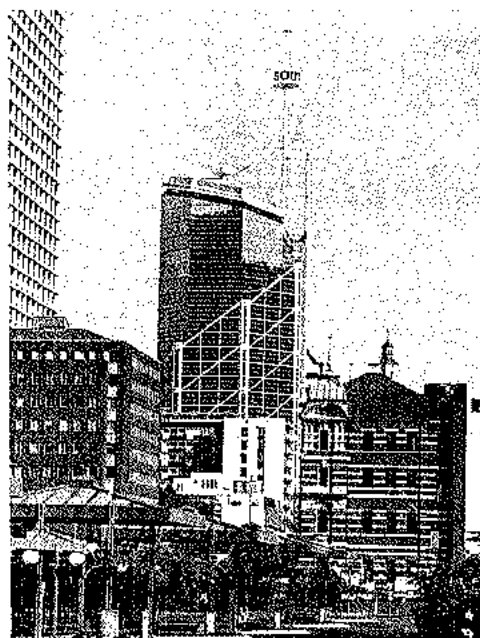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논문, 저서, 전시물, 선언의 과잉으로 시작된 건축이념에 대한 인간화 선언(르네상스)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참조가 되는 형태로 부터 전통적 형태나 질층적 형태를 사용하되로서, 이미 지어진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작품은 스스로 자기논리에 빠졌다—주창된 포섭주의가 전혀 없는 답답하고 간혹 천진난만한 대도등의 논리로— 현재나 미래의 건축철학의 방향에 대해 건축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으며, 널리 퍼졌으나 확고하지 않은 디자인 이념 속에서, 새로운 자유로 말미암아 디자인이 잘못된 부담이나 위험은 높아졌다. 젠크스가 이야기하는 “근원적 질층주의”는 건축형태를 인공적으로 만들게 퇴보하였고, 이러한 조짐이 현실화 되면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어졌다. 기껏해야 우리들은 새시대를 떠들썩 하게 맞이하고 있을 뿐이다. “동음이어”, “은유”, “반어적 참고사례”, “농담”을 벗어나면 생각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건축의 예술과 기술의 오래된 마찰을 재확인 하게되고, 오늘의 건축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⁹¹

c. 하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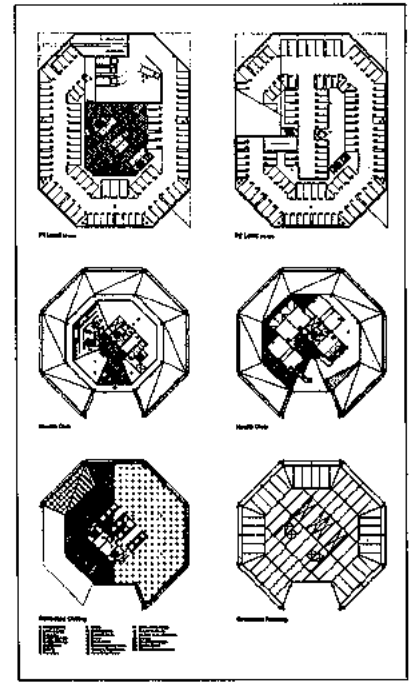
홍콩은행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하이테크가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 수 있게 된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의 조언에 의한 이 국제현상 설계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의 7개 사무소에 국한된 지명설계인데, 영국의 포스터 설계사무소가 당선되었다. 구조적특징인 달구조인데, 원형강관에 의한 이 구조는 평면의 제약을 주는 콘크리트 코어를 없애 주었다. 당선안의 구조방식에서 계속 개선된 방법인 데다는 구조로 높은 부분이 5개의 쌍시옷자 모양의 대형 보로, 낮은 전면부는 4개의 보로 각기 6개층 정도를 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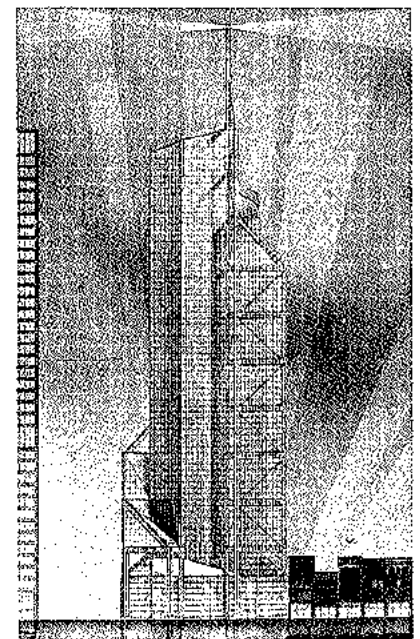
43. “11각 거리”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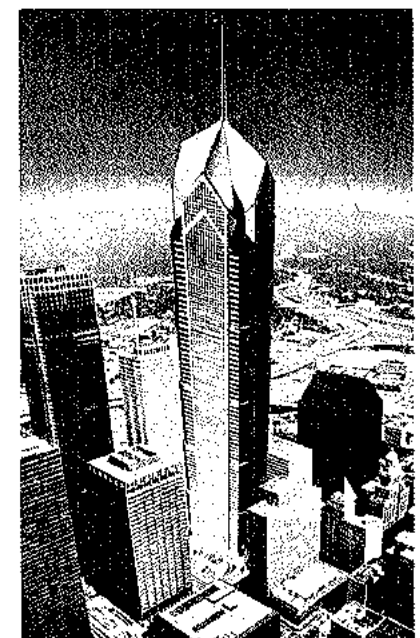
47. 362 서부거리빌딩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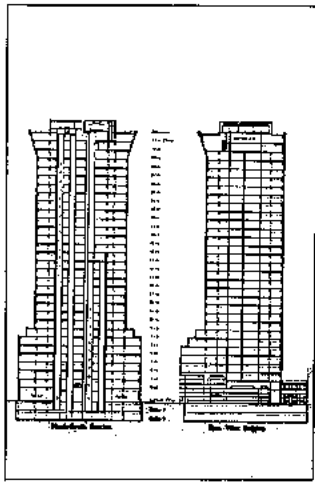
45. 휴머니빌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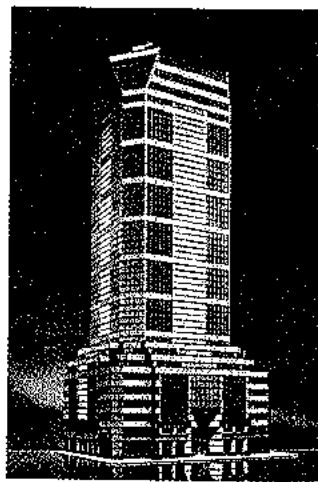
44. 휴머니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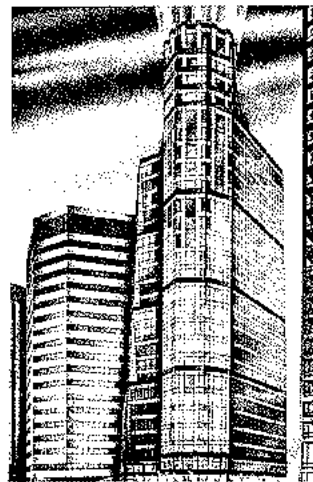
46. 중화은행의 남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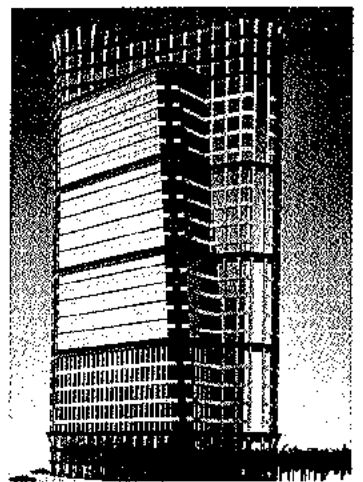
48. 고밀도 고층상업건물군 단면도



49. 모형



50. 원 사이메이트빌사우스 아간투시도



51. 모형

8군데 4개씩의 강관 즉 총 32개의 강관기둥이 모든하중과 풍하중을 지하 암반에 전달한다. 또 33m 이상의 기둥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개방성은 실내 배치계획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져다 준다. 좁은 대지에서 플라자는 자연적으로 건물 실내 지층부가 된다. 이 실내 플라자로서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해 남쪽 외부 11층 위에 반사판을 달고, IBM의 퍼스널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해를 따라 반사판의 각도를 바꾸며 실내로 빛을 들여 보낸다. 이 빛은 실내 플라자 천정에 매단 또 다른 반사판에 의해 아래 실내 플라자를 비친다.

실내 전기나 공기조화의 배관등은 천정에 매다는 방식에서 바닥에 까는 방식을 택했는데, 우리는 흔히 컴퓨터실이나 방송국의 조정실등 많은 시설기의 전선을 실내에 두어야 할 경우 사용하는, 이중바닥을 전체 바닥에 설치했다. 이중 바닥아래, 전화, 컴퓨터, 전원등의 케이블의 배출구와 공기조화 시설의 흡기구와 흡출구 등이 바닥 판을 이동함으로써 쉽게 조정된다. 즉, 설비마져 관리유지나 변경이 손쉬워 진 점을 들 수 있다.

에레베이터에 대한 우리에게 생각에도 자극을 주었는데, 한없이 기다리게 하고, 전망용 에레베이터가 아닌이상 우리를 폐쇄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에레베이터.

에레베이터는 고속으로 사람을 특정층에 올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좁은 대지에서 공사기간을 줄이면 경비가 절약 된다.

영국, 미국, 일본등에서의 각분야의 반제품이 실려오고, 홍콩에서 조립되었다. 건축가나 감리단의 할 일은 상호 연결과 조정이었다.¹⁰⁾

결과로서 우리에게 낯설고, 그 이전에 논의는 되어 왔으나, 그 유래가 적은 새로운 종류의 건물을 우리에게 선사한

하이-테크의 움직임은, 실제로 우리에게 기계의 부품을 보여주었고 있으나, 그 출발점은 인간의 편안함, 쾌적함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컴퓨터등 사무기기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변신으로 부터이다.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주시작한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가 그 처방을 잘못하는 것처럼, 하이테크의 건물이 우리에게 끼칠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모른다.

헬무트 얀은 "로맨틱 하이-테크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경향과 기술적인 경향사이의 명상을 하려는 노력을 대변한다. 또 건축의 형태, 공간 그리고 상징을 통해 기술을 일반화 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¹¹⁾ 얀은 이에 대해 완충적 노력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속에 포용하고 있다. 미국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이지만, 27회 P/A 상 심사위원으로서 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대형 프로젝트들은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나는 10여년 동안 건축에서 문제가 되는 서로 다른 여러 방향을 하나로 종합하기위해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본 작품들은 대부분 기능의 처리에서 실패 했다."¹²⁾

많은 작품이 얀이 생각하기에 과거나 미래를 담는 것은 고사하고, 기능적인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한다.

4. 배경과 상황

a. 시카고 - 현대성의 도시

20세기의 건축-현대 건축(Modern Movement)은 그 기원이나 원천을 시카고에서 찾을 수 있다. 월가를 중심으로한 동부와 대항하여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시카고 제철이 있는 미국의 제2도시. 시카고는 미국내에서 뉴욕 다음가는 도시로, 중북부의 상업, 공업,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로는 뉴욕,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3위인 도시다. 다른 도시와 달리, 시카고는 근대건축운동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모더니즘의 역사로서 시카고의 건축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1830년부터의 도시의 역사는 서부진출과 함께 대도시가 되었으며, 1871년 시카고의 경향 목골조의 많은 건물들이 대화재로 불타

버렸다. 10월 8일 27시간에 걸친 대화재로 시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시카고의 재건은 1880년부터 20년간 진행되었고, 이 기간중에 사무소, 호텔, 대 식당 등이 건설되었다. 이로부터 근대도시로의 탈바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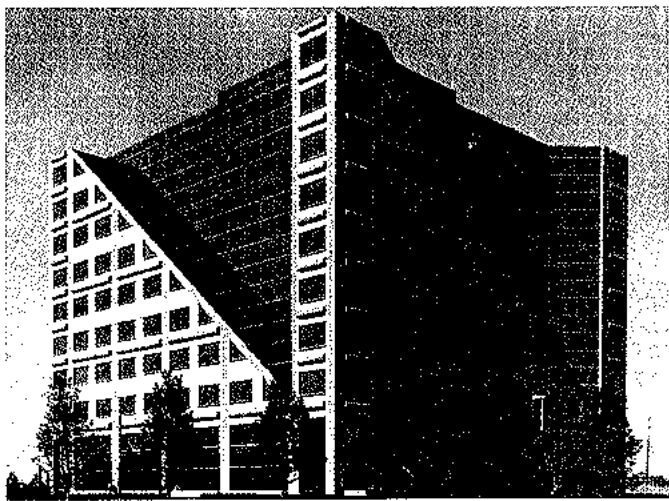
이때의 건축가 버넘, 루트, 설리반등을 '1대 시카고파'라고 한다면, 시카고파의 건축은 1890년 탄생하였고, 두번째 힘을 축적한 것은 1938년 미이스 반 델 로에가 시카고에 도착하였을 때 20세기 초에 다양하게 나타난 시카고의 전통을 무시했을 때다. 이것을 조지 프레드 켈, 에밀리 스텐포드 홀, 앤드류 리버리, 하워드 반도른 쇼 등의 건축가들이 시카고에서 질충주의를 나타내고 있을때 었다.¹³⁾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세기로부터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며, 모더니즘의 외로운 선구자도 아니라 건축환경의 다양하고 생명력있는 부분들을 통합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후 어쨌든 미이스와 켈골구조는 시카고에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이들을 '2대 시카고(학)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전통을 의식치 못하는 것으로 보여도 건축가들은 단일양식속에서 끝없이 성공작을 새우고 있었다. 국제건축을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미이스와 그의 학파의 우세성에 대해 그 역할을 의심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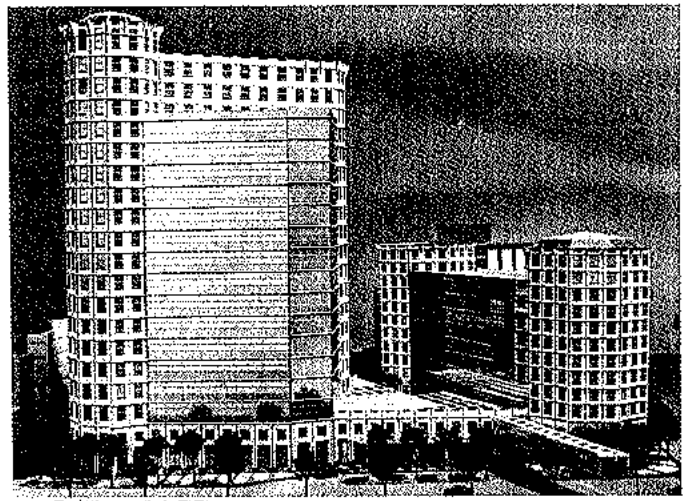
어쨌든 시카고의 모호한 전통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 지역성의 풍부한 경향으로 바꾸려는 시카고의 여러 현대 건축가들은 서로 모였고, 1968년 이후 스스로 "시카고의 7인"으로 불렸다. "말로 하지 말고, 집을 지어라"라는 미이스의 구호가 복음이 되어 있는 시카고에서 그들 7인은 공개토론등의 방법으로 건축을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b. 시카고의 7인¹⁴⁾

'뉴욕 화이트'와 달리 '시카고 세븐'은 공통의 철학이나 양식은 없었다. 사실 '시카고 세븐'중의 한사람인 토마스 비비는 반농담조로 어떤 두사람도 합일점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구름 '시카고 세븐'의 노순함은 회원이 늘어 '시카고 세븐'에서 지금의 '시카고 텐'으로 다양해 진것을



54. 에너지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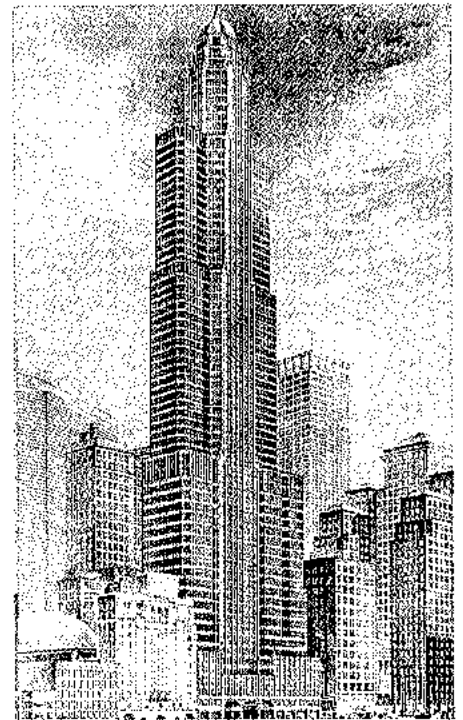
55. 유니퍼스트센터 전경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카고 세븐'—이들을 '3대의 시카고파'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시카고 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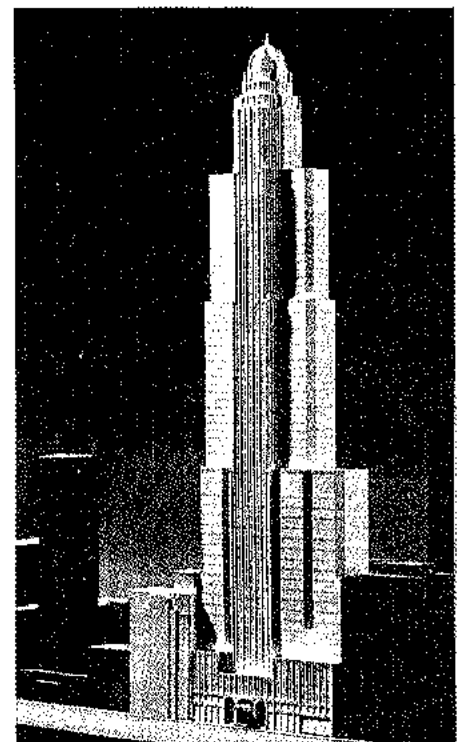
로렌스 부스 Laurence Booth¹⁵⁾
 벤 위즈 Ben Weese¹⁶⁾
 제랄드 호른 Gerald Horn¹⁷⁾
 스텔리 타이거만 Stanlay Tigerman¹⁸⁾
 스튜어트 코헨 Stuart Cohen¹⁹⁾
 케네스 슈뢰더 Kenneth Schroeder
 토머스 비비 Thomas Beeby²⁰⁾
 신씨아 위즈 Cynthia Weese²¹⁾
 제임스 네이글 James Nagle
 헬무트 얀 Helmut Jahn

아직도 그룹내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시카고 세븐'의 건축가들은 시카고 건축에 대해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시카고 출신이거나 중서부 지역 출신이다. 이러한 면에서 '시카고 세븐'은 미국 동부지역의 건축사상의 지배력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 세븐'을 스스로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자칭하는 스텔리 타이거 맨은 미이스의 미국 출현을 자생적인 미국건축을 대신해서 유럽의 양식과 이상이 대체된 것으로 보고있다. 시카고 보다 더욱 더 미국 동부지역은 언제나 유럽 전통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있다. 어쨌거나 미이스와 유럽의 전통들은 어쩔 수 없이 시카고의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 '시카고 세븐'이 미이스에 대해 자주 비난한다고 해도, 그들 역시 시카고의 전통을 알고있고, 시카고 건축사의 대립되는 많은 요소를 그들의 설계속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SOM 과 같은 대도를 보이는 미이스의 추종자 들은 아직도 시카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아마도 '시카고 세븐'은 그들의 반항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두번째의 주류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1979년 AIA 시카고지역 건축상을 통해 '시카고 세븐'은 공인되었다. 17개 수상중에서 16개의 상이 '시카고 세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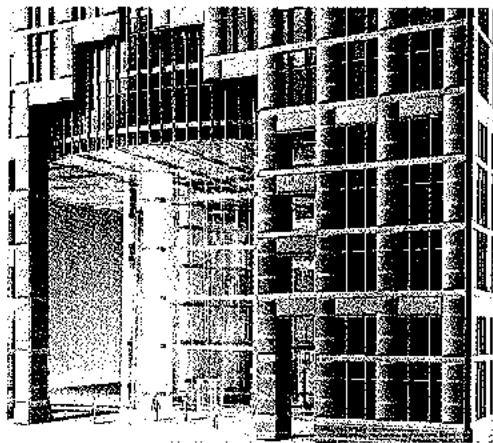
회원에게 돌아갔다. AIA 가 또한 25주년 특별상을 미이스의 판스워쓰 주택에 수여한 것과 같이, 아마도 미이스의 시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미이스의 시대가 시카고에서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시카고 세븐이 AIA 시카고 상에 오르내릴때, 시카고 중심가 루프(Loop) 지역에서 안은 혼자서 대규모 건물들을 설계하고 있었다. 시카고 세븐의 여러 건축가들은 위원회의 후보로 오르지만, 아직 초기 건축단계 설립시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아직 그룹의 젊은(80년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건축가들로서 시카고 세븐은 의미있는 일을 했다. 이러한 성공이 시카고에서 건축적 대화를 넓히고 팀의 초기 목표를 잊지않도록 했다. 처음부터 전시와 현상설계는 세븐에게는 중요한 출구였다. 이 대규모의 계획들은 현실의 방해받음이 없이 건축가들이 그들의 환상이나 꿈을 꾸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것으로 건축가로서 주목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세븐과 같은 그룹에서, 비비의 낭만적 버여질 주택으로부터 스튜어트 코헨의 연립주택의 조심스런 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안이 있다. 시카고 뉴리븐사옥 현상설계안을 뒤늦게 작성해 시카고 다리위에 새로운 설계를 전시했다. 세븐은 쇼와 라이트가 포함된 20세기초의 시카고 건축스케치 클럽이 부흥되기 바라고 있다. 이것들은 아마 세븐의 느슨함과 비행식성이 섞이기 위한 전형적 행사인 것이다. 시카고 세븐에 속한 건축가들의 생각의 단편들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노래는 다시 들여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열망이 있네 스러져 사라지는 파도너머 바닷가에 조약돌이 수련겨린다." 에이즈, "19세기와 그이후"²²⁾ 토마스 비비는 팔라디오, 제퍼슨, 아들러로 이어지는 로마의 전통을 그의 작품 '황금시대로의 회귀를 기대하며 지은 버여질의 주택'을 시카고 외곽 중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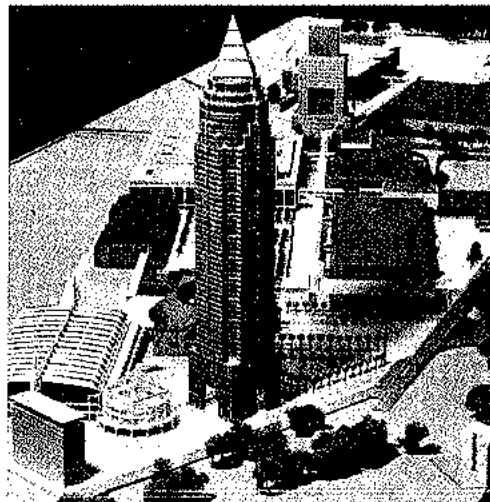
52. 뉴욕시티센터타워 두시도



53. 모형



57. 프랑크푸르트 회의장, 고층건물의 저층부 모형



56. 프랑크푸르트 회의장, 모델로 본 전경

초원에 버려진 농장의 폐허속에 표현하고자 한다. 상징적인 설계행위로 보인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과 루이스 설리만의 장식 방식에서 인간적인 건축의 전통은 시작된다. 그들 생각의 근본에는 사회적인 제약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연과 교환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자연인’의 이념이 있다…… 어느덧 ‘발전’대신에 우아한 문명을 중요하게 여겨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것에 반응하려는 생각이 20세기 후반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되었다.”

—로렌스 부스—²¹⁾

“완전한 구조, 세심한 배치계획, 내부 구획, 빠짐없는 디테일 등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켜온 자세이다. 덧붙여 최근에는 한 채의 건물을 짓는데 그 맥락을 근거로, 지역성을 보다 중시하고 주변의 오랜 건축의 모양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과 같은 설계를 하고 있다” —제임스 네이글—²²⁾

c. 시카고 트리뷴 현상설계

1922년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현상설계를 개최하여, 5개월간의 설계기간과 1개월의 심사기간을 보냈다. 총응모작품은 24개국에서 240작품이 출품되어 동, 서구및 미국과의 건축교류를 시작하게 한 현상설계임. 응모작가중에는 그로피우스와 마이어가 철과 유리및 테라코타로된 작품을 출품해 제일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막스 타우트는 유리 타워안을 제시 하였다. 아돌프 로스는 도릭기둥 형태의 고층 건물을 제안했다. 결국 당선은 레이먼드 후드와 존 하우엘에게 돌아 갔는데 이들은 고딕양식을 건물에 도입한 것이었다.

기타 수상자들은 모두 보수주의자들이었으며, 현대적인 계획안들이 대중과 심지어 심사위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²³⁾

이러한 문제는 국제연맹 현상설계(1927년)에서도 우수한 르코르뷔제 안에 (1차로는 공동수상)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냈고, 이러한 현상설계들은 근대건축과 일반대중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이후의 건축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건물을 1979년에 다시 설계해 본다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얇은 기존의 트리뷴 사옥을 그대로 두고, 마치 외벽을 뽑아 올린 것과 같은—고딕의 기존 건물이 가리고 있는 시대정신을 밝혀보일 듯한 작품을 만들었다.

d. 인명록(Who's Who)

독일에서 이민간 건축가가 미국사회의 유명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안의 경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을 이해 한다는 것은 현대 미국사회의 권력구조를 분석해 보는 일이다. 자세한 것은 C.W 밀즈의 “파워 엘리트”를 통해, 비교해 보면 다소 이해된다.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특수한 형태나 시카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상류사회의 분위기와도 관계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명록 협회는 현재 38,000여 가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명록에 포함되어야 할 유자격자의 규정을 “가문 내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밖의 자격외에도 어느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서의 최상층의 사회계층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⁴⁾

예전에는 미국에서 상류사회에 속한다는 것은 상류사회 사교계의 여왕 예를 들어 조제이 부인의 만찬회나 야식회 초대자 리스트에 기준하여 나타난 사람들을 말했다.²⁵⁾

이때의 명사들의 가문이 부를 축적한 것은 남북전쟁이후 부터라고 한다. 현대에서 예전처럼 가문을 배경으로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곤란해 짐에 따라, 가문보다 전통있는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부호와 평범한 부자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심각한 경험은 학력이다. 미국 대도시 상류사회 400대 가문의(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남자 아이들은 7살이 되기까지, 여자아이들 처럼 유모와 어머니의 손으로 양육된다. 그뒤 아이들은 통학학교에 가게 되고, 곧 이어 기숙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곳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아이비리그²⁶⁾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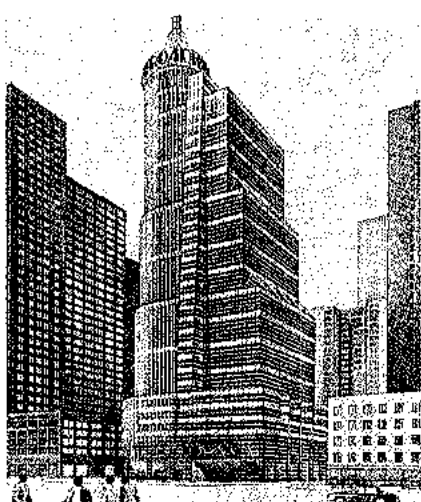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와 같은 대학으로 이어진다. 이들 학교교육은 각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학시 친구관계, 클럽과 그후의 사교와 정치적 클럽이 영향을 준다. 즉, 문제는 하버드의 어느 쪽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하버드에서 포셀리안, 프라이, 예일에서 제타사이, 펜스, 델타 감마 에프시론 등 프린스턴에서 코태지, 타이거, 캠프 앤 가운 또는 아이비 등과 같은 명문의 학생 클럽에 가입했는가와 여부이다.²⁷⁾ 이러한 교육단계는 상류계급 남녀의 지위나 신분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즉 모든 도시에서 상류계급의 자제들은 뉴잉글랜드주의 유명한 기숙학교나 예비학교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정평이 있는 예비교를 졸업하고 전통이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에서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대학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는 학력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위신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 어디를 가도 통용되고 있는 클럽이나 파티에 출입할 수있는 표준적인 입장권이다.²⁸⁾

그러한 것이 현대에 들어 다소 조정되기 시작했다. 신흥상류계급으로서 유명인사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출신계층과 활동분야에 상관없이 유명인사들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바야흐로 공적면에서는 전국적 시장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세계는, 지방도시의 사교계나 대도시의 상류사회를 초월한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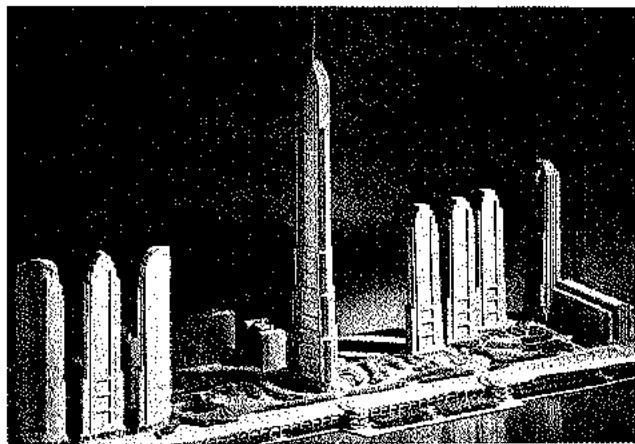
전국적인 규모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계는,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서열의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메스커뮤니케이션의 수단에 의하여 서서히 부상하였다.

이러한 유명인사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전통적인 명문을 상대적으로 위축당하게 하고 있다.²⁹⁾

현대 미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명인사의 세계가, 대도시 상류계급의 인사와 직업적 유명인 즉 영화배우, 유행가 가수, 텔레비전 배우, 스포츠 선수, 저명한 문필가등으로 구성된 일단의 인물들이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58. 극장과 사무소계획, 투시도를 통한 전경



59. 텔레비전시터, 모형으로 본 전경

전국적인 규모의 위계체계의 한 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의 최신작은 항상 시카고나 뉴욕 신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또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때로는 안 자신도 미국의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남성패션지 "GQ"의 표지에 실리어 그의 인간성, 복장, 생활 스타일은 특집기사가 되어 회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안이 건축계에서의 활동으로 얻어진 명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신문이나 잡지에의 오르 내림은 까심 기사 기고자에 의해 확산되었을 것이다.

5. 그에 대한 견해

그는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독일과 미국에서의 상반된 건축공부를 했고, 스스로 대립되는 요소를 통합했다.

미국으로의 유학과 더 넓은 세계로의 도전은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헬무트 안은 신데렐라같이 15년만에 스타가 되었고 미국사회는 이를 용납하여 그를 포용했다. 그를 받아들인 도시는 시카고였다. 그는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일까? 그를 받아들인 시카고는 뉴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하려는 것인가? 시카고 세븐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들중 일부는 미국의 과거를 재생하고, 일부는 미래를 만들고 있다. 독자적인 모습의 미국을 그리고 있다.

미국의 3대지역의 하나인 중부에서 동부를 향해 그들은 선언하고 있다. 비비와 타이거만의 친구인 안이 이들과 함께 바라는 것은? 새로운 미국의 보편적인 전통을 그려내고 있다.

다면제를 깎아내는 솜씨로나 신-구성주의자, 아르테코의 건축가, 낭만적 하이테크의 건축가라는 호칭으로 그를 표현하기 어렵다. 기능과 기술을 통합하고, 감정과 표현을 나타낸 작품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안이 표현 하는 기술과 낭만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크나큰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얼마나 충실했고, 미래를 향해 그려하며, 또 현재의 조건에는

어떠한가?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투영한다.

우리시대처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와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적은 없다. 친미와 반미사이의 수없는 동음여어가 존재해 있다. 한쪽의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몸을 사르고, 다른쪽에서는 양당배로 연기를 피운다.

이러한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이고, 미국의 건축은 무엇인가?

□註□

1. 윤정섭역, "I.M.Pei", 태림문화사. p.11.
2. Ante Glibota, "Helmut Jahn", Paris Art Center, 1987.p.15
3. A.R.1983
4. 활동과 작품은 주로 Ante Glibota, "Helmut Jahn", Paris Art Center, 1987. 에 의해서 정리했다.
5. 도날드 트러프지움, 이재호 옮김. "트럼프"김영사 1988
6. Ante Glibota, 앞책, p.601.
7. Ante Glibota, 앞책, p.603.
8. 1968-1983 년 이들을 쓴 시점까지.
9. Ante Glibota, 앞책, p.605. 1983 년 3월에 쓴 글임.
10. GA Project-Hong Kong.
11. Peter Buchanan, "Jahn's Romantic High-Tech", Architectural Review 1983:08, p.32.
12. 27th P/A Awards.
13. Ante Glibota, 앞책, p.19.
14. Lance Knobel, "Recent Work of the Chicago 7", Architectural Review 1980:06, pp.363-371.
15. 주로 주택을 설계함.
16. 로맨틱한 기질을 보여줌.
17. 안과 같이 하이-테크의 분류가 가능함. 금속 판넬을 이용한 설계를 함.
18. 1930년 시카고생. 예일대학에서 1960년 졸업. 1961년 석사학위를 받음. 1964년 시카고에서 사무소 개설. 이후 1971년 까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서클 캠퍼스에서 건축학 교수로 근무. "시카고 아키텍처전", "시카고 세븐전"등을 기획함.
19. 1952년 시카고 출생. 코넬대학에서 건축학사, 석사학위 취득. 폴린 로우에게서 배움. 리차드 마이어, 필립 존슨 밑에서 활동. 1972년 시카고에서 사무소를 개설. 현재 이리노이 대학 객원교수. "시카고의 건축가"등의 책을 저술함.
20. 1941년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출생. 코넬대학에서 존해이덕과 폴린 로우에게 배웠으며, 1964년 졸업. 예일대학에서 1965년 석사학위 취득. C.F. 머피의 시카고 사무소에서 근무. 1971년부터 하몬드. 비비. 바브카의 파트너가 됨. 1973년 부터 IIT 의 조교수로 근무. 세븐중에서 최고의 로맨틱스트
21. 여성건축가. 리차드슨과 설리반등의 초원학파에게서 해답을 구한다.
22. A + U, "전환하는 미국의 현대건축" pp.233-258.
23. GA Houses, 1.p.30.
24. GA Houses, 1.p.31.
25. Paul. D. Spreiregn, "Design Competition", M 녹 raw-Hill Book Company. 1979p.
26. C.W. 밀스, 진덕규번역, "파워 엘리트", 서울, 한길사, 1979. p. 84.
27. C.W. 밀스, 앞책, p.73.
28. Ivy League: 미국 동부의 오랜 전통을 지닌 대학들의.
29. C.W. 밀스, 앞책, p.99.
30. C.W. 밀스, 앞책, p.100.
31. C.W. 밀스, p.7.
32. A. Review, 1977:10
33. ARecord 1977:11
34. P/A 1980:1
35. A + U 1980:4
36. A Review 1980:6
37. P.A 1980:12
38. A.Review 1980:12
39. A.A Journal 1981:10
40. A + Record 1983 : 01
41. A. Review 1983:08
42. A + U. 1985:07
43. A + U 1986 : 01

窓 計劃과 在室者의 心理

Window Planning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李龍雲 / 工學博士, 建設部建築技佐
by Lee, Yong-Woon

序

窓의 크기는 在室者의 심리적 요구 및 반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환기와 조명이 창 의 필수적인 기능이었으나 인공환경에 대한 기술이 발달한 지금에는 이러한 기능들은 電氣照明과 機械換氣로 대체될 수 있게 되었고 그결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외부의 소음·먼지 등의 차단과 온습도 등 엄격한 실내환경의 유지를 이유로 창 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無窓建築物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특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이나 작업장으로서 외부의 소음·먼지 등을 차단하고 엄격한 온습도의 조정 그리고 높은 청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무창건물이 바람직하며 그 외에 백화점, 박물관, 극장 및 영화관과 같은 건물에서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공간이용상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 의 축소 또는 削除가 신중히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에 있어서 창 의 기능은 환기나 조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在室者의 심리적 요구 및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공환경으로 환기나 조명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재실자의 심리적 요구를 무시한 무창건물이나 지나치게 창 이 작은 건물은 재실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이다. NBS 의 Belinda Lowenhaupt Collins 는 재실자의 심리적 요구와 관련한 창 의 기능범주에 자연조명으로서의 晝光(Daylight)과 햇빛(Sunshine), 프라이버시, 開放感(Spaciousness) 그리고 眺望(View) 등을 포함시켰다. 자연조명으로서의 晝光과 햇빛은 실내환경에 動的의 성격을 부여하고 靜의이며 단조로운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指向性 晝光은 사물의 모델링(Modelling)에 기여하여 그 형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무실의 재실자는 실제로 인공조명 보다는 晝光照明을 더 선호하며 Well (1965), Markus (1967) 그리고 Manning (1965)의 조사연구결과— 또한 얼마간의 햇빛이 직접 실내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Neeman &

Longmore (197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90%, 병원의 환자의 경우 91%, 사무실의 경우 73% 그리고 학교의 경우 42%의 피조사자가 얼마간의 햇빛이 있기를 원하였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햇빛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재실자에게 주광과 햇빛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공조명이 발달된 현재에는 조명을 위한 창 의 기능은 그 의미가 대폭 상실되었으며 특히 근래에 발달된 대형사무실건물에서와 같이 깊이가 깊은 실의 경우에는 인공조명이 조명의 주가 되고 자연조명은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 조명을 위한 창 의 기능은 중요성이 더욱 저하되었다. 창과 관련한 심리적 요구로서 프라이버시는 재실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창 의 위치 및 창 의 크기와 관계된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실내가 들여다 보이고 재실자의 행동이 쉽게 관찰되도록 창 의 위치를 잡는 것은 좋지 못하다. 또한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는 큰 창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는 불리하며 특히 주택 1층에 있는 실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생활의 보호가 크게 요구되지 아니하는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서는 창에 의한 시각적인 프라이버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커튼, 블라인드 기타 차양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창 의 크기를 작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차단시설을 각개인이 직접 조절함으로써 프라이버시와 조망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창 의 기능으로서 환기·조명 등이 인공환경의 발달로 그 의미가 저하되고 창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가 커튼 등 건축적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재실자를 외부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창 의 視環境에 대한 기능은 창 의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으로서의 창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창 의 視環境에 대한 기능으로는 조망과 개방감을 생각할 수 있다.

1. 眺望

眺望이라는 재실자가 창을 통하여 밖을 내다 보는 것, 즉 재실자를 외부세계와 시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창 의 고유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Manning (1967)은 이에 대하여 “창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특성은 조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실내의 사람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창 의 기원이 “들여다 보는 구멍(peep hole)”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조망은 창 의 크기 및 형태와 관련이 있으며 큰 창일수록 조망에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창은 에너지 절약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조망을 위한 최소한의 창 크기 및 형태가 창 계획의 지표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외부와의 시각적 교류(Visual Communication) 즉 조망을 위한 최소한의 창 크기에 대한 연구는 대개 축소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Nelman & Hopkinson 은 축소사무실모델(폭24', 깊이 18', 높이 10')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창대높이 3' 창높이 7', 조명 270 Lux 의 일정한 상태에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최소의 창폭을 결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 최소 창폭의 평균치는 7.95이고 피실험자의 85%가 만족하는 수준의 창폭은 11 이었다. 또한 원경과 근경에 대하여 최소 창폭은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원경에 대한 최소 창폭은 7.89'이고 근경에 대한 최소 창폭은 10.10'이었다. 그리고 창에서 관측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창폭의 比(Window Ratio: 창폭/창에서 관측점까지의 거리)는 0.49~0.51이었다. 근경과 원경에 있어서 최소 창폭의 차이는 가까운 사물에 대해서는 관찰자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보다 완전히 보기 위하여 더 넓은 창폭을 원하는 반면, 원경은 거리 때문에 자세한 부분까지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물이 작게 보이므로 작은 창으로도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Keighley 는 그의 연구(1973)에서 축소사무실 모델을 사용하여 상이한

창면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창벽에 대한 창면적비는 (창면적/창벽의 전면적)는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고 30% 이상이 되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여기서 창벽이란 창이 있는 벽의 창과 벽을 통합하여 지칭한 것이다.

Keighley의 研究結果

창면적비 (%)	피조사자의 만족도
10	극히 불만족
20	5% 만족, 45% 대체로 만족
30	50% 만족, 40% 대체로 만족
45	65% 만족, 28% 대체로 만족

여기서 Neeman & Hopkinson은 창 크기를 창폭으로 표시하였고 Keighley는 창벽에 대한 창면적비를 사용하여 그 지표가 상이하지만 Neeman & Hopkinson의 실험결과를 Keighley와 같이 창벽에 대한 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 25%
 근경 : 23% ~ 원경 29%
 85% 만족 : 32%

이것을 Keighley의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양자가 매우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망을 위한 최소 창면적비는 30% 이상이 바람직하고 최소 20%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창이 한개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각 범위 60° 이내에 창이 2개 이상 있으면 그 창폭을 전부 가산한 하나의 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시각 60° 이내에서는 수개의 창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시각되나 시각 60°를 벗어난 부분은 시각 60° 이내의 부분과 동시에 하나로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망을 위해서는 창 크기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실자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싶어하며 특히 스카이라인과 지면에 대한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Kighley의 창 형태에 관한 실험 (Visual Requirements and Reduced Fenestration in office Buildings - A Study of window shape)에 의하면 재실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카이라인과 지면에 대한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는 수평창을 선호하며 창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외부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 따라 달라진다. Keighley의 실험은 축소사물실 모델(깊이 58' 높이 10' 폭은 조절가능)을 사용하여 창크기를 창벽의 20%로 일정하게 하고 피실험자로 하여금 最適의 창형태-창대높이, 창폭 및 창높이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窓높이에 대한 窓幅의 比(H/W)
 遠景 : 0.33
 近景
 -높은 스카이라인의 경우 : 0.4

-건물 전면(Facade)만 보일 경우 : 0.45
 遠景에 비하여 近景의 경우에 수평창에 대한 요구가 저하되는 것은 스카이라인과 같이 수평적인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강력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서 조망을 위해서는 동일한 창면적이라면 수평적 시야의 연속성을 차단시키는 여러 개의 작은 창을 계획하는 것보다 1개의 넓은 수평창을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멀리온(Mullion)의 폭이 커지면 시야차단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원경에 대해서는 시야차단으로 불만족스럽게 되기 쉽다.

2. 開放感 (Spaciousness)

視環境에 대한 창 기능으로서 지금까지 조망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또 하나의 다른 지표로서 개방감을 들 수 있다. 개방감 (Spaciousness)은 어떤 공간에 대하여 인간이 시각을 통하여 받는 공간의 크기에 대한 느낌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의 視知覺的인 容積感이라 할 수 있다. 개방감은 공간의 크기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창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지표는 아니고 창과 실의 크기, 조도 등 여러 시환경 요소를 포함한 지표이다. 개방감에 관한 연구로서 Collingro & Roessler (1972)는 창 크기, 조명수준 등의 변화에 따른 폐쇄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이 대단히 작거나 창이 전혀 없는 실에 대하여는 폐쇄감이 심하며 큰 창이 있는 실에 대하여는 폐쇄감이 없다. 그리고 조명수준을 높이면 어느 정도 폐쇄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창이 전혀 없거나 매우 작은 실의 경우에 조명수준을 높여 폐쇄감을 극복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宮田紀元은 半球型 人工空과 自然空 아래서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개방감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가, 개방감은 창 크기, 실의 크기, 실의 밝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실의 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天空의 밝기가 변해도 개방감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창 밖에 건물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실제의 창크기 보다 축소된 유효창의 크기만 개방감에 기여한다. 개방감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다른 물리적 요소와 같이 절대적인 척도로 나타내기 어려운 일이나 아래에 제시된 실험식에 의하여 그 최소수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개방감을 결정하는 허용개방감 Sp는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S_p = C \cdot L^\alpha \cdot R^\beta \cdot W^\gamma \dots \dots \dots (1)$$

Sp : 개방감
 L : 실내의 밝기 (작업면의 평균조도 : LUX)
 R : 실의 용적 (m³)

W : 창 크기 (입체각투사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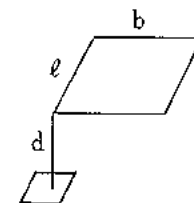
C } 天空輝度에 의하여 결정되는
 α } 係數, 指數
 β }
 γ }

C, α, β, γ는 天空輝度에 의하여 달라지는 값이지만 실험결과, 天空의 밝기가 변화하더라도 이에 의한 개방감 (Sp)의 변화는 매우 근소하기 때문에 인공공 500 cd/m²일때의 係數, 指數를 대표적으로 택하면 아래 표와 같다.

C	α	β	γ
0.036	0.38	0.98	0.53

창의 立體角投射率 (W)은 주광조명에서 보통 사용하는 天空率 (Sky Factor)은 아니고 形態係數 (Configuration Factor)로서 방사에 사용되는 전면으로부터 점으로의 형태계수를 의미하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W = \frac{1}{2\pi} \left(\frac{1}{\sqrt{d^2 + l^2}} \cdot \tan^{-1} \frac{b}{\sqrt{d^2 + l^2}} + \frac{b}{\sqrt{d^2 + b^2}} \cdot \tan^{-1} \frac{l}{\sqrt{d^2 + b^2}} \right) \dots \dots \do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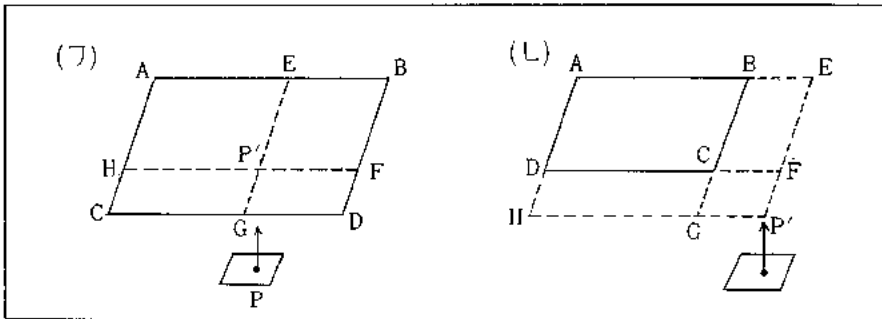
b : 창 폭
 l : 창 높이
 d : 창에서 觀測者까지의 거리

장방형 방사면 ABCD와 受射点 P가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는 수사점 P로부터 방사면 또는 그 연장면에 수선 pp'를 세우고 P'를 통하여 방사면의 각면에 평행선을 그어 수개의 장방형 방사면으로 분할하여 각면에 의한 面点 형태계수의 합 또는 차로부터 소요의 형태계수를 구할 수 있다.

(7)의 경우
 $\phi(ABCD) = \phi(AEP'H) + \phi(EBFP') + \phi(HP'GC) + \phi(P'FDG)$

(1.)의 경우
 $\phi(ABCD) = \phi(AEP'H) - \phi(BEP'G) - \phi(DFP'H) + \phi(CFP'G)$

식(2)에 의하여 일반 사무실을 기준으로 외자에 작성했을 때에 정면시선고의 평균을 125cm로 보고 시선이 창폭의 중심에 있을 때의 立體角投射率 (W)은 아래의 표와 같다.



立體角投射率

단위 : (%)

ℓ \ d \ b	1	2	3	4	5	6	7	8	9	10
1.70 \ 6	1.47	2.89	4.25	5.50	6.64	7.65	8.53	9.30	9.96	10.51
1.70 \ 9	0.67	1.31	1.95	2.57	3.15	3.71	4.22	4.70	5.15	5.55
2.20 \ 6	1.86	3.67	5.39	6.98	8.42	9.70	10.83	11.81	12.65	13.36
2.20 \ 9	0.85	1.68	2.50	3.29	4.04	4.75	5.42	6.03	6.60	7.12

ℓ , d , b 의 단위 : m

개방감을 예측하는 실험식은 창을 통하여 천공만 보일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접건물이 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폐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개방감이 감소된다.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개방감에 유효한 창 크기를 W_0 라 하면 창의 유효율 ρ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ho = W_0/W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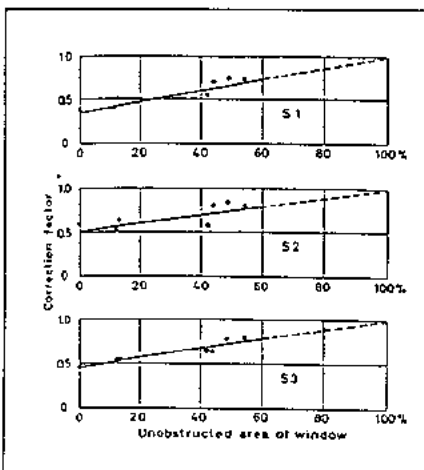
창의 유효율은 전 창면적 중 차폐되지 아니한 천공비율과 대향건물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물의 차폐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창의 유효크기는 축소된다.

最小 立體角投射率

(단위 : %)

L	8 m		12 m	
D	300lux	500lux	300lux	500lux
6 m	6.2	4.3	2.9	2.0
9 m	2.9	2.0	1.4	0.96

식(1)에 의하여 일반 사무실의 경우 최소 입체각투사율을 참고로 예시하면 위의 표와 같다. 여기서 D는 실깊이, L은 실폭이며 천정높이는 2.5m의 경우이다. 위의 표로부터 폭이 12m, 깊이가 9m 천정높이 2.5m인 사무실에서 기준조도를 300 Lux라 하면 최소입체각투사율은 1.4% 정도가 되고 따라서 최소의 창면적은 7.3m² 정도가 되며 이것은 창면적적의 24%, 바닥면적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개방감을 위해서는 창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방감을 위해서 반드시 큰 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크기의



천공의 비율과 유효율(대향건물까지의 거리 35.1m의 경우)

창이라도 적절한 계획으로 개방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結論

지금까지眺望 및開放感を 중심으로 창의 심리적 기능을 검토하여 보았다. 조망과 개방감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공환경을 위한 각종 설비가 발달되더라도 여전히 창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요구는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내의 작업활동의 종류, 실내,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획을 위한 어떠한 지표도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다양속에서도 일정한 경향을 갖는다고 볼 때, 일반적인 최대수준을 염두에 두고 계획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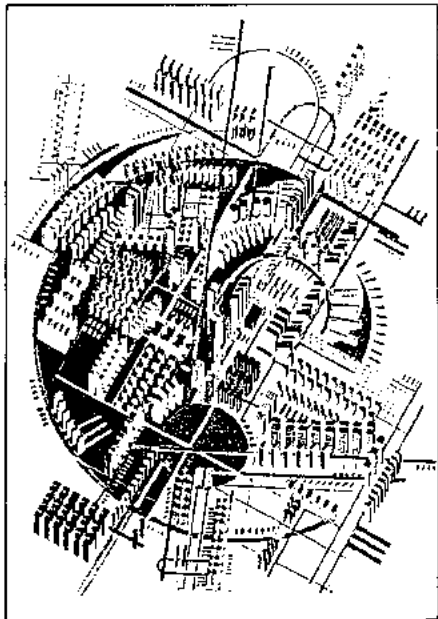
1. 宮田紀元 외 : 개방감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논문집, 소화 47년.
2. E. N'ÉEMAN: Critical minimum acceptable window size: a study of window design provision of view, Light. Res & Technol. 1970.
3. E.C. KEIGHLEY: Visual Requirements and Reduced Fenestration in office buildings, BRE Current paper, 1974
4. G. Roessler: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window for the vis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rior of rooms with permanent supplementary artificial lighting and exterior. Light. Res & Technol. 1980.

도시의 색채환경을 위하여

For the Urban Color Surrounding

劉永鳳 / 건축사사무소 창일사

by You, Young-Bong



都市는 基本的으로 街路와 建築物로 구성되고 建築物이 都市를 이루는 색채를 형성한다. 시각적 색채는 表面色, 面色, 空間色, 照明色, 光源色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색채를 지니고 있고 모양과 크기가 다르듯이 색채가 다르다. 서로 다른 색채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따라 삶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즐겁게 살아가고 목하는 환경요소가 되고 더불어 멋있게 사는 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들이 객관적으로 조화있는 환경색채를 갖고 있을때와 그 반대일 경우에 따라 生理・物理・心理적으로 의식에 重要な 영향을 주게되는데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색은 안정을 잃어 권태롭고 사회불안 요소를 제공한다. 안정된 색은 우리를 평화롭게하여 生活에 활력을 주며 활동성과 능률과 希望을 준다. 이와같이 색채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機能을 지배하는 視覺藝術로 都市색채 환경을 위한 선택은 꼭 重要하다.

建築物에 사용하는 색채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溫色계통을 많이 사용하며 건축물 건축자재 자체의 색채와 종합해 이질감없는 배색으로 처리하며 아래사항을 주목하여야 한다.

- ・ 질서있는 색채
- ・ 두색이상의 배색이 시각에 불쾌감을 주지않으며,
- ・ 같은계통의 배색으로 친근감을 주며 조화를 느끼게하고
- ・ 배색된 색채가 공통성을 가지며
- ・ 반대되는 색채의 배색이 서로 반대되면서 이질감 없이 조화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상의 여러기분은 각기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유사색상의 조화는 무난하나 변화가 없고, 명도차, 채도차를 두어 대비효과를 기한다. 반대색상 조화에 있어서는 순색끼리의 배색은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므로 명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낮추어 조화를 도모한다. 무채색은 모든색과 거의 조화되므로 유채색과 적당히 배색하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원색계통은 가능한한 사용을 삼가야한다.

옛 선조는 건축물 색채에 자재의 순수한 自然色을 중요시하고 우리 환경과 어울림에 주안점을 뒀. 전체적 造型美와 自然美의 調和에 힘을 쏟듯하고 건축물 색채에 대하여 사찰 및 궁궐을 제외하면 깊은 고려가 없지 않은가 여겨지나 일상 생활용품, 장식품, 의류 등은 꼭 다양하고 많은 색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전통색 추구에 관심을 가져 그의 발견에 노력해야겠다.

現代建築의 색채선택은 건축물의 質과 規模에 따라 디자인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여러모습이 추구되나 커튼 월(Curtain Wall)로 색유리 반사유리 등으로 처리해 건물자체가 움직이는 스크린과 같은 아름다움을 일으켜 도시환경을 動的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겠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부디자인材를 石材 벽돌, 타일, 페인트 등을 주로 사용해 건축물 색감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넓은 안목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들중 타일과 페인트색채 선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밝은서울 구성과 건축물 색채 向上을 위한 색채심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코져 함을 알고있으나 이는 껍힘든 문제이므로 전문가(시각디자인 및 건축사)에 맡겨 종합예술로 발전하도록 하여 시민의 평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APT 와 市街의 기존건물은 입주자와 건물주의 일방적 색채선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색채변경(도장, 도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하지 않을지.....

여의도, 한강변, 잠실등 도처의 대단위 APT 단지의 색상은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여 무난하게 처리해 APT 숲을 이뤄 활기차고 젊은 색채환경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좀더 밝고 대담・다양한 처리로 다수의 조화가 통일된 아름다움으로 밝은 주거환경이 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멋있는 生活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많은 색을 사용하는 우리의 색채문화를 건축에 과감히 접목 발전시키는 역할이 우리 건축인의 지혜임을 명심하고 건축물의 색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겠다.

유영봉

32년 전남생, 전남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축사사무소 창일사 대표

構造電算의 事務化 技法에 關하여

Program Technique of Structural Design

咸性權 / 인산성도건축사사무소

by Ham, Song Kwon



序

構造電算의 사무화기법은 PC 시대가 시작되지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국내외로 이렇다할 확고한 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本論에서 말하는 構造電算의 技法이라 함은 단순한 力學的, 數學的 過程에 따라 결과치만을 출력하는 SAP 등 구조물의 不靜定解法 프로그램과 같은 것의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용구조설계를 하는 구조계산자가 그 전산프로그래밍을 함께 있어 계산의 흐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할 것이며 전산의 입출력을 어떻게 하면 부담없이 가장 쉽게 전산 조작이 될 것이며,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곤란한 전산 조작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는 프린트되어 나오는 구조계산서 서식은 어떤 것이 가장 간결 명료하고 입출력치가 잘 설명될 것이냐의 문제등으로부터 최후로는 전산결과의 신뢰성의 입증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한, 복잡한 實用電算의 事務化技法을 말한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볼 때 구조전산의 사무화기법이란 사실상 기본목적은 서로 같다 하더라도 각 개인마다 그 내용은 각양각색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희망되는 것은 각개인의 각자의 프로그램조직의 기법을 공개할 때 그것이 서로의 참고가 되어 우리나라 구조기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본인의 경험에 따를 때 구조계산의 사무화기법에 관련되는 要目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며, 각항에 대하여 소견과 본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예를 소개할까 한다.

1. 使用 電算言語의 選擇
2. 一貫設計 프로그램 問題
3. 對話式 電算과 원활한 자료입력 (Date Supply)
4. 可變事項에 대한 최대한의 對備
5. 화일의 블랙박스 (Black-Box) 性에 대한 대처
6. 誤算의 화일화에 대한 防止策

7. 根據가 명확한 構造計算書의 프린팅

電算言語의 選擇

본인은 전산언어로 BASIC 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언어는 비록 통속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퍼스날 프로그래머 (Personal Programmer) 에 알맞게 프로그램이 타언어에 비하여 용이하고 인간적이고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즉 대화식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오늘날까지 경험한 바 구조전산 프로그램에 있어 계산과 표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이나 구조전산에 BASIC 보다 나은 언어가 더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전산언어의 습득에는 많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것은 구조기술을 전공하는 자에게는 주객이 전도되는 무리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BASIC 은 타언어에 비하여 전산기의 RAM 즉 기억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실행속도 (Running time) 도 길다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메가급 용량과 고성능 부품을 가진 탁상전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격도 과히 비싸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산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지만 대화식 구조계산에 있어서는 전산기의 조작자가 대응할 수 있는 이상의 전산속도는 무의미한 것이고 커피브레이크 (Coffee Break) 를 위해서는 좀 느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역설도 나오게 된다.

一貫設計 프로그램

構造電算의 理想은 한개의 프로그램 블록으로 구조계산에서부터 구조설계도의 작성까지의 全自動化 즉 一貫構造計算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이와같은 일관프로그램을 평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이 규칙적인 層構造이고 부분적 변화가 얼마 안되는 것에는 그것을 적용하여서 효과가 있을 것이나 구조의 변화가 많거나, 소규모이거나 공장건물 같은 것에는 그와같은 프로그램은

내용상 적용될 것은 못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일본에서도 그 효용의 한계가 논의된 바 있다고 하며 일관구조설계 프로그램으로 이름난 미국의 GT. STRUDL 도 그 교본을 (Manual) 을 일람하였을 때 막대한 입력규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항상 도시 고층건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일반구조설계자에게 알맞는 구조전산프로그램의 형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때 이에 대하여 본인은 근래에 완성한 RC. 전산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형태를 링크(Link) 식 일관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이것은 일반사항, 슬라브설계, 보설계 등 개개의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하여 일관프로그램의 격식을 갖춘 것으로 선행된 부분에서 입력한 모든 설계변수와(슬라브크기, 보의 스패 (Span 長 등) 설계된 결과들을(보의 CVMK, 기둥축력 등) 프로그램의 뒷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인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별프로그램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인위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무에 수차 이용한 바 시도하여 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對話式 電算

전산은 그 프로그램이 작성된대로 흐르고, 전산자의 무드는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좋은 구조 계산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좋은 구조기술적 무드에 참가케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전산프로그램이란 단순한 어떤 사무내지 기술적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예술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프로그램사용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표현에는 비디오 스크린 위에 배치되는 문자나 도형의 배치상태에서부터 문장, 화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나 이들중 무엇보다도, 한낱 최우치에 지나지 않는 전산기에 인간미를 주게하는 것은 그 대화기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미한, 역속된 숫자기호들로서 입력되고,

(그림 1)

<< MAIN MENU >>	
Code.	Item.
1	< USE GUIDANCE >.
2	General Description, and Loads.
3	Slab, Stair Design.
4	C,V, etc. of Beam.
5	N,k of Column and rc. Wall.
6	2-cycle Stress Analysis + Wind Load of Frame.
7	Energy Methods (plane, space frame, grillage).
8	Design, Check of Beam + N,V of Beam.
9	Column, rc. Wall Design.
10	Special Rectangular Slab, Basement Wall.
11	Mat Foundation.
12	Retaining Wall & Flat Slab.
13	Footing Design.
14	DESIGNED MEMBER LIST.
15	Preparation for total print.
16	TOTAL PRINT OF DESIGN.
17	JOB DONE.

enter item code number to use ?

(그림 2)

< SUB-MENU >	
Code.	Design item.
1	Rectangular slab.
2	Cantilever slab.
3	Slab or Wall section (given M,V).
4	One-way stair.
5	Cantilever stair.
6	Supplementary Description.
7	PRINT.
8	CANCEL-RESTART.
9	SUB-MENU DONE.

enter code number to use ? 7

TURN ON your printer and enter their code number, one by one. DONE (skip) ? 1
enter print starting number. when print all, (skip) ? 3

(그림 3)

Korean standard occupancies for live loads are:	
Code	Standard occupancy
1	dwelling, etc. and their corr., hall, stairs.
2	office, etc. and their corr., hall, stairs.
3	stores, etc.
4	class room, etc.
5	assemblage - fixed seats.
6	assemblage - no seats.
7	garage, car pass.
8	roof - general.
9	roof - heavy live loads.
10	corr., hall, stairs except for dwell., offi.
11	for live loads not specified in Korean code.

enter LL. code to adopt. JOB DONE (skip) ? 2

enter pertaining slabs, one by one. when DONE (skip) ? s2

(그림 4)

< INPUT of DATAS >	
enter item. JOB DONE (skip) ? s12	
when wall design, enter (y), otherwise (skip) ?	
enter M (t/a) ? 2 enter V (t/a) ? 1.5	
when short-time design, enter (y), otherwise (skip) ?	
when steel on one-face of slab only, enter (y), otherwise (skip) ?	
enter % of temp.steel. when (skip), 0.2% ?	
reqd. t = 13.66 cm. (dt=3cm). enter t, dt (cm) ? 14, 3	
Reqd. rebar D-x of (s12):	
D: 10 13, 10 13 16, 13 16 19, 16 19 22, 19 22 25, 22 25 .	
main-bars: 6.8 9.3 12.2 15.4 19.0 23.1 27.5 32.2 37.4 46.0	
temp-bars: 40.0	
! temp. bars above are for both faces of member.	
select rebar D-x. main-bars: 0 ? 10 x ? 6.8	
temp-bars: 0 ? 10 x ? 40	
enter notes. NONE (skip) ? test.	
when INPUT OK, enter (y), otherwise (skip) ? y	

```

(그림 5) 275 OPEN "i",4,"s5.d":GOSUB 565:IF AB$="o"THEN OPEN AB$,4,"s5.d"ELSE OPEN "s5.d"FOR APPEND AS 4
280 GOSUB 950:IF M$="end"THEN 15
285 CLS:PRINT TAB(30)H$;PRINT:PRINT TAB(9);:GOSUB 550:IF A$=""THEN 280 ELSE PRINT "      when ";:COLOR 1,0,0:PRINT " wall design ";:COL
DR 1,7,7:PRINT", enter <y>, otherwise <skip> ";:INPUT M$
290 INPUT "      enter M (t/a) ";P:DC=P:GOSUB 935:M1=M$:P=P#1000!:IF M$=""THEN LOCATE CSRLEN-1,35:INPUT"enter V (t/a) ";Q:DC=Q:GOSU
B 935:V=M$:IF Q=0 THEN Q=.1 ELSE Q=Q#1000! ELSE Q=.1:V$=" 0
335 PI=2:PRINT TAB(11);:GOSUB 685:PRINT"temp-bars";:Y=0:Z=P!N=1E-09:PRINT TAB(11);:GOSUB 685:IF M$=""THEN PRINT ELSE PRINT TAB(9)"4 te
mp. bars above are for 'PD$' of member.
340 PRINT "      JJ$:LOCATE 19,31:PRINT"main-bars";:K=10:GOSUB 710:A1$=A2$:LOCATE 20,31:PRINT"temp-bars";:K=19:GOSUB 710:PRINT:AB=21:B
C=82-LEN(S$)-LEN(D$)-LEN(FC$):GOSUB 560:GOSUB 640
345 IF M$=""THEN 285 ELSE WRITE#,A$,V$,M1$,R,-D1,A1$,A2$,B$,FC$,D$,6$:GOTO 285

565 IF EOF(4)=1 THEN AB$="o"ELSE AB$="e
570 CLOSE:PRINT:PRINT TAB(23)"-- to continue, press <any key> --":M$=INPUT$(1):RETURN

640 PRINT
645 INPUT;"when INPUT OK, enter <y>, otherwise <skip> ";M$:RETURN

```

나열된 指數 (Exponent) 숫자로서 출력되는 포트란 (FORTRAN) 식 전산에 비하여 요즘 흔히 Interactive 라는 술어로 애용되고 있는 대화식 프로그래밍은 그야말로 생생한 전산기에 약동감과 생동감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위와같은 취지에 우리들의 구조전산프로그램이 대화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때 그 電算器는 조작자에게 극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적 자료인용과 더불어 그때그때의 필요한 자료의 제시와 함께 계산의 순서대로 필요한 입력치들을 Key-in 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마침내 설계결과를 제시하면서 OK 여부를 물을 것이며, 이와같은 과정의 반복으로 구조계산은 만족히 끝날 것이다. 사실상 대화식 구조전산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設計用 數式의 演算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설계유도와 설계자의 옵션 (Option) 과 구차스러운 문헌참조를 피하기 위하여 비디오상에 그때그때의 충분한 참고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도 하게 될 것이다.

可變事項에 대한 對備

일관된 프로그램 블록으로 일개 건물의 구조 전체를 연속 전산할 때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難題는 그 프로그램 블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可變事項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可變事項에는 일상구조계산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들과 극히 드물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변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構造部材에 대한 短期荷重에 대한 추가계산 또는 검토, 구조물의 설계가 아닌 체크 (Check) 구조계산의 시행, 슬라브철근이 前斷力에 의한 附着으로 결정되는 경우, 인장과 휨을 받는 기둥의 단면설계등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며 이 정도의 빈도가 많은 가변사항은 그 처리프로그램을 본프로그램에 대비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기타 극히 특이한 가변사항에 대해서는 筆算 등 별도 조치로 구조계산서에 補足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중에 記述적으로

프린팅만을 할 수 있는 Supplementary Description 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랙박스성에 대한 대처

일관성을 목표로 한 構造電算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각부분의 계산결과를 잠정적으로나, 또는 전체 구조계산결과를 최종제출용 구조계산서의 프린팅을 위하여 화일에 저장하여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화일이란 원래 블랙박스라는 점에 있다. 계산하여 화일에 보관하여 둔 계산 결과들을 일일이 모두 기억하여 둘 수 없고 기록하여 둔다 하더라도 착오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방금전에 B1 보에 대한 단면산정을 하였던가, 또는 S3 슬라브를 계산하였는데 그 배근을 어떻게 하였던가, 그리고 전날에 이어 구조계산을 연속할 때 과연 어제 저녁에 어디까지 계산하였던가라는 경우 그때까지의 전체계산을 프린팅하여 본다는 것도 난처하고 막연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 그 해결방안은 Peep Program 으로 화일내의 필요부분을 색출하여 프린트하여 보는 것인데 본인은 이에 대하여 계산항목별 任意 Print out, Designed Member List 법을 쓰고 있다. 전자는 수시로 어떤 항목의 계산화일에서 全部材에 대한 계산결과 또는 먼저까지 引出프린트하여 본 이후의 계산들을 Print out 하여 보는 방법이고 후자는 어떤 시점까지 모든 화일 속에 처리보관하여 놓은 각항목별 部材名들을 引出프린트하여 보는 방법이다. 참고삼아 이와같은 화일내의 색출에서 부재명만의 인출에 대해서는 Input #에서 부재명의 변수만을 프린팅하면 될 것이고, 먼저 引出프린트한 것 이후의 계산들의 引出프린트에는 화일의 내용에 넘버링 (Numbering) 을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법을 채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아직 아무런 계산도 들어가지 않은 화일을 Open 하여 Input #할 때 생기는 Error Display 에

대해서는 계산이 들어 있는 화일에서는 eof 가 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이 된다는 BASIC의 문법을 적용하면 된다. (Sequential 화일 사용을 전제)

誤算의 화일化 防止

上述한바 화일은 一貫的 構造計算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그 블랙박스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또 하나 이 화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화일에 예치된 내용은 쉽게 정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화일에는 Sequential 과 Direct 의 두가지가 있고 그중 Direct 화일은 이와같은 불편이 없으나 일관적 구조계산에는 부적합한 것임으로 Sequential 화일을 들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된다. 화일에 입력된 내용이 이와같이 정정이 실용적으로 어려울 때 그 대안의 하나는 잘못된 계산결과를 최대한으로 화일에 입력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잘못 입력된 화일 전체를 말소하고 모든 계산을 다시하여 화일에 입력하는, 원할 바 못되는 방안이 생각되는 데 이때 가능하면 말소의 범위를 극소화 하자는 방안이다. 본인이 쓰고 있는 이와같은 수법들을 요약하면 INPUT OK, VIRTUAL DISK, CANCEL-RESTART 의 세가지 방법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NPUT OK 수법이란 誤算을 최대한으로 화일에 입력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誤算이란 부주의등으로 저질러지는 Miss-key-in, 오펜에 따른 잘못된 설계, 계산결과와 불만족 등으로 한 設計演算의 최종부분 또는 필요하면 그 도중에도 "When INPUT OK, Enter <y>, Otherwise <Ship> ? " 의 if Then Else 문법을 삽입하여, 설계연산이 잘 이루어졌으면 演算이 前進 또는 계산결과가 화일에 입력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연산을 취소하고 적당한 原点에 돌아가 다시 再演算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를때 뜻하지 않은

Design of Slab(Wall) Section.

V-M: given shear (t/m, when wall, excluded) and bending at (t/m) Source of M,V: see note. t,dt(cm). B-x: bar dia. and spacing selected. (mm,ca) main-bars: rqd. tension steel for V,M (or temp.steel). temp-bars: rqd. temp.steel perpendicular to main bars. (0.2% when not mentioned) s-d: short-time design. 2ft,1ft: 2-face, 1-face temp. steel. if any allow. stress differs from originally specified, it is printed.

item	V-M	t-dt	main-bars	temp-bars	note
			D-x	D-x	
fsx	82.61-41.3	110-4	22-12	-	temp.steel=.05% 2ft.
fsy	28.1-20.65	110-4	22-34.9	-	temp.steel=.05% 2ft.

next n = 3

誤算의 화일 入力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큰 이점으로는 電算器의 本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적 최적연산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VIRTUAL DISK 라 함은 재래에는 Mem. Disk 또는 Ramdisk 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산기 속의 기억소자인 Ram 속에 가상적 디스크를 설정하고 그것에 드라이브 (Drive) 속의 실제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전산결과를 입력, 보존하는 것으로서 일단 작업이 끝나면 그 내용을 드라이브 속의 실제 디스크에 안전하게 옮겨 놓는 것이다. Virtual Disk 의 이점은 디스크가 모터로 회전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기의 기억소자속에 디스크가 있는 것이므로 전산속도가 하드 디스크 보다도 월등 빠르며 이것이 誤算의 화일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새롭게 시작된 전산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거나 全般的 訂正을 요할 때에는 이때까지의 작업을 포기하고 실제 디스크의 내용을 다시 Virtual Disk 에 옮기면 아무런 걱정없이 먼저한 작업에 이어 일을 다시 시작케 되는 것이다.

CANCEL-RESTART 수법은 전산에 있어 어떤 화일에 오산이 입력되었을때 그 화일을 Kill 하고 다시 Open 하여 모든 작업을 다시하여 화일을 재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일 내용이 얼마 안되고 위의 Virtual Disk 에 관한 수법을 쓰기에 는 곤란할 때에 편리하다.

根據있는 構造計算書의 作成

전산에 의한 構造計算의 내용에는 演算과 같은 것까지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構造計算의 내용을 알아보고 검산할 수 있도록 入出力値가 明示되어 있고 설명도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삼아 前述한 바 본인이 작성한 RC 프로그램에서는 構造전산이 완료되었을 때 표지, 목차에서부터 전 구조작업내용이 프린트 되어 그냥 제본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설계항목마다 入출력치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가해져 있으며 내용의 Compact 화를 위하여

구조계산서는 모두 Table 형식으로 프로그램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構造計算내용의 入證으로는 별도로 프로그램式을 마련하였고 나각도로 작성한 構造計算 筆算例題과 그 電算結果를 對比하여 놓았다.

프로그램 例

위의 각항에서 설명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례로서 설명하여 보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1은 개별적 설계프로그램들의 일관적 연결을 보여주는 Main Menu 이며, 14항이 전산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할 때 먼저 어디까지 계산하였던가를 既設計된 部材名들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17항은 전산을 잠시 중단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Virtual Disk 의 내용을 실제디스크에 옮기는 프로그램이고 15, 16항은 구조계산이 완료되어 표지를 작성하고 목차와 함께 全 構造計算서를 프린트하는 命令部分이다. 그림 2는 각부분의 Sub-Menu 의 예이며 그중에서 6항은 동일 Sub-Menu 내의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補足的 記術 또는 계산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고 7항은 수시로 전산된 결과를 Print-Out 하여 보는 부분이며 그림2의 下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설계항목을 프린트할 것인가, 화일중의 어느 부분부터 프린트할 것인가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8항은 오산이 입력된 화일을 말소하고 그 부분의 전산을 再算코자 하는 부분이다.

그림 3,4는 대화식프로그램에 따른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예로서 그림 3은 설계 설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림 4에는 설계요건의 순서적 물음과 연산결과치의 선택의 Option 이 배려되어 있으며 설계의 다변화의 일례로 단기설계여하의 물음이 있고 오산화일의 방지와 최적설계를 위한 INPUT OK 의 물음이 있다.

그림 5의 프로그램 예에서 340, 345행에는 위의 INPUT OK 의 프로그램 기술을 볼 수 있고 275행에는 화일의 EOF 문법을

이용하여 error없이 화일을 Open 하는 프로그램이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은 설계결과 Table 식 프린트 예로서 여기에는 모든 入출력치와 함께 그에 대한 단위와 설명이 프린트 되어 있다.

結

지금 본 小論을 마치면서 원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도 建築電算이 더욱 활발하여져서 斯界의 동인들이 적극적으로 技法교환을 하여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에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좀떨하나마 본문에서 소개한 본언의 기법에 대하여 의문되는 점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서 附言할 것은 기술용어와 우리나라 말의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이 모두 영어로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원래 이 小論은 韓國科學財團에 대한 연구논문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電算 Program 의 作成과 그 大學構造教育에 대한 連關에 관한 연구"의 先行部分임을 밝혀둔다.

□註□

1. Micro Computer Application in Structural Engineering. W.H.Mosley, Mac Millan, 1984
2. Computational Method in Structural and Continuum Mechanics C.T.F. Ross Wiley, 1982
3. Computer Aided Structural Design D. Clarke., Wiley, 1980
4. パソコン・プログラム・パーツ集 [RC] [SS]編 滝野文雄, 彰口社, 1984
5. 建築構造計算 プログラム 1,2,3,4 手越義昭, 井上書院, 1985
6. RC, Program (古稀記念) 成性權 1988 [Program式集・筆算例題과 그 Input/output・Video/output Message集]



신한은행지점 신축예정 건물 기본형 지명현상공모 (안)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의 지향감각적이고도, 타 은행과는 다른 형태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이미지 부각과 통일성 유지의 필요성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표현적인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신한은행에서는 지점 기본형에 대한 지명 현상공모를 실시, 지난 6월 30일 마감하였다.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7개 건축사사무소 (김중업건축, 간·삼건축, 원도시건축, 희림건축, 정일건축, 예건축, 서인건축)가 지명되어 현상에 응모하여 심사결과 희림건축 (안), 김중업건축 (안), 정일건축 (안) 이 각각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7개 건축사사무소 (안) 을 모두 게재하며, 아울러 신한은행 방침에 따라 가작 3점 (안) 을 보완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는 것에 아쉽게 생각하며 다음호에 당선작과 함께 보완된 (안) 을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응모요강 및 설계지침

1. 공모모델점포 건물규모

(1) 건물규모

구 분	건 물 규 모
기 준 층	150 - 200 평
천 정 고	주영업장 3m 이상, 부속실 2.5m 이상
건 물 폭	24m 이상
건물깊이	18m 이상
건물형태	장방형, 코너형
층 수	지하 1층 이상, 지상 3층 이상
주요시설	냉, 난방시설, 변전실, 법정 주차시설, 조정시설

(2) 천정과 및 전면폭

- 건물 천정고 : 주영업장 3m 이상,
부속실 2.5m 이상
- 건물 전면폭 : 24m 이상, 건물깊이 18m 이상

(3) 주요 시설내용

층 별	시 설 내 용
지 하 층	각층 설비시설, 주차장
지상 1층	주 객장, 영업장 (수신), 금고실, 사무실, 숙직실 등
지상 2층	객장, 영업장 (여신, 외환)
지상 3층	후생시설, 서비스시설
4 층 이상	지역특성에 따라 임대시설 배치

2. 기본계획 사항 (전통적인 요소 감이)

- (1) 일선 영업점으로서 내외부 공간계획은 창의적이고 건물의 외관은 개성있는 건물이 되도록 할 것
- (2) 도시미 및 자연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할 것
- (3) 본 건물주위 및 공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시설과 운동시설을 계획할 것
- (4) 진보하는 사회와 과학기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제반설비를 갖출 것

- (5) 재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6) 각기 독립된 기능을 통제하기 쉽도록 하고 장치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배치를 할 것
- (7)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외의 출입 동선 (사람, 차량) 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할 것
- (8) 관계법규 및 규제사항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계획의 방향

- (1) 장래에 대한 융통성
 - 업무 자체의 획기적인 개선
 - 운영 System 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설 대비
- (2)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및 서비스 개선
 - 신뢰감 및 안정감의 제고
 - 독특하고 상징적인 대고객 서비스
- (3) 시설물에 대한 일련의 통일성
 - 사회 및 고객에 대한 의미 및 이미지 부각
- (4) 지역사회 관계를 고려
 - 지역적 특성을 건축 CONCEPT 에 포함
 - 주민의 은행에 대한 친근감 도모

4. 은행건축의 추세

- (1) 친근감을 갖기 쉬운 분위기
- (2) 고객 서비스를 기본으로 고객이 출입하기 쉽고 집객에 편리하도록
- (3) 영업장과 고객대기실이 동일 평면으로
- (4) 카운터 형태의 업무별 다양화
- (5) 고객대기실의 확장 및 고급화
- (6) 영업능률 본위로 각 파트 배치
- (7) 창구사무 (접객부분) 와 후방사무 (비접객부분) 의 분리 명확화
 - 소수인원이 제일선에서 접객, 가타는 후방 또는 다른층으로 이용하여 Space 를 입체적으로 사용

5. 디자인 개념 설계

기본적으로 은행 건축의 추세를 감안하고 당행의 경영이념, 영업방침을 반영하여 다음 각항을 검토하여 설계

(1) 능률성

인간과 업무조직, 제기계 시설비와의 관련동작을 가장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

- Bank of Effectiveness

(2) 쾌적성 및 편리성

쾌적한 환경은 사무능률 향상에 유익하고 특히 사무기계의 복합화는 한층 직원의 긴장감을 조성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출입과 대기 및 업무처리시 쾌적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

(3) 신뢰도

은행의 생명은 신용이므로 (Bank of Disclosure : 믿음직한 은행) 외관이나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견고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함 (유지관리 또한 저렴하고 용이하여야 함)

(4) 친근감

대중의 은행 (Bank of Retail) 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실 및 대기석의 확보, 고객 Service 공간의 제공, 색채, 기타 마감재의 선택에 있어 친근감을 갖도록 하여 봉사하는 은행, 친밀감 있는 은행의 이미지 부각

(5) 통일성

은행의 건물 자체가 P. R 매체이어야 하므로 각 기능별로 적합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있는 분위기를 주도하며, 향후 광고물, 간판, 안내표지 등 모든 시설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

(6) 고유성

당행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당행의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함

(7) 현대성

국제적 이미지 (Bank of World-Wide) 를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현대적인 국제적 감각을 표현하여야 함

(8) 지역성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문화에의 기여를 강조하여야 하며, 지역특성을 표현하여야 함

(9) 독특성

새로운 재료 및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와 안전하고 기능적인 표현이 되어야 함

6. 디자인 원칙 설정

(1) 배치방법 원칙

건물의 배치 및 건물 외적인 기능을 처리함에 있어 대지의 형성 규모, 주변 여건, 법적 규제, 방위 조건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 건물 외부공간을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외부와의 유대관계를 증진하여 잠재 고객을 확대
- 주도로에서 진입구의 인식 및 정면성의 강조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로 안전 및 이용의 편의도모
- 차량이용 증대에 따른 주차면적의 확보를 원칙으로 배치 계획토록 한다.

(2) 외관처리 원칙

① 외관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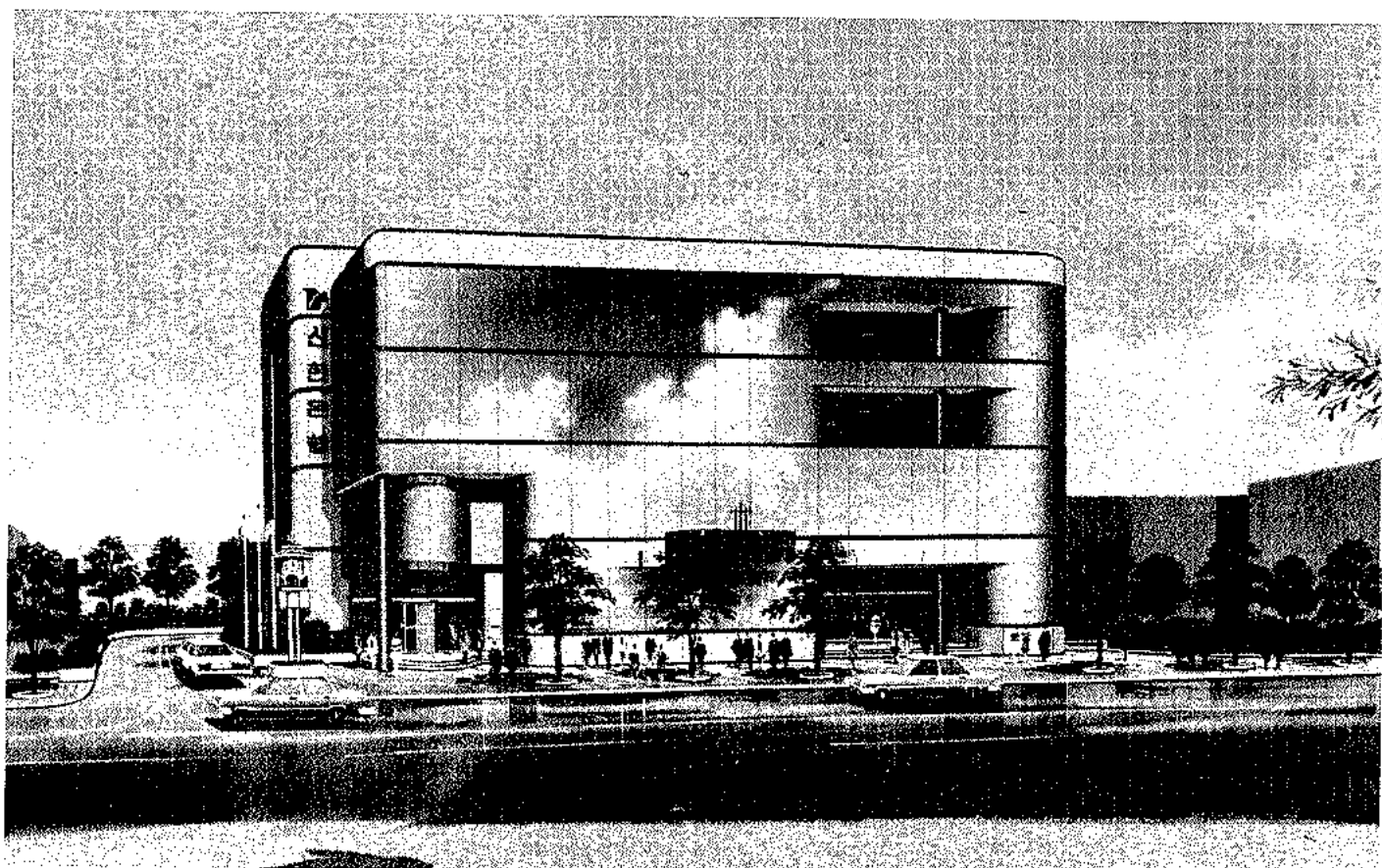
- 전체적인 정리 : 입면의 형태, 창문의 비례, 입면의 재 색상, 입면의 Module, 현관 캐노피 형태등의 전체적인 것을 일치시켜 당행의 이미지를 건물외관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디자인요소를 통일하여 입면을 전개하는 방법
- 부분적인 정리 : 현관 캐노피형태, 간판 부착위치, 입면의 재료, Module, 색상등의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만을 통일시켜 지역과 환경,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처하여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전반적인 당행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입면을 전개한다.

② 외관처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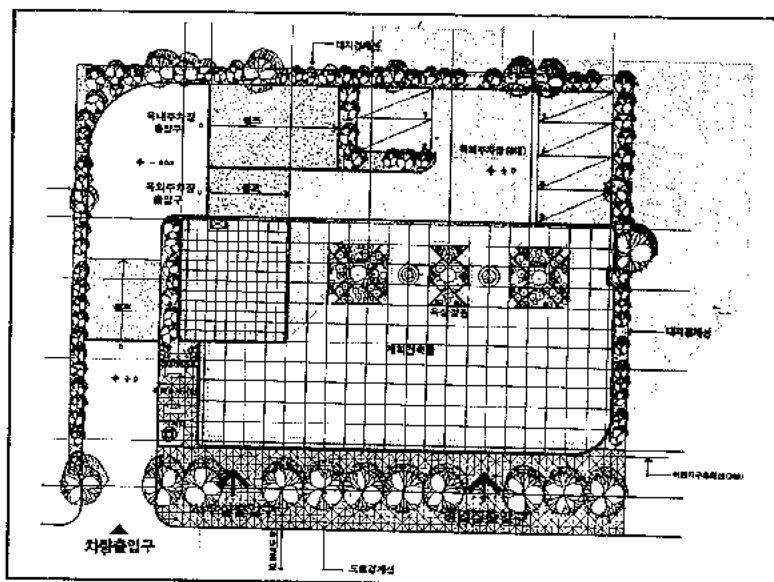
- 외부공간 처리에 있어서 은행으로서의 신뢰성과 친근성을 동시에 표현하도록 당행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외부 처리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Mass와 Void의 대비에 의한 입면처리 곡선을 사용한 부드러운 입면처리
 - 면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표현으로 하며 개구부는 주벽면에서 파내어진 형태로 처리한다. 중첩된 보류의 처리도 면적인 요소의 중첩으로 처리한다.
 - 입구 공간은 이용자를 흡인하는 형태로 표현되도록 하여 건물 외벽면에서 내부로 후퇴된 형태로 처리
 - 개구의 형태는 창의적으로 처리하나 개구부의 접는 면은 과다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창은 창의적으로 구성하되 대형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창의 선대가 되도록 중심에 오지 않도록 한다.
 - 출입문은 외부창의 요소와 관련되어 표현하되 일반인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투시되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부분은 비루시성 재료로써 처리한다.
 - 보안은 참신한 분위기와 개방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창호 부분에 가능한 철책을 지양하고 감지기를 이용한 경보 시설로 대체한다.
 - 외부재료 및 색은 밝은색 재료와 색채의 선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는 여건에 따라 선택 사용토록 하되 재료 개발의 추이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 #### ③ 내부처리 원칙
- 이용자에게 신뢰감과 친근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외부 조경 요소와 관계된 Green의 내부 공간에의 적극적인 도입, 고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장소의 확보와 정보 전달장치의 도입, 밝고 지우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공간 연출
 - Counter : High Counter 방풍실 및 객장 영업장 중앙에 위치하여 5-7석 (면적, 인원, 지점규모에 따라 변동) Low Counter 상담실 및 지점장실 쪽에 위치하여 3-5석 (면적, 인원, 지점규모에 따라 변동)
 - 객 장 : 최소 4-6m 폭을 유지하며 가능한 넓은 분위기로 계획함
 - 영업장 : 2선 4m, 3선 6m 를 유지 통행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
 - 출납실 : 영업장내에 금고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고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유리를 사용한 칸막이를 설치한다.
 - 사무실 : 영업장 서고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미관상 좋지않은 물품을 두어 영업장 분위기를 향상시킴.
 - 금고실, 서고 : 제한된 면적에 가능한 넓게 확보하여 전표등 각종 서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고 영업장 및 사무실과 유기적인 위치에 둔다.
 - 숙직실, 생의실 : 금고비 노출 안됨. 사무실에서 출입 가능하게 배치 직원들의 후생 차원에서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주방, 식당 : 입구기능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행원들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
 - 지점장실 : 영업장을 측부에 배치하되 가능한 객장에서 출입이 되도록 하고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추구
 - 상담실 : 독립된 공간으로 이용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간이 칸막이등을 사용 개방적 분위기를 추구
 - 전시실 : 은행업무와 별도로 고객유치 및 봉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서 전시, 문화행사 집회를 위한 기능을 가진다. (점포의 규모 및 대지 여건에 따른다)
 - Drive In Bank : 차량 이용자를 위한 Drive In Bank 의 설치룰 원칙으로 하되 대지위치 조건 및 규모에 따라 선택여부를 결정한다.
 - 야간장구 : 보도측에 면한 영업장 또는 객장벽의 외부에서 인지가 용이한 장소에서 설치한다.
 - 내부재료 및 색 : 실내 마감재료에 있어서 백색계 재료 및 색채의 선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 사용토록 하며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등의 적용에 있어 재료 등급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재료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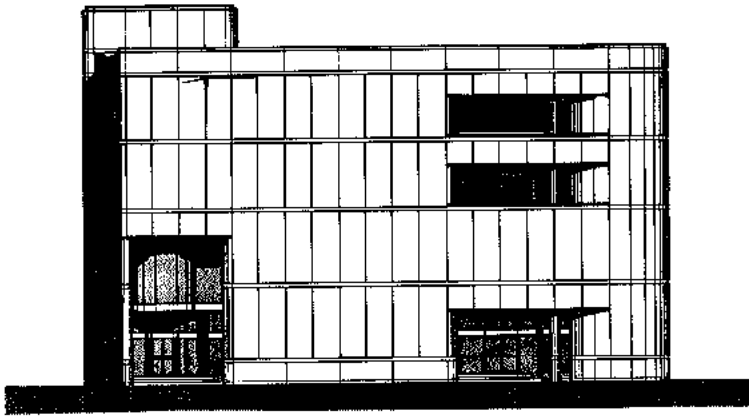
Hilim Architects & Engineers Plan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5/568-7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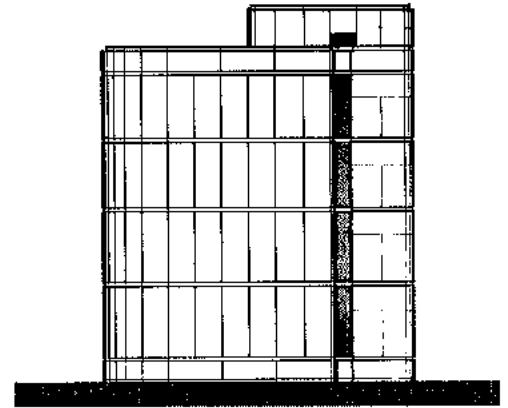


대지면적 / 1,307㎡ (395.44평)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제4종미관지구
 규모/지하2층, 지상4층, 옥탑1층
 건축면적/536.4㎡ (162.26평)
 연면적/3,384.4㎡ (1,023.75평)
 건폐율/41.04%
 용적률/258.94%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옥외:6대, 옥내:15대
 (법정 옥외5대, 옥내19대)
 조경면적/200㎡ (60.5평),
 법정:15%(196.05㎡)
 외장재료/알루미늄 복합판(알루코 본드) +
 복층단시유리(1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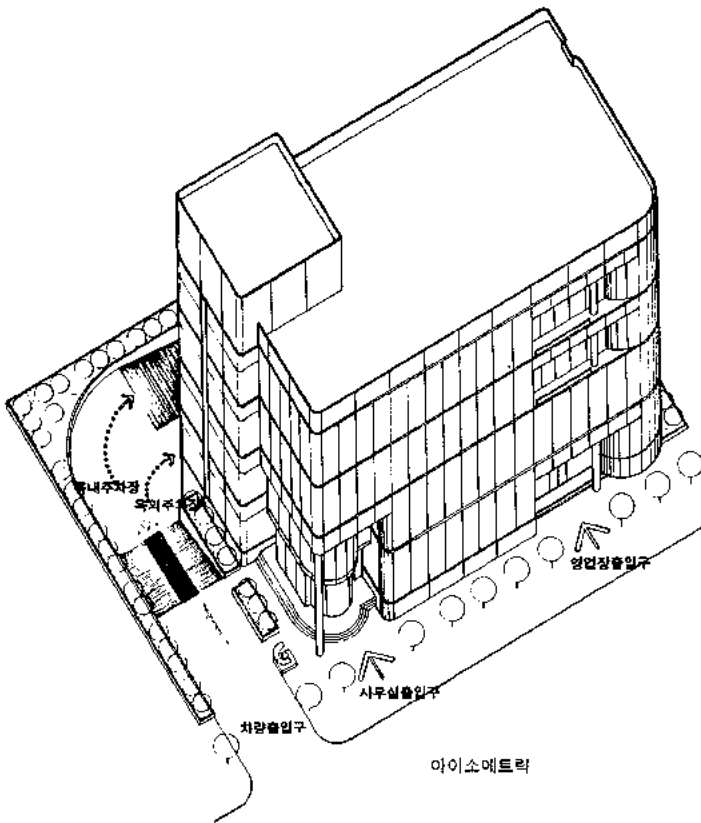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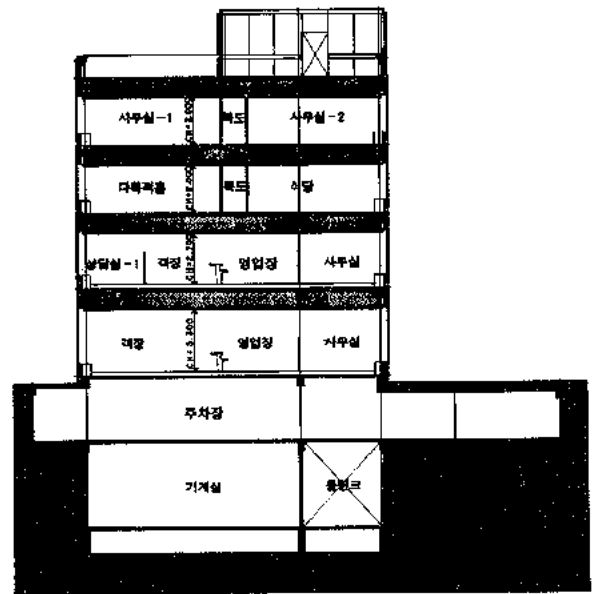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아이소메트릭



종단면도

■ 배치계획

- 외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인에 제공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고객을 끌어들여 확장시킨다.
- 고객 출입구와 직원출입구를 분리시켜 혼잡을 피하며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 차량 동선을 좌측에 뚫음으로써 Circulation을 원활히 한다.
- 전면은 3m 후퇴시킴으로써 공공의 동행에 기여한다.
- 고객의 출입구와 사무실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무실 출입구를 뒤로 후퇴시킴으로써 고객 출입구의 정면성을 강조한다.
- 차량 동선은 왼쪽입·출입구를 두며 Ramp의 구배를 줄이기 위해 진입로의 일부를 Down시킨다.
- 사무실 출입구 근처는 비교적 조용한 곳이므로 변위와 조정시설을 뚫음으로써 일반인에 대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 야간급고의 위치를 안정성을 위주로 배치함

원칙으로 하여, 야간에 조명시설이 가능한 사무실

- 출입구 부근에 설치.
- 대지 전체에 조경을 분산시킴으로써 건물의 수직적 긴장을 완화시킨다.
- 주차 댓수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차 증기될 주차장 요구를 반영시킨다.

■ 입면계획

원칙

- 은행으로서의 신뢰감과 친근성을 표현하도록 하되 신한은행만의 독특한 Image를 담을 수 있는 형태
- 창의적인 작품으로써 도시의 비적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건물
- 외부 재료는 현재적 Intelligency 화를 표현하는 재료로 선택하며 그 색채는 밝은 색조로서 경쾌함을 유도한다.

형태

-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너도복 모서리의 처리는 원형으로 하여 직선과 원의 조화를 살린다.

- 휘어지는 면을 부분적으로 평탄한 면과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면적 성격을 강화시킨다.
- 이때 전면과 후면을 Layering 수법으로 배치시킴으로써 후퇴된 면에 제2의 Facade를 인식시킨다.
- 이 후퇴된 면에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Layering의 효과를 더욱 강조시킨다.

재료선택

- 반사유리와 알미늄 합성제인 '알루코본드'를 사용하되 그 색채로 금색(Gold)를 선택함으로써 상업건축의 성격을 강화한다. 또한 수평으로 검은색(Black)의 띠를 돌림으로써 안정감을 준다.
- 정두리 검은 붉은색의 화장양을 사용함으로써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평면계획

지하층

-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뒀으로써 직원의 체력단련과 Recreation 시설로 활용한다.

1층

- C. D코너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고객용 단말기를 병행시킴으로써 생활정보, 은행정보를 고객이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 C. D코너는 영업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방법대책을 세워 계획한다.
- C. D코너는 영역을 확장시켜 일부를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또한 Open계단의 중앙부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예술적 분위기를 창출한다.
- Low Counter와 High Counter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II/C는 자동기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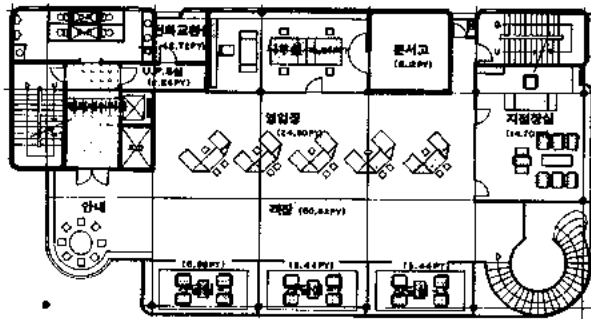
- 영업형식은 2선 장차 1선까지 축소할 것을 고려하여, 자동화 System을 설치 가능토록 하며 제3선사무를 구획된 실내로 끌어들인다.
 - 객장은 최대한 넓은 공간을 할애함으로써 개방감과 쾌적함을 부여한다.
 - 금고의 설치에는 3선사무실에서만 연결되도록 하여 Security를 강화한다.
 - 2층 연결 계단은 원형계단으로 설치하여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시킴으로써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마무리 함과 동시에 Counter의 위치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2층**
- 일반형 Counter System에서 탈피하여 Salon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고객에게 각종 상담과 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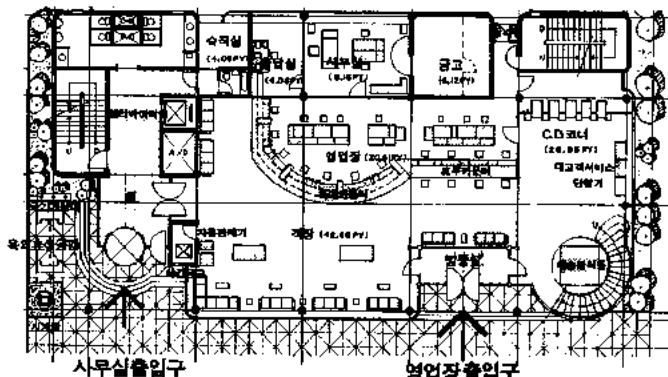
- 고객의 다른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홀과 상담실, 지점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공간을 설치하며, 이는 쾌적하게 설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 3층**
- 다목적 홀을 뒀으로써 대주민 봉사를 강화하고 직원연수등의 기능을 수용케 한다.
 - 식당, 휴게실 등은 직원의 후생 복지의 차원에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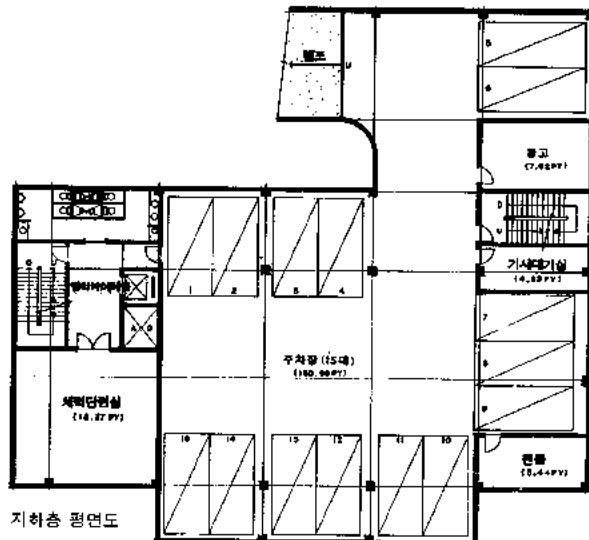
- 4층 임대사무실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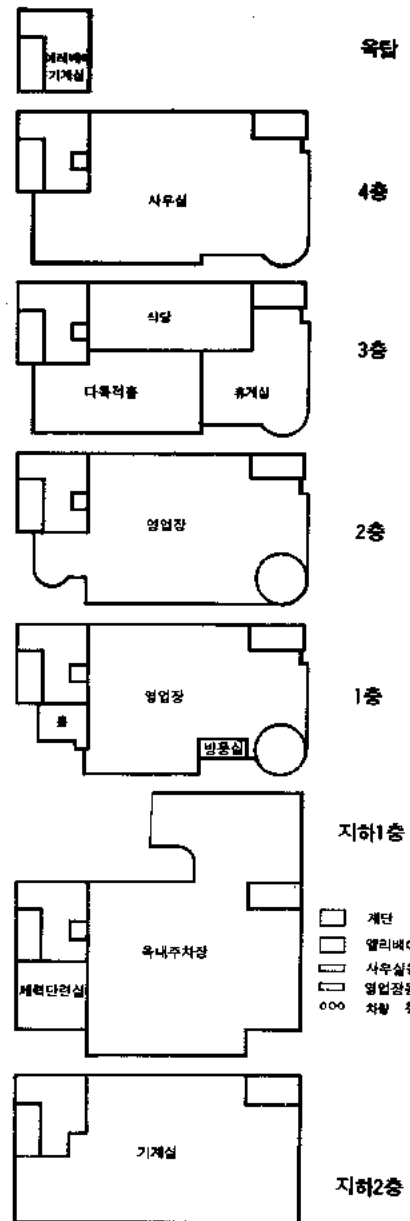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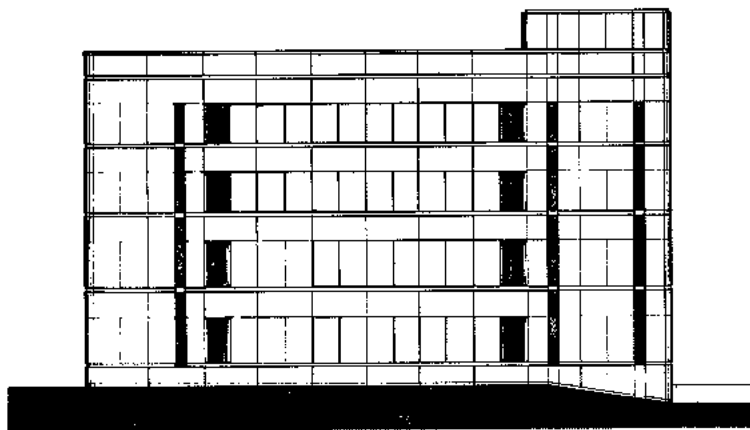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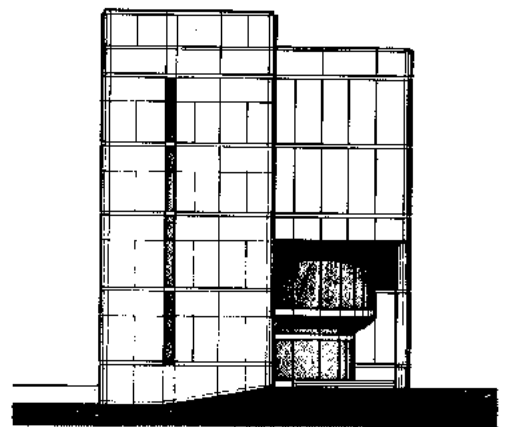
- 계단
- 엘리베이터
- 사무실등선
- 영업장등선
- 차량 동선

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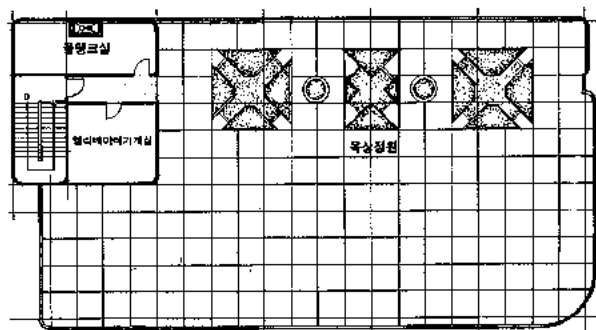
기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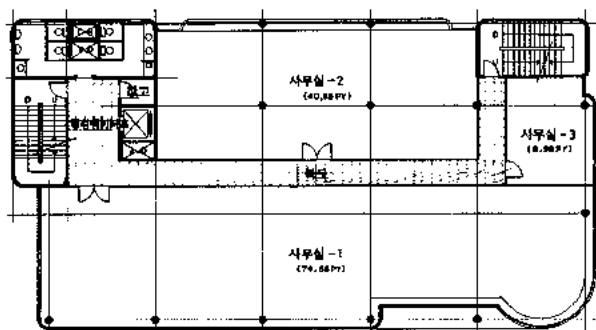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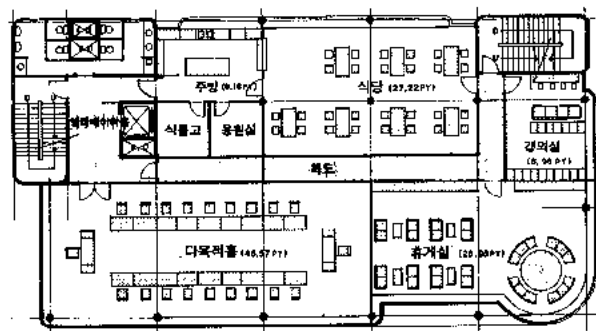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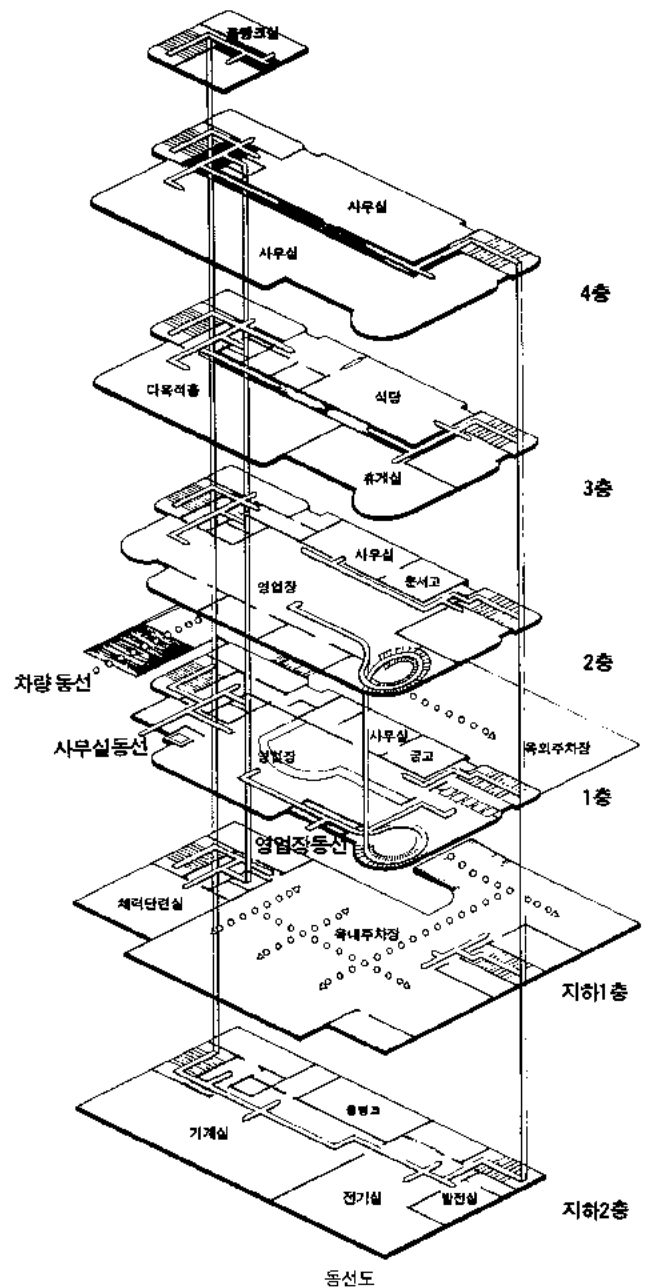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가작〉

김중업건축(案)

C.U Kim-Associates International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9 - 11/583 - 9998



■ 설계개요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A 안: 1112.5㎡ (336.5평)

B 안: 1038.6㎡ (327.8평)

연면적 / A 안: 2299.3㎡ (695평)

B 안: 2290.1㎡ (692.8평)

건축면적 / A 안: 455.3㎡ (137.7평)

B 안: 435.3㎡ (137.7평)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설비 / 공기조화방식

최고높이 / 22.5m

주차대수 / A 안: 옥외 (5), 옥내 (11)

B 안: 옥외 (5), 옥내 (10)

층별주요시설 /

지하: 주차장, 기계실, 선문가든, 다목적홀, 커피숍

1층: 객장, 영업장, 금고, 상담실, 자동화기기실

2층: 여신, 외환영업장, 객장, 지점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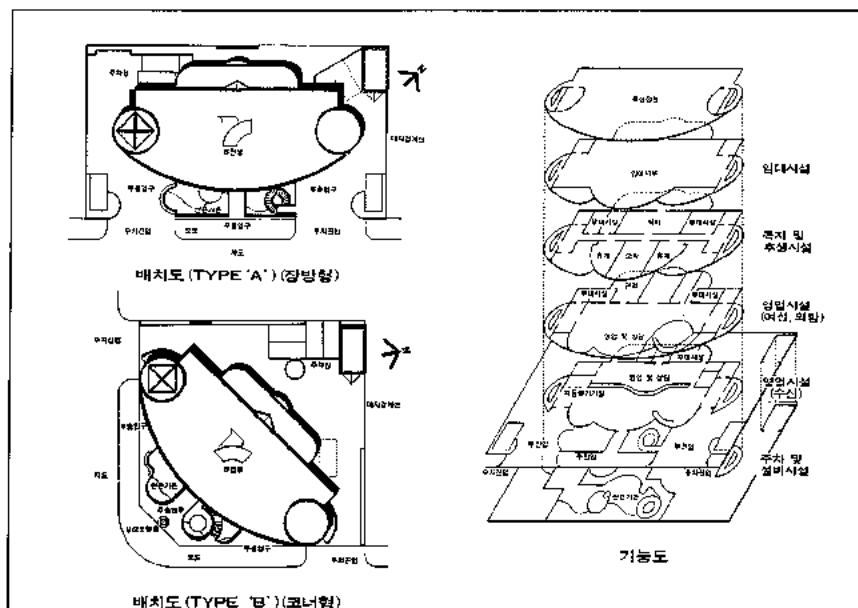
회의실, 응접실, 숙직실, 교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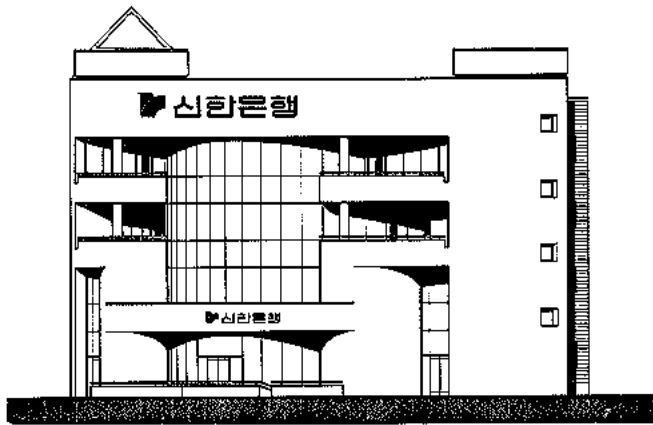
3층: 식당, 주방, 탈의실, 오락실,

남·여 휴게실, 옥외 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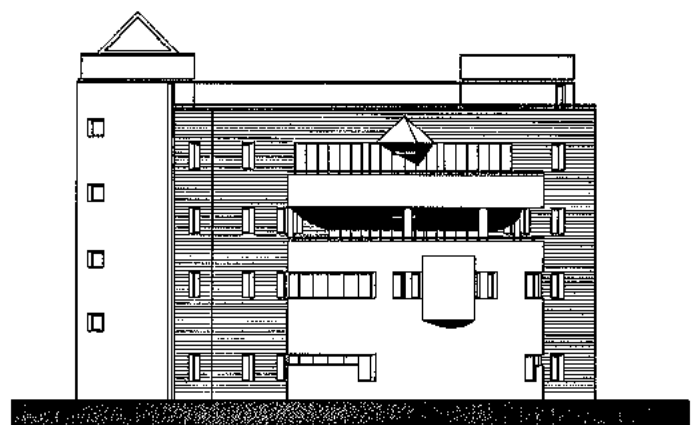
4층: 임대사무실

옥탑: 물탱크실,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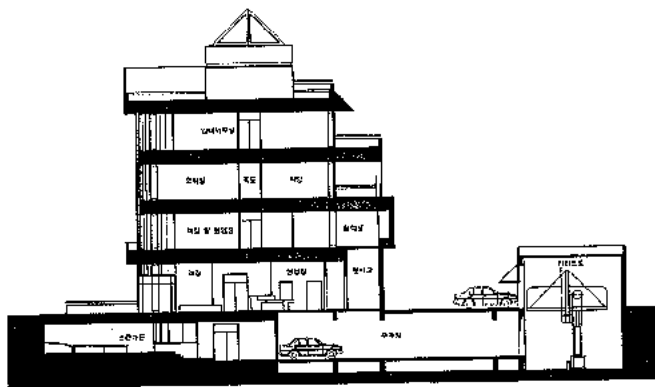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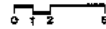




정면도 - 1 (TYPE 'B')



배면도 - 2 (TYP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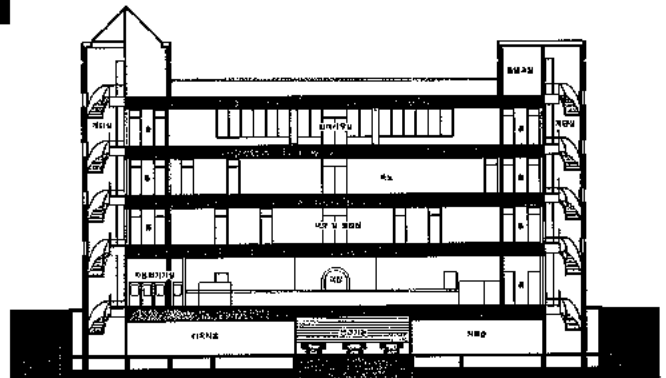
단면도 - 1 (TYPE 'B')



모형



모형



단면도 - 2 (TYPE 'B')



■ 디자인 원칙 설정

• 접근성 (EASY APPROACH)

통사하는 은행, 친밀감 있는 은행이 됨으로서 보다 고객에게 정착되어진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편의성 (AMENITY)

서민, 고객에 대한 배려를 상징하며 편리한 은행, 쾌적한 휴식, 부드러운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독특성 (UNIQUE)

새로운 재료 및 현대적 감각의 세련되고 독특한 조형미를 부여하여 확실히 도시속에서 자체만으로 신한은행을 상징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안전하고도 기능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

• 고유성 (ORIGINALITY)

국가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서 우리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신한은행이 국가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정보성 (INFORMATION)

국가문화에 기여를 강조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에게 문화적 정보의 신속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성 (MODERNITY)

국제적이고 독특한 이미지, 또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진보적인 은행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여야 한다.

■ 디자인 요소 결정

신한은행 지점 건축계획의 원칙설정에서 전개되어진 디자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ITEM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 배치방법의 원칙

• 원칙

건물의 배치 및 건물 외적인 기능을 처리함에 있어 대지의 형상, 규모, 주변여건, 법적, 규제, 방위조건 등 여러 조건이 다르게 되나 외부 공간의 기능적인면과 이용의 용이도가 강조되므로 시설물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 건물외부공간을 외부이용자에게 제공 (Public open Space) 하므로써 외부와의 유대관계를 증진하여 잠재고객을 확대.

- 이용자의 출입을 목적으로한 진입공간의 후퇴처리

- 주도로에서의 진입구의 인식 및 정면성의 강조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로 안전 및 이용의 편의도모

- 차량이용증대에 따른 주차면적의 확보를 원칙으로 배치 계획토록 한다.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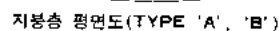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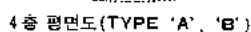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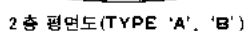
대지의 위치조건에 배치방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치 계획토록 한다. 외부공간의 기능적인 요소도 위치에 따른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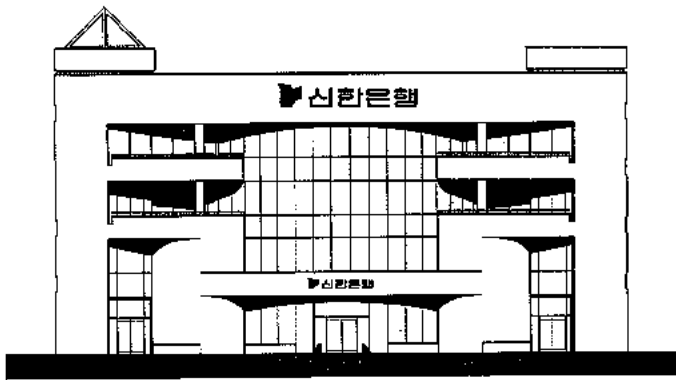
Public Open Space는 고객의 주동선과 직접 관련되는 위치, 고객의 주 진입 동선은 도로에서 가장 인식이 용이한 위치, 주차장은 진행방향에서 주 진입구를 통과한 위치를 우선으로 하고 대지의 여건상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배치토록 한다.

• ACCESS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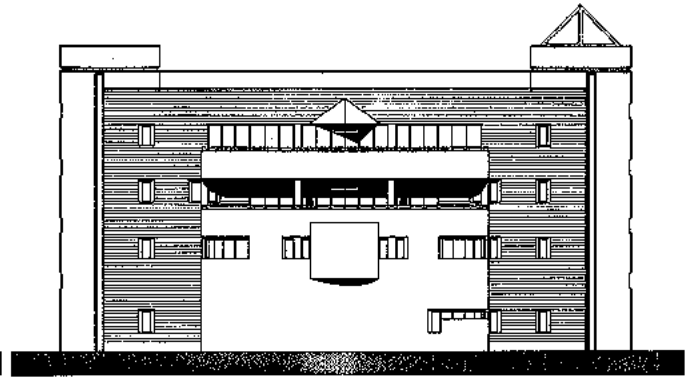
-외부재료 및 색 : 아이보리 색채의 재료 및 색채의

구분	제 료	색	비 고
외 벽	AL복합판넬	아이보리	
바 닥	화강식문양결기	백색+적색	
외 부 천 정	AL스판드럴	아이보리	
창	일반창틀	AL	아이보리
	유 리	반사복층유리	청녹색
	천 장	복층유리	투명
출 입 문	문	칼라강화도아	청녹색
	문 들	AL	아이보리
담 장 · 화 단	전타일	흑색+적색	





정면도 (TYPE 'A')



배면도 (TYPE 'A')

■ 내부처리의 원칙

내부공간 처리의 원칙은 외부공간처리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이용자에게 신뢰감과 친근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내부공간에서 강조되는 것은 외부 조경요소와 관계된 내부부의 적극적인 연결, GREEN의 내부공간과의 적극적인 도입, 고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장소의 확보와 정보전달장치와 도입, 밝고 자유풀러운 분위기 조성, 다양한 공간연계를 등이다.

• 소요 공간별 계획요소

가. 객장

○가장 중요한 대고객 공간으로서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며 영업장에 편중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대기장소로서보다 라운지로서 계획하고 객장 내부에 담소라운지(COZY CORNER)를 설치하도록 한다.

○대고객 서비스로서 INFORMATION BOARD, I. C. T. V, 도서대, 시계 등 정보배치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사설을 하며 담소라운지와 근접 배치한다.

○화분, PLANTER, 화단등을 설치하여 실내에 GREEN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화화, 조각등 ART OBJECT를 배치한다.

나. 영업장

○영업내용, 소요인원, 영업방식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건물 외부의 이미지를 내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곡선의 형태로 COUNTER를 배치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2층 영업장은 COUNTER를 없애고 OFFICE LANDSCAPING 개념을 적용하여 LOUNGE BANKING SYSTEM으로 처리한다.

○업무의 전산화 정도에 따라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출납실

영업장 내 금고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고 항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유리를 사용한 칸막이를 설치한다.

라. 금고실 · 시류고

○현금고와 중요서류의 분리가 바람직하다.

○중요서류의 일일수납고의 기능을 함하여 서류수납고로의 독립

○현금고의 내부가 객장쪽에서 볼 때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

마. 임대금고실

○고객으로부터 보관물품을 받고 증서를 해주거나 소형의 보관함을 비치하여 고객이 자유풀럽게 출입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시설물로서 출입이 편리하도록 객장가까운 영업장에 설치한다.

바. 사무실

○영업장 서고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칸이칸막이를 설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물품을 두어 영업장분위기를 향상시킨다.

사. 지점장실

○영업장 측부에 배치하되 가능한 객장에서 출입이 되도록 하고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추구한다.

또한 회의실 상담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아. 상담실

○대 고객의 상담과 지점장의 응접 공간으로 겸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영업장 및 객장에서 진입이 용이한 위치로 배치한다.

○간결, 순수한 실내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2층 점포인 경우 비교적 층수가 적은 2층에 배치한다.

자. 다용도 홀

○은행업무와 별도로 고객유치 및 봉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서 전시, 문화, 회의, 약혼, 반상회 개최장소, 각종 주민 모임 등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지하에 배치시켜 은행의 업무시간 이외에도 항상 이용 가능하게 한다.

○Sunken Garden과 연관시켜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차. 식당 및 주방

○업무 기능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행원들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한다.

○1인당 적정 식사 면적을 확보하고 외기에 면하게 하며 적정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카. 자동차 기계실

○수신창구의 ON-LINE화 및 무인창구화의 도입 등 점진적인 기계화로 인한 자동화 기계실을 설치한다.

○장내 증가분을 고려하여 계획상 용동성을 부여한다.

○은행 정규시간 업무 이외에도 이용가능하고 객장내로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입구 홀 부분에 설치한다.

타. 휴식 및 오락실

○직원용 후생시설로서 휴게 오락, 간단한 레크레이션, 집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식당과 근접하게 배치시킨다.

○외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과 연계시켜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파. 아간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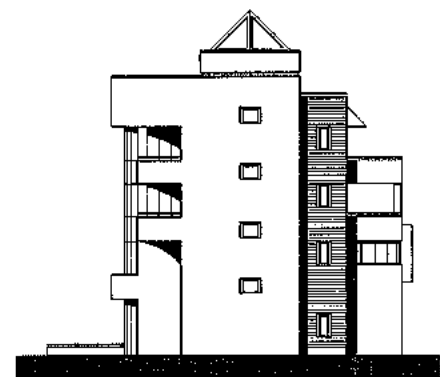
○보도층에 면한 영업장 또는 객장벽의 외부에서 인지가 용이한 입의 장소에 설치한다.

하. 건축재료 및 색

실내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외부재료의 경우와 동일한 재료 및 색채의 선택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 질레발이, 벽, 천장등의 적용에 있어 재료 등급의

형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음 예시된 재료는 새로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분	재 료	색
객장 및 영업장	바닥 대리석, 화장석, 문양넣기	백색+녹색
	벽 대리석	아이보리
	천정 AL루버	아이보리
사무실	바닥 마모름	녹색+백색
	벽 조리파트	아이보리
응접실 및 회의실	천정 압면흡음텍스(문양)	아이보리
	바닥 마모름	녹색
금고실	벽 본타일	녹색+백
	천정 압면흡음텍스	백색
식당· 휴게실 및 강의실	바닥 마모름	녹색+백색
	벽 타일(그라픽)	지중색
숙직실	천정 AL루버	아이보리
	바닥 마모름	백색+녹색
홀	벽 본타일	백색
	천정 압면흡음텍스	백색
복도	바닥 대리석, 화장석, 문양넣기	백색+녹색
	벽 대리석	아이보리
계단실	천정 AL루버	아이보리
	바닥 타 일	녹색
화장실	벽 타 일	아이보리
	천정 AL루버	아이보리



측면도 (TYPE 'A')

〈가작〉

정일엔지니어링 (案)

Jungil Engineeri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Plan

(주)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宋基德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714-7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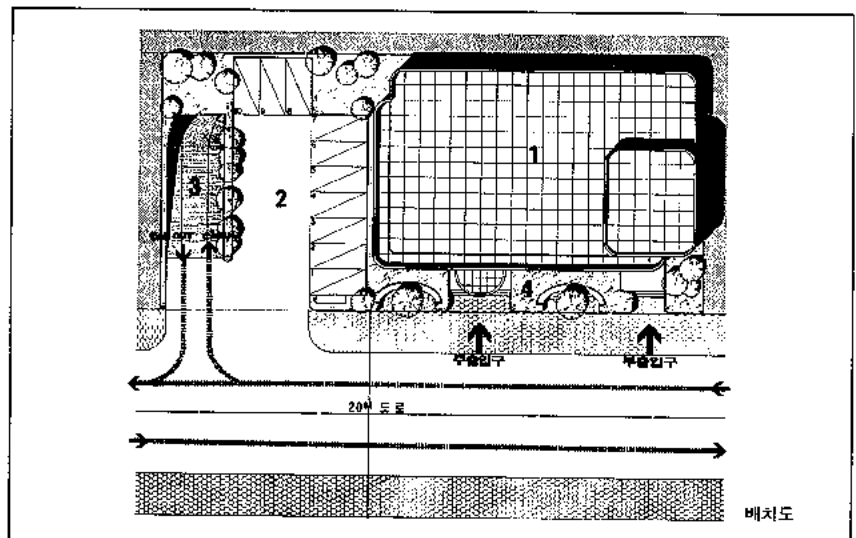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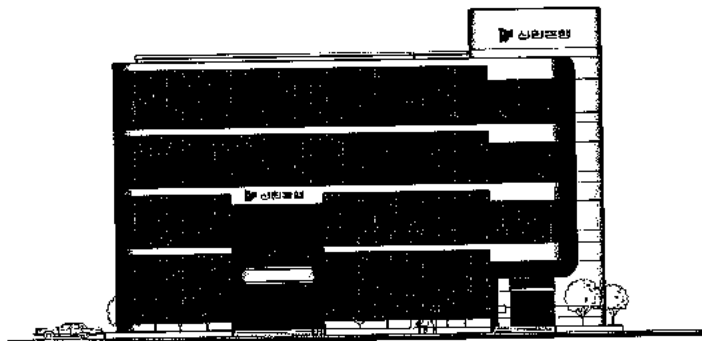
신한은행 지점 기본형 계획 A

A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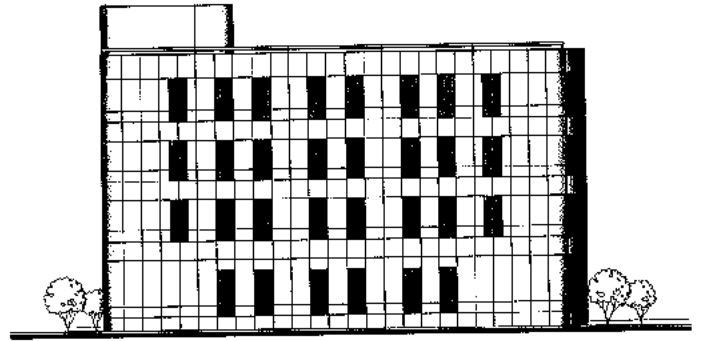
설계개요

도로현황 / A안: 전면도로: 10-30m
 B안: 전면 25m, 측면 15m
 대지면적 / A안: 1,325.0㎡ (400.8평)
 B안: 1,324.0㎡ (400.5평)
 건축면적 / A안: 602.3㎡ (182.2평)
 B안: 602.3㎡ (182.2평)
 연면적 / A안: 3,355.7㎡ (1,015.1평)
 B안: 3,240.6㎡ (1,035.9평)
 건폐율 / A안: 45.5%, B안: 45.5%
 용적률 / A안: 187.7%, B안: 185.7%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 / 법랑(백색) + 칼라복층유리(녹색)
 주차대수 / 20대 (A안), 22대 (B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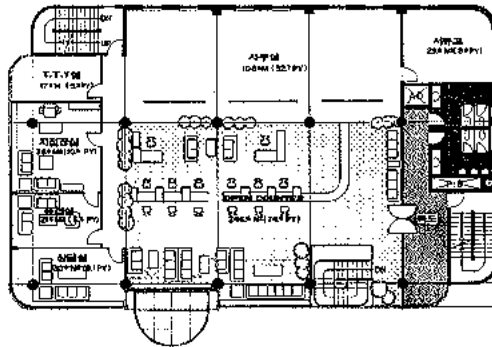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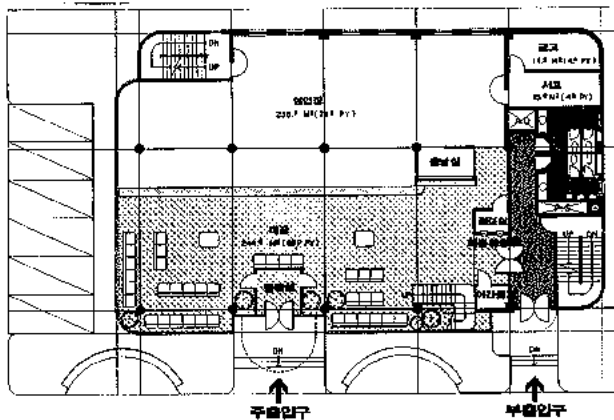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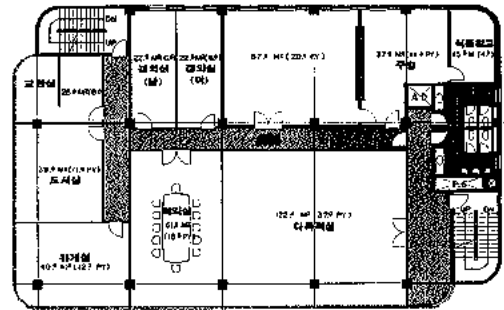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 안 2층 평면도



A 안 1층 평면도

■ 서언

현대사회는 그 구조적 특성이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며 빠른 변화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속에서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빠른 업무 소동과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고, 동일 기업 혹은 타사기업 상호간의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 보다 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업무 자체의 획기적 개선 및 운영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전산화, 기계화를 통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며, 고객에 대한 Service면의 적극적인 배려로 심리적인 면에서 신뢰감을 형성한다. 또한 가장 구체적이며 표현적인 방법중, 건축물과 시설물에 상징성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시각을 통한 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독특한 이미지 부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 계획의 목적

- 지점 상호간 건축 시설물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한 신한은행의 이미지 표출.
- 공익 기관으로서 고객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Service증대 및 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신뢰감 조성과 인식도의 증대.
- 업무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업무능률 증대로 행원 상호간의 애행심 증진.

■ 계획개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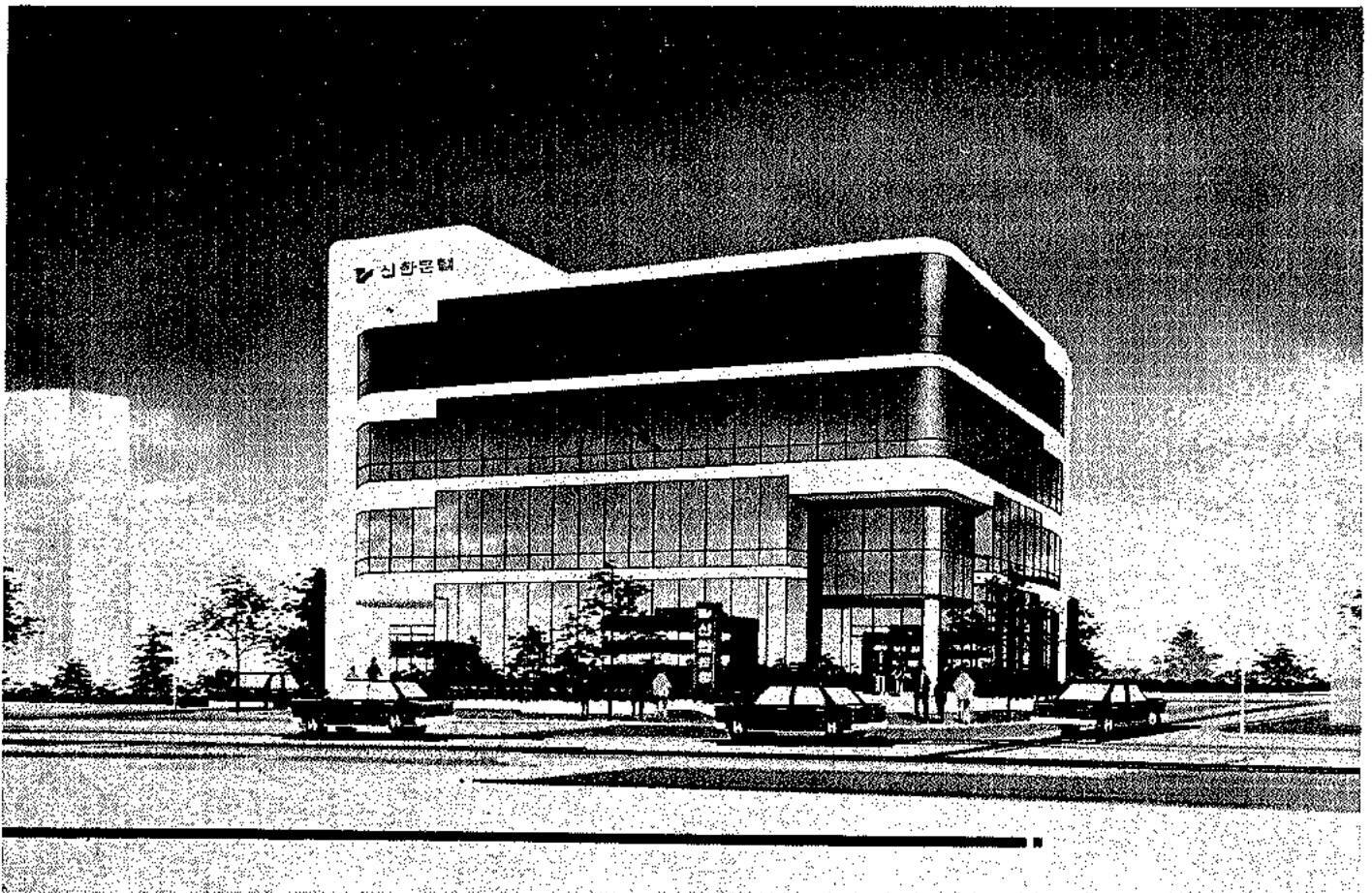
- 은행건축의 규모, 건축 수준의 확대, 성장증의 물량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서의 변천과정에 대응한 적절한 대안 제시.
- 금융정책의 대중화에 보조를 같이하여, 도시는 물론 일반 시민속에서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은행의 계획.
- 은행업무 개선으로 날로 변화가는 사무기기의 변화와 은행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유통 화폐 구조의 수표화 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건축적

대안 제시.

-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무기능을 표현하고 단순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 건축적 대안제시.
- 장례, 서비스 면적의 확대가 고객유치의 쟁점이 될것으로 보아 서비스 시설의 확충.
- 형태, 색상등 디자인 요소들의 통일화로 인한 은행 이미지의 적극적 표출.

■ IETM 별 계획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원칙을 수립하며, 이를 공간요소 및 조형요소로 구분한다. 이것은 크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대별되며, 외부 공간에 관련된 대지의 형태, Facade, 개구부 등을 각 ITEM으로 정하고,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내부개개, 내부 오브제 (Object), 내부 개구부, 창, 가구등의 ITEM으로 세분하여 기존의 형태와 시설을 비교해가며 계획한다.



■ IMAGE 표출계획

건축적 요소에 의하여 인간은 무의식적, 외식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 내면의 기억으로 남아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발산되는 어떠한 형태로의 잠재적 또는 표출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건축적 요소로서는 건축상의 형태, 색깔, 상징적 일면, 조형, 재료, 각 요소 비례, 기능에 따른 관습, 공간감, 그 지역에 대한 기억,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 배치계획

- 주민의 이용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 잠재적 고객을 확보한다.
- 지역의 Land Mark적 요소로써 인지될 수 있도록 전면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다.
- 차량 이용자의 승대를 고려하여 일시적 주차공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한다.
- 차량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도로에서의 진입을

피한다.

- 보조 진입구는 가능한 정면을 피한다.

■ 평면계획

- 출입동선을 명확히 구분
 - 수진, 여진, 외환 및 자동차 창구 기타 상담동
- 고객의 휴게 장소를 충분히 확보
- 다양한 공간 연출
- 가구 및 오브제의 전용화
- 객장 SPAN은 1.5m 모듈 적용
 - 1.5m, 3m, 6m, 7.5m
- 내부색조는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녹색에 Point를 준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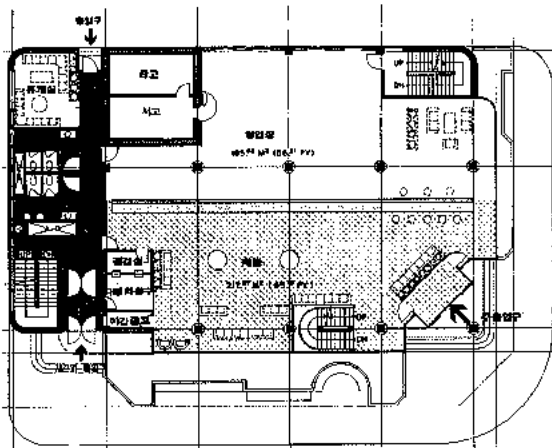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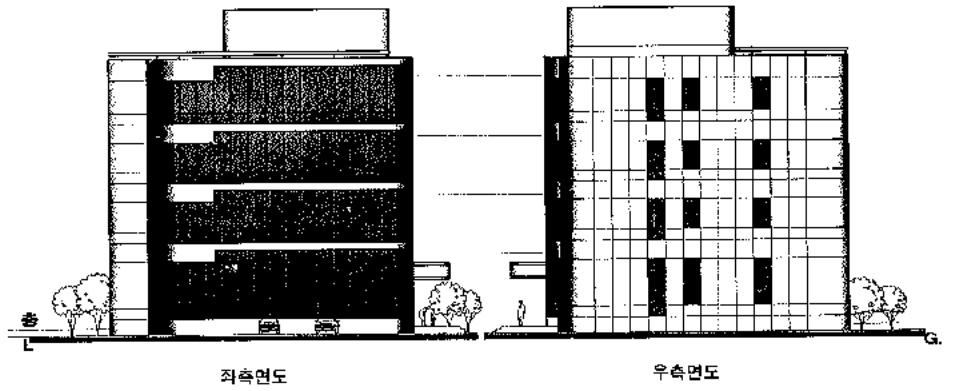
- 도시비, 가게비, 현대비를 부여
- 전체적 Mass비례의 조정으로 친근감
- Mass의 이미지, 색채 및 재료의 통일로 전체적

통일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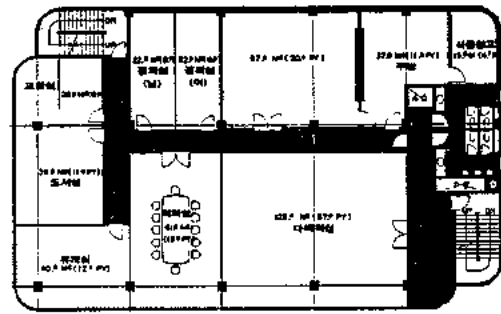
- 부드러운 Mass처리로 주변과 무난히 어울리며 전체적 평형속에 부분적인 강조 수법 도입

■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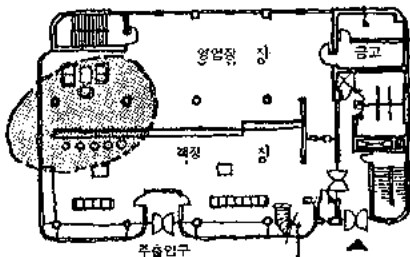
- 1.5m 모듈적용으로 실변 배정 및 실용도 변경시 일정한 체계를 유지.
- 객장부분의 기능을 제거함으로 고객 동선의 단축 및 의도적인 분위기 구성이 용이.
- 영업장의 가동 배치는 자연스럽게 업무 구분의 용도로 사용
- 벽체 및 용벽이 필요한 실을 좌, 우측면으로 모음에 따라 전, 후면에 개방감을 부여
- 외피는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신선한 친근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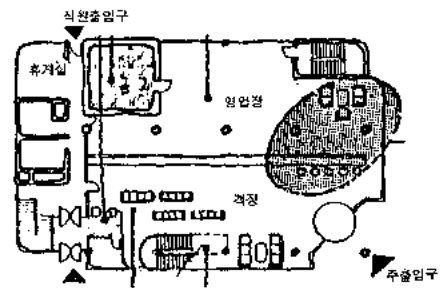
B 안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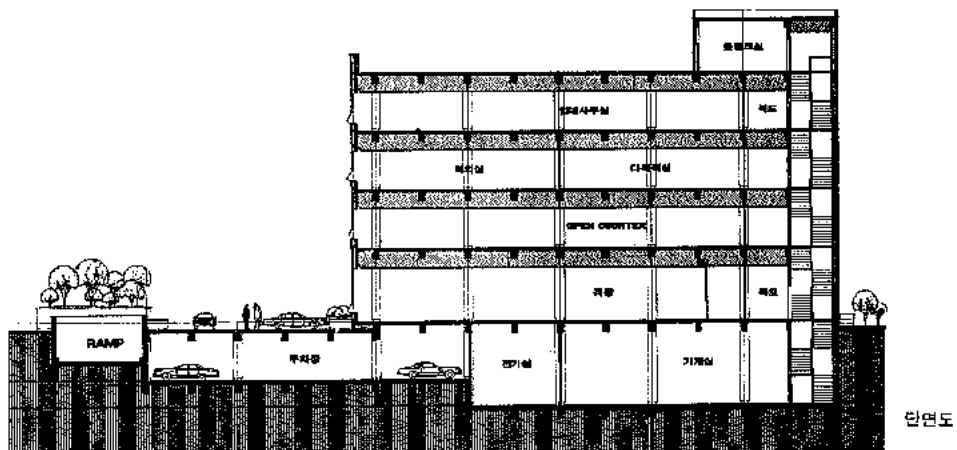
B 안 3층 평면도



A 안계획



B 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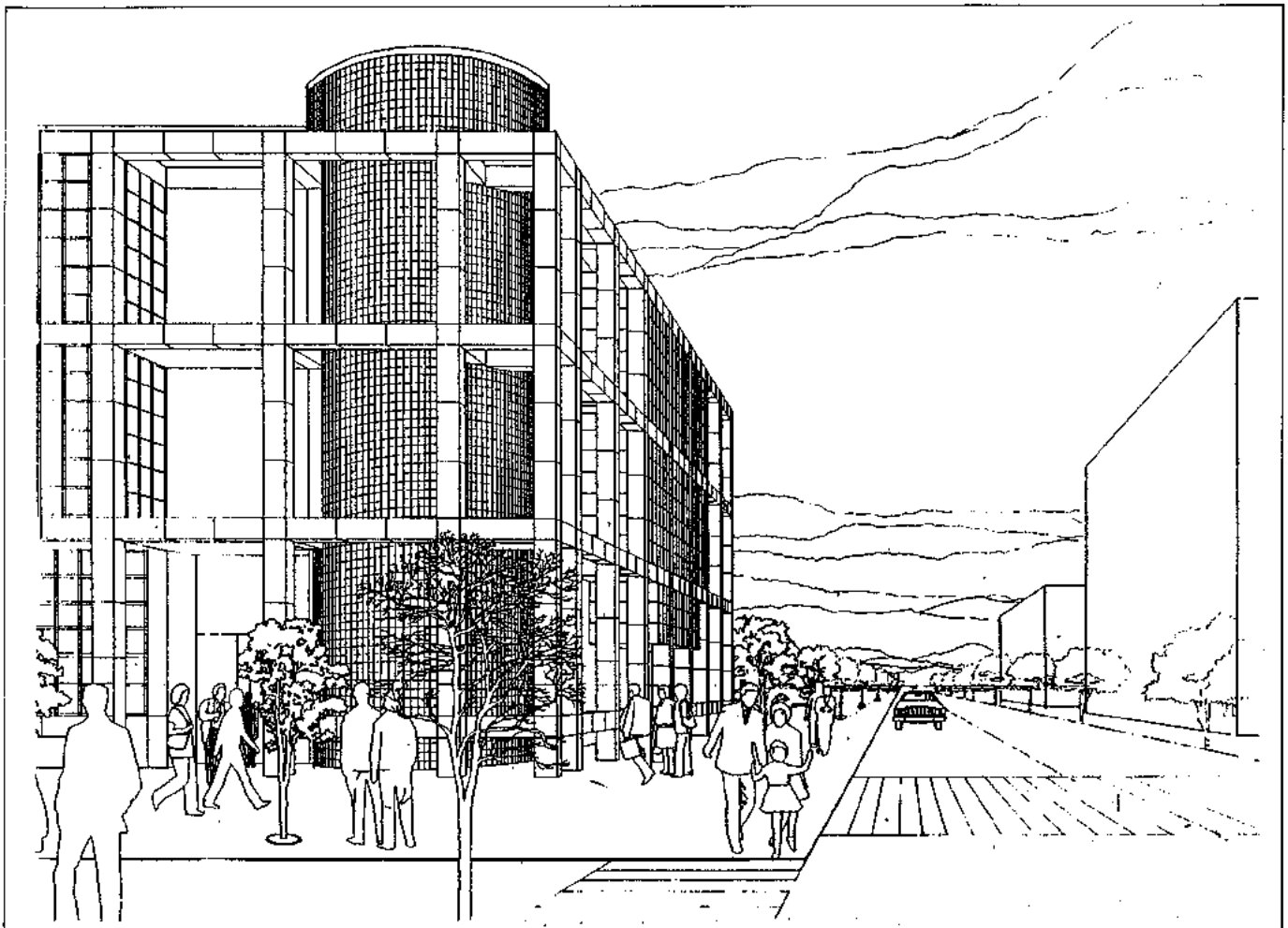
〈용모작〉

간·삼건축(案)

Group-3 Architects & Associates Plan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 - 1/734-0161



■

설계개요

대지위치 / 부도심

대지면적 / 1,350㎡ (410평)

주변도로 / 15m, 6m

용도 / 은행지점전용건물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 2,475.25㎡ (749평)

건축면적 / 638.73㎡

각층면적 / 지하1층 : 709.0㎡ (214.5평)

지상1층 : 567.45㎡ (171.6평)

지상2층 : 635.04㎡ (192.1평)

지상3층 : 563.76㎡ (170.5평)

건폐율 / 47.3%

용적률 / 130.8%

주차대수 / 17대

조경면적 / 233.49㎡ (17.3%)

층고 / 1층 : 4.5m

2·3층 : 3.6m

천정고 / 1층 : 3.9m

2·3층 : 2.7m

구조 / 철골구조

설비 / 층별 Package System + Single 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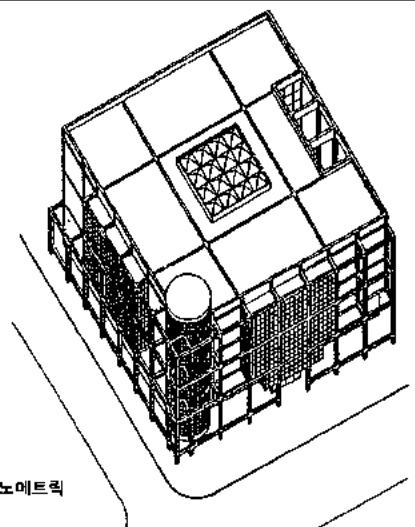
외장재료 / • White Grid Wall 알코본드, 범랑,

네오파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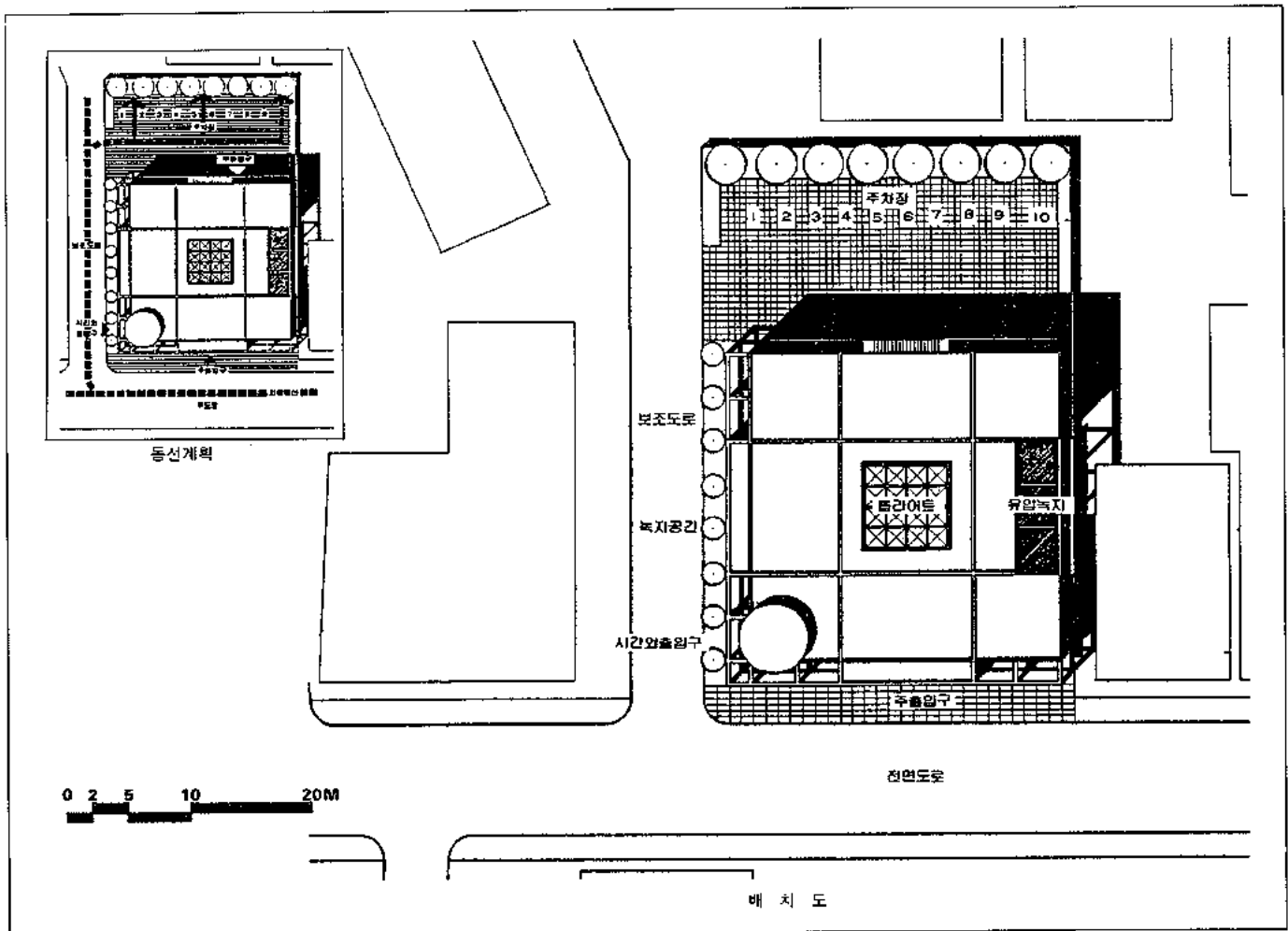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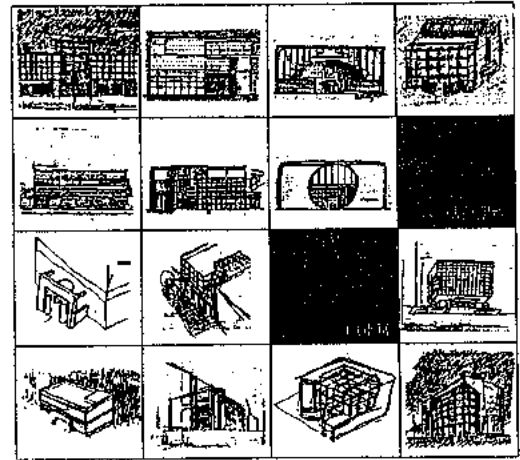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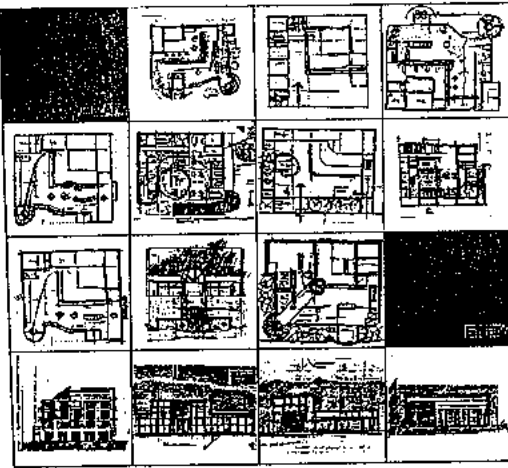
• Green Wall, 알코본드, Steel Panel +

Paint

• Glass Mirror Glass



엑소노메트릭



■ 대지조건 분석

- 도로와 접지관계
은행건물은 공간배치에 있어 도로 및 접지가 가장 큰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출입구, Counter, 주차장, 외부 조정 등 구성요소들의 배치가 결정된다.
본계획에서는 1면도로와 2면 도로인 경우로 분류하였고 3면도로 이상은 도로폭순위를 기준으로 2면도로로 간주하였다.
- 카운타의 유형
기존카운타 유형에는 직선형, 시선형, L자형 등이 있으나 고객 본위로 Lounge Banking System 수용에 유리하고 시각적으로 개방적이며 은행실을 2층에 걸쳐 쓰는 경우에 유리한 박전형 카운타를 채용하였다.

■ 입지조건 분석

- 도시의 형태파악
도시의 형태는 첫째, 도시구조로 파악되는 가로망 형태 및 이에 따른 대지형태, 둘째, 시각구조로 파악되는 물건의 형태 두가지로 해석되어진다.
서울의 도시가로망 형태는 주요가로 및 세가로의 COLYAGONAL하게 그리고 비정형적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가로로 계획되는 대지는 비정형적일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로 세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도시형태는 FINE GRAIN의 집합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CONTEXT 상에서 물리적 실체로 표현되는 건축물은 자생적 소단위의 집합체로서 가로 경관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림으로써 파밀화, 부조화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배치계획

대지는 서울의 일반적인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고 있는 인접한 대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본 건물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전면의 건축선을 가능한한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중을 위한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면도로 공원을 두어 공공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였다.
좌측의 6m 도로변을 따라 녹지공간을 두어 공간적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후면에는 고객용 및 행원용 주차장을 두고 있다.

동선계획

•보행 및 차량동선
보행자는 전면의 도로공원을 전면 15M 도로를 향해 설치된 주출입구를 통해 접근하게끔 되어 있으며, 차량의 접근은 좌측면의 6M 도로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함 및 보행자 차량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전면의 접근 공간은 신한은행만이 제공하는 사회공간으로서의 도로공원을 통으로서 접근의 깊이와 공간체험의 중첩을 꾀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축물 내부에 까지 연장됨으로써 내외부공간 상호 투영의 절정에 이르게끔 하고 있다.

평면계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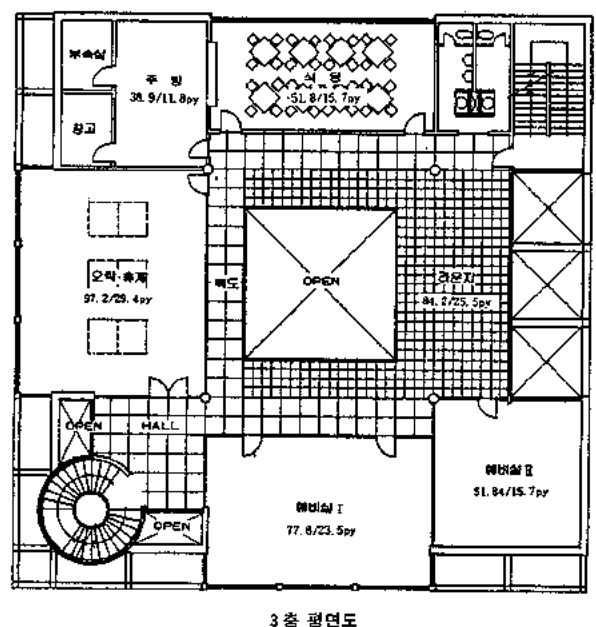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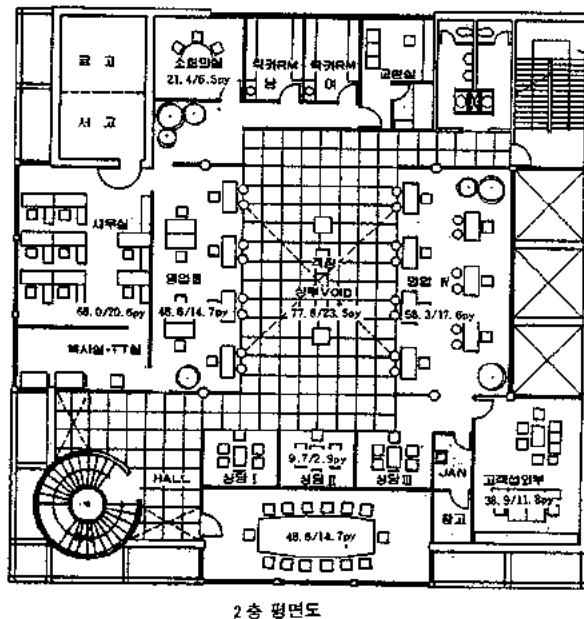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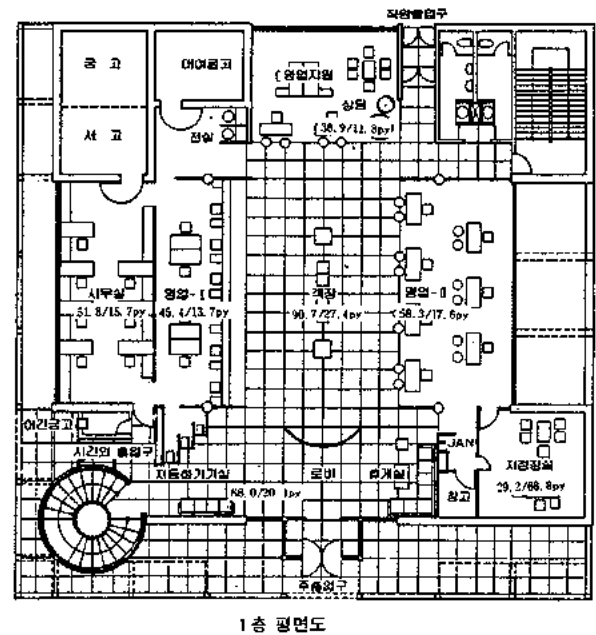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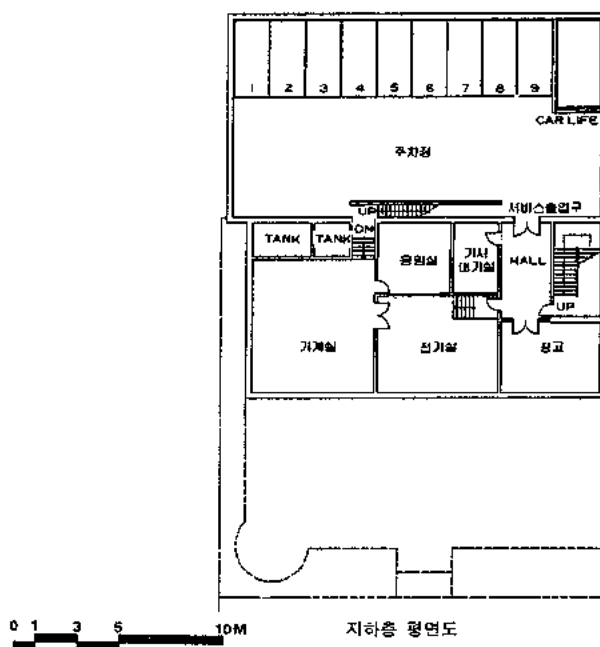
• 지하주차장
통상적으로 가로변의 소규모 상가 건축은 그

주차장의 처리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접근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점차 급증하고 있는 자가운전차의 증가 및 활용빈도의 급증에 따라 본 건축에서는 육외의 주차장과는 별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있으며 지상 지하를 합쳐 최소 17대 최대 26대 (이단주차사용시)의 주차능력을 갖도록하고 있다.

평면계획 2

• 공간단위의 명료성 부여
신한은행은 21세기 은행의 미래상을 향해 앞서 가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장래의 은행으로서의 모델 플랜으로 본 계획은 공용부분과 사적부분의 합리적인 분할을 꾀하고 있으며 그림으로써 점차적으로 공용 부분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 LOUNG BANKINK

고객 위주의 동선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본 계획은 라운지 뱅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되는 대출 및 상담업무에 과감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 은행 발전에 대한 건축적인 제안이며 이를 통해 은행의 기존이미지가 다변화 될 것이다.
• 은행의 대중화의 실현
은행의 공공성이 점차 요구되어지는 현재 은행은 점차적으로 Community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본 건물은 물리적으로 그러한 사회공간으로서 전면로비와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역시 이 ZONE에 설치함으로써 그 일반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공공 영역을 명확히 건축화하는 것은 야간의 건물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녹색공간의 실내도입
명확한 축, 즉 X와 Y축을 지니고 전개되는 본



건물은 각각 좌우에 투시창과 GREEN SPACE를 두어 개방감과 자연의 실내로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영업공간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평면계획 3

- 경제적인 동선연결
1층의 양쪽 CORNER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각각의 층은 상호연결되고 있는데, 그 성격상 객용과 행원 등의 명료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연결동선은 상호간 최대한의 접근 반경을 지니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동선이 되고 있다.
- 공유요소와 EXTENSION
상하좌우의 정방향의 본 은행은 장래은행 규모의 변화에 대해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확장의 방향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것은 변화에 대처하는 공유요소가 평면적으로 명료한 역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평면계획 4

- 안정된 구조 시스템
이중심자형의 구조 FRAME을 지닌 본 건물은 상호간에 구조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림으로써 내부의 자유로운 공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빛의 적극적 도입
정방향의 건물의 중앙부가 공용부분으로 활용되고 그것이 건물의 상징적·기능적 중심이 되는 이 건물은 상부에 톨라이트를 두고 생선을 유입시킴으로써 보다 넓은 공간의 확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입면구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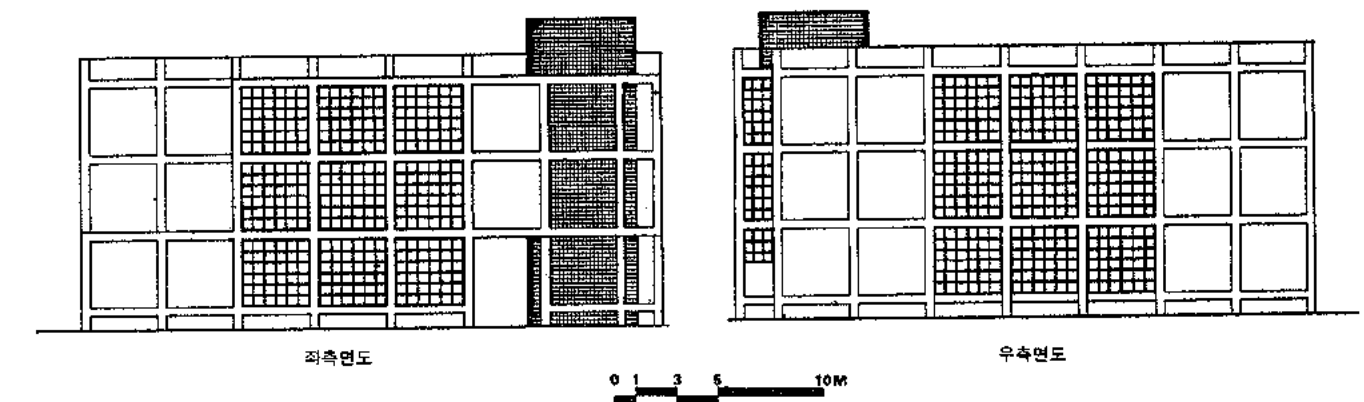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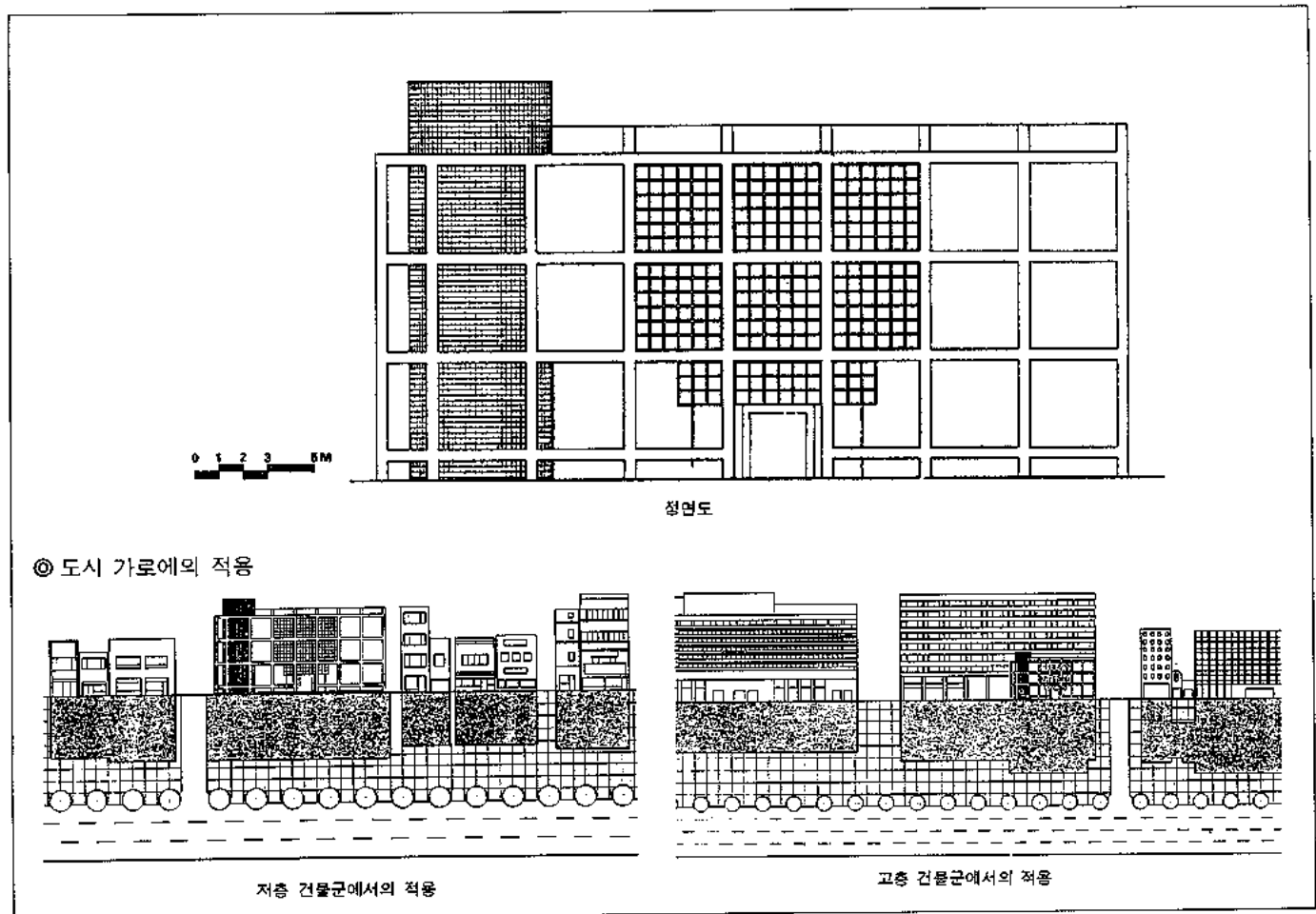
- 도시 CONTEXT와 가로 입면

개방된 이중 구조의 외피를

형상하고 있는 본 계획의 가로벽은 거대한 도시 구조속에서 각각의 건축물이 도시의 구조와 결합되는 공유영역이 된다. 이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사적은행 건물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시각으로는 주변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FRAME이 되는 것이다.

• 격자의 이미지와 반복
3.6M X 3.6M의 격자는 1.8M X 0.6 X 0.6M의 동일비례의 격자로 반복 배열됨으로써 건물을 인간적 척도에까지 연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같은 요소를 반복시키는 것은 신한은행의 독특한 질서를 사회와의 외리속에 깊이 인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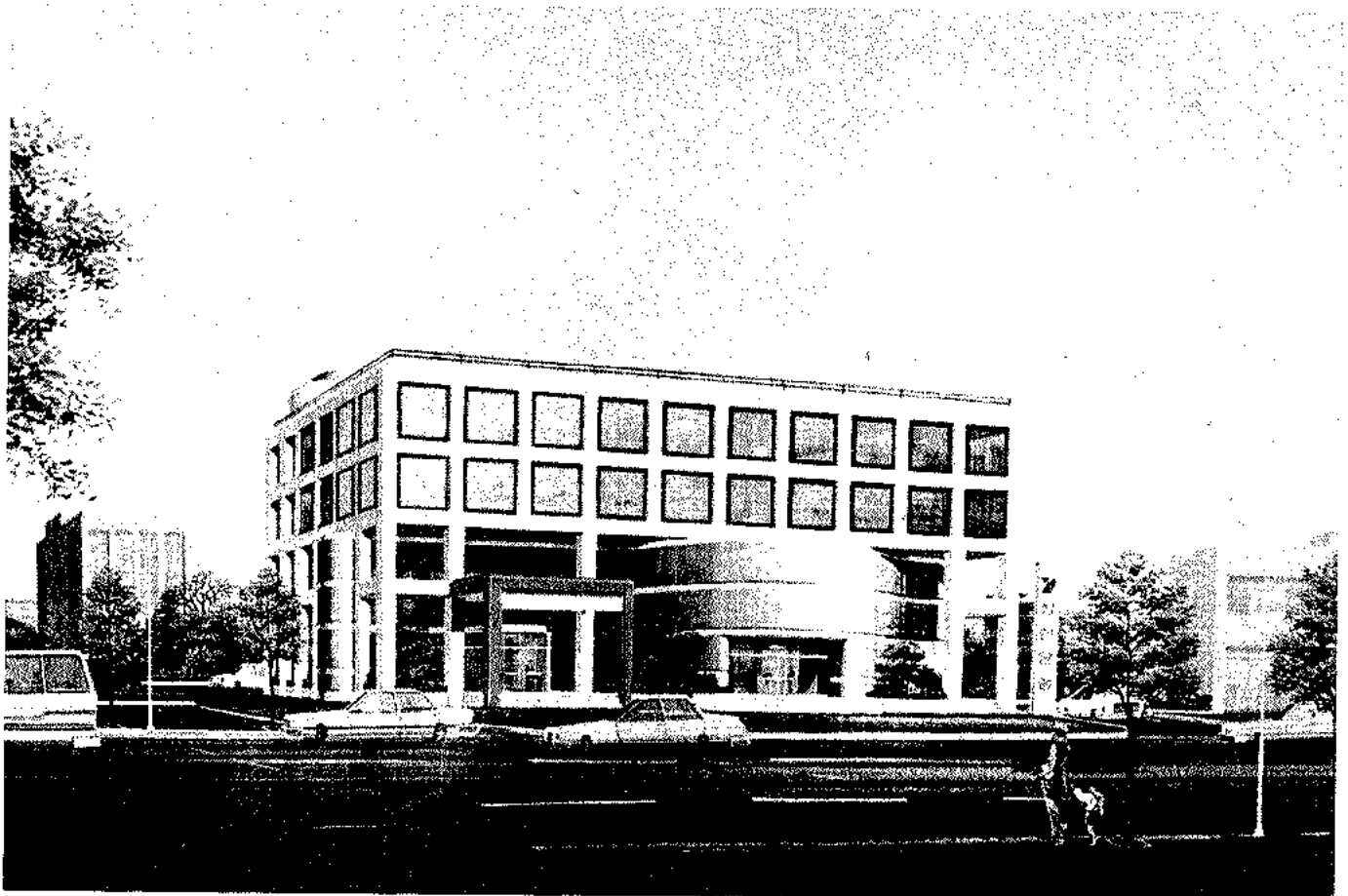
〈용모작〉

예건축(案)

Art Group Plan

(주) 예종합건축사사무소 · 林承茂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566-6007



장방형 루시도

설계개요

대지면적 / 1,514.7㎡ (458.1평)

건축면적 / 654.3㎡ (197.9평)

연면적 / 2,830.5㎡ (856.2평)

건폐율 / 43.2%

용적률 / 145.2%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 17대 (지하12대, 지상5대)

층별면적 / 지하층 : 630.5㎡ (190.7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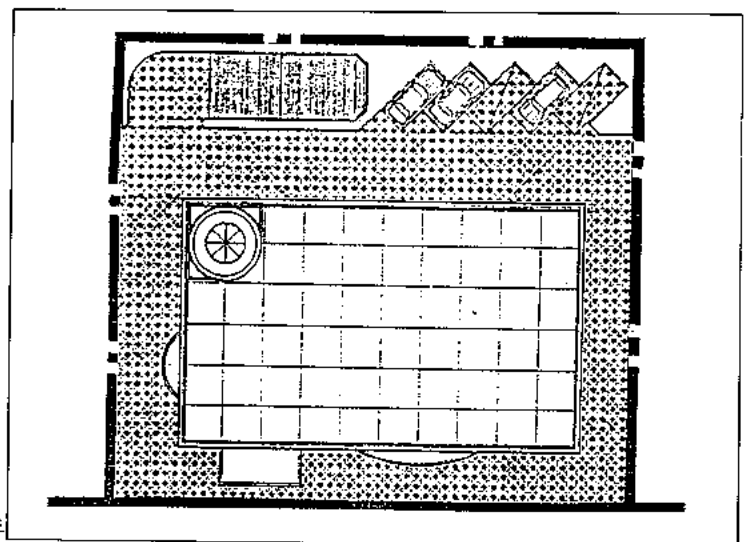
1층 : 563.3㎡ (162.2평)

2층 : 449.3㎡ (135.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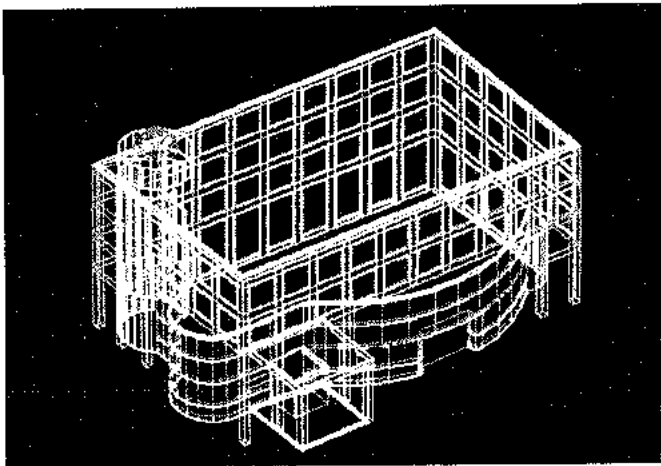
3층 : 607.2㎡ (183.7평)

4층 : 607.2㎡ (183.7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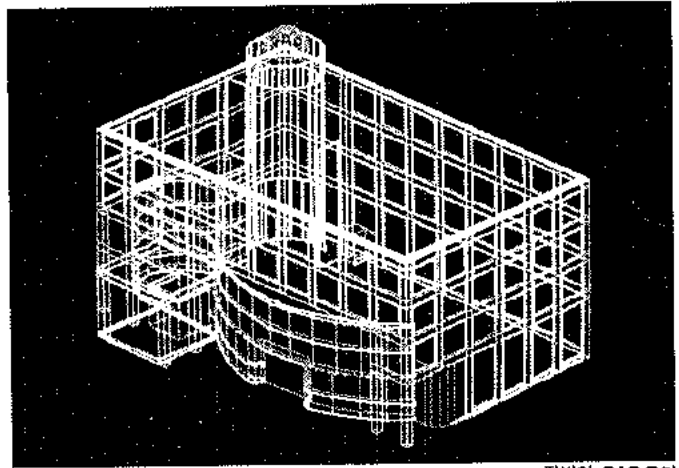
합계 : 2,830.5 (856.2평)



장방형 계획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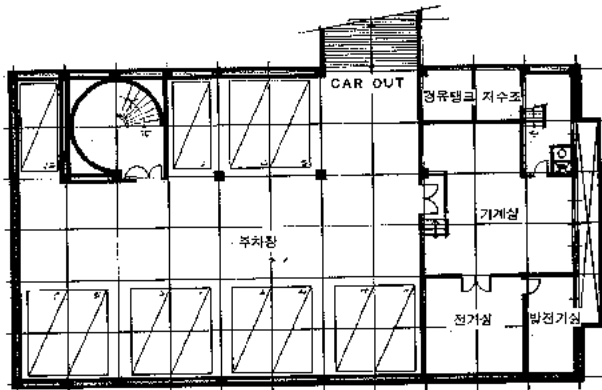


코너형 CAD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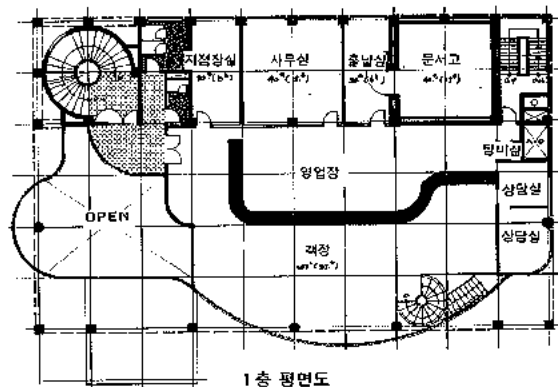


장방형 CAD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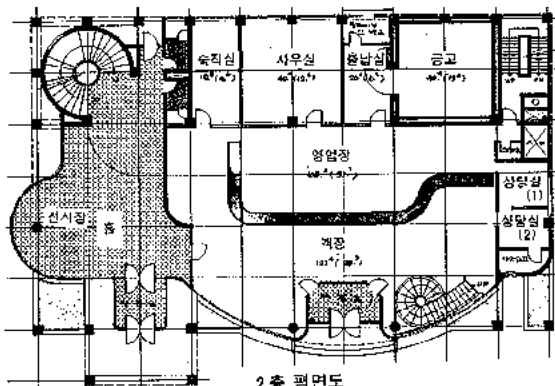
장방형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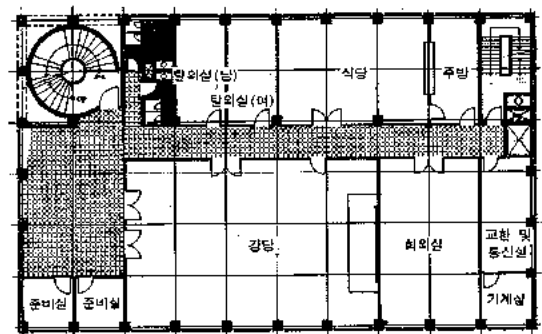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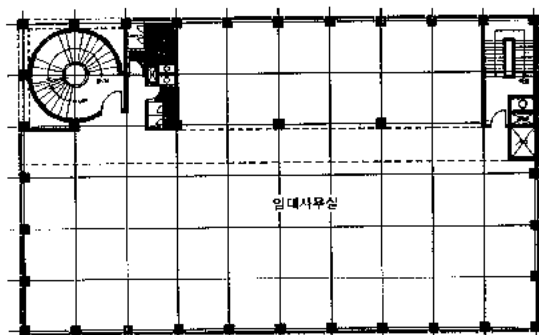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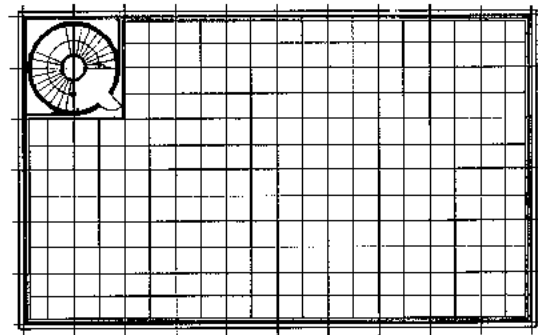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배치 및 동선계획

- 배치 및 주차
- 건물과 객장의 중심 일치
- 차량 동선과 고객 동선 분리
- 외부 조경을 휴게장소로 이용
- DRIVE IN BANK 사용 적극 유도
- 외부동선
- 주출입구의 접근 및 안식 용이
- 내부동선과의 연결 편리
- 야간창구 및 DRIVE IN BANK 고려
- 고객 및 직원 출입구 분리
- 내부동선
- SLOW SERVICE와 QUICK SERVICE 분리
- 내부동선과 CORE와의 연결 편리
- 고객과 직원 동선 분리
- 고객 동선을 휴게 장소와 연결

디자인 원칙의 설정

가. 외부 공간의 처리

- 전체
- 사각형의 MASS를 주제로 하여 영업장의 1, 2층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신한은행의 친밀감을 표현
- 3, 4층의 부속시설은 정사각형의 개구부를 사용하여 신한은행의 신뢰성을 표현

- MASS

- 사각형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하부의 VOID에 대비하여 개구부를 벽면과 동일하게 처리
- VOID 부분을 기둥으로 처리함으로써 은행의 고객에게 개방감 및 상승감을 제공
- 계단실을 원형으로 처리하여 사각형의

MASS에서 오는 단조로움에 변화를 줌

- CLASS

- 스펀유리를 돌출시킴으로써 저층부 영업장의 인식을 분명히 하여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신한은행의 강한 이미지를 부여
- 유리의 접합 조인트를 없앴으로써 첨단 이미지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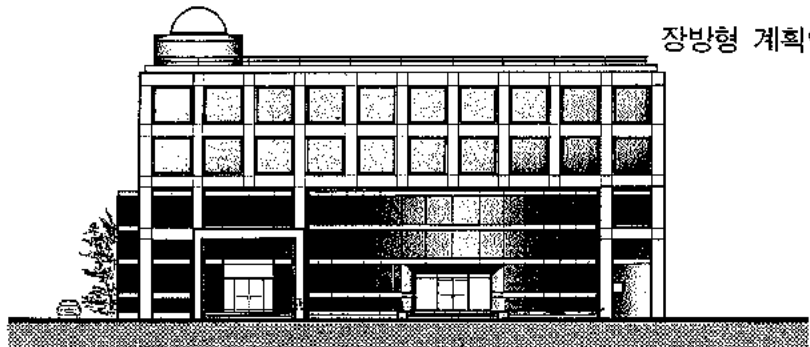
- 청색 계열의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거리풍경을 반사시킴으로써 가로변의 단조로움에 변화 추구

-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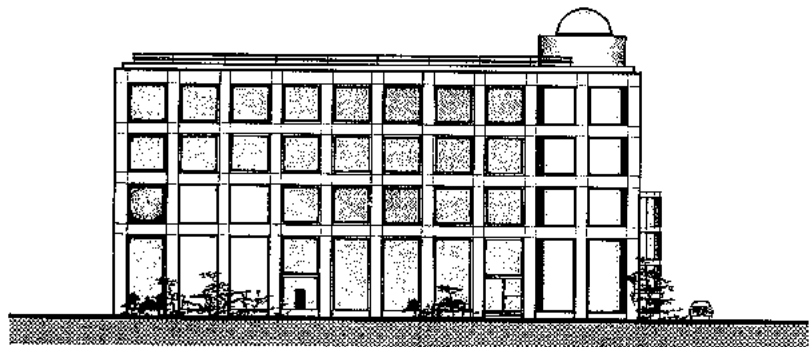
- 백색 계열을 주조로 하여 건물 전체를 명쾌히 표현
- 진입부의 케노피를 녹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신한은행의 이미지를 외부에 노출
- 창호 후면의 디테일한 부분에 녹색 사용
- 나. 내부 공간의 처리
- 전체

건물의 기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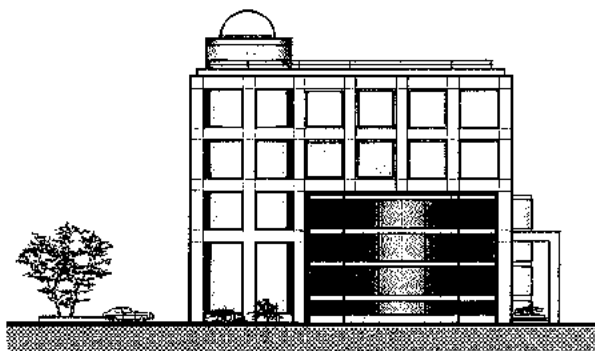
기 능	실 명	비 고
업 무 시 설	-영업장	-객장으로부터 정면 배치
	-객 장	
	-출입실	-건이 칸막이 사용으로 개방감 제공
	-사무실	
	-지관장실	-고객 휴게실 이용
	-상담실	
부 속 시 설	-DRIVE IN BANK	
	-야간창구	
	-경의실	-경광 칸막이 사용
	-회의실	
	-주방, 식당	-고객 봉사 공간 제공
	-방배실	
수 장 시 설	-화장실	
	-숙적실	
	-전사실	
	-강 당	
	-금고실	-노출 안되게 설치
	-문서고	
설 비 시 설	-창 고	
	-차 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기 타 시 설	-임대사무실	-복합시 전용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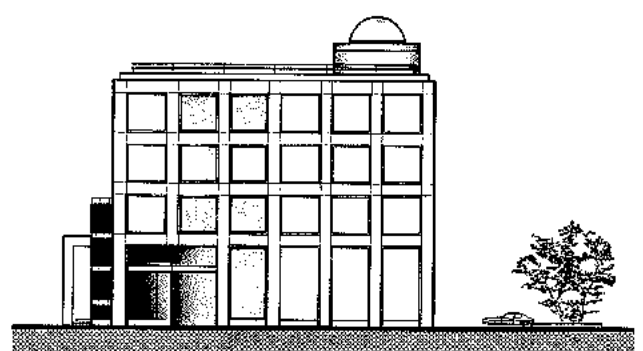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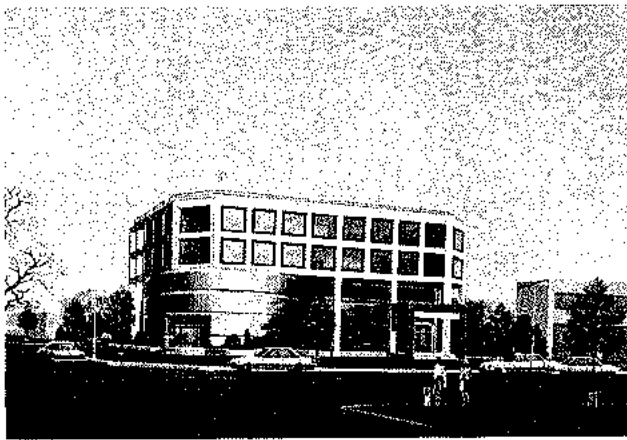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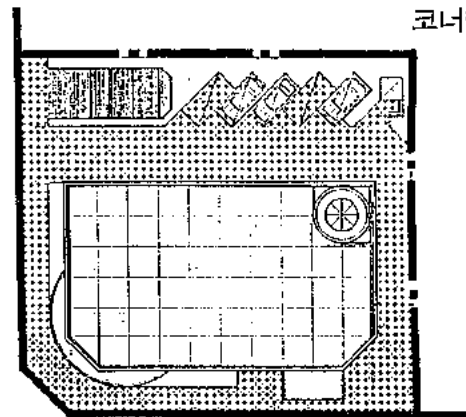
우측면도

- 3. 2m 모듈을 기준으로 균질한 공간을 형성시키고 1, 2층 부분을 오픈하여 건물 내부에 개방감 형성.
- 영업장 부분을 전면 유리를 노출 시킴으로써 외부의 강한 인상을 내부까지 연결
- 영업장, 객장
- 곡선을 주로하여 부드러운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안락감 제공
- 고객 대기장소는 가구를 변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휴게장소를 변화시킴.
- 카운타는 코리안 천정은 AL 판넬을 사용하여 외부의 첨단 이미지를 내부에 안장토록 함.
- ACCESS FOLOR SYSTEM을 설치하여 장래 정보화시대에 대비.
- 부대시설
- 강당과 로비의 대공간을 만들어 고객 및 은행의 사용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함.

- 경량 칸막이를 사용하여 면적의 낭비를 줄이고 장래의 화장등의 변화에 대응.
- 원형 계단실
- 주계단을 원형으로 함으로써 고객 이동시 상승감을 줌으로써 단순 이동의 지루함에 변화를 줌.
- 상부에 TOP LIGHT를 설치하여 원형계단 내부에 빛을 제공.
- COLOR
- 배색을 주로하여 핸드레일등의 디테일에 녹색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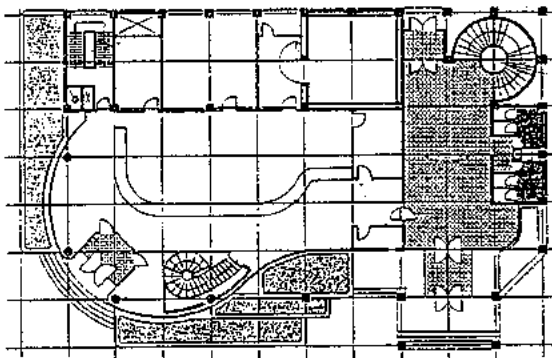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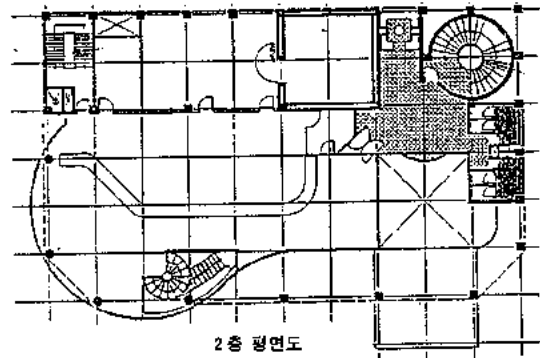


코너형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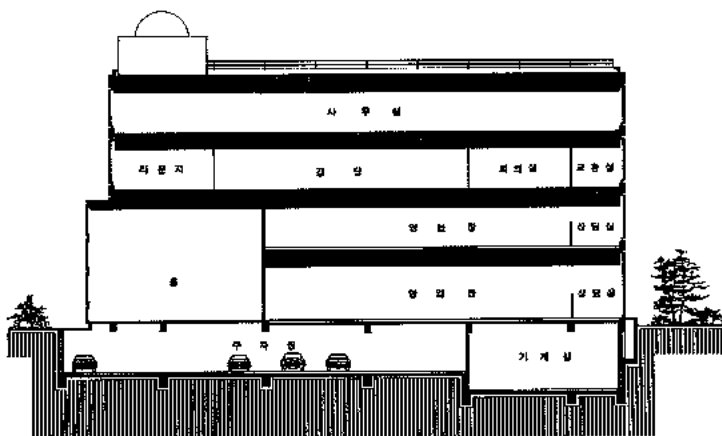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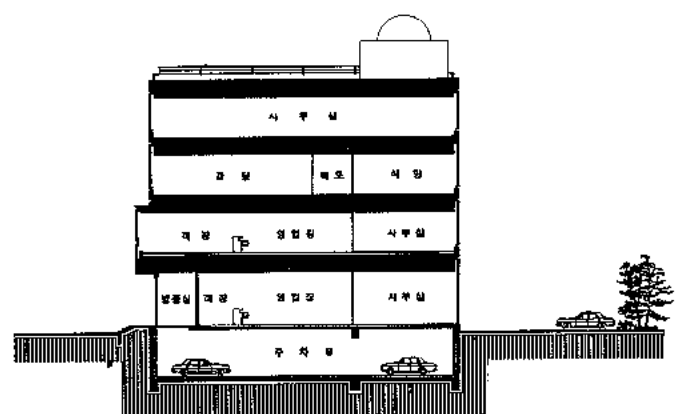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장방형)



종단면도(장방형)

〈응모작〉

서인건축(案)

Seoinn Design Group Plan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 金基弘

서울시 종로구 내가동 1981/736-4614



도심지형계획안 투시도

설계개요

대지면적 / 1350.00㎡ (408.38평)

건축면적 / 617.81㎡ (186.89평)

연면적 / 2,930.51㎡ (886.48평)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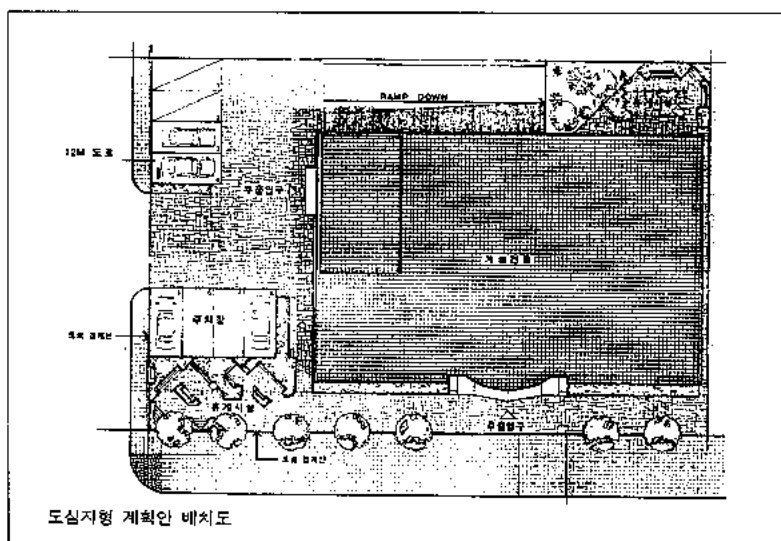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 45.76%

용적률 / 174.8%

조경면적 / 216.34㎡ (대지면적의 16.03%)

주차대수 / 지상8대, 지하10대 (1대 : 150㎡)



도심지형 계획안 배치도

배치계획

건물의 배치 및 건물 외적인 기능을 처리함에 있어 대지의 형상, 규모, 주변여건, 법적규제, 방위 조건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

- 외부 녹지 조성 : 주민 및 고객과 유대관계에 중진 및 잠재 고객 확대
- 진입 공간 후퇴 처리 : 진입구 인식 및 정면성 강조
-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 : 안전 및 이용의 편의 도모
- 주차 공간 확보 : 차량의 층대에 대처

입면계획

새로운 재료 및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를 살리고 입면 처리에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입면 처리

- 중첩된 보름 : 변화성과 조형성을 살림
- 부분적인 정리 : 환관 캐노피, 간판 부착 위치 등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
- 면의 굴곡 처리 : 단조로움을 피하고 오목 볼록하게 처리하여 변화성을 줌
- 지역성 : 주거 형태와 도시 형태로 구분하여 사회적 및 지역적 여건을 살리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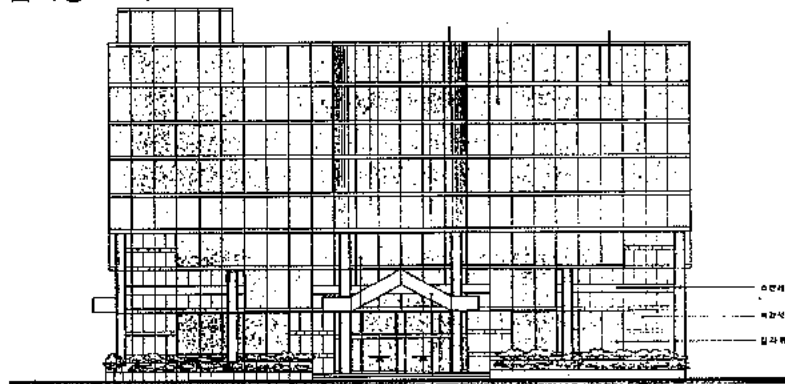
디자인 개념

- 지역성 :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문화에 기여를 강조하여야 하며 지역특성을 표현
- 친근성 : 대중의 은행으로서 색이 친근감있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표현
- 봉사 : 봉사하는 은행으로서 신속한 정보 및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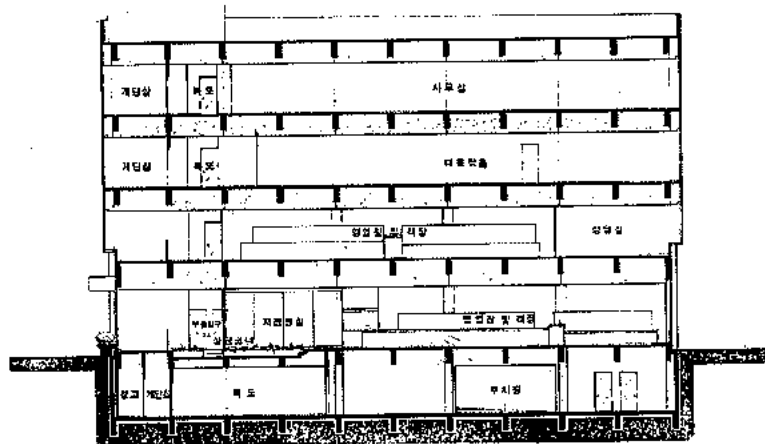
처리와 친절로서 고객에게 봉사

- 신뢰도 : 믿음직한 은행으로서 외관이나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여 신뢰감 부여
- 편리성 : 편리한 은행으로서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주민 및 고객에게 제공
- 현대성 : 국제적 은행의 이미지 부각으로서 새로운 재료 및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와 안전하고 기능적인 표현
- 고유성 : 은행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새롭고 알차고 독특한 은행의 고유성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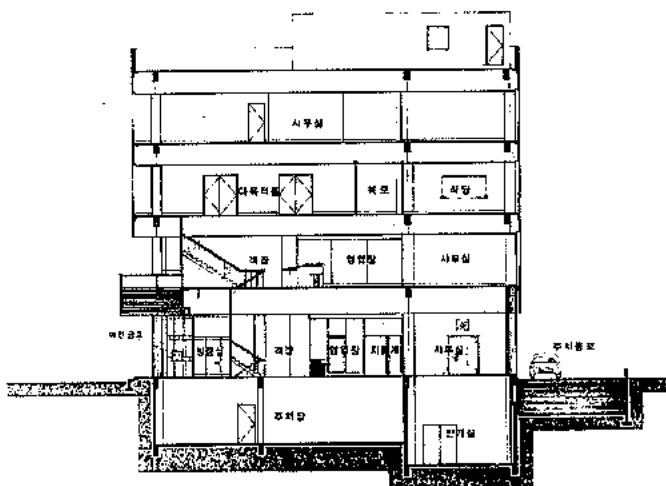
도심지형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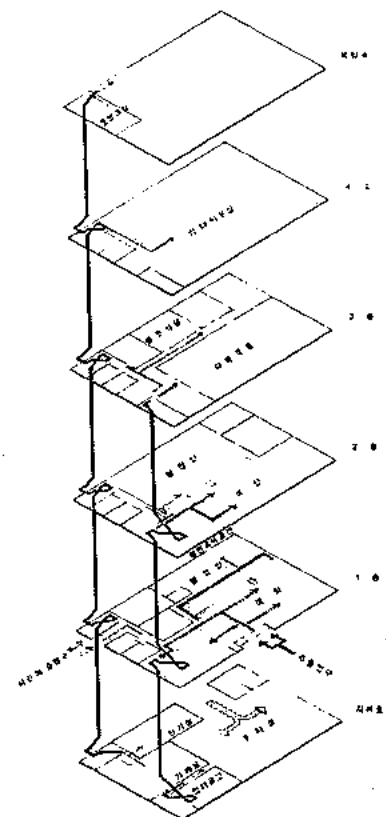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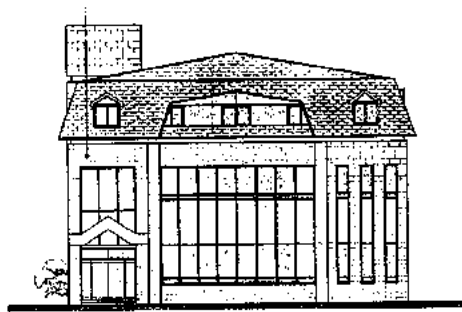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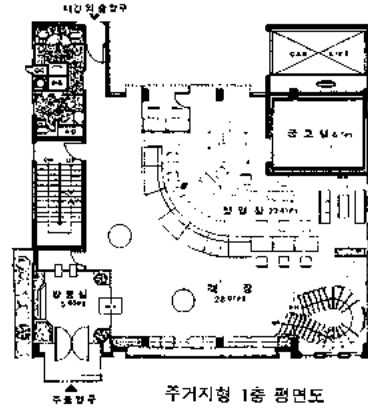


종단면도





주거지형 정면도



주거지형 1층 평면도

■ 내부처리 계획

이용자에게 신뢰감과 친근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외부조경 요소와 연계된 Green의 내부공간에 적극적 도입
- 고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 장소의 확보와 정보 전달 장치의 도입
- 밝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공간 연출을 위하여 밝은 색상과 넓은 공간 확보
-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장래 공간 변화에 대처 할 수 있게 융통성 있는 구조 계획

■ 기능 및 소요공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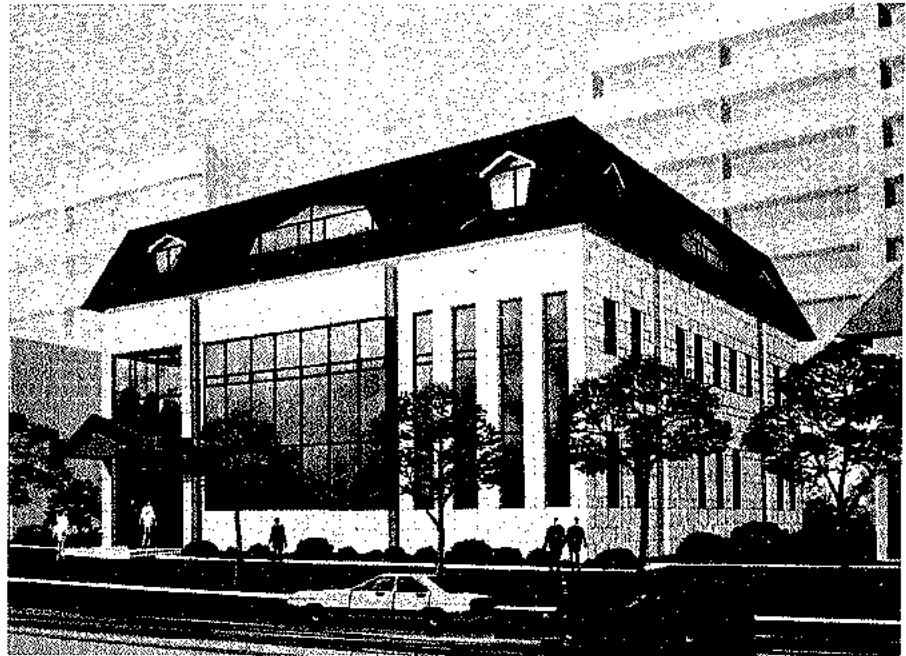
- 휴게 : 시민에게 휴식공간 기여로 은행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
- 정보 : 주식, 주택 등 경제 정보를 TV, V. T. R, 도서 등을 통해 제공
- 상담 :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상담실의 적극적 활용
- 영업 : 수·여신 업무를 비롯 다양해가는 은행의 업무에 대응토록 유도
- 사무 : 은행자체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최신 정보 System 적용
- 상담 :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담실의 적극적 활용
- 영업 : 수·여신 업무물 비롯 다양해가는 은행의 업무에 대응토록 유도
- 사무 : 은행자체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최신 정보 System 적용
- 후생 : 행원의 효율적인 업무와 복지를 고려
- 문화 : 전시 및 기타 문화 행사를 통해 은행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에 이바지

■ 기계설비

- 제동 : 중앙 공급실로부터 공동구를 통하여 각 소요실로 공급 처리
- 방식 : AHU+ FAN COIL UNIT 방식
- 소화설비 : 옥내 소화선

■ 전기설비

- 제동 : 중앙공급실에 22.9kw의 복고압 수전 설비후 각 배전반으로 저압 공급
- 통신설비 : 1)전화설비 : 전자식 자동 교환대를 교환실에 설치하고 국선 10회선 사선 50회선으로 설치한다
2)SPEAKER : 전실, 전관 방송이 가능하도록 콘트롤주앰프 설치
- 방화설비 : 숙박실에 주 수신반을 설치 화재 발생을 초기 단계 감지대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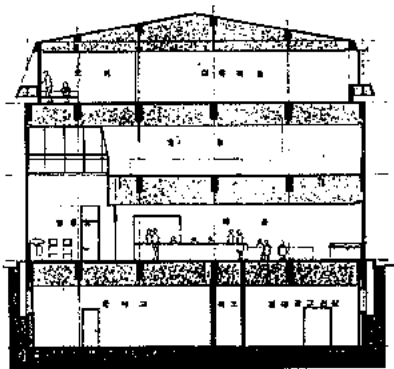
주거지형 계획안 투시도

■ 디자인 요소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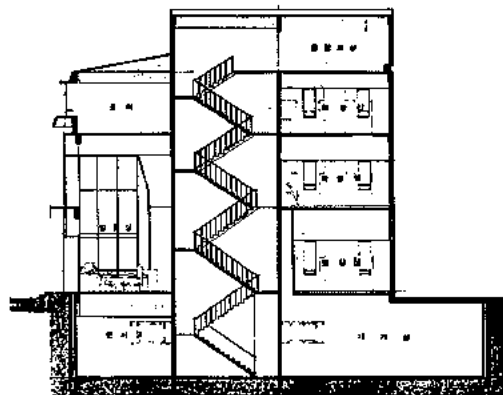
지침의 분석에 의하여 각 건물별로 선정되어야 할

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요소	항 목	사 항	내 용
규 모	대 지 상 황	위치, 면적, 방향, 경사도, 주위 환경	각 건물별로 채택되어 디자인 될 것임
	재 반 법 규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율, 건축선중수, 주차장	
	시 설 규 모	직원수, 업무형태 변화	
	특 수 시 설	전시장, 드라이브인뱅크, 임대사무실	
배 치	주 차 장 조 경	옥내주차 방법, 중정, 전변조경	
내 부 기 능	각 기 능 실	영업장, 객출입실, 금고, 지점장실, 전시실	공동된 디자인요소의 추출은 불가능하며 기능실 분배원칙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각 시 설 물	카운터, 팔경대, 잡자꽃이, 테이블, 소파, 화장실가구, 계단난간 등의 디테일	계약요소로서의 디자인이 요구됨.
	모 물	평면 및 단면모들	입면의 반복효과 및 스케일의 필요성을 위하여 일정모들의 제안이 필요함.
	매 스		규모에 관계하며 디자인 요소추출 불능
외 관	창문 등의 패턴	반복적인 패턴, MASS에 관계없는 요소	계약요소로서의 디자인 요구
	재료 및 색상	일정한 질감 색상	계약요소로서의 디자인 요구
외부시설물	식 수	수종	수종의 제약
	외부 조경 요소	화단, 담장, 국기계양대 휴지통, 재떨이, 벤취, 심볼타워, 바닥패턴	계약요소로서 통일성있게 디자인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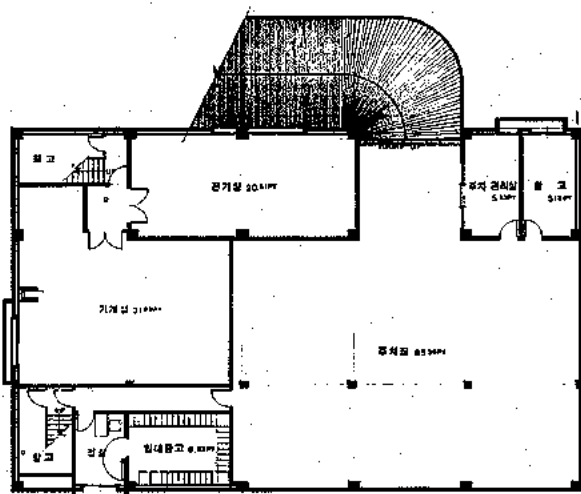


주거지형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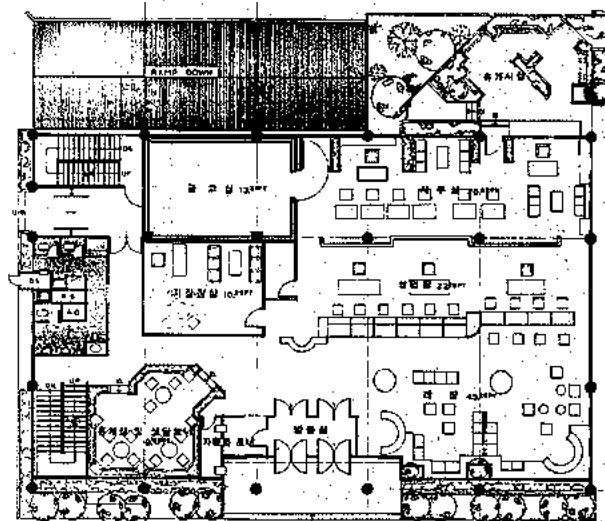


주거지형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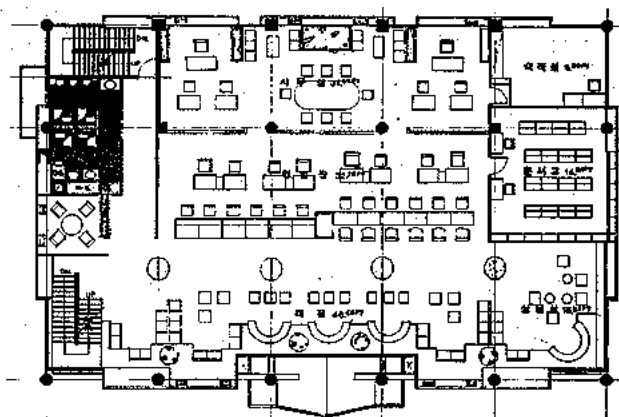
도심지형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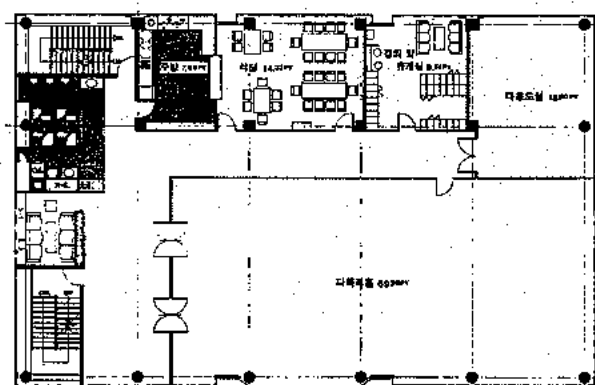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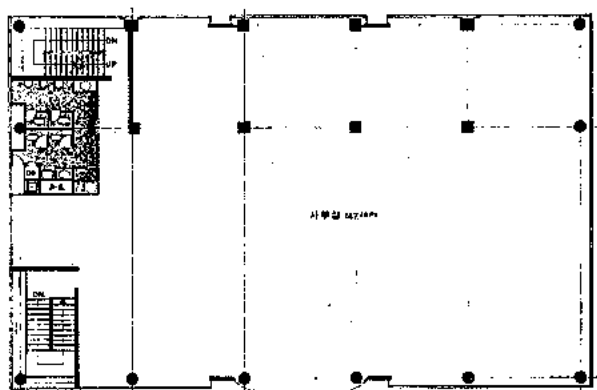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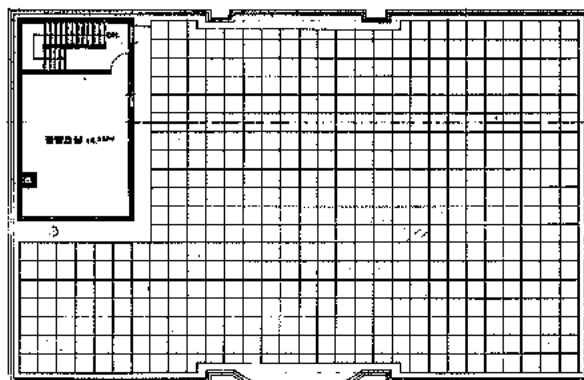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목탑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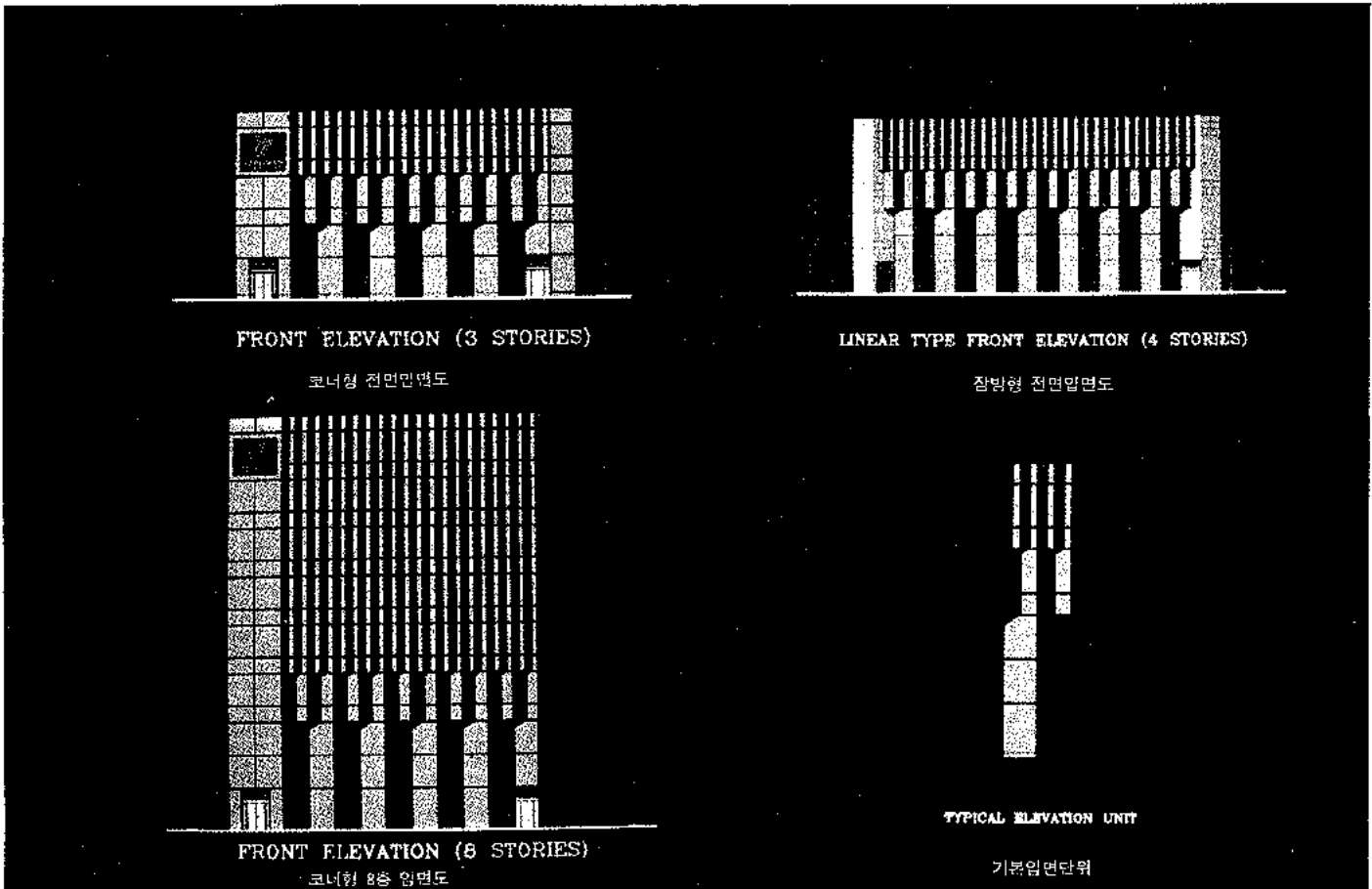
〈응모작〉

원도시건축(案)

Archiban Architects Group Plan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尹承重 + 卡 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2 - 16/793 - 4977



설계개요

대지여건 / 도심지내의 1면이 도로에 접한
장방형의 대지

대지면적 / 1,250.㎡ (25m × 50m)

연면적 / 3,128.2㎡ (946.2평)

각층면적 / 지하1층 : 840 (267평)

1 층 : 615.8 (186평)

2 층 : 504.8 (152.7평)

3 층 : 566.8 (171.4평)

4 층 : 573.8 (173.5평)

옥탑층 : 40㎡ (12.1평)

용적률 / 183%

건폐율 / 49.2%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19대 실주차대수 24대

(옥내 18대 + 옥외 6대) 단, 옥내는

2단 주차설치

지역 · 지구 / 4종 내관지구 (서울)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역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재료 / 제안된 입면요소에 의하여

반사유리사용 페이그라스 및

Metallic계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판

계획안의 특기사항

• 주차타워의 적용가능성 검토 : 제안된 리프트의
사용이외에 대지의 확장에 따라 주차타워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외부조경 : 도로에 면하여 가로 공원을 조성하며
화단내에 설치된 원장으로 지하의 식당부분의 채광을
가능하게 한다.

• 영업장의 크기변화 :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영업장
후면에 표현된 가동식 락가 및 파일캐비닛의
위치조정으로 영업장의 크기를 변화하게 한다.

대지여건 / 도심지내의 2면이 도로에 접한
정방형의 대지

대지면적 / 1,254㎡ (380평)

연면적 / 2,995㎡ (906평)

각층면적 / 지하1층 : 751㎡ (227평)

1 층 : 541㎡ (164평)

2 층 : 510㎡ (154평)

3 층 : 560㎡ (170평)

4 층 : 569㎡ (172평)

옥탑층 : 64㎡

용적률 / 179%

건폐율 /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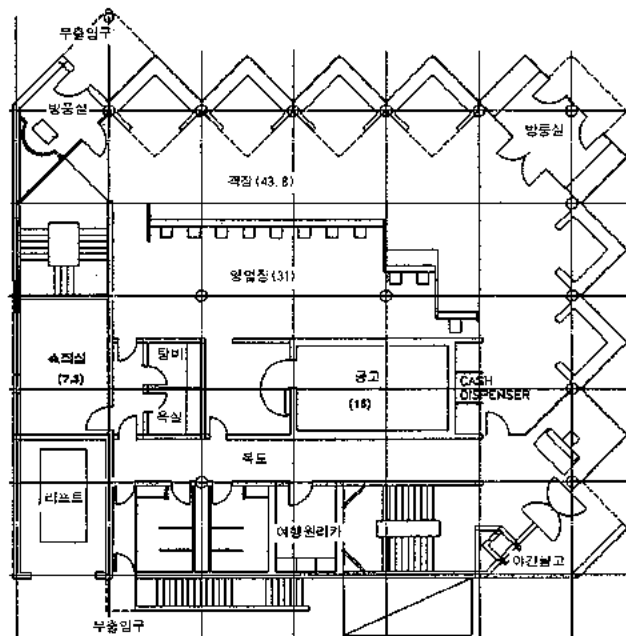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17대 (지하10대 +

지상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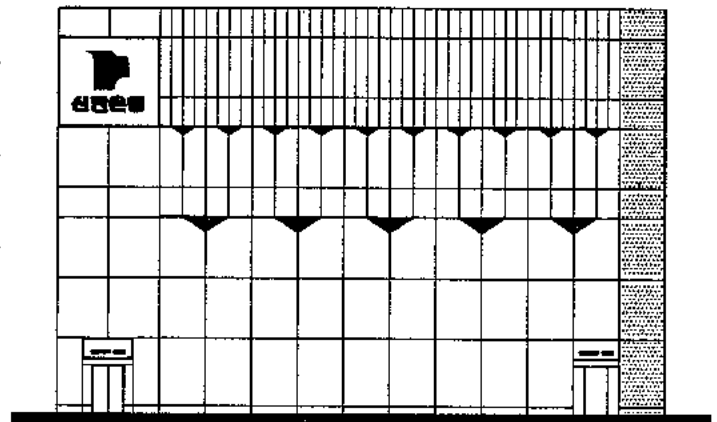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내관재료 / 반사유리사용 페이그라스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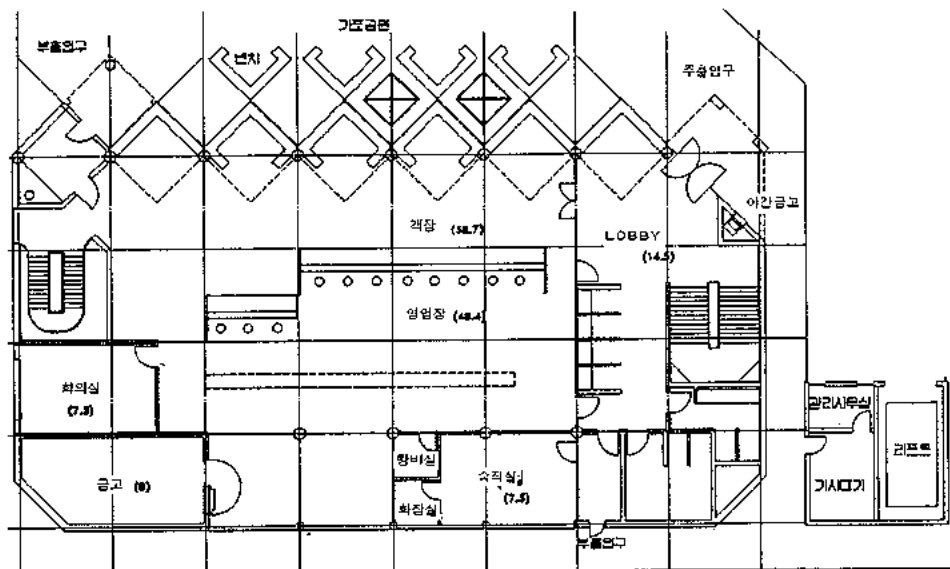
Metallic계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판



코너형 1층 평면도



코너형 입면도 (전면)



지점형 1층 평면도

■ 지점인의 특기사항

- 상담실: 여신 및 외환업무의 2층 영업장 부분에 상담실의 운영과 고객을 위한 코너를 설치
- 식당: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단내 천장을 통하여 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출납실: 금고부분의 후선에 위치하게하여 일정한 이상의 출납은 카보타 근무요원이 출납실로 경유하여 출납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
- 대여금고: 대고객 서비스 및 대여금고 이용 추세를 대비하여 지하층에 대여금고를 설치할 수 있게한다. 대여금고 주위에는 대기실 및 부스를 마련한다.
- 비즈니스서비스실: 여신 및 외환업무를 담당할 이층에 비즈니스서비스실로 운영하여 고객의 간단한 사무의 편의를 도모한다.
- 자동화 기계실: 아간금고 이외에 현금출납 등

자동화를 대여하여 동선이 복잡하지 않는 부분에 자동화 기계실을 설치한다.

- 임대사무실: 전시장으로도 사용가능 하도록 넓은 폭의 사무실 폭을 유지하며 각 사무실 및 영업장은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후로밍후로아 (ACCESS FLOOR) 로 계획한다.
- 영업장 북기변화 (영업장내 가변 FILE 및 특가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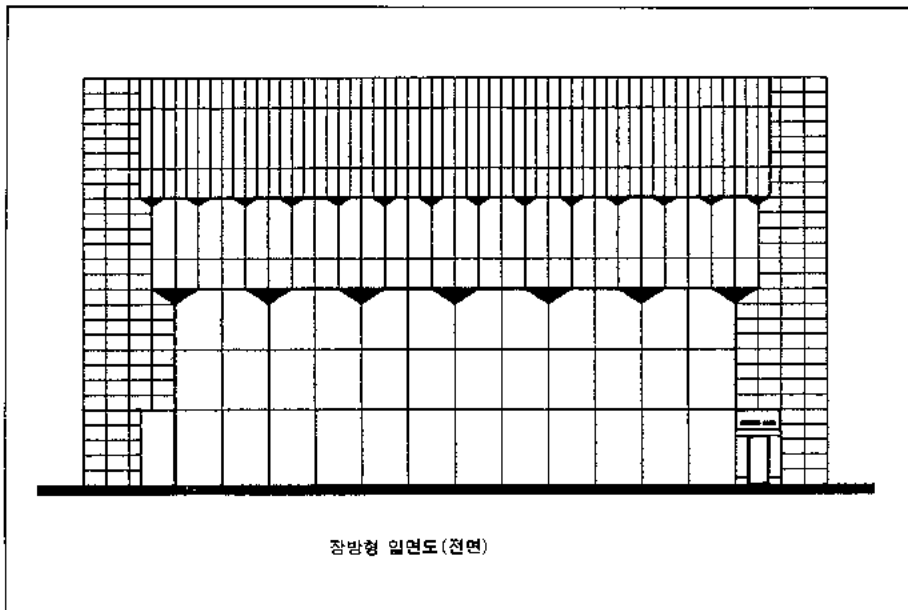
■ 각 부분별 지침의 분석

- 규모: 건물의 규모는 다음 사항들의 복합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지에 관계하여: 대지의 위치, 면적, 주위여건, 지역의 특수성, 대지의 경사도 등.
- 법규에 관계하여: 장소가 갖는 법규적특성 (지역, 지구, 높이제한, 건물용, 용적률 등).
- 건축주의 요구에 관계하여: 직원수 및 필요면적.

특수시설의 필요성, 종사여부, 특수기능의 확보 등. 그러나 본 과업의 지침에서는 규모결정을 위한 요소를 배제함에 따라 건축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디자인요소의 추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층의 규모, 건물의 폭과 깊이의 제한 및 층수의 종설가능성에 대하여는 내외부 디자인 요소로서 감안하여 계획한다.

- 기능: 주어진 지점으로부터 분석된 타은행지점과의 상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평면디자인 요소로서 활용토록 한다.

- 출납실의 위치: 기존의 타행과는 달리 카운터상에 위치하지 않으며 은행자체의 독특한 운영방침에 의하여 후선에 위치하여 금고인근에 설치된다.
- 금고및 서고의 위치: 기존의 타행 점포와는 달리 영업장 내에서는 출납하지 않는다.
- 지점장실: 후선에 위치하지 않으며 객강에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된다.



장방형 입면도(전면)

-전사실: 점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나 이 전사실은 전용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회합장소, 지역의 문화행사, 전사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만 이는 각각의 건물 설계에서 반영될 것으로 일반적인 평면의 디자인 요소로서의 채택은 곤란할 것이다.

-드라이브인뱅크: 점포의 규모 및 도심지외에 설치된 위치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일반적인 채택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동화 기계실: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자동화기계에 의한 입출금 업무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야간창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요소로 채택된다.

-고객대기실: 채장이외에 고객과 대기등을 위한 전용실을 계획할 수 있으나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재약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기본방향

같은 용도의 건물일지라도 대지의 조건, 위치, 제법규 등의 요인에 의하여 평면 및 입면 등 건물내용은 많은 변화를 당면히 갖는다. 그러한 다양한 변화중에서도 한기업내의 같은 용도의 건물은 공통의 통일요소를 갖고 타기업 동종의 건물과는 구별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특히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은행지점의 경우는 각 지점간에 공통으로 갖는 디자인 요소의 필요성이 지대하다. 그에따라 최소한의 디자인요소를 적용함으로써 공통점을 갖고

건물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 디자인 요소는 각각의 건물에 적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갖게 된다. 즉 디자인 요소들은 자원으로 활용되며, 부분적으로 제약을 하여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과업에서는 디자인요소중 외관의 독창적인 통일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 배치계획

• 주차장: 주차장은 고객사용 주차장과 직원사용주차장으로 대별될 것이며 고객사용주차장은 SHORT-TERM PARKING으로 가능한 전면 도로에서의 출입이 용이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직원사용 주차장은 후면에 위치하여 최대한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임대 사무실용의 주차장 기능도 함께 수용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 조경: 외부공간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켜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친근감을 갖게하기 위하여 건물전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건물계획에 따라 중정, 야드리움 등과 연결되는 녹지공간의 연출을 기한다.

• 외관: 제안되어야 할 외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각 점이 통일성을 갖게되어 은행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PR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건물의 높이 및 길이가 변화되어도 적용될 수 있는

패턴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외부 마감의 질은 현대적인 재료로서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색상이 자유로워야 한다.
-각종 시인류의 취부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외부 조형 처리에 있어 배치방법, 층수, 평면의 변화에 대비한 반복적인 패턴이 요구되며, 그 변화들에 대하여 순응되며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요소가 제안되어야 한다.

■ 디자인 요소의 제안

산정된 디자인 요소중 본 과업에서 제공될 디자인 요소는 외관요소에 한하며 그 외에 각 건물의 통일성을 위하여 팔히 제한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디자인 요소는 별도의 연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한되어야 할 디자인 요소

-외부 조경 요소: 바닥면, 화단, 담장, 국기계양대, 내문, 휴지통, 심플타워, 제설기 등.

-외부 식수 요소: 수종의 제한

-내부의 가 시설물: 카운터, 필경대, 잠자코이, 테이블, 소파, 의자, 안내관, 각종사인류 등

-각종 설비 시설물: 조명기구, 화장실 기구류 등.

-건축 시설물: 창호의 크기 및 금물, 경량칸막이의 재질, 각종 건축 마감 디테일

• 제안하는 외부 디자인 요소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부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외부의 디자인요소를 제안한다.

-평면 Module 제안

지하주차의 효율성(8M span에 3대 주차), 각 개실의 폭 (최소단위 사무실 폭 4M) 등을 감안하여 4M모듈의 제안

-단면 Module의 제안: 최소단위의 외부모듈을 65cm로 잡아 3.9m의 층고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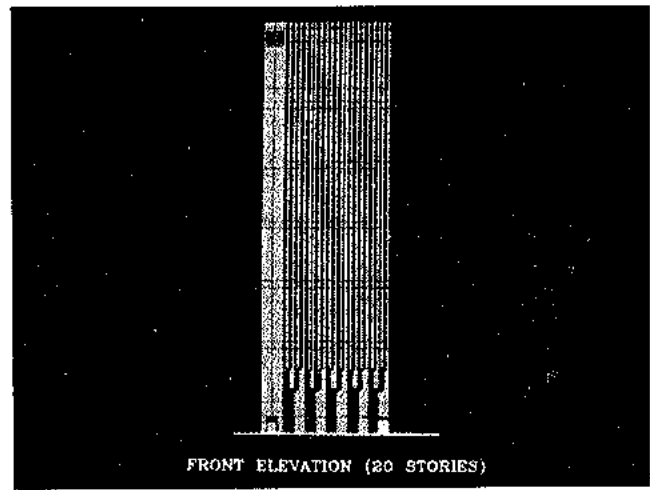
-평면 및 높이변화를 대비한 패턴의 제안

반복적이고 신축과 높이 변화가 가능한 패턴의 제안

-재료의 제안: 상호반사됨으로서 굴절되고 반사되는 입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사유리의 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감각의 재료로서 알루미늄트판의 사용을 제안

-외부 칼라의 제안: 4-side STRUCTURAL

CAULKING 사용으로 커튼월의 색상은 외부에서는 노출되지 않게하며 반사유리는 GREEN 계통의 것으로 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커튼 월의 바는 불소수지코팅의 알루미늄바로, 유리면이 아닌 벽면의 처리는 메탈계통의 불소수지로 처리한 알루미늄판을 제안



FRONT ELEVATION (20 STORIES)

1면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2면이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정방형	도로에 직각방향의 장방형	정방형	도로에 직각방향의 장방형

政治와 行政의 差異는?

建築公務員들과의 問題를 中心으로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선진

by Choi, Chang-Kyu

우린 얼마전에 13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그것은 누가 강요했거나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마치 컴퓨터가 계산이라도 해 놓은 것 같이 4등분을 했고, 어느 政黨 하나도 독주나 독선을 할 수 없고 부득이 他黨들과 타협이나 협조, 동의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귀신같이 국회의원 수가 분할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어떤 國運이 따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國運이 있는 나라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이때까지의 부조리나 비리는 고사하고 왜 우린 이런 사회, 이런 국가밖에 될 수 없느냐고 낙심이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라의 꼴을 보고 울분끝에 이민 가버린 사람들도 어느 때는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허나 운 좋게 大統領直選도 했고 국회의원선거도 끝나고 개원도 했고 대통령 취임도 100일이 지났다. '88올림픽만 잘 치루면 한숨을 돌릴 것은 분명하다. 무언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은 온근히 가지게 되었고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근자에 일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사건들은 — 학생들의 데모, 노사의 문제,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문제, 미국의 301조가 우리에게 주는 불쾌한 압력 등은 무엇인가 되어가는 도중의 필연적인 과정에서 겪어야 할 문제들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전 같으면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었는데 만성이 되었는지 또는 가장 큰 근본문제인 제6공화국의 출범이 상상외로 순조로웠고 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몸짓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심 기대해 보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그러나 무조건 다 잘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 國民對 公公務員과의 문제, 통일에 관한 문제, 對中國 등 대외문제를 비롯 가장 급하고 걱정되는 눈 앞에 닥은 올림픽의 성사에 대한 문제, 즉 만에 하나 어떤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기우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이 끝남과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명시되었고, 대통령이 6.29에 국민에게 공약을 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했고, 4개당이 다같이 합의를 보고 국민에게 약속한 일인데 왜 地自制를 걱정을 하느냐이다. 우리 建築士界로 눈을 돌린다면 건축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상의 여러 문제들보다도 대관청(시, 구, 동)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자. 地自制야 언제부터 한다한다 하면서 밀어온 일들인가. 결국, 관공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국가에 忠誠이나 공무에의 公正보다도 먼저 자신의 생활이나 처신을 생각하는 것을 이해는 한다. 허나 이런 언행들이 요즈음 우리 사회에 충일하고 있는 민주화란 물결과는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하기야 학교나 학계, 문교부나 또는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설이나 계몽을 국민에게 한 일이 있었는가? 국민들의 수준이 높으니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길가는 학생이나 군인이나 공무원, 시민을 잡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화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물어보라. 자신있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사람있겠는가? 아니 정부의 고관들이나 정치인들을 붙잡고 이 문제를 물어보라. 과연 민주주의란 이러이러한 것이기에 우린 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채택해서 헌법에 명기했고 민주화란 民官軍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일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일이라고 명확히 대답해 줄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을까는 몹시도 의문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도 전회원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천요령이나 지침 같은 것을 어느 분과위원회가 연구했거나 외부인사를 초청해다가 강연이나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가? 늘 교육을 한다, 무슨 무슨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다 민주화에 대한 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건축사협회의 말미에 있는 조항 때문에 부득이 교육을 한다면, 수첩을 가져가고서 교육필증을 받아가야한다는, 유치원생에게 보모가 하는 식의 일들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이 사회에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들의 할 일은 못되는 것이고, 더욱 외분을 느끼는 것은 각급관청의 建築職公務員들의 우리 建築士들에 대한 言行이다.

필자는 여기서 건축직 공무원들을 성토하겠거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들은 관료적인 독선이나 불친절이나 억압적이냐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처에서 우리 전건축사들이 위법을 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일이고 수많은 우리 회원중엔 각양의 사정이나 입지조건에 있는 회원도 있고 또는 건축사라고 해도 인간이므로 (도사들은 아니다) 실수나 태만에서 위법을 한 경우가 있어 처벌 (경중각중) 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허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회원끼리의 自衛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이글의 동기이고 우리 회원들의 민주화으로 가는 길이고 이 사회의 민주화으로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감히 글을 쓰는 것이다.

첫째, 이때까지 건축사협회가 창립된 이래 크고 작은 처벌을 받은 것들중에서 억울하다. 이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아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입장을 봐주어서 등등으로 묵인했고 감수한 예가 많은 회원에게 있었을 것이고 체했었고 보아 왔을 것이다. 필자도 창립당사부터의 회원으로 금일까지 작은 처벌하나 안 받고 용케도 잘 해왔다. 그런데 근자 공무원의 감정적 근자 처사라고 생각되는 (그간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처벌을 받았고 몇개월이 지나간 정리되고 준공되고 입주한 건까지 들추어서 監理不誠實 이란 제목으로 加重処罰이란 항을 적용해서 통고해 왔기에 곧 제심을 청구했지만 필자는 이 제심청구의 결과여하에 따라 市長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생각을 할 정도로 흥분해 있는 것이다. 필자 개인의 일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거나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은 질대로 아니고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세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본인과 같은 체험을 가진 회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되는, 이때까지 받았던 処罰의 件과 內容을 협회내의 어떤 분과위원회에, 적당한 분과위원회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빠짐없이 제출해서 그 분과위원회가 다시 정리해서 그 결과자료를 건설부, 법무부는 물론 각 기관에도 제공하고 해당 처벌결정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당해공무원의 해고나 처벌을 요구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회원도 많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회 전체가 민주화로 매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건축직 (고위도 말단도) 전부에 대한, 이때까지 건축사협회가 그들에게 당하고만 왔다는 양갓음이 아닌, 사회대세에 따른, 또는 건축사 이전에 국민으로서 전국민이 열화같이 민주화로 가고자 하는데 관리행정의 일각에서, 건축직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억울하게 받은 처벌로는 전과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도, 또는 그들이 우리 건축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자기들의 시녀나 병졸이나 “밥”으로 보는 근본적 태도를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회원체위에 이런 뜻을 개진하는 것이다. 불쾌할 정도의 그들의 (공무원) 言行이나 전형적인 관료생리. (타부처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사들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오직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직공무원에 국한해서 성토의 대상으로 한다) 이때까지 우린 공무원들에게 羊같이 순했던 것은 그 심정이 고와서만은 아니다. 그들은 서류나 글자 한자의 오자를 가지고도 물고 늘어지며 으시먼다.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입장에서 불만불평을 참고 부당한 처벌도 참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이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그들과 대항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안다. 아마도 크게는 공무원의 代父格인 총무처장관을 상대를 하든지 끝내는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사협회장 명의로 제출한다든가, 곧 실행될 서울시 의회대의원들이나 신문등을 통해서 사회에 공개할 필요나 시기가 올 것으로 안다.

◆ 崔昌奎

필자는 1917년 함경남도에서 출생, 동경 종아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1972년에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신진을 자영하고 있다.



故 宋寬植會員을 追慕하며

宿患으로 高麗病院에 입원중이시던 宋寬植 선생께서 7월 14일 새벽1시 永眠하셨다.
제3대 서울特別市支部長, 본협회 理事, 제2대 서울건축사복지회 회장, 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에 큰 공을 이루신 故 宋寬植 선생은 한가람건축사 사무소를 최근까지 운영해 오셨다.

학력 및 이력

성명 : 송관식 (3남3녀)
父 親 : 父 : 송순영의 차남
母 : 이금옥의 차녀
생년월일 : 1919년 12월 20일
출생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령리 245번지
1968. 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69. 8.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1965. 6. 25 건축시험회 입회
1967. 10. 28~1969. 12. 20 서울특별시지부 간사 역임
1969. 12. 20~1971. 11. 23 서울특별시지부 제3대 지부장 역임
1975. 10. 20~1972. 10. 28 본협회 이사 역임
1982. 11. 23~1984. 11. 23 서울건축사 복지회 회장 역임
1984. 2. 29~1985. 4. 2 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현재 한가람건축사사무소 자영

宋寬植 先生님 /

그간 病席에 계신줄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先生으로부터 訃音이 傳해 오리라라고는 想想도 못하였던 터라 너무도 뜻밖이어서 당황할 따름입니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建築士들의 權益과 福祉向上을 위해서라면 白壽도 모자르셔야 할 先生께서 한창이신 69세에 그만 일생의 막을 내리시다니, 그저 애석하고 痛歎스럽기만 합니다.

先生님과는 마지막이 될 이곳 永訣式場에는 평소 뜻을 같이 하시던 간지들과 先生님을 흠모하던 많은 後學들이 모여 嗚咽을 누르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先生께서는 天性이 근면하시고 志氣가 剛直하시어 勤儉節約의 표본이셨을 뿐 아니라 49세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다음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하셨으며, 특히 獨學으로 그 난해한 構造力學을 정복하여 그 方面의 一家見을 이룩만큼 놀라운 立志傳의 정열을 지니고 계서, 귀감이 되시고 尊敬의 對象이셨습니다.

또한 先生께서는 이미 60년대에 오늘의 永東一帶에 대한 경기전망을 豫見하시고 효과적인 투자로 성공하셨듯, 그 銳利한 慧眼으로 建築士界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심을 회상치 않을 수 없습니다. 第3代 서울支部長을 역임하실 사기를 전후 하여서는 우리 建築士의 內的인 親睦團結과 對外的인 신뢰도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유발할 구심체로서의 建築士會館의 필요성을 통감, 회관건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으로서 회관 건립을 최초로 추진하신 일은 우리의 후대에 이어 오래도록 기려야 할 가장 빛나는 功績중의 功績이라 할 것입니다. 회관건립을 위해 예산을 결감한다고 支部運營이 불편할 정도로 예산집행을 억제하셨던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일이며,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建築士會館을 지니게 된 것이 그와 같은 勤儉節約을 몸소 實踐하며 생활신조로 삼은 先生의 고매하신 人品의 德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先生께서는 서울 建築士福祉會 會長을 역임하실 시절, 建築士信用 協同組合의 틀을 짜 제도에 올려 놓으셨으므로 건축사복지 문제의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셨으니 先生께서 建築士界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는 이루 筆舌로 헤아리기가 어려움을 통감합니다.

先生님, 이렇듯 우리 建築士들을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先生을 우리 곁에서 잃게 되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픈 일이지만 人生은 반드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놓았다가 죽는 존재에 不過하니 그 宿命을 어찌 拒逆할 수 있었습니까!

하오나 우리의 마음과 가슴속에 새겨진 선생께 대한 감사의 熱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렇게 볼 때 先生의 육신은 비록 萬年 幽宅에서 잠드신다 할지라도 그 높으신 遺德만은 千秋가 지나도록 連綿히 살아계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그 遺德이 敎訓的 거울로서 이 나라 建築士界에 두고 두고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임을 確信하여 마지 않습니다.

宋寬植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머리숙여 삼가 冥福을 비읍니다.

1988. 7. 16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俞景哲



宋寬植兄! 兄은 진정 먼길을 떠나셨습니까.
저의 가슴은 터질듯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건축사원로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아름답게 지나자는 보람을 저버리시고 영영 떠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어제 같은데 어찌 홀로 그리 하셨습니까.
돌아켜보면 光復後부터 建築士會를 만 만들고 이끌어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골몰하시던 일이 또한 생생합니다. 앞일을 그리도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1965年 旧協會와 새로 생기는 新協會의 갈림길에서 원만한 지도력과 끈질긴 융화책을 써서 해결을 보았고 새 建築士協會가 이루어진 後로는 서울시 지부의 임원으로 어려운 일들을 손수 맡아 하시고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앞날을 위하여 盡力하신 결과가 오늘과 같은 영예로운 發展과 功績을 만든 기본이 되었다고 다시 새겨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의 서울지부장직을 훌륭하게 펴시고 오로지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를 위해서 고심초사 하였고 드디어는 서울시 지부회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서 크게 이루어 놓으신 높고 높은 공덕으로 이 자리의 회관이 이처럼 세워진 것이라 생각하면兄의 그 큰 뜻과 앞을 내다보는 투철한 창조적식이야말로 우리 모든 건축사의 은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건축사 동지들을 위하고 서울시 지 지부를 위하여 헌신하신兄의 功績이야말로 우리를 모두에게 크나큰 보람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건축사의 福祉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룩하자면兄의 뜻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복지회가 마련된 것도 오로지兄의 遠大하신 높은 뜻에서 비롯되었고, 더욱 복지회 회장직을 맡아 보시면서 오늘의 복지회 기틀을 탄탄하게 만드셨고

여러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마디의 불평없이 公平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헌신하시었습니다. 우리들의 장래를 내다 보시며 오로지 젊은 건축사의 앞날을 더욱 밝게 비쳐주자는 뜻일뿐 사심은 추호도 없노라고 하시던 그 말들이 새삼 되살아 나기도 합니다.
兄은 建築士로서 많은 設計業務에 專心하시고 平生을 그일로 마치시었으니 이 또한 훌륭한 人生이었다고 저는 追慕해 마지 아니 합니다. 꾸준한 創造의 探索, 福된 삶의 理想을 追求하면서 참된 韓國의 人生觀을, 設計하시는 建物마다에 심어 놓았기에 이 사회의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시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業績으로서도 우리들의 追仰이 될 만한 것입니다.
平生에 宋兄은 너그럽고 원만하시며 안으로는 즐거운 家長으로서 家庭에 充實하셨고 이웃이나 親知들에게도 多情하시며 남을 위하기를 좋아하시고 너그러운 감싸주는 品格은 이사회회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우리 建築士 모두의 龜監이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 元老建築士들이 뜻을 함께하면서兄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거친 일 곳은 일 가리지 아니하고 치워주셨으며, 어느 일 하나 소홀한 점이 없었습니다. 어찌 그랬이겠습니까. 어느곳, 언제라도 우리 서로를 염려해주셨고 아껴 주시면서 우리들 길을 떠날줄 몰라 하시었습니다. 이토록 저희들의 모임을 그리워하시던 나머지 불편한 몸을 던져 함께 만나주시던 일이 감격스러워 속으로 흐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던兄이 이제 떠나신다니 웬말입니까.
언젠가는 報償회 모임끝에 손수 모는 車에 同乘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張兄 이제 남은 歲月을 아름답게 가져 보시라. 多情하게 즐기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해」 하시면서 「그저 건강하기를 바라오」라는

말이 되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때의 포근한 정성과 너그럽고 아름다운 情景은 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人生이란 좋은 家庭과 團聚한 家族으로 福된 것이라 하여도 人生의 落照와 歲月의 허전함에 젖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心情에서는 多情한 親友와의 對話, 격의없는 만남의 香氣가 있어야 한다는兄의 哲學도 저의 삶을 복돋아주셨고 어지러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兄은 溫柔하면서도 무언가 이루고저 하는 決斷은 열기 같이 뜨겁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건축사協會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協會의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는 일을 해보려고 하듯듯이兄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찬성하시면서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勸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報償회원의 뜻으로 古建築模型을 製作하여 건축사협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이 일들도 宋兄이 남기신 발자취며 빛일 것입니다.
우리 건축사 모두는 宋兄의 빛나는 業績과 고마운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또한兄의 발자취는 우리들의 영원한 불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 떠나신다니 다시 머리숙여 두손 모아 고이 고이 잠드시기를 빕니다.

1988. 7. 16

건축사 보람회

張 起 仁

제 2 회 지부장회의 및 건축사연금운영위원회 개최

6월 18일 (화) 오후 2시부터 부산직할시지부 회의실에서 제2회 지부장 회의, 건축사연금 운영위원회 등이 개최되었다.

제 2 회 支部長會議

安箕泰 회장 주재하에 상근부회장 이사, 감사, 14시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報告事項

본협회의 88년도 주요업무중 상반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2. 協議事項

실적회비 환불여부에 관한 사항
협의: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협의

3. 支部別建議事項

表在範 (충청북도지부장)

- 협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보 요망

金仁模 (전라남도지부장)

- 理事會에서 다루어진 안전의 결과를 支部에 통보 요망

趙貞鎬 (강원도지부장)

- 감리비 50% (교육위원회 등)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건의
- 공무원 특별전형제 폐지 건의
- 전임 사무국장 퇴직금문제 해결 노력 건의

康祐植 (충청남도지부장)

- 지부장회의 연 4 회 개최의 현 제도를 2개월 1회 (연 6회) 개최로 조정 건의

朴永憲 (광주직할시지부장)

- 사무국장 퇴직금을 통합예산까지는 본부에서, 독립예산부터의 기간은 지부에서 각각 지급되도록 건의

- 보조원 5인 이하인 경우에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

嚴柱浩 (전라북도지부장)

- 보조원들의 연합노조결성과 관련 본회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대책 강구 건의
- 전주에 직할분소 설치 건의

鄭煥鎬 (부산직할시지부장)

- 행정편의 위주의 건축사법 및 건축관계 법령의 개선작업 추진을 건의

金永吉 (경상북도지부장)

- 공무원 특별전형제도 폐지 건의
- 건축사시험시행권 협회 인수 건의
- 건축사 오리엔테이션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

張基雄 (대구직할시지부장)

-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개정 또는 폐지 건의
- 근린생활시설 허가처리기간 7일에 대한 단축 건의
- 준공검사시 첨부서류에 의한 부조리적결 요망
- 건설기술관리법의 폐지 건의
- 전면책임감리제 등의 건축사법에의 삽입 건의

康祐植 (충청남도지부장)

- 건축직공무원의 직제가 행정직과 건축직으로 개선되기를 건의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본협회 임원과 각시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

제 1 호 : 연금배당증서교부에 관한 건,

제 2 호 : 퇴직연금지급에 관한 건,

제 3 호 : 건축사연금제도 및 규정개정연구 용역에 대한 건등 3안건을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호 : 연금배당증서교부에 관한 건
〈협의〉 건축사연금제도 및 규정개정 (안) 을 다음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그때까지 증서 교부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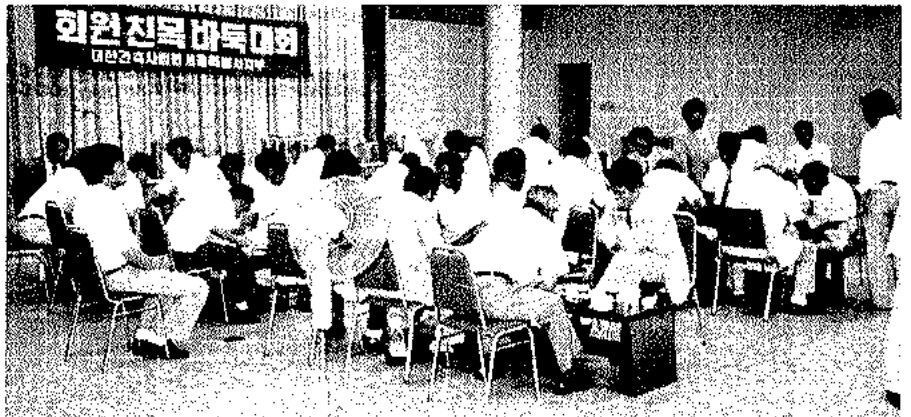
제 2 호 : 퇴직연금지급에 관한 건
〈협의〉 건축사연금제도 및 규정개정 (안) 을 다음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그때까지 퇴직연금 지급보류

제 3 호 : 건축사연금제도 및 규정개정연구 용역에 관한 건

〈협의〉 건축사연금제도 및 규정을 개정키 위해 용역을 주어 총회전까지 (안) 을 작성, 제출키로 협의



▲ 제 2 회 지부장회의 및 건축사 연금운영위원회



▲ 회원친목 바둑대회 (서울지부)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 회원친목 골프대회

7월 8일 본협회 회관 1층에서 회원친목 바둑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분소대항 (단체전)

우 승 : 영등포분소

준우승 : 노원분소

3 등 : 강남분소

1조 (1-2 급)

• 개인전

1조 (1-2 급)

우 승 : 권영세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익, 아진)

준우승 : 여운택 회원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3 등 : 김명준 회원 (태경건축사사무소)

2조 (3-4 급)

우 승 : 김철홍 회원

(조흥청백종합건축사사무소)

준우승 : 금동욱 회원 (태광건축사사무소)

3 등 : 이은용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3조 (5-8 급)

우 승 : 김봉훈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신신)

준우승 : 김학신 회원 (")

3 등 : 황인무 회원 (한림건축사사무소)

• 회원친목 골프대회

6월 24일 골드 컨트리클럽에서 회원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 승 : 김영수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국)

준우승 : 안장원 회원

(건축사사무소신아건축)

메달리스트 : 이종완 회원

(건울건축사사무소)

3 등 : 홍정길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미건사)

4 등 : 나은택 회원 (세원건축사사무소)

5 등 : 최병찬 회원

(주·한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니어리스트 : 우남용 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가나·세종)

통계스트 : 이종만 회원 (녹야건축사사무소)

버 디 : 허주열 회원

(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영수회원이 골프대회 우승자로 상패를 수상하였다. (서울지부)



▲ 張基雄 지부장과 김수호 건설국장이 친선 꽃다발을 교환하였다. (대구지부)

파 : 이용학회원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 파 : 김영창 회원 (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소 파 : 민정진 회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행 운 : 허 각 회원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심의위원을 비롯 회원 1백25명, 대구시 건축직 공무원 2백명, 직원외 기타 20명등 3백50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張基雄)

• 친선체육대회 개최

6월 11일 (토) 시민운동장 소경기장에서 建築士와 大邱市 건축직 공무원과의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배구, 배구족구, 줄다리기, 4백m 계주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날 대회에는 본협회 金基壽 상근부회장, 김수호 대구시 건설국장, 김영창 건축과장, 정경운 대구시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 농촌일손돕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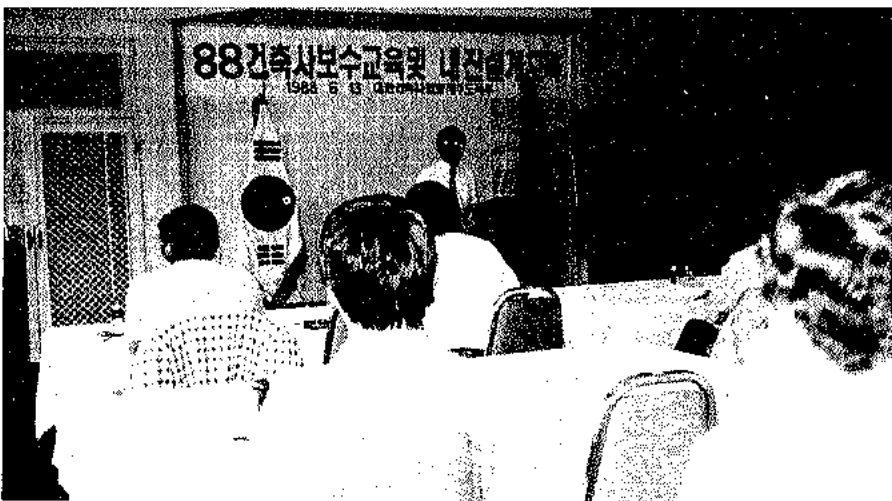
6월 14일 건축사 회원 5명과 사무소 직원 41명 등 46명이 승주군 승주읍 신학리에서 농촌일손돕기 보리베기를 하였다. 특히 이날 건축사사무소 동도건축과 김인모 건축사사무소의 임선봉씨가 열성적인 노력 봉사로 지부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 농촌일손돕기 보리베기 (전남지부)



▲ 골프대회개회 인사말을 하는金正洙지부장 (경남지부)



▲ 실시이래 처음으로 제주지역 회원을 위해 제주도에서 실시된 건축사 보수교육

慶尚南道支部

(지부장 金正洙)

• 건축사친선골프대회

6월15일 창원 칸트리클럽에서
支部主管으로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직할지부에서 18명, 대구직할지부에서
12명, 경북지부에서 8명, 경남지부에서
16명 등 54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경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이상익 (부산지부)
메달리스트/ 양정부 (부산지부)
2위/ 이종태 (경남지부)
3위/ 정환호 (부산지부)
행운상/ 박영대 (경남지부)
통계스트/ 박문용 (경남지부)
니어리스트/ 이대일 (대구지부)
버디/ 도성기 (경북지부)
파/ 최윤경 (부산지부)
보기/ 박문룡 (대구지부)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 건축사보수교육 유치 - 실시

6월13일 파라다이스 제주호텔에서 건축사
보수교육 실시이래 처음으로 濟州道
支部가 教育을 제주도로 유치 실시하였다.
李宗煥 理事와 건설부 관계관을 비롯
당초 예정되었던 강사 전원이 출강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특히 내진교육 강의를
듣고자 하는 관내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대기
쇄도하여 진지하게
실시되었다.

지부 회원들은 본지부가 교육실시
장소를 제주도로 유치함으로써 교육받기
위해 출장을 떠나는 불편을 덜어준데 대해
지부측에 찬사를 보냈다.

建築界消息

제3회 에너지절약기술 워크 샵 개최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는 대전에 있는 리베라 호텔(유성)에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제3회 에너지절약 기술 워크 샵을 개최한다.

이 워크샵은 산업체와 학계 및 연구소의 에너지절약 전문가들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과 그 응용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문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다.

• 주제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응용 사례분야(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전기부문)

• 論文提出要領

논문요약문 제출...A4용지 1장 정도
(자기소개서 포함)
1988. 7. 30까지

논문제출...1988. 9. 24까지(체택시)

논문분량...2백자용 원고지 50장 내의
(추후 원고지 양식 배포함)

• 參考事項

본 워크샵의 발표논문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논문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채택된 논문은 워크샵 개최시 반드시 발표하여야 함.

채택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 問議 및 連絡

(302-343) 충남 대전시 서구장동 71-2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절약분석실
전화: (042) 861-9729(직통) 9700(314)

大韓民國建築大展 作品公募

韓國建築家協會(회장金正徹)에서는 제7회 大韓民國建築大展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作品을 공모하고 있다.

1. 展示內容 및 出品期間

구 분	전시기간	원서교부	작품접수기간	접수시간
초 대 전	지상전	-	-	-
일반공모전	88. 11. 21-11. 29	88. 6. 10-7. 10	1988. 11. 17	9:00-18:00

- 원서교부처: 韓國建築家協會 事務局

- 작품접수처: 韓國文化藝術振興院 美術會館

(주소: 종로구 동숭동 1-131 전화: 762-5231)

2. 전시장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3. 출품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민

•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構造·室內디자인 造景·
家具等 建築 都市設計에 관련되는
작품을 포함)이어야 하며,
동일작품에 대하여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4. 출품규격 및 요령: 판넬 가로 150cm×
세로 240cm 이내로서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도시할 것(단, 모형은
1988년에 한하여 장소 관계로 입선작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고 작품규격이
초과되는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심사결과발표: 1988년 11월 19일 예정

6. 시 상: (일반공모전에 한함)

- 대 상: 1 점

- 우수상: 3 점 (한국건축가협회회장상,
대한건축학회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회장상 각 1점)

- 특 선: 약간명

- 입 선:

* 대상수상자는 해외연수 특전으로
일금 3백만원 보조

7. 시상일자: 1988년 11월 26일 16:00

8. 작품반출기간:

- 입선되지 않은 작품은 심사결과발표후
1일 이내(1988년 11월 20일오전까지)

- 전시작품은 전시종료후 1일 이내
(1988년 11월 30일)

- 단, 지방전시시에는 지방전시종료후
1일 이내

* 장소사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는 작품은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본협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출품원서대: ₩ 30,000

10. 기타 상세한 것은 韓國建築家協會
事務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44-8050

異空, 주택상담실 운영

이공건축(대표류춘수)이 지난 7월 7일
건설회관 상설전시장 1층에 주택상담실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의 기본이 되는 주택설계,
시공, 조경, 인테리어 등 주거분야에 관한
일반인의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주거환경분야는 일반인의 관심이 특히
많은 분야로서 경제적이고 살기편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설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불어 홍보할 계획이다.
(상담실 전화 543-2902~3)



▲ 異空建築 주택상담실 開所式

違法建築物 團束強化에 따른 建築關係官會議

건설부는 6월21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건축관계관을 소집한 가운데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에 따른 건축관계회의를 개최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李宗樺 이사(法制委員會委員長)가 동회의에 참석,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설부의 향후 대책을 들었다. 회의에 앞서 崔同燮 장관의 훈시가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와 기술수준의 발전노력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물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주택보급을 확대에 적극 노력 함으로써 5년내에 2백만호의 주택건설 실천.
3. 질 높은 건축행정의 유도과, 제도개선을 통한 불합리점 개선으로 건축행정의 합리화 강구.
4. 특히 위법건축물은 국가기강확립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응징하되 양대 선거를 틈탄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경계 위법조치하고 나환자촌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 밖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할 것.
5. 건축행정의 간존비리 척결을 위해 건축행정기관 내부에 부정·비리가 있는지 반성하고 건축행정 종사자(약5천명)의 단합으로 부정·비리를 방지하며, 연간 약11만동이라는 많은 건축허가건수에 대해 능률적으로 행정을 유도할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달된 위법건축물 단속지침은 다음과 같다.

違法建築物 團束指針

시달: 시도지사
근거: 건축30420-9513(88. 5. 20)

1. 目的

근래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일반의 준법정신 해이 및 행정당국의 단속소홀의 결과, 증가 추세에 있는 無許可建築物 및 違法建築物과 無斷用途變更을 근절하여 불법행위가 제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건축행정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2. 基本方向

- 가. 기시달공문 건축455-15018('83. 7. 20)과 건축 455-23296('83. 12. 1) 및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나. 無許可 및 違法施工建築物은 적발즉시 철거 후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철거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철저히 징수하고, 철거한다.
 - 다. 無斷用途變更은 적발즉시 시정지시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원상복구 조치토록한다.
 - 라.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의 원인 행위자인 建築主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처벌하고 아울러 본 지침시행에 따른 단속을 소홀한 關係公務員은 엄중문책한다.
 - 마. 위법건축물의 발생후 고발 및 철거등은 사후단속을 지양하고 주민제도 활동강화로 事前豫防에 역점을 둔다.
 - 바. 시장·군수는 본지침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와 인원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음성 나환자 定着村의 경우에는 기지시한 건축 30420-9288('88. 5. 18)의 지침에 따른다(자발적 철거 촉구하여 시정조치).

3. 團束對象

'82. 1. 1 이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 가. 無許可 建築物
 -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
- 나. 違法施工 建築物
 - 건축선 위반
 - 용도지역, 지구의 건축제한 위반
 -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 위반
 - 대지안의 공지, 도로등의 위반
 - 기타 기준 및 관계법령 등 위반
- 다. 無斷用途變更 建築物
 - 건축법 제 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4. 細部推進計劃

- 가. 團束體系의 再確立
 - 1) 적발자: 동장, 읍, 면장, 파출소장
 - 2) 재발방지 및 철거책임: 시장, 군수(구청장), 경찰서장
 - 3) 확인, 감독책임: 시·도지사
- 나. 團束班의 編成運營 強化
 - 1) 중앙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구성: 건설부, 내무부 관계자
 - 점검회수 증가: 년 1회 → 반기 1회
 - 2) 시·도 합동 단속반의 편성 운영
 - 합동 단속반 체계 확립
 - 단속반원별 담당구역제 실시
 - 지역지도자(이, 통장)와 단속반원 합동단속
 - 3) 시·군 확인 점검반 편성운영
 - 위반 건축행위 점검 기본지침(건축 455-15018호, '83. 7. 20)에 의한 시·도·군의 상설점검 단속반에 의한.
 - 인원보강 및 전담요원 정예화
 - 점검결과 보고: 분기말
- 다. 特別 實態調査 實施
 - 1) 시장 군수 자체조사 실시
 - 조사기간: '88. 5. 20-6. 15
 - 조사내용:
 -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 조사대상:
 -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전수조사
 - 무단용도변경
 - 대상: 특별시, 직할시: 660m² 이상
 - 기 타 : 330m² 이상
 - 내용: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등(주차장 포함)
 - 결과보고: '88. 6. 10-6. 20
 - 2) 중앙부처 합동점검
 - 조사기간: '88. 6. 27-7. 5 (기 완료)
 - 조사기관: 건설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 조사내용: 1차 현지조사 결과 및

▲ 建築關係官會議 참석자

- 건설부: 서병기 주택국장, 이필원 건축과장
- 서울특별시: 김창배 건축지도과장, 양갑 주택개발과장
- 부산직할시: 김성일 건축과장
- 대구직할시: 김영창 건축과장
- 인천직할시: 송영길 건축과장
- 광주직할시: 이춘식 건축과장
- 경기도: 황규경 주택과장
- 강원도: 방중구 주택과장
- 충청북도: 신현수 주택과장
- 충청남도: 김현두
- 전라북도: 양규장
- 전라남도: 조항원
- 경상북도: 배성렬
- 경상남도: 이종범
- 제주도: 김학욱
- 대한건축사협회: 이종엽 이사

조치내용 확인

* 참고: 부진한 시 관련자는 문책 예정

3)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 원상복구지시 및 고발조치
- 기간: '88. 6. 16 - 6. 30
- 무허가건축물등 철거
- 기간: '88. 7 이후

라. 對國民 啓導 및 弘報強化 (시장, 군수)

- T.V. 신문 등 언론매체 이용('88. 5)
- 반상회 활용('88. 6)
- 건축사 교육('88. 5. 16 - 6. 16)
- * 시장, 군수는 주민제도 지침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마. 團東方法의 效率性 提高

- 1) 항공사진 촬영 및 관독지역 확대
 - 특별시, 직할시: 기설시(미설시한 시장은 즉시 실시)
 - 인구 30만 이상의 시: '89. 부터 실시
 - 인구 10만 이상의 시: '90. 부터 실시
- 2) 단속장비 보강(차량, 오토바이등)
- 3) 단속기구 보강
 - 단속기구(조직, 인원) 보강: 시급이상 → 건축과 설치토록 직제개정

바. 기타

- 1) 건축사협회의 지도기능 활용
 - 건축상담실 설치운영(각지부에 설치)
 - 건축사 정신교육 실시(위법건축물 발생방지)

5. 摘發 및 團東要領

가. 摘發方法

- 1) 반원별 책임구역제 실시
- 2) 순찰강화(자전거, 오토바이, 순찰차 활용): 종전 주 1회 → 주 2회
- 3) 항공사진 촬영 및 관독: 분기 1회 이상

나. 撤去 및 告發方法

- 1)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은 적발즉시 사적당국에 고발
- 2) 직발즉시 철거(가급적 자진철거 촉구) 원칙

○ 시공중인 건축물: 무계고철거

(건축법 제 53조의 3 활용 계고철거 생략)

○ 완공된 건축물: 계고후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 3조에 의한 계고)

1) 상습 무허가건축 및 위법건축과 무단용도변경 행위자 명단 작성비치 (對外秘)

2) 범법자 법정최고형 구형토록 요청
○ 무허가 건축물

6. 違反者等 關係者의 處罰方法

가. 단속대만으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관계공무원 엄중문책
나. 범법자 제재강화

7. 기타 行政事項

각 시, 도는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재발방지를 위해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행.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벌

대 상	적 용 법 규	벌 칙 내 용
건 축 주	건축법 제 54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시공 건축물의 벌칙

대 상	적 용 법 규	벌 칙 내 용
건 축 주	건축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 56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설 계 자	건축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 56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 리 자	건축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 56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법 제 28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시 공 자	건축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 56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법 제 52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건설업법 제 59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내용(최고액 부과)

대 상	적 용 법 규	벌 칙 내 용
건 축 사	건축법 제 56조의 2 제 1항	- 面積違反 위반면적 × 지방세법에 의한 단위 면적당 과세시가 표준액(금액이하)
	건축법 제 56조의 2 제 2항	- 기타위반 위반내용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100분의 1 (금액이하)

7월부터 달라지는 法令・制度

1. 西海岸 開發推進委員會 발족

- 시기 : 7월
-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관계국무위원, 전문가 등 20인 이내.
- 기능 : 서해안개발계획수립・조정, 투자 우선 순위 결정

감정원(담보물감정) 건설부
(기준지가)로 4등분 되어 있는
지가체계 일원화.

5. 建設技術管理制度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시기 : 9월초
- 내용 : ① 신기술개발자에게 개발비용의 5%이내의 기술 사용료 징수
② 시공감리 실시 의무화
(3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2. 골프장 建設許可 節次 簡素化

- 시기 : 7월 중순
- 내용 : 도시계획구역내설치 건설부장관
도시계획구역외설치 승인→ 시도
지사에게 위임
-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3. 韓國水資源公社 발족

- 시기 : 6. 27
- 내용 :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한국수자원
공사로 발족개편 되면서 다목적댐
건설・용수관리 업무만 관장하고,
공업단지 조성, 신도시건설 기능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이관.

4. 地價公示에 관한 法律制定

- 시기 : 9월 정기국회 상정 89년부터 시행
- 내용 : 내무부(課標) 국세청(기준지가)

6. 住宅建設促進法 시행령 개정

- 시기 : 6. 16
- 내용 : ① 주택건설등록업체에 시공권 부여
②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불량주택 재건축 허용

7. 共同住宅 管理令 개정

- 시기 : 11월초 시행 : 89년초
- 내용 : 공동주택에 관리사 채용 의무화

8. 聯立住宅 建築基準 強化

- 시기 : 6. 18

- 내용 : ① 대지의 경사도 15도 이하지역
② 산사태・지반붕괴 등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등
- ※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녹지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만 건축가능.

9. 오피스텔 建築基準 強化

- 시기 : 6. 18
- 내용 : ① 각 사무실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70% 이상 확보
②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금지
③ 각 사무실 욕실 설치 금지

10. 建設工事 都給限度額 책정

- 시기 : 7. 1
- 내용 : 각 건설업체별 공사 도급한도액
책정

11. 平和의 댐 建設 汎國民 推進委員會 해산

- 시기 : 6월 30일
- 모금현황 : 총액 717억원
기사용 517억원
잔액 146억원
- ※ 잔액은 건설부가 관리 공사비로 충당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

地價公示에 관한 法律案 立法豫告

○ 정부는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등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평가기준과 평가자격을 규정하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민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88.6.8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배경

- 정부의 각부처별로 조사·평가하던 지가체제로 인하여
- 동일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지가가 평가기관별로 상이하여 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었고,
- 다원화된 지가체제로 조세제도·개발이익환수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것임.
- 특히 과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시가보다 크게 낮고 지역별·지목간에도 불균형하여 왔음.
- 따라서 정부는 이와같이 다원화된 지가를 건설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아울러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2원화되었던 자격제도도 부동산평가사로 일원화하고자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법의 제정으로 조세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토지제도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또한 과거 2원화된 체제하에서 전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부동산평가업계도 새로운 공신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추진경위

- 지가체계 일원화는 과거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이후, 정부부처 및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하였으나,
-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등을 통한 관계부처간의 꾸준한 협의등으로 지가체계와 자격제도에 관한 일원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이와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은 지가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근 거 법	용 도	평 가 자
• 기준지가 (건설부)	국토이용관리법	수용보상평가기준	토지평가사
• 과세시가표준액 (내무부)	지 방 세 법	재산세등 부과기준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시·군 공무원
• 기준시가 (국세청)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등 부과기준	세 무 공 무 원
• 토지감정시가 (재무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기준	한 국 감 정 원

▲ 정부의 地價體系

주요내용

-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 건설부장관이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표준지)를 선정후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고,
- 공시지가의 객관성·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공시할 계획임.
- 공시지가의 효력은
- 국민의 토지거래시에 지표가 되고,
- 부동산평가업자등 전문평가인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세의 부과, 수용보상 등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한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제도는
-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포함한 「부동산평가사」자격을 부여하며,
- 토지등을 평가하는 부동산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부동산평가업자로 등록하거나 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지가고시와 토지평가사 관련조항은 삭제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나, 이미 공인감정사나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새로운 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부동산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동산평가준칙」을 건설부장관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시지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

- 공시지가에 관한 조사·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지역 여건과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150만필지의 표준지 선정작업을 88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한편,
- 표준지와 과세대상토지등 각각의 개별토지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평가사 등으로 연구작업단을 구성하여 88.4연구사업에 착수하여 88.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음.
- 이와같은 작업이 완료되고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89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평가과세와 수용보상등이 이루어져 토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임.

◎ 현행 地價體系의 예 (단위: 원/㎡, 평)

- 서울시 강남구 명일동 344-1(단)의 경우
기준지가(86. 2. 20) : 1,697(100. 0)
과세표준액(87. 1. 1) : 309(18. 2)
기준시가(87. 1. 1) : 1,110(65. 4)
감정시가(87. 1. 1) : 1,697(100. 0)
- 대전시 서구 갈마동 208-3(田)의 경우
기준지가 : 648(100. 0)
과세표준액 : 32(4. 9)
기준시가 : 263(40. 6)
감정시가 : 897(138. 7)

地價公示에 관한 法律案

제 1 장 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적용방법과 토지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토지등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지등의 평가를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지가의 효력)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에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제3조(토지등의 평가) 토지등의 평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가 아닌자는 토지등을 평가할 수 없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건물 등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토지는 이들 정착물 또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한다.
4. “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동산평가업자”라 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부동산평가사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 2 장 地價의 調査·評價 및 公示

제5조(지가의 공시) ①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는 2인이상의 부동산평가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과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건설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토지와 유사한 유용성을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사항) 건설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공시지가의 열람등) 건설부장관은 지가를 공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개하고, 이를 조제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심판) ①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재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10조(토지거래의 지표) 토지를 거래하는 자는 거래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지표로 하여 거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토지의 평가) ① 부동산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표준지 이외의 토지(이하 “개별토지”라 한다.)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개별토지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목적에 위한 토지평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목적별로 이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지방세의 부과를 위한 지가의 산정
2.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시의 보상액 산정
3. 국·공유재산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산정
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지의 매수가격 또는 동법 제21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가격의 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 비교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 부동산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부동산평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락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의 출입을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평가업무수행의 협조) ① 부동산평가사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항에 우선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평가위원회) ① 지가의 공시 기타 이 법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관리지침

3.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의 심의·조정

4. 공시지가에 관한 행정심회의 심의

5. 부동산평가사·부동산평가업자의 자격 및 부동산평가준칙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기관에의 자문)

① 건설부장관은 지가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不動産評價士・不動産評價業

제17조(직무) 부동산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8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년의 국민은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부동산평가사 제1차·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부동산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부동산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4년제대학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부동산평가론을 교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② 전항의 제1차시험·제2차시험과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격사유)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외국부동산평가사) ① 외국의 부동산평가사자격을 가진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부동산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평가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사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부동산평가업자의

업무) ① 부동산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2. 제12조제1항 각호에 정한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평가

3.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관리 또는 처분할 토지등의 평가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

5.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평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등의 평가

6. 기타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

② 건설부장관은 공시지가의 공정·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부동산평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라 부동산평가업자의 업무지역 또는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소 개설등록) ① 부동산평가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부동산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평가사협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부동산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부동산평가사는 2이상의 부동산평가사 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기타 부동산평가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합동사무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평가법인) ① 부동산평가사는 제21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상의 부동산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의 취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은 그 사원이외의 자로 하여금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이 있는자를 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⑤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주식회사인 평가법인) ①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상의 부동산평가사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은 주식회사인 평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인 평가법인이 토지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주식회사인 평가법인의 설립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관변경등의 인가) 평가법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 또는 해산
3. 본점·지점의 설치·이전·폐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공공기관등의 평가의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 토지등의 매입·매각 또는 재평가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토지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재평가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준칙) 토지등의 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평가서) ① 부동산평가업자가 평가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평가업자의 사무소 명칭을 기재하고, 평가를 행한

부동산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평가업자는 평가서의 원본과 그 부대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29조(사무소의 명칭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부동산평가사사무소” 또는 “부동산평가사합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그 명칭중에 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평가사·부동산평가사사무소·부동산평가사합동사무소·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사실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부동산평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등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성실의무등) ① 부동산평가업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등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은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부동산평가업자는 상업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평가법인을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⑤ 부동산평가업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부동산평가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부동산평가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자격의 취소) ① 건설부장관은 부동산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4조(업무의 정지등) ① 건설부장관은 부동산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등록 요건(법인의 경우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지역 또는 범위를 넘어 부동산평가업을 수행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4. 토지등의 평가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6. 제3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부동산평가사협회 회칙을 위반하여 부동산평가사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사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평가사에게도 그 자격의 취소등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건설부장관이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등록·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부동산평가사 또는 부동산평가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평가사 또는 부동산평가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부동산평가사협회) ① 부동산평가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부동산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부동산평가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 협회에 회장1인을 두되 협회가 선출하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업무위탁) 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과 실무수습의 관리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업자의 지도·감독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등) 건설부장관은 부동산평가업자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罰則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허위로 평가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지역 또는 범위를 넘어 부동산평가업을 수행한 자

2.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증 또는 부동산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한 자

4. 제23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2조제4항·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를 한 자

제42조(시행령 등)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附則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이 법 시행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토지평가사 면허·공인감정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토지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평가법인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하는 법인설립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 [당해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 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지가변동율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매물가상승율·지가변동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하고,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1조의2제2호 내지 제5호,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삭제하고,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④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⑤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6조제1항중 삭제되는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삭제되는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입법추진계획

○ '88.5 : 입안

○ '88.6~7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 '88.8 : 경제정관회의, 법제처 심의

○ '88.9 : 국무회의 의결, 국회이송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랜 경험 및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구조물 안전도 검토상 문제가 되었던 실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내부결합 및 철근 배근상태 그리고 기타 구조 해석상 필요한 제반 자료를 첨단 장비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하여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업 무 내 용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검사

- 조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 장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철근 탐사

- 철근위치 및 방향
-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직경

콘크리트 비파괴결합 탐사

- 균열심도
- 열화심도
- 화상심도
- 동상심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계측 (STRAIN GAGE 계측)

- 균열폭 변위
- 구조물 기울기 변위
- 침하변위

정밀 진동시험

- 바닥진동
- 지반진동

대상 건물

- 신축건물
- 증축예정건물
- 화재·동해건물
- 용도변경건물
- 부실 시공건물

한국콘크리트 비파괴검사 K C N 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1 은성빌딩 503호
PHONE: (02) 922-8994, 대구 (053) 93-0188